

中國學

CHINESE STUDIES

第 47 輯

大韓中國學會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2014. 4. 30

< 大韓中國學會 >

고 문 : 성과 스님 조남규 여사
명예회장 : 이근효(경성대 명예교수)
회 장 : 하영삼(경성대)
부 회 장 : 강경구(동의대) 김동하(부산외대) 임수암(경남정보대) 진광호(부산외대)
감 사 : 이재하(경성대) 이철리(경남대)
연구윤리위원장 : 김용운(동아대)
연구윤리위원 : 김영기(동서대) 김은경(경성대) 김홍수(영산대) 박종연(인제대)
서석홍(부경대) 이정표(부산대)
총무이사 : 진현(경성대)
학술이사 : 김태만(총괄, 해양대) 강내영(영화, 경성대) 강진하(역사, 경북대) 고혜
련(역사·문화, 부산대) 김미정(현대문학, 경북대) 성근제(현대문학, 서울시립대)
이흥규(정치·경제, 동서대) 정윤철(어학, 부산외대) 홍상훈(고전문학, 인제대)
편집위원장 : 김창경(부경대)
편집이사 : 서울: 김명구(명지대, 고전) 이정남(고려대, 사회과학); 부산·경상: 강경
구(동의대, 현대) 김태만(해양대, 현대); 충청: 이규일(영동대, 고전); 경기·인천:
장호득(단국대, 어학); 전라: 오만중(전남대, 고전); 제주: 정지형(제주발전연구
원, 사회과학); 국외: 왕평(화동사대·부산대, 어학)
기획이사 : 원동욱(동아대) 이종민(경성대)
홍보이사 : 임형석(경성대)
평가이사 : 김현태(경남대)
국제/대의협력이사 : 박민웅(서경대) 이영희(동의대)
출판이사 : 김정필(경상대) 이장휘(경성대)
정보이사 : 오창화(경성대)
운영이사 : 고영근(부산외대) 박복선(경성대, 중국통상) 구모룡(한국해양대) 김소현
(동아대) 김진영(부산외대) 김형근(신라대) 김혜준(부산대) 이화범(경성대, 중어
중문) 문혜리(동의과학대) 박삼수(울산대) 박용래(부산경상대) 박종연(인제대) 박
추현(경상대) 방영인(경남정보대) 손성문(경남과기대) 신석찬(부산여대) 신지연
(영산대) 왕옥지(동명대) 유신일(고신대) 유종근(진주보건대) 이길연(창신대) 이
영희(동의대) 이재승(경남대) 이치한(창원대) 정주연(동서대) 진현(경성대, 중국
어통번역) 최진식(부산정보대) 한중호(동주대) 황호선(부경대)

<성명 가나다순>

연락처 : 진현(총무) 051-663-4363, 010-8570-1171 jinhyunkr@ks.ac.kr

[題字] : 성과스님(通道寺 瑞雲庵 住持)

中國學

第47輯

2014年 4月

目 次

진광호·古漢語 訓詁上 反訓 現狀	1
이수진·중국어 사동과 피동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21
- ‘叫/讓’구문을 중심으로 -	
张幼冬·路线介词“顺着”与“沿着”辨析	45
안성재·갈등해결의 수사학 관점으로 바라보는 《도덕경》	63
정태업·朱淑眞詞에 보이는 사랑과 고독	91
남덕현·문학적 형상화 이전 시대의 關羽형상	121
이경미·韓·中·日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자살(自殺)	149
곽수경·상하이와 홍콩의 도시성격과 할리우드 수용	181
- 장아이링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	
박재형·중국 주선을 영화의 블록버스터화 분석	203
- 상업화와 국가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	
예동근·중국소수민족의 미래는 미국식모델로 가는가?	227
- 베이징 조선족공동체 사례연구 -	
원경선·근대 중국 화북 한족의 ‘만주(滿洲)’ 이동과 동북지방 노동자 구성	251
- 1930년대 전반 대련(大連) 및 그 배후지를 중심으로 -	
贺莹·金昌庆·中韩日广电行业国际竞争力比较分析及对策研究	275
- 以一般化双重钻石模型为中心 -	

김성자·이중희·중국 베이징시 교통·통신비의 소비구조변화.....	299
함정식·조강필·고명걸·조혜진·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내부역량과 전략 적합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325
김상욱·김상희·중국 홍콩 H주식의 기업가치평가모형의 검증.....	363
이장휘·범엽(范曄)의 <옥중에서 여러 조카들에게 보내는 편지 (獄中與諸甥侄書)>역주.....	389

■ 부록

심사규칙 및 학문윤리위원회 규정(외).....	421
---------------------------	-----

CHINESE STUDIES

Volume 47

Apr.2014

- A study of Fanxun words / *Jin, Kwang-Ho* 1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Causative and Passive in
Mandarin Chinese / *Lee, Su-Jin* 21
- The Semantic and Pragmatic Differences between ‘*Shunzhe*(順著)’
and ‘*Yanzhe*(沿著)’ / *Zhang, You-Dong* 45
- The *Tao The Ching* on the Scope of conflict resolution rhetoric
/ *Ahn, Sung-Jae* 63
- The love and loneliness in *ZhuShuZhen*(朱淑真)’s Poetry(詞)
/ *Jung, Tae-Up* 91
- A Study on the *GuanYu* image before literary imagination
/ *Nam, Duk-Hyun* 121
- ‘Woman’s suicide’ in Ancient East Asian Literature
/ *Lee, Kyung-Mi* 149
- The city’s character of Shanghai and Hongkong and accept of
Hollywood – about the scenarios of Zhang Ailing
/ *Kwak, Su-Kyoung* 181
- A Study on Tendencies of Chinese Leitmotif Films of
Blockbusters-Including National Ideology and Commercial
Potential / *Park, Jae-Hyung* 203

Will the American Model Be the Future of Ethnic Minority in China? : A Case Study of Korean Chinese Community in Beijing / Rui, Dong-Gen	227
The Migration of Chinese People from Huabei to Manchuria during Modern Times: With a focus on Dalian and its hinterland in the former half of the 1930s / Kwon, Kyung-Seon	251
Comparative analysis and Countermeasure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Broadcast Content Industry in China, South Korea and Japan – base on the generalized double diamond model / He, Ying · Kim, Chang-Gyeong	275
The Change in the Structure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Consumption in Beijing / Kim, Sung-Ja · Lee, Jung-Hee	299
The Effects of Internal Competence and Strategic Suitability of Korean Corporations in China on their Performances / Ham, Jeong-Sik · Cho, Kang-Pil · Gao, Ming-Jie · Cho Hye-Jin	325
Testing of the Firm Valuation Model on China Hongkong H Stock / Kim, Sang-Wook · Jin, Yu-Ji	363
A Selected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FanYe(范擘) write a letter to several nephew> / Lee, Jang-Hui	389

■ Appendix

Editorial Rules of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 Rule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421
--	-----

古漢語 訓詁上 反訓 現狀

진광호*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反訓 現狀
 - II-1. 反訓의 由來
 - II-2. 反訓의 成因과 類型
 - II-2-1. 내부적 成因과 類型
 - II-2-2. 외부적 成因과 類型
- III. 나가는 말

I. 序 言

고대의 문장을 읽다보면 訓詁上 특이한 의미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보인다. 하나의 詞가 서로 반대되거나 상반 대립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문장에서 사용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論語·泰伯篇》에 “舜有五臣, 而天下治. 武王曰: 予有亂臣十人.”(순임금에게는 다섯 명의 신하가 있어 천하가 다스려졌다. 무왕이 이르기를 나에게서 난신이 열 명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에서 亂은 통상적인 의미인 ‘어지럽다’로는 불통한다. 이에서 亂臣은 治臣의 의미로 亂은 ‘治’의 의미이다. 그러나 《孟子·滕文公下》에서는 “孔子成春秋, 而亂臣賊子懼.”(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시자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들과 부모를 저버리는 자식들이 두려워하였다.)라 하였다. 이에서 亂臣은 治臣의 의미가 아니라 나라를 어지

*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시아대학 중국학부 교수

립히는 신하를 뜻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동일한 문자 형식을 가진 詞가 상반되거나 상대적인 두 개의 의미항을 가지고 사용되는 현상을 훈고학에서는 ‘反訓’이라 하고, 이러한 詞를 ‘反訓詞’라고 부른다. ‘反訓詞’는 두 개의 사가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는 ‘反義詞’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중국 대륙과 대만에서는 일찍이 이에 대한 관심을 두고 연구가 있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反訓’의 훈고학적 현상에 착안하여 反訓의 由來를 살펴보고, 그 발생 원인을 추적해내며, 발생 원인에 의한 反訓의 유형을 예시를 통해 분석·정리해 봄으로써 반훈 현상을 이해시키고, 국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II. 反訓 現狀

II-1. 反訓의 由來

毛遠明은 “以反義相訓爲反訓”¹⁾이라 하였다. 反訓의 명칭은 ‘反義相訓’의 준말로 이 명칭은 《助字辨略》에서 최초로 쓰였다고 한다.²⁾ 反訓의 표면상의 개념은 하나의 사가 상반된 개념을 갖고 훈고에 쓰이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두 개의 사가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는 反義詞와는 구별된다.

반훈 현상에 대해 최초로 주의를 기우린 사람은 東晉의 郭璞이라고 한다. 《爾雅·釋詁下》 “治、肆、古, 故也。肆、故, 今也.”에 대해 郭璞은 注에서 “肆旣爲故, 又爲今, 今亦爲故, 故亦爲今, 此義相反而兼通者.”(肆를 故라고 하고는 또 今이라 하였다. 今 또한 故라고 하고는 故 또한 今이라 하였다. 이는 의미가 상반되면서 같이 통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肆가 故이고 肆와 故가 또 今의 뜻이라면 肆는 故와 今의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또《爾雅·釋詁下》“徂、在, 存也.”의 注에 “以徂爲存, 猶以亂爲治,

1) 毛遠明, 《訓詁學新編》, 巴蜀書社, 204쪽.

2) 劉淇, 《助字辨略序》: “訓釋之例凡六, 曰正訓, 曰反訓, 曰通訓, 曰借訓, 曰互訓, 曰轉訓.” 葉鍵得, 《古漢語字義反訓探微》, 臺灣 學生書局, 8쪽 재인용.

以曩爲鼻, 以故爲今, 此皆詁訓義有反覆旁通, 美惡不嫌同名。”(徂를 存이라 한 것은 亂을 治라 한 것, 曩을 鼻이라 한 것, 故를 今이라 한 것과 같다. 이는 모두 훈고의에 반복적으로 통하고 美惡이 분명 同名이라는 말이다.)라 하였다. 그는 《方言》에서 또 반복 언급하였다. 《方言》卷二 “遲、苦、了、快也.”의 注에 “苦爲快者, 猶以臭爲香, 治爲亂, 徂爲存, 此訓義之反覆用之, 是也.”(苦를 快라 한 것은 臭를 香이라 하고, 治를 亂이라 하고, 徂를 存이라 한 것과 같다. 이 훈고의는 반복 사용된 것으로 이들의 예이다.)고 하여 한사에서 상반된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였다. 王引之³⁾를 비롯한 후세의 학자들이 駁박의 예에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하였지만, 상반된 의미의 반복적이 사용에 주의를 기울였고, 훈고학에서 반훈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駁박이 비록 직접적으로 ‘반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반훈에 대한 세인의 주의를 분명 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I-2. 反訓의 成因과 類型

대만과 중국의 학자 중 일부는 반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학자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반훈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反訓의 成因과 유형별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시각차이가 있어 異見을 보이고 있다.

제일 먼저 반훈의 유형을 나눈 것은 1937년 《燕京學報》에 발표된 董璠의 《反訓纂例》라고 한다. 그는 반훈자를 귀납·정리하여 成因에 따라 총 10류⁴⁾로 나누었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 학자들이 나름의 기준으로 많게는 40류⁵⁾, 적게는 2류⁶⁾로 다양한 분류를 하였다. 이들 상당

3) “治、肆、古, 故也. 治讀若始. 始、古爲久故之故, 肆爲語詞之故. 肆、故, 今也, 則皆爲語詞. 郭謂今與故義相反而兼通, 非也.” 王引之의 《經義述聞》 卷二十六.

4) 一曰同字同聲反訓, 二曰同字異讀反訓, 三曰從聲反訓, 四曰變形反訓, 五曰表德反訓, 六曰彰用反訓, 七曰省語反訓, 八曰增字反訓, 九曰諛諱反訓, 十曰疊詞反訓.

5) 張舜徽, <字義反訓集證>, 《舊學輯存·中》.

6) 毛遠明, 《訓詁學新編》, 巴蜀書社, 207~209쪽 참조.

수는 반훈의 예를 귀납하여 유형별로 나누는 표층적인 분류를 한 것이다. 그러나 반훈은 成因과 유형 사이에는 밀접한 因果관계가 있으므로 成因을 통해 類型을 나눌 수가 있고, 類型을 통하면 그 成因을 알 수가 있으므로 다층적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반훈을 의미의 발전·변화적 측면과 의미의 활용적 측면의 두 가지로 成因을 나누어 보고, 그 안에서 의미가 어떠한 형태로 발전·변화하였고 활용되었는가에 따라 내부의 유형 분류를 해보고자 한다.

이에 근접한 분류 방식을 택한 사람은 徐朝華로 그의 주장이 참고할 만하다. 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다시 세분하였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我認爲反訓的產生， 首先是由於詞義本身的特點及其發展變化。 其次， 同音假借也是重要原因。”⁷⁾

(내 생각에는 반훈의 발생은 우선적으로 사의 자체의 특징과 그 발전·변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다음은 동음가차 또한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본다.)

이를 풀이하면, 반훈 발생의 주원인은 사 자체가 갖고 있는 詞義적 특징과 그 사의가 발전·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내부적 요인이 하나이며, 또 하나는 가차나 통가와 같이 사의의 활용에 의해 생기는 외부적 요인의 의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기준으로 하부적 분류를 하였다. 상당히 타당한 분석이라 생각된다. 본고는 우선 반훈 현상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크게 둘로 나누고자 한다. 내부적 요인은 본의가 분화된 것과 사의가 인신되면서 반훈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누며, 그리고 이들을 다시 의미적 측면에서 세분해 보고자 한다. 외부적 요인은 본의와 통가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II-2-1. 내부적 成因과 類型

7) 徐朝華, <反訓成因初探>, 《南開學報》, 1981년 2기, 41쪽.

1) 본의 분화 反訓

어떤 사는 사 자체의 의미적 성격이 총체적, 포괄적, 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사용 과정에서 의미가 正反이나 상대적 의미로 분화되어 반훈 현상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受는 자형상의 의미로 보면 물건을 주고받는 모습이다. 이에서 다시 ‘주다’는 의미와 ‘받다’는 의미로 독립 분화되어 반훈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子는 원래 남녀 성별의 구분 없이 嬰兒를 나타내는 문자이나 후에 분화되어 남자도 여자도 다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유형을 의미의 유형별로 세분하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다.

① 美惡同詞 (褒貶同詞)

어떤 사는 자체적으로 좋은 면(褒意) 과 나쁜 면(貶意)의 두 가지 상반된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좋고 나쁨이란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주관적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 美와 惡, 褒와 貶을 한 詞에서 동시에 갖는 ‘美惡同詞’를 형성할 수가 있다. 이를 때로는 ‘褒貶同詞’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면,

仇 : 仇는 ‘짝’이나 친구의 총체적 의미이다. 《爾雅·釋詁》에 “仇, 合也. 匹也.”라 하였다. 친구란 관계에 따라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詩經·觀雎》의 “君子好仇。”⁸⁾에서처럼 좋은 친구라는 의미의 ‘友’가 되지만, 《左傳·桓公二年》 “嘉耦曰妃, 怨耦曰仇.”(좋은 친구를 妃라하고 나쁜 친구를 仇라 한다.)에서처럼 나쁜 방향으로는 ‘원수’의 뜻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仇는 좋은 친구의 友의 의미와 報仇처럼 怨讐의 의미로 美惡同詞의 양면성을 가지고

8) 《毛詩》에는 “君子好逑”라 되어 있다.

있다. 그러므로 反訓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臭 : 臭는 從自(비, 鼻의 初文)從犬으로 구성된 문자로 ‘개의 코’를 뜻한다. 개 코는 후각이 뛰어나므로 ‘냄새의 총칭’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廣韻·宥部》에 “臭, 凡氣之總名.”이라 하였다. 후에 의미가 분화되어 ‘향기’와 ‘악취’라는 상반된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周易·繫辭》에 “其臭如蘭.”(그 향이 난과 같다.)에서 臭는 향기의 뜻으로 쓰였고, 《左傳·僖公四年》“十年尚猶有臭.”(십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냄새가 남아 있다.)에서의 臭는 악취의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臭는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라는 상대적 의미를 다 갖게 되었다.

祥 : 祥은 원래 徵兆의 총칭이다. 《禮記·中庸》 “必有禎祥.”의 <疏>에 “以吉凶先見者皆曰祥.”(길과 흉을 먼저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祥이라 한다.)이라 하였다. 《說文·示部》에 “祥, 福也.”라 하였고, 《段注》에는 “凡統言則災亦謂之祥.”(무릇 통합적으로 말해 災 또한 祥이라 한다.)이라 하여 祥은 복과 재앙의 뜻으로 다 쓰인다고 하였다. 《禮記·檀弓》 “孔子既祥.”의 注에는 “祥, 亦凶事.”라 하였다. 따라서 祥은 길흉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다 갖고 있으므로 美惡同詞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氛 : 《說文》 氛자의 《段注》에 “謂吉凶先見之氣.”라 하여 길흉을 예견하는 기운의 총칭이라 하였다. 분화되어 길한 기운과 불길한 기운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갖게 되었다. 《說文·氣部》에는 “氛, 祥氣也.”라 하였으나, 《左傳·昭公十五年》에 “吾見赤黑之祲, 非祭祥也, 喪氛也.”(내가 적흑색의 요망한 기를 보았는데, 祭의 상서로움이 아니라 나쁜 기운인 것 같다.)라 하였고, <注>에 “氛, 惡氣也.”라 하였다.

廁 : 《說文·戶部》에 “廁, 清也.”라 하였다. 廁은 변소를 뜻한다. 변소는 더러운 곳이지만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므로 ‘清’이라고 풀이 하였다. 《段注》에 “或曰溷言溷濁也, 或曰清. 言至穢之處, 宜常修治使潔清也.”(혹은 섞어서 혼탁하다고 하기도 하며, 혹은 깨끗하다라고도 한다. 지극히 더러운 곳이므로 마땅히 항상 닦고 다듬어서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廁은 清과 濁의 의미를

모두 갖는, 즉 더러운 곳이지만 깨끗해야 하는 곳이라는 관념에서 美惡同詞의 반훈사가 되었다.

② 施受同詞

어떤 사의는 행위의 통합적인 개념이 施事와 受事의 관계로 분화되면서 상호 대립적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사의가 발전·변화 과정에서 처한 위치가 施事者와 受事者, 혹은 使動과 被動의 상반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동사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賈 : 《說文·貝部》에 “賈, 市也.”라 하여 물건을 사고파는 통합적 행위나 그를 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후에 의미가 분화되어 시사와 수사의 관계로 발전하여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로 나뉘어 쓰이게 되었다. 《漢書·敘傳上》에 “呂行詐以賈國.”(여행이 속여서 나라를 팔아먹다.)에서는 ‘팔다’는 의미로, 《左傳·成公二年》에 “欲勇者賈余餘勇.”(용감하고자 하는 자는 나의 남은 용기를 사라.)에서 賈는 ‘사다’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賈는 사고파는, 즉 시사와 수사의 의미를 갖는 반훈사라 할 수 있다.

借 : 借는 假의 의미로 ‘빌다’는 통합적인 의미이다. 이 역시 후에 시사의 ‘빌려주다’와 수사의 ‘빌려오다’는 의미로 분화되어 상반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 한어에서는 이 시사와 수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뒤에 방향보어를 가해 借出과 借入(進)의 구별을 하고 있다.

食 : 食은 음식을 먹는 행위를 나타내는 문자이다. 시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먹다’이고, 수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먹이다’는 의미가 된다. 후에 ‘먹이다’는 수사적 의미는 사역 동사화 되어 독음이 ‘식’에서 ‘사’로 변해 ‘먹일 飼(飪)’라는 다른 문자로 발전하게 되었다.

伐 : 伐은 ‘從人從戈’의 문자로 창으로 사람의 머리를 베는 행위를 나타낸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베는 행동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배임을 당하는 것이므로 배는 행위의 통합적 의미였었다. 후에 시사와 수사의 관계로 분화된 것이다. 《公羊傳·莊公二十八年》에 “春秋 伐者爲客, 伐者爲主.”(춘추에 남을 정벌하는 자는 객이 되고, 정벌을 당하는 자는 주인이 된다.)에서 앞의 伐은 伐人(남을 정벌하다.)이며, 뒤의 伐은 見伐로 정벌을 당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위의 문장에서 伐은 施受의 반훈 관계로 쓰였다.

貢 : 貢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나타낸다. 《說文·貝部》에 : “貢, 獻也.”라 하였고, 《周禮·天官·大宰》에 “五曰賦貢以馭其用.”(다섯 번째는 세를 받침으로서 그 물자를 제어함이다.)에서 <釋文>에 “下之所納於上者.”(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치는 것.)라 하였지만, 《爾雅·釋詁》에서는 “貢, 賜也.”라고도 하였다. 賜는 下賜의 뜻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로 보면 貢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시사와 수사의 관계가 되어 물건을 주고받는 의미를 다 갖고 있다.

學 : 學은 흔히 ‘배울’ 學이라 한다. 수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배우는 것이지만 시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르치는 것이므로 ‘가르치다’는 의미도 갖는다. 고대 유목사회에서 은신처를 짓는 일은 필수 기능이었으므로 이 문자는 부모(어른)가 자식(子)에게 집짓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식은 이를 배우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廣雅·釋詁四》에 “學, 敎也.”라 하였고, 《禮記·學記》에 “學學半”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敎學相長의 의미로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절반이다’라는 말이다. 이에서 ‘가르치다’는 의미의 學은 음이 ‘효’라 읽히게 되었으며, 후에 敎(효)라는 문자를 새로 만들게 되었다. 이 역시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시사관계에 의한 반훈사라 할 수 있다.

③ 相對同詞

어떤 사의는 시간과 공간, 정도, 상태 등에 있어 상대성의 분명한 구분이 없이 통합적 의미를 갖는다. 이 의미의 모호성이 시간이나 공간,

길이의 장단, 다소, 다소, 경중, 원근 등의 상대적인 의미로 나뉘면서 상대적 반훈 현상을 일으킨다. 이 개념 자체가 절대적 의미가 아닌 상대적 경계의 모호성이 반훈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美惡과 施受同詞와는 의미의 성격상 구별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曩 : 曩은 과거의 시간을 길이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나타낸다. 이에 분화되어 오랜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주 짧은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기도 한다.《說文·日部》에 “曩, 曩也.”라 하였고, 《爾雅·釋詁》에 “曩, 久也.”라 하였다. 郝懿行 <疏>에 “爾雅以曩爲久, 說文以曩爲不久, 其義兩通.”(이아에서는 曩을 久라 하였고, 설문에서는 曩을 不久라 하였다. 그 뜻이 둘 다 통한다.)이라 하였다. 이로 보면 曩은 과거 시간의 길고 짧음에 모두 쓰인다 할 수 있다. 이는 시간의 길고 짧음은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이다.

瀆 : 《說文·水部》에 “溝, 溝也.”라 하였다. 溝는 도랑의 뜻으로 작은 물줄기를 말한다. 그러나 《爾雅·釋水》에 “瀆, 江河淮濟爲四瀆.”이라 하였고, 《釋名·釋水》에 “瀆, 各獨出其所而入海也.”라 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큰물이라 하였다. 따라서 瀆은 큰물과 작은 물이라는 뜻을 다 갖고 있다. 작다 의미는 더 작은 것에 비해 클 수 있고 더 큰 것에 비해 작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 개념에 의한 반훈 현상이라 할 수 있다.

徑 : 《說文·彳部》에 “徑, 步道也.”라 하여 사람이나 소 말이 다닐 수 있는 작은 길이라 하였다. 徑의 성부 𣥂은 벼들의 세로로 된 날줄을 뜻하며, 지금 쓰는 經자의 初文이다. 날줄은 팽팽하게 당겨진 끈은 줄이므로 徑자는 바로 ‘끈은 길’, ‘지름길’을 뜻한다. 이에서 지름길을 捷徑이라 한다. 끈다는 개념 역시 정도의 차이에 따라 상대적 개념이므로 구부러지다 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禮記·曲禮上》의 “送喪佛由徑.”(상을 나갈 때에는 굽은 길을 거치지 아니한다.)에서 <釋文>에 “徑, 邪路也.”라 하여 ‘굽은 길’이라 풀이하였으므로 반훈의 예가 될 수 있

다.

胖 : 《說文·半部》에 “胖, 半體也. 一曰廣肉.”이라 하여 《說文》도 “一曰廣肉.”이라 하여 반훈을 암시하고 있다. 半體란 제사에 쓰기 위해 고기를 편으로 썬 것을 말한다. 《段注》에 “胖之言, 片也. 析肉意也.”라 하였다. 혹은 뼈에 붙은 얇은 살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기를 얇게 썬다 해도 두껍게 썰어지는 것도 있으므로 얇다와 두껍다는 상대적 개념의 차이이다. 그래서 胖은 ‘두껍다’, ‘크다’, ‘살찌다’는 의미로도 쓰이게 되었다. 현대 중국어에서 뚱보를 胖子라 부르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昧 : 《說文·日部》에 “昧, 昧爽, 且明也. 從日, 未聲. 一曰闇也.”⁹⁾라 하였다. 昧爽은 먼동이 트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昧는 새벽에 해가 점차 밝아오는 시점의 경계를 말한다. 이에서 昧는 의미가 분화되어 ‘밝아오다’, ‘밝다’와 ‘어둡다’는 상반된 의미를 갖게 되었다. 《說文》에 “一曰闇也.”의 闇은 곧 暗의 의미로 《說文》도 반훈을 인정하고 있다.

2) 引伸 反訓

앞에 언급한 본의가 분화되어 생긴 반훈은 본의 자체가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후에 正反이나 상대적 의미로 분화되어 반훈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이와 달리 인신 반훈은 본의가 의미의 확대나 축소, 轉移¹⁰⁾ 등에 의해 변화·발전하는 인신과정을 거치면서 반훈 현상이 일어난 것을 말한다.

亂字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亂은 원래 양손으로 실타래의 실을 푸는 모습으로 “治絲”가 본의이다. 실을 풀다가 잘못되면 헝클어져 풀 수 없게 되므로 이에서 ‘어지럽다’는 뜻으로 발전한 것이다. 즉 “治而不治即

9) 《段注本》을 참고하였다. 《大徐本》에는 “昧, 且明也. 從日, 未聲. 一曰闇也.”라 되어 있다.

10) 王力은 詞義의 인신을 ‘擴大’, ‘縮小’, ‘轉移’의 세 종류로 나누었다. 《古漢語綱要》 257~258쪽 참조.

亂也.”인 것이다. ‘실을 풀다’라는 본의에서 인신되어 일반적으로 ‘풀다’, ‘다스리다’는 의미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형클어지다’, ‘어지러워지다’, ‘어지럽다’는 의미로 전이된 것이다. 즉 행위의 시작(治)이 행위의 과정상 정반대의 결과(亂)가 되어 수평적으로 변화·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止 : 止자는 고문자에 의하면 발을 나타내는 문자이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사회에서는 발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발에서 동사적 의미로 인신되어 ‘오고 가다’, ‘걸다’는 의미로 쓰였다. 오고가다가 힘들면 다시 멈추게 되므로 이에서 ‘멈추다’는 상대적 의미로 전이 되게 되었다. 현재 止는 주로 ‘멈추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고문자에서 止는 ‘걸다’는 의미로 쓰였다. 실제로 止가 상하로 겹쳐진 步자는 ‘걸다’는 뜻이며, 止를 형부로 갖는 여러 문자가 ‘오가다’는 뜻을 나타낸다. 《詩經·魯頌·泮水》“魯侯戾止.”(노후가 오시었네.)의 <毛傳>에도 “止. 至也.”라 하였고, 《戰國策·齊策》“孟嘗君乃止.”의 注에 “止猶還也.”라 하여 ‘오가다’는 뜻으로 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止의 ‘가다’는 의미는 之자로 쓰고 있다.

等 : 《說文·竹部》에 “等, 齊簡也.”라 하였다. 이는 죽간을 나란히 겹쳐놓은 지금의 서책과 같은 것이다. 이에서 의미가 확대되어 일반적으로 ‘나란한 것’을 칭하게 되었고, 또 ‘나란하다’, ‘동일하다’, ‘동등하다’라는 뜻으로 확대 인신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것 사이에도 또 세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서 다시 인신되어 ‘차이가 생기다’, ‘差等’의 의미도 갖게 되었다. 《禮記·樂記》“然後立之學等.”(연후에 배움의 차이를 세운다.)의 <注>에 “等, 差也.”라 하였다. 이와 같이 等은 ‘같다’와 ‘다르다’의 상대적 개념으로 쓰였으므로 반훈 현상으로 볼 수 있다.

頗 : 《說文·頁部》에 “頗, 頭偏也.”라 하여 ‘고개가 치우치다’는 뜻이다. 이에서 일반적으로 ‘기울다’는 뜻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다시 기울임의 정도에 따라 ‘자못’, ‘매우’, ‘몹시’ 등과 같이 정도가 강함을 나타내기도 하며, 또 ‘조금’, ‘약간’ 등처럼 적고 약함을 나타내기도 한

다. 《廣雅·釋詁三》에 “頗, 少也.”라 하였으나, 지금은 ‘頗多’, ‘頗有’와 같이 정도의 심함에도 자주 쓰고 있다. 이는 반훈에서의 상대성 원리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置 : 《說文·网部》에 “置, 赦也. 從网直.”이라 하였다. 置가 “從网直”인 것으로 보아 원래 사냥이나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끈게 펴서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에 인신되어 어떤 목적을 위해 사물을 설치하고 놓아두는 것을 광범위하게 의미하게 되었다. 이 ‘설치하다’, ‘놓아두다’는 의미에서 전이되어 목적 밖의 의미인 ‘버려지다’, ‘버려두다’, ‘방치하다’는 대립된 개념으로도 발전하게 되어 반훈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面 : 《說文·面部》에 “面, 顔前也.”라 하여 ‘얼굴’이라 풀이 하였다. 얼굴은 마주보는 것이므로 동사화 되어 ‘마주하다’,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으로 인신되었다. 그러나 얼굴을 피해 돌리면 등지게 되므로 다시 인신되어 ‘등지다’, ‘피하다’는 뜻도 갖게 되었다. 《段注》에 “引伸之爲相鄉之僞, 又引伸之爲相背之僞.”이라 하여 ‘相鄉(向)’에서 ‘相背’로 인신되었다고 하면서 반훈을 인정하고 있다. 《漢書·項籍傳》의 “馬童面之.”(마동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었다.)에서 《顏師古注》에 “面, 謂背之不面向也.”라 하여 등지고 마주보지 않는다고 하여 반훈이 되고 있음을 말하였다.

II-2-2. 외부적 成因과 類型

앞에 언급한 내부적 요인은 詞 내부 자체의 변화와 발전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반훈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반해 외부적 요인은 詞의 활용 과정에서 어떤 詞가 음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문자로 통가되어 쓰이면서 외부 의미에 의해 반훈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가 반훈이라 한다. 일부 학자들은 가차 반훈이라고도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가차는 無本字의 가차를, 통가는 有本字의 가차로 구분된다. 따라서 반훈 현상에서는 대부분이 유본자의 통가의 경우에서 나타나므로 통가 반훈이라 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할 것이다.

통가에 의한 반훈 현상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학자도 있다. 그 이유는 하나의 詞에서 詞義 간에 서로 연관성(相因)을 가지고 상반되게 발전·변화하는 것만을 반훈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毛遠明은 “一個詞有反向二義，相反而相因。”¹¹⁾과 “詞義的反向引伸。”¹²⁾이라 하여, 이 두 가지 유형만을 반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詞義 자체의 분화와 인신에 의한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만을 반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趙克勤도 ‘詞義의 引伸’, ‘詞義의 分化’, ‘詞 자체의 方向性’¹³⁾의 세 가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훈의 의미를 너무 편협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한 개의 詞는 본의(기본의)와 인신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분자의 가차에 의한 가차의, 통가에 의한 통가의 등 여러 유형의 의미를 가지고 詞義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 활동 결과에 의해 반훈 현상도 생기게 된 것이다. 통가에 의한 반훈 현상 역시 詞義의 활동 결과에 의해 발행된 것이므로 반훈 현상의 다양한 유형 중의 하나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반훈의 여러 예를 추적·조사해보면 통가에 의한 반훈 현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반훈 연구의 주목적은 반훈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고전을 정확히 해독하고, 의미하고 잘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반훈의 조건보다는 그 현상에 무게를 두는 것이 옳을 듯하다.

통가 반훈

통가에 의한 반훈의 현상에 대해 徐朝華는 두 개의 유형이 있다고 하였는데 매우 타당한 분석이라 생각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毛遠明, 《訓詁學新編》, 巴蜀書社, 207쪽.

12) 같은 책, 208쪽.

13) 趙克勤, 《古代漢語詞彙學》, 商務印書館, 199~200쪽 참조.

1. 어떤 사는 본의 혹은 기본의가 가차의와 동시에 존재하면서 의미가 상반되어 반훈이 생긴다.

2. 어떤 사에는 두 개의 상반된 가차의가 있어 반훈을 일으킨다.¹⁴⁾

고 하였다. 즉, 1은 한 詞 자체의 본의나 인신의와 통가되어 들어온 통가의 간에 반훈 현상이 생긴 것을 말하며, 2는 한 詞에 통가되어 들어온 2개 이상의 통가의 간에 발생하는 반훈 현상을 말한다. 이 두 현상에 근거하여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체의와 통가의 간의 반훈

匡：匡은 筐의 初文으로 대나무를 엮어 만든 네모난 광주리를 뜻한다. 이에서 ‘네모나다’, ‘바르다’는 뜻을 갖는다. 《廣雅·釋言》에 “匡, 正也.”라 하였고 지금도 匡正이란 말을 쓰고 있다. 그러나 《國語·越語下》 “月盈而匡.”(달이 차면 기운다.)의 <注>에 “匡, 虧也.”라 하였다. ‘바르다’는 뜻과 ‘이지러지다’는 상반된 의미이다.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에서 “匡, 假借爲枉, 越語月盈而匡. 注, 虧也.”라 하여 匡의 ‘虧’의 의미는 枉에서 통가된 것이라 하였다. 《說文·木部》에 “枉, 衰曲也.”라 하였다. 衰는 지금은 邪자로 쓰며 枉은 ‘굽은 나무’, ‘구부러지다’는 뜻이다. 이로 보아 匡의 ‘正’과 ‘虧’의 반훈 현상은 통가의가 외부로부터 들어옴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權：權은 지금의 歡과 같이 ‘기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체자라 볼 수 있다. 그러나 《爾雅·釋水》에 “權權, 惓惓, 憂無告也.” ‘우울하여 호소할 곳이 없음’이라 하여 ‘기쁘다’와 상반되게 풀이하였다. 이는 아마도 愆이나 患자에서 통가되어 생긴 반훈 현상으로 보인다. 《說文·心部》에 愆과 患은 모두 “憂也.”라 하여 ‘근심하다’, ‘우울하다’라 풀이하였다.

14) 徐朝華, 《南開學報》, <反訓成因初探>, 1981年 2期, 41쪽 참조.

爽 : 爽은 고문자에 의하면 조직이 성긴 베옷을 입고 있는 형상으로 이에서 ‘시원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서 인신되어 ‘상쾌하다’, ‘밝다’, ‘좋다’, ‘길하다’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國語·周語上》 “實有爽德.”의 <注>에 “爽, 亡也.”라 하여 반훈이 되고 있다. 그밖에 爽은 ‘敗也’, ‘昏也’ 등의 의미로도 쓰였다.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에서 “爽, 假借爲喪.”이라 하였다. 《說文·皿(환)部》에 “喪, 亡也.”라 하였다. 爽의 이러한 반훈 현상이 바로 喪에서 통가된 의미에 의한 것이다.

壯 : 壯은 ‘건강하다’, ‘건장하다’, ‘용맹하다’는 의미의 문자이다. 그러나 ‘다치다’, ‘병들다’는 의미로도 쓰였다. 《莊子·徐无鬼》 “百工有器械之巧則壯.”(장인이 도구의 기교를 갖게 되면 병폐가 된다.)의 <釋文>에서 “壯, 疾也.”라 하였고, 《易·姤》 “女姤”의 <注>에도 “壯, 傷也.”라 하였다. 이는 壯의 자체 의미와는 상반된다. 이 역시 戕의 통가의 의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說文·戈部》에 “戕, 槍也.”라 하여 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壯의 반훈 현상은 戕의 통가의 의미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抱 : 《說文新附·手部》에 “抱, 裹也.”라 하였고, 《釋名·釋姿容》에 “抱, 保也.”라 하여 ‘싸다’, ‘보호하다’라 풀이 하였다. 그러나 《集韻·肴韻》에 “抱, 棄也.”라 하여 ‘버리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하였다. 이 의미는 拋에서 온 통가의 의미이다. 《說文新附·手部》에 “拋, 棄也.”라 하였다. 抱의 ‘보호하다’, ‘버리다’는 반훈 현상은 拋의 통가의 의미에 의한 것이다.

2. 통가의 간의 반훈

繇의 喙, 悵

《說文·糸部》에 “繇, 隨從也.”라 하여 ‘따르다’라 하였다. 《爾雅·釋詁》에 “繇, 憂也.”라 하였고, 또 “繇, 喜也.”라 하였다. 이는 繇의 본의인 ‘따르다’는 의미와는 무관한 통가에 의한 반훈 현상으로 보인다.

《說文·口部》에 “喙, 喜也.”라 한 것으로 보아 齠의 ‘喜’라는 뜻은 喙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또 《爾雅·釋訓》에 “喙, 憂無告也.”라 하였고, 《廣韻·蕭韻》에도 “喙, 憂也.”라 한 것으로 보아 齠의 ‘憂’라는 뜻은 바로 喙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齠의 ‘喜’와 ‘憂’라는 반훈 현상은 喙와 喙의 통가의 간에 생긴 것이다.

藐의 邈, 眇

藐은 凌霄花(능소화)를 뜻한다고 한다. 그러나 《方言十三》에 “藐, 廣也.”라 하였고, 《莊子·逍遙遊》에 “藐, 遠也.”라 하였다. 또 《廣雅·釋詁一》에 “藐, 小也.”라 하여藐의 ‘遠’과 ‘廣’의 뜻이 ‘小’라는 뜻과 반훈이 된다.藐의 ‘遠’과 ‘廣’의 뜻은 邈의 통가의 일 것이다. 《說文·辵部》에 “邈, 遠也.”라 한 것이 그 증거가 된다.藐의 ‘小’의 뜻은 眇의 통가의 일 것이다. 《段注》에 “古多借用爲眇字.”라 하였다. 《說文·目部》에 “眇, 小目也.”라 하였고, 《廣雅·釋詁二》에도 “眇, 小也.”라 하였다. 이로 보아藐의 ‘遠’, ‘廣’와 ‘小’가 반훈이 되는 것은藐에 邈과 眇의 통가의가 들어와 생긴 것이다.

陶의 喙, 悼

陶은 흙을 빚어 구어 만든 토기를 뜻하는 문자이다. 그러나 고전에는陶가 ‘憂’와 ‘喜’의 뜻으로 사용되어 반훈 현상을 보이고 있다. 《廣雅·釋訓》에 “陶, 喜也.”라 하고, 또 “憂也.”라 하였다. 이에 대해 朱駿聲은《說文通訓定聲》에서 “陶爽假借爲喙.”라 하였다.陶의 ‘기쁘다’는 뜻은 喙의 통가라 하였다. 또陶의 ‘슬프다’는 뜻은 아마도 哀悼할 悼에서 온 듯하다.悼는 ‘두렵다’, ‘슬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陶의 반훈 현상은 喙와 悼의 통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介의 劓, 芥

《說文·人部》에 “介, 畫也.”라 하였다. 이에서 畫는 劓의 뜻으로 《說文》은 介를 劓의 初文으로 보았다. 그러나 介는 ‘크다’는 뜻과 ‘작다’는 뜻으로도 쓰여 반훈 현상을 보이고 있다. 《爾雅·釋詁》에 “介, 大也.”라 하였고, 《詩經·小雅·小明》 “介爾景福.”(큰 복을 크게 내려주실 것이다.) 의 <毛傳>에 “介, 大也.”라 하였다. 이 ‘크다’는 뜻은

舂의 통가의이다. 《說文·大部》에 “舂, 大也.”라 하여 통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介는 또한 ‘작다’, ‘미세하다’는 뜻도 갖는다. 《列子·楊朱》 “無介焉之慮.”(작은 근심조차 없어진다.)의 <釋文>에 “介, 微也.”라 하여 ‘大’와 반훈임을 나타내었다. 介의 ‘작다’는 뜻은 아마도 芥자에서 온 듯하다. 芥는 지금을 겨자 芥자로 쓰이나 草芥에서처럼 지푸라기와 같이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를 나타내기도 한다. 《莊子·逍遙遊》 “則芥爲之舟.”(작은 풀로 배를 만들어)의 <釋文>에 “芥, 小草也.”라 하였다. 따라서 介의 ‘작다’는 뜻은 芥의 통가의 일 것이다.

酤, 沽의 賈

《說文·西部》에 “酤, 一宿酒也. 一曰買酒也.”라 하였다. 酤의 본의는 ‘하루 묵은 술’을 뜻하며, ‘술을 사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하였다.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에서 “酤, 假借爲賈. 凡買賣皆曰賈也.”라 하여 “一曰買酒也.”의 뜻은 賈에서 온 통가의로 보았다. 《廣雅·釋詁三》에 “酤, 賣也.”라 하였는데, 이 역시 賈에서 온 통가의 일 것이다. 賈는 ‘市’의 뜻으로 상거래를 뜻한다. 따라서 酤의 ‘사다’와 ‘팔다’는 반훈 현상은 賈의 통가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說文·水部》에 “沽, 沽水.”라 하여 水名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沽자의 본래 의미는 거의 안 쓰이고 주로 ‘사다’와 ‘팔다’는 의미로 쓰여 반훈 현상을 보인다. 《論語·子罕》 “求善賈而沽諸?”(좋은 가격을 쳐서 이를 팔겠는가?)의 <集注>에 “沽, 賣也.”라 하였고, 《論語·鄉黨》 “沽酒市脯不食.”(사온 술과 사온 육포는 먹지 않는다.)의 <釋文>에는 “沽, 買也.”라 하였다. 지금 酤와 沽는 본래의 의미보다는 ‘사다’와 ‘팔다’는 반훈의 의미로 자주 쓰이는데 모두 賈에서 통가된 것이다.

Ⅲ. 結 言

반훈의 존재 여부와 이의 경계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견해와 고대 훈고학자들이 제시한 수많은 예증을 통해 반훈은 분명 고대 훈고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현대 언어에 있어

서도 존재하는 詞義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반훈의 成因과 유형별 분석은 학자들의 접근 방법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반훈은 成因을 통하면 그 유형을 알 수 있고, 또 유형을 통하면 그 成因을 알 수 있다는 관점에서 층차적인 분석을 하였다. 먼저 대분류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내부적 요인’은 다시 사 자체가 갖고 있는 詞意的 특징에 따라 사의 의 분화와 발전·변화하는 과정에서 본의가 이분법적으로 분화된 ‘본의 분화 반훈’과 횡적으로 인신된 ‘인신 반훈’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본의 분화 반훈’은 본의 자체가 총체적이고, 포괄적,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詞에서 발생을 하며, 그 의미적 특징과 관계에 따라 ‘美惡同詞’, ‘施受同詞’, ‘相對同詞’로 분류하여 보았다. ‘인신 반훈’은 詞義가 어떠한 과정과 관계로 인신되었고, 반훈 현상에 이르게 되었나를 핵심적으로 보았다. 이는 의미적 특징과 관계가 반훈 현상의 성인과 유형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별도의 하부 분류를 할 필요가 없다.

‘외부적 요인’은 사 자체의 詞義 변화와는 무관하게 단지 문자와 詞義의 활용 과정 중에 외부 의미가 통가되어 들어오면서 생긴 현상으로 ‘외부 의미와’의, 혹은 ‘외부 의미 간’의 반훈 현상으로 그 유형을 나누어 보았다. 일부 학자는 통가 현상은 詞義 간의 연계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훈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의 詞에는 본의(기본의)와 인신의 내부적 義味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차의, 통가의 등의 외부적 의미항도 가지고 있다. 그 詞義 간에 의미상 연계성이 있던 없던 그 사의 의미항으로 詞義 활동을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 활용 결과에 따라 반훈 현상도 자연스레 생기게 된다. 따라서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던 의미와 의미 사이에 상반되고 대립된 관계로 훈고 활동을 한다면 그 역시 반훈의 한 유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 許慎 著,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臺灣: 漢京出版社, 1980. 3.
丁福保 編, 《說文解字詁林》, 臺灣: 鼎文書局,
楊雄 著, 戴震 疏證, 《方言疏證》, 臺灣: 中華書局.
張揖, 《廣雅疏證》, 臺灣: 中華書局.
王引之, 《經義述聞》, 江蘇古籍.
陳彭年 等, 《宋本廣韻》, 臺灣: 黎明文化事業公司, 1981. 9.
《十三經注疏》, 臺灣: 藝文印書館.
《漢文大系》. 新文豐出版社.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灣: 中華學術院, 1980. 9. 5판.
林尹, 《訓詁學概要》, 臺灣: 正中書局, 1972. 3.
王力, 《古漢語綱要》, 湖南人民出版社, 1978.
徐世榮, 《古漢語反訓集釋》, 安徽教育出版社, 1988. 8.
胡楚生, 《訓詁學大綱》, 臺灣: 華正書局, 1990. 9. 3판.
蔣紹愚, 《古漢語詞匯綱要》, 北京大學出版社, 1992. 10. 재판.
孫永選 等, 《訓詁學綱要》, 齊魯書社出版, 1999. 9. 재판.
殷寄明, 《漢語語源義初探》, 學林出版社, 1998. 1.
趙克勤, 《古代漢語詞彙學》, 商務印書館, 2005. 10. 재판.
葉鍵得, 《古漢語字義反訓探微》, 臺灣: 學生書局, 2005. 11. 재판.
董璠, <反訓纂例>, 《燕京學報》, 1937.
張舜徽, <字義反訓集證>, 《舊學輯存·中》, 1945. 10.
徐世榮, <反訓探源>, 《中國語文》, 1980. 4號.
徐朝華, <反訓成因初探>, 《南開學報》, 1981. 2期.
張凡, <反訓辨>, 《北京師院學報》, 1986. 4期.

<中文提要>

古代文章当中有叫‘反訓’的特殊訓詁現象, 所謂‘反訓’是指一個詞同時具有相反對立的意味而言的。例如, 《論語·泰伯篇》有一句話, “舜有五臣,

而天下治。武王曰：予有乱臣十人。”这儿的‘乱臣’表示‘治臣’的意思，但在《孟子·滕文公下》的“孔子成春秋，而乱臣贼子惧。”中的‘乱’表示捣乱的意思。如此，把一个词同时有相反或相对的意项的词，在训诂学上叫‘反训词’。

本稿从这一思路出发，观察反训的由来，并通过分析其例子，要查明反训的产生原因和类型。

反训可分为内部与外部的成因。内部的成因是由起因於本意的分化和引伸而产生的。外部的成因是由起因於本意和通假关系而产生的。本意分化反训又可分为‘美恶同词’，‘施受同词’，‘相对同词’。通假反训可有本意和通假意之间的反训与通假意之间的反训两种。有一些学者根本不同意通假反训，但我认为一个词不仅有包括本意和引伸意内部的意项，而且有起因於假借和通假的外部的意项，词意之间的关系并不重要，一个词既然有着相反意或相对意活用的话，按照其活用结果，反训现象也是自然而然地产生的。

주제어 : 訓詁, 反訓, 反訓詞, 本義, 引伸義, 通假義

투 고 일 : 2014.2.26

심 사 일 : 2014.3.3~3.31

게재확정일 : 2014.4.20

중국어 사동과 피동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叫/讓’구문을 중심으로 -

이수진**

— <목 차> —

1. 들어가며
 2. ‘叫/讓’의 구문 구조 변화 양상 및 요인
 3. 사동과 피동의 상속 연결(inheritance link) 유형
 4. 나오며
- 參考文獻
中文提要

1. 들어가며

하나의 사건에 대해 화자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점, 인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문장을 구성하기 때문에, 여러 형식의 문법적 장치 가운데 시점과 태도 등의 양상에 가장 적합한 것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 문법 장치가 표현하는 문법 의미는 생성과 파생의 과정을 거쳐 인간의 인지 활동을 보다 더 구조적으로 표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동과 피동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인지적 양상을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사적 구문 구조가 유사하다면, 그 두 태(voice)의 어떤 요소가 그러한 통사적 결과를 도출하는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A00577)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시간강사 (qingquan@naver.com)

물론 사동과 피동의 모든 통사적, 어휘적 구조가 서로 대칭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시적 관점에서 피동 표현들 중 일부가 사동의 표현 방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사동과 피동의 동형 동사가 존재하거나 유사한 통사구조를 가진다는 점, 중국어 외 다른 언어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동과 피동의 범언어적 상관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의 사동과 피동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대체로 사동과 피동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叫/让’의 문법화, 혹은 문법 변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에 주로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의미 구조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인-결과’의 복합적 사건 구조를 가진다는데 동의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는 사동 표지사 ‘叫/让’이 구문 구조의 변화와 어휘적 확장의 복합적 작용을 통해 피동의 개념을 구현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동과 피동의 구문이 가지는 상관성을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지의 진행을 위해 ‘叫/让’구문의 구조가 어떻게 피동의 개념을 구현하는지 그 제약 기반 및 변화 양상을 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두 구문이 가지는 상관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叫/让’의 구문 구조 변화 양상 및 요인

2.1 기존 견해에 대한 검토

언급한 바와 같이 사동과 피동의 상관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사동과 피동의 겸용 혹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구문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법화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 중 사동 표지사 ‘叫/让’이 피동 구문을 구현하는 과정 혹은 그 계기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의 견해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두 논항의 성질에 대한 것으로, 문두 논항이 부정성이거나 수동자 논항일 경우 사동 행위의 의지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피동으로 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고 보았다(太田辰夫(1958), 江藍生

(2000), 蒋绍遇(2002)). 문두 논항의 수동적 성질은 피동 구문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통사적·의미적 제약 기반으로, ‘叫/让’ 구문이 피동의 개념으로 전환되는데 가장 먼저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논항에 대해 사동 의미의 겹어 구조(NP1+ 叫/让+ NP2+ VP+ NP3)에서 NP3이 화제화 작용을 통해 상승 이동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李崇兴·石毓智(2006)), 문두 논항의 화제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모든 사동 겹어 구조에서 NP3이 실현되는 것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叫/让’의 의미 확장으로 피동 구문을 구현하기 위한 의미적 제약 기반이 형성된 것이다. 사동 표지사의 의미가 다양해지면서 명령에서 ‘허락, 허용’의 의미로, 다시 방임의 의미로 변하면서 피동으로 발전될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徐丹(2003), 李崇兴·石毓智(2006), 이지현(2007))¹⁾. 문법화 혹은 문법 변화의 과정에서 어휘의 의미 파생과 확장은 통사 구조의 변화를 유도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叫/让’구문에서도 이 ‘허락, 허용’의 의미로 인해 NP1이 NP2를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않게 되고, NP2는 VP의 행위에 대해 자유 의지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NP1의 현저성을 약화시켜 구문 전체의 통사 구조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사동에서 피동으로 전환되는 과정 중 중간 단계의 ‘재귀적 사동’을 설정하는 것이다(李崇兴·石毓智(2006), 박향란(2012)). 재귀성 사동이란 NP1과 NP3이 동일인이거나 신체의 일부 및 소유 소속의 관계, 혹은 화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재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VP의 결과가 NP3과 동시에 NP1을 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동의 재귀성이 피동으로의 문법화를 유도한다고 보는데, 이는 중국어 외 다른 여러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으로, 대부분 사동은 재귀적 사동(reflexive causative)의 과도기를 거쳐 피동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재귀적 사동은 사실 위에서 언급한 화제성과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²⁾

1) 이지현(2007)의 경우 그 연구 범위를 ‘让’에 한정하고 있다.

2) 이 외 금지형 사동이 가지는 맥락적 특징이 피동의 것과 유사하다는 데서 금지형 사동을 피동으로 전환되는 중간 단계로 보는 견해가 있다.(太田辰夫(1958), 杨月蓉(2007), 项开喜(2011)) 부정 사동에는 주관적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점, 사동의 미발생 사건은 화자의 의지나 희망과 반대되는, 일어

문두 논항의 피행위자성 성질과 ‘叫/让’의 의미 확장, 재귀적 사동의 허용 등이 해당 구문이 피동의 개념을 구현하는 제약 기반이 되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본고 역시 동의한다. 그러나 위의 논의들은 ‘叫/让’이 사동에서 피동을 나타내게 되는 변화 양상과 원인을 단선적으로 살피고 있다. 문법화나 문법 구조의 변화는 단선적인 경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의 다선적인 단계화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의미의 약화, 기능 및 범주의 변화, 재분석, 유추 등의 작용이 다선적인 단계성을 가지고 통사적 구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叫/让’구문 또한 한 가지 변화 양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주요 변화 기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 수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叫/让’의 문법화에 대한 여러 통시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들이 대립적 개념의 사동과 피동을 모두 나타내게 되는 단계적 과정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인지적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문법화론에 따르면 문법은 고정 불변의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 역동적이며 그 움직임은 경계 없이 이루어지는 개방적인 형태의 것이라고 한다. 이는 어휘소의 문법화 뿐 아니라 문법 구조의 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그 변화에 인간의 인지적 작용이 하나의 동기로 작용하게 되며, 그 인지적 작용이 사동과 피동의 상관성에 대한 해석으로 설명될 것이다.

2.2 ‘叫/让’ 구문의 구조 변화 양상

아래의 구문 구조 변화 양상은 ‘叫/让’ 구문이 사동의 겹어 구조에서 피동 구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유추한 것이다.

- i) NP1+ 叫/让 + NP2 + VP (+ NP3)
 ↓
 ii) TP(NP3), (NP1+)叫/让 + NP2 + VP
 ↓
 iii) TP(NP3) + 叫/让 + NP2 + VP

나지 않길 바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동과 같은 맥락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i)은 사동주(NP1)의 사동 행위(叫/让)로 인해 행위주(NP2)가 모종의 동작(VP+ NP3)을 진행하는 전형적인 사동 구문이다. 이러한 구문 구조가 피동 구문으로 해석되기 위한 기반 조건으로는 ii)에서 보듯 1)문두 논항의 수동적 성질과 화제성, 2)사동주 논항의 현저성 약화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구문 iii)은 언어 사용자의 ‘유추’에 따라 유사한 의미 구조 및 통사 구조를 가진 피동 구문으로 인지하게 된다. 각 과정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자.

1. 문두 논항의 수동자 성질과 화제성

i)의 사동 구문이 피동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선 문두에 수동자 성질의 논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동의 의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i)에서 NP1은 사동주로서 수동자의 성질을 새로 가지지 못하므로, VP에 후행하는 NP3가 문두로 상승 이동하거나 새로운 논항이 추가 삽입될 수도 있다. 문두 논항의 수동적 성질은 피동의 구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데, 이는 피동이 다른 태와 구별되는 원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³⁾ 이렇게 만들어진 ii)에서 TP는 화제적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화제화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 술어 뒤의 수동자 논항을 문두로 이동시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해당 구문의 문두 논항이 가지는 화제성은 사동과 피동의 중간단계로 논의되는 재귀적 사동 구문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박향란(2012:281)은 유형학적으로 유사한 언어들에서 사동에서 재귀적 사동이라는 과도기 단계를 거쳐 피동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재귀적 사동이란 NP1과 NP3이 일종의 재귀적 관계, 예를 들어 동일한 대상 지시, 신체의 일부, 소유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NP1이 지시한 동작으로 그 내포 관계가 재귀성을 가지게 되는 구문이다. 그러므로 VP의 동작 결과는 NP3뿐 아니라 NP1에게도 미치게 되어 결국 주어가 사건의 수동자가 되는데, 이는

3) 목적어 전치(前置)는 선진시기에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목적어는 주로 의문사 혹은 부정문의 대명사 등으로 전치 이유를 초점화나 주제화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石毓智·徐杰, 2001), 반대하기도 하지만(徐江胜, 2006), 중국어 통사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대부분 지금과 같이 후치하게 된다. 본고에서 말하는 목적어 전치는 이러한 문법적 제약과 관계없이 동작 에너지 흐름의 결과가 미치는 대상, 즉 수동자 논항이 문두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피동의 의미 조건과도 일치한다.

- 1) 어머니는 아기에게 손가락을 물리었다.
- a. 어머니_t는 아기_i에게 손가락_t을 물리었다.(재귀적 사동 → 피동)
- b. 어머니_t는 아기_i에게 손가락_i(/p)을 물리었다.(사동)

1a)에서 ‘손가락’이 ‘어머니’와 재귀적 관계를 가진다면 손가락을 물린 결과가 주어진 ‘어머니’에게 미치게 되므로 결국 사동의 구문을 빌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 1b)의 경우 ‘손가락’이 아기의 것이거나 혹은 또 다른 참여자의 손가락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사동 구문이다. 이는 중국어의 사동 구문에서도 동일하다.

- 2) 张三让李四偷了他的手表。
- a. 张三_t让李四_i偷了他_t的手表。(재귀적 사동 → 피동)
张三_t은 李四_i에게 그_t의 시계를 도둑맞았다.
- b. 张三_t让李四_i偷了他_p的手表。(사동)
张三_t은 李四_i로 하여금 그_p의 시계를 훔치게 했다.

그런데 위의 문장에서 동작의 영향을 받는 보다 구체적인 대상은 ‘손가락’ 혹은 ‘手表’가 아니라 ‘어머니의 손가락’ 혹은 ‘张三的手表’이므로, 수동자 논항이 문두에 와서 피동 구문을 형성한다면 해당 논항은 ‘어머니의 손가락’과 ‘张三的手表’이거나 중심어인 ‘손가락’과 ‘手表’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과 ‘手表’가 단독으로 문두에 온다면 이는 1’c)와 2’c)와 같이 비문이 되므로 오히려 1’d)와 2’d)와 같이 ‘어머니’와 ‘张三’을 ‘손가락’, ‘手表’와 분리하여 화제성 주격중출 구문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 1’) a. 어머니_t는 아기_i에게 손가락_t을 물리었다.
- b. *손가락_t이 아기_i에게 어머니_t를 물리었다.
- c. 어머니의 손가락_i가 아기_i에게 물리었다.
- d. 어머니_t는 손가락_t이 아기_i에게 물리었다.
- 2’) a. 张三_t让李四_i偷了他_t的手表。
- b. *(他_t的)手表_i让李四_i偷了张三_t。
- c. 张三的手表_i让李四_i偷了。

→ d. 张三t, (他t的)手表让李四偷了。

潘海华·韩景泉(2005:4) 역시 표층 비대격 구문의 화제화를 설명하면서 ‘李四被抢了钱包’의 ‘李四’를 상승 이동에 의해 생성된 화제로 보았다. ‘李四’와 ‘钱包’ 역시 소유 관계로 재귀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유자 ‘李四’가 분리되어 문두에서 화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기저 목적어 ‘钱包’가 동사 뒤에서 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은 ‘钱包’가 표층에서 주어 위치로 상승이동하여 ‘李四, 钱包被抢了’를 생성하게 되면 ‘钱包’는 대격과 주격을 모두 받아 ‘모든 논항은 단 하나의 격을 받는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때 문장은 2'd)와 구조적으로 동일한데, 재귀성 사동 구문을 화제화된 피동 구문과 연결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김윤신(2006) 역시 논항간의 재귀적 관계가 사동과 피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이러한 재귀성이 사동의 통사 구조가 피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통사적, 의미적 기반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2. 사동주 논항의 현저성 약화⁴⁾

문두 논항의 성질과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NP1의 현저성 약화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인을 추측할 수 있는데 첫째, TP의 등장으로 새로운 주어가 도입된 것, 둘째 ‘叫/让’의 ‘허용, 방임’과 같은 어휘적 의미 확장이다.

우선, TP는 위에서 언급한 문두 논항으로 VP의 목적어가 상승이동한 것일 수도 있고, 새롭게 도입된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일반적인 문법화 경향에 따르면 이렇게 화제화된 구성 요소는 주어의 자질을 획득해서 점차 주어로 인정되며, 원래의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던 NP1은 그 현저성이 약화되어 청자에게 인지되지 않거나 생략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

4) ‘현저성(prominence)’은 어떤 사건이나 개념의 바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의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 화자가 선택하는 요소에 따라 각기 다른 장면으로 부각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5) 李崇兴·石毓智(2006:39)도 겹어식 구문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구문의 피동화에 작용한다고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Langacker(1991a:305~309) 역시 화제성이 높아지는 것은 현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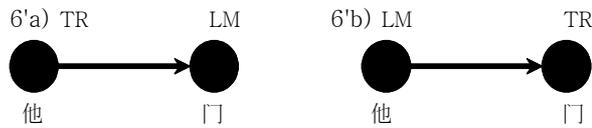
모종의 사건이나 상황을 기술하고자 할 때 화자는 사건이나 상황이 나타내는 ‘장면’의 양상에 따라 초점을(혹은 화제화 요소를) 선택하고, 그 장면과 초점에 맞추어 사건 내용을 언어적으로 조직한다. 이렇게 조직된 언어 구조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인지적 태도를 반영하기 마련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능동 구문과 피동 구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능동 구문은 행위자(agent)에, 피동 구문은 수동자(patient)에 주의초점이 향하는데, 이는 화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그 선택에 따라 이들 구문은 각각 행위자와 수동자에 윤곽을 부여하여 구성된다.

- 6) a. 他开门了。 그가 문을 열었다.
- b. 门开了。 문이 열렸다.

6)에 나타나는 윤곽과 바탕을 원형적 행동 연쇄 모형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즉, 능동의 6'a)는 두 개의 논항에 모두 윤곽부여하지만, 피동의 6'b)는 ‘门’에만 윤곽부여하고 나머지는 서술 범위 즉, 바탕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윤곽부여의 관계 속에서 행동 연쇄 모형은 다시 아래와 같이 탄도체(TR)와 지표(LM)의 관계를 반영해준다.



동일한 객관적 상황에서도 여러 맥락적 혹은 화용적 원인으로 인해

성이 높아지는 것이며, 현저성이 높아지면 주어로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보았다.

참여자들의 상대적 현저성은 이와 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테면, 참여자들 중 하나가 사건과의 관련성이 적거나 혹은 없거나 혹은 청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을 때, 다른 참여자에게 탄도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이 때 그 참여자는 비인칭화되거나 심지어 생략될 수 있다.

이처럼 탄도체-지표는 사건에 참여하는 각 논항들의 문장 내 상대적 현저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장면의 초점에 따라 현저성을 부각시키고자 할 경우 그 참여자를 탄도체의 자리 즉, 주어의 위치에 있게 한다. 이 윤곽-탄도체-현저성에 이르는 인지문법상의 개념은 결국 기능문법에서 말하는 주어의 화제성(Topic)과 통하는 것으로 ‘叫/让’구문에서 새롭게 추가된, 혹은 상승 이동하여 생성된 문두의 TP는 후행하는 NP1의 현저성을 약화시키고, 이 NP1은 잠재화될 수 있다.

둘째, NP1의 현저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TP뿐 아니라 ‘叫/让’의 의미 확장도 가담하게 된다. 여러 논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용, 방임’의 의미가 ‘叫/让’이 피동 표지사로 기능화되는데 의미적 추론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叫/让’이 피동의 개념을 표상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거나 논항 구조에 변화를 유발하여 구문 전체가 피동 상황을 나타내도록 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이미 여러 논의에서 검증된 것처럼 ‘허락, 허용’, ‘방임’의 의미는 겹어식 구조의 NP2에게 VP에 대한 자율적 의지를 부여한다. 사동 구문에서 NP2의 행위자성은 모든 사동 구문에서 동일한 고정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동사의 사동력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 때 행위자성이란 통제력과 자율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동력과는 반비례하기 마련이다. 이는 NP2에 대한 NP1의 지배적 성향, 사동 구조 속에 NP1이 사건 전체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적 성향이 약화되면, NP2의 행위자성은 점차 강화되어 독립적인 행위자성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叫/让’의 피동 구문 중에는 피동적 해석보다 화제화 구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는 NP2의 행위자성이 부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钱都让他花光了。
 a. 돈은 모두 그가 다 써버렸다.
 b.?돈이 모두 그에 의해 다 써졌다.

피동 표지사 ‘被’와 달리 ‘叫/让’은 후행하는 NP2를 생략할 수 없고, 아래 4)와 같이 VP가 반드시 결과 사건을 나타내지 않아도 ‘叫/让’의 피동 구문이 가능한 이유 역시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 4) a. 这封信必须让太太看看 → *这封信必须被太太看看。
이 편지는 반드시 부인이 보아야 한다.
b. 这封信必须让太太看见 → 这封信必须被太太看见。
이 편지는 반드시 부인에게 보여져야 한다.

4a)의 ‘被’구문이 성립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4b)처럼 피동문이 요구하는 결과적 상태를 VP가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4a)의 ‘叫/让’구문이 성립하는 것은 논항의 결과적 상태 보다 ‘叫/让’의 행위자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⁶⁾

이렇게 NP2의 현저성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NP1은 그 현저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담화 화용적, 혹은 인지적 요인은 화제, 초점, 강조, 생략 등의 현상을 유발하여 논항의 실현 여부에 작용할 수 있다. 현저성이 낮아진 NP1은 담화적 전략에 의해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되지 않는다고 해도 전체 동작 에너지의 흐름, 혹은 사건 전체 속에서 그 역할이 인지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 문두의 TP가 새로운 주어로 인식되어 iii)의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3. 유추에 의한 의미 전이

문법화는 언어 자체의 변화로 인한 내적인 요인이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살펴보았듯 인지나 화용과 같은 언어 외적인 요인이 동기가 되기도 한다. 문법화 이론에서는 이 인지 과정이 은유와 환유, 주관화, 재분

6) 이는 피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사 ‘被’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叫/让’을 피동 표지사로 활용하고자 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被’는 한말(漢末)부터 행위자를 표시하는 표지사로, 위진 남북조 때 이미 피동 표지사로 성행하였다. 그 출현 시기는 이견이 있으나 ‘叫’의 경우 당대에 드물게 나타나다 원 이후 출현하여 사동과 거의 동시에 피동의 의미를 가졌다고 한다. ‘让’은 보다 늦은 시기로 청말에 이르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被’로 피동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让/叫’으로 피동 구문을 형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특성 또한 작용하였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유추해본다.

석, 유추와 같은 기제를 통해 문법화로 진행된다고 본다. ‘叫/让’구문의 피동화는 문두 논항의 수동자성과 화제성, 사동주 논항의 현저성 약화 등으로 피동의 통사적, 의미적 기반을 형성한 ii)의 문장에서 ‘유추’의 작용을 통해 피동 구문으로 일반화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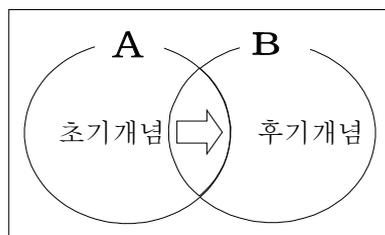
김동환(2013:395)은 ‘유추’를 어떤 언어 형태가 의미, 기능, 음성적인 부분의 비슷한 언어 형태에 동화하여 변하거나 또는 그런 형태가 새롭게 생겨나도록 하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즉, [A:B = C:x]에서 x의 값을 찾는 것으로 영어의 복수 표지 변화, 동사의 과거형 등이 이러한 유추 작용에 의한 것이다. 앞의 ii)가 피동 구조의 iii)으로 인식되는 것이 하나의 규칙에서 다른 규칙을 만들어 오는 내적 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형식 속에서 그 의미적 상관성을 찾아내어 또 다른 구문으로 패턴화하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유추라고 여겨진다. 일종의 연상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由’구문의 피동 구조 역시 이에 속한다. 张谊生(2004)이 제시하는 아래 ‘由’구문 역시 ‘叫/让’구문의 iii)과 유사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 i) A式句 = N2 + 由 + N1 + V(+ N3)
; 热毛巾每隔三五分钟由漂亮的小老妈送一次。
- ii) B式句 = (N4+) 由 + N1 + V + N2
; 出嫁以后, (她)才由她的丈夫像赠送博士学位似的送给她一个名字--韵梅。

张谊生(2004)은 위의 ‘由’구문이 피동 구문의 구조적 의미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피동 구문이나 앞의 ‘叫/让’구문의 iii)과 유사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由’가 행위자를 강조하는 전치사로 쓰인다는 점에서 ii)에서 파생된 iii) 구문과 더욱 유사하다. 이 ‘由’구문 또한 ‘叫/让’구문과 같은 맥락에서 ‘유추’의 문법화 기제가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7) 이러한 유추의 기제를 통해 구문 구조가 만들

7) 유추가 은유와 전혀 다른 문법화 기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은유 역시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간의 유사성에서 비롯되고, 두 영역의 존재로 중의성 또한 생성됨을 고려할 때 ‘叫/让’의 문법 변화에 대해서 은유의 기제를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叫/让’구문의 변화가 영역 간의 변화라기보다 유사한 구조 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연상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추로

어 지면 각 구문들의 관계는 아래와 같은 중복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⁸⁾



이 모형에 따르면 초기개념 A가 후기개념으로 넘어갈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모든 문법화나 문법 변화에는 영역이나 과정상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두 단계의 의미가 중간 단계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재귀 사동 역시 모형의 중간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 보면 ‘叫/让’이 사동과 피동의 개념을 중의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이에 속하므로, 이 중복 모형을 통해 ‘叫/让’ 구문의 중의성을 이해할 수 있다.

- 5) 我让他说了几句。
 : 나는 그에게 몇 마디 하게 했다. (使动)
 → 나는 그에게 몇 마디 하도록 허락했다. (容许)
 → 나는 그에게 몇 마디 (꾸지람을) 들었다. (被动)

위의 예는 ‘让’의 문법화 과정에서 등장했던 의미들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叫/让’의 초기 사동 개념이 이후 피동 개념으로 발전해나가는 단계적 과정의 의미 형태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 가능하여 상술한 중복 모형의 타당성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인지적 기제를 바탕으로 (화제화된) 수동자 논항이 문두에 놓인 사동 구문을 피동 구문으로 전환 인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8) Heine et al. (1991:111) - 김동환(2013:399)에서 재인용

3. 사동·피동의 상관 요소

상술한 내용에 근거, 주요 변화 요소들을 통해 사동과 피동의 변별적 요소를 도출할 수 있으며,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요소들을 통해 그들 간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사동의 ‘叫/让’이 피동의 개념을 나타내게 되는 문법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논항의 수와 위치의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반면, 사건 명제의 진리치나 의미 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사건 구조 또한 일부 동일하다. 논항의 변화는 ‘叫/让’의 피동화에 아주 중요한데, 태(voice)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인지 태도에 따라 주어를 중심으로 서술어가 표현하는 행위의 방향을 지시하는 범주로, 구문 내 논항의 수와 위치가 각 태를 통사적으로 구현하기 때문이다.⁹⁾

논항의 수와 위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두 태(voice)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건 명제에 대한 동일한 진리값에서 비롯된 의미 구조와 사건 구조이다. 사동과 피동의 의미 구조에 대해 김윤정(2008:227~228)은 아래와 같은 구조를 제시하며, 수동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사동성과 수동성의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 i) 사동의 의미 구조 : A가 B의 모종의 상태를 야기한다.
 A가 B에 어떤 행위를 가한다.
B가 모종의 상태에 놓인다.
- ii) 수동의 의미 구조 : B가 A에 의해 모종의 상태에 놓인다.
 A가 B에 어떤 행위를 가한다.
B가 모종의 상태에 놓인다.

이에 근거하여 사동구문과 피동구문의 사건 구조를 아래와 같이 형식화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표시한 바와 같이 동일한 부분을 가진다.

- i) 사동구문의 사건 구조 형식 : 他讓警察抓住了小偷
 → [[[他 ACT<MANNER=讓>] CAUSE [BECOME [警察 ACT<MANNER=抓了>]]] CAUSE [BECOME [小偷 <AFFECTED=抓住了>]]]
- ii) 피동구문의 사건 구조 형식 : 小偷被警察抓住了

9) 앞의 탄도체 그림 참고

→ [小偷 <RES-STATE=被 [[[警察 ACT <MANNER=抓>] CAUSE [BECOME [y <STATE=抓住了>]]] CAUSE [BECOME [小偷 <AFFECTED>]]] >]¹⁰⁾

주지하다시피 사동과 피동은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구문이다. 위 사건 구조에서도 구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두 사건의 인과관계가 드러나며, 그 양상 또한 동일하다. 사동과 피동이 서로 상반된 개념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통사 구조 및 의미 구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두 태(voice)가 모두 인과 사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되면, 서로 전환이 가능하며 중의적 해석 또한 가능하다. 앞의 예문을 이에 적용해도 동일하다.

- 2') a. 张三让李四偷了他p的手表。: 사동 구문
 [[[张三 ACT <MANNER=讓>] CAUSE [BECOME [李四 ACT <MANNER=偷了>]]] CAUSE [BECOME [他的手表 <AFFECTED>]]]
- b. 张三让李四偷了他t的手表。: 채귀적 사동 → 피동
 [张三 <RES-STATE=被 [[[李四 ACT <MANNER=偷>] CAUSE [BECOME [y <STATE=偷了>]]] CAUSE [BECOME [他的手表 <AFFECTED>]]] >]

이러한 요소들이 변화되지 않고 각 구문 구조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사동과 피동이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며, 이 상관성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Goldberg(1995:손영숙·정주리譯, 2004)¹¹⁾의 상속 연결(inheritance link) 유형 중에서, ‘부분관계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0) ii)의 피동구문 사건구조 분석은 이수진·정주연(2009:28)의 분석내용이며 이에 근거하여 i)에서 사동구문 사건구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11) Adele E. Goldberg,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의 역사를 참고하였다. 참고한 역서는 《구문문법》(손영숙·정주리 옮김, 한국문화사, 2004)이다.

3. 사동과 피동의 상속 연결 유형

살펴 본 바와 같이 ‘叫/让’구문의 사동에서 피동에 이르기까지 변화 과정 혹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에 대해 ‘叫/让’의 어휘 의미 확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유일한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¹²⁾ 사동이나 피동과 같은 태(voice)의 개념은 동사의 어휘적 의미에만 의존하여 구현될 수 없고 사태를 구성하는 참여자들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드러나며, 이 역학관계는 사태를 인식하는 화자의 인지적 원리를 반영하면서 하나의 언어적 패턴으로 일반화된다. 이렇게 일반화된 패턴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Goldberg(1995:손영숙·정주리譯, 2004) 이론의 문장 층위 ‘구문’과 일맥상통한다. 그녀는 개별 동사가 문장을 만들 때 나타나는 여러 제약들을 그 동사의 어휘 정보로 진술하기보다 문법적 구문으로 연결시킬 때 더욱 풍부한 해석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구문의 설정은 어휘의 파생 의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들을 보다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다.

- i) a. X makes Y clean. ⇒ X cleans Y.
- b. X makes X's throat clear. ⇒ X clear X's throat.

인지문법에서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형용사가 사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인과 연쇄의 결과 부분이 상황 전체를 나타내는 ‘환유’의 작용으로 설명한다. 즉, ‘clean’, ‘clear’는 인과 연쇄에서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사건 전체에서 현저하게 부각되므로 이 결과가 동사로 전환되어 연쇄 전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구문’의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일반적인 타동 구문 ‘X VP Y’에서 유추하여 생성된 ‘X V_adj Y’의 구문 속에서 ‘Y’ 또한 ‘clean’과 새로운 논항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타동, 나아가 사동의 개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¹³⁾ 사건을

12) 그 원인을 어휘적 의미에 두는 견해들도 있다. 李崇興·石毓智(2006)는 ‘叫’의 ‘用語言通知’라는 의미가 타동 정도가 낮은 동작으로서 피동 표지사로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使/令’은 겹어에 대해 강력한 지배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지현(2007), 項开喜(2011) 역시 모두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구성하는 참여자들의 수와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논항 구조 구문¹⁴⁾을 Goldberg(1995:손영숙·정주리譯, 2004)가 문장 표현의 기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태(voice)가 사건 참여자들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표현 방식을 교체하는 문법 범주임을 고려할 때, 사동과 피동에 대해 Goldberg의 구문문법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논항구조에 따르면 사동과 피동은 분명 서로 다른 구문을 생성하고 있지만, Goldberg(1995:손영숙·정주리譯, 2004)는 어휘 항목의 다의성 처럼 구문들도 내적인 연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구문들의 관계는 구조화된 연결망(structured network) 속에서 상호 작용하며, 상속(혹은 계승) 연결(inheritance link)의 형태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 연결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녀는 언어 조직에 대한 심리학적 원리를 제시하는 데 그 중 최대 동기화 원리는 구문들의 상속 연결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 i) 최대 동기화 원리 : 구문 A가 구문 B와 통사적으로 관련 있다면 구문 A가 구문 B와 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 구문 A의 체계는 동기화된다...그러한 동기는 최대화된다.

어휘의 의미가 은유나 환유와 같은 인지적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파생되고 확장되는 것처럼 구문 또한 통사적, 의미적 관련성이 동기화되어 다른 구문을 상속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여러 구문들의 관계는 동기화(motivation)와 상속(inheritance)으로 생산적인 확장을 한다는 것이

13) 명사가 동사로 전환되는 예도 마찬가지이다. 이 역시 부분-부분, 혹은 부분-전체의 환유 작용으로 설명하지만 상술한 것처럼 명사가 'X V-n Y'의 구문 속에서 어휘적 의미를 바탕으로 동사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 Ken **Houdini**'d his way out of mailbag. (행위자 ⇒ 행위자가 수행한 동작)

b. The trainer **kenneled** the dogs. (결과 ⇒ 결과를 낳게 하는 동작)

14) Goldberg는 주로 다섯 가지 논항구조구문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i) 이중타동구문(Ditransitive) : A cause Y to receive Z

ii) 사역이동구문(Caused Motion) : X cause Y to move 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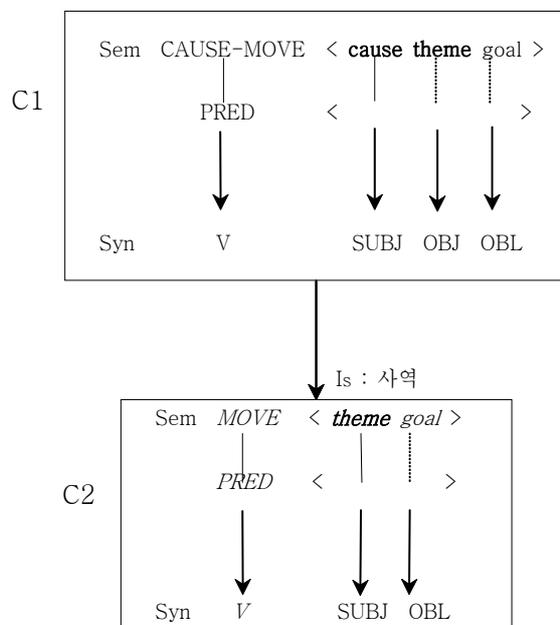
iii) 결과구문(Resultative) : X cause Y to become Z

iv) 자동사이동구문(Intrans, Motion) : X moves Y

v) 능동구문(Conative) : X directs action at Y

다. 이 상속 연결 원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Goldberg(1995: 손영숙·정주리譯, 2004)는 ‘다의성 연결’, ‘부분관계 연결’, ‘예시 연결’, ‘은유적 확장 연결’을 제시하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상속의 특징을 가지고 이중 타동 구문, 사역 이동 구문, 결과 구문들의 연결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동이 피동의 상위 부분이라는 전제 아래 이 두 구문의 관계를 ‘부분관계 연결’형태로 설명하고자 한다. ‘부분관계 연결’ 유형은 하나의 구문이 또 다른 구문의 적격한 하위 부분(proper subpart)이지만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이 두 구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Goldberg(1995: 손영숙·정주리譯, 2004)는 자동사 이동 구문이 사역 이동 구문의 하위 부분으로 연결되었음을 아래의 도식으로 나타낸다.



15) 이 두 구문 사이에 상속 연결이 이루어져 있다면, C2는 C1에서 상속되며, C1은 C2를 지배하며 동시에 C2를 동기화함을 나타낸다. I는 상속 연결을, 상속된 정보는 이태리체로 표시한다. 또한 굵은 글씨로 표시한 논항은 각 구문에서 윤곽화된 정보를 나타낸다.

- 5) a. Lily flew George to the conference.
 릴리는 비행기를 태워 조지를 회의에 보냈다.
 b. George flew to the conference.
 조지는 비행기를 타고 회의에 갔다.

5a)는 ‘X cause Y to move Z’를 나타내는 사역이동 구문으로 원인(Lily)에 의해 주제(George)가 목적지(the conference)로 이동함을 나타내며, 원인과 주제 논항에 모두 윤곽부여하는 반면, 5b)는 ‘Y move Z’의 자동사이동 구문으로, 주제 논항만 윤곽부여하고 있다. 5b)는 5a)의 독립적 하위 부분으로 5a)에 의해 동기화되고 구문을 상속받으므로, 이들은 부분관계 연결의 유형에 속하게 된다. Goldberg(1995:손영숙·정주리譯, 2004)는 결과 구문과 자동사 결과 구문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은 도식으로 나타내어 부분 관계 연결 유형으로 설명하는데, 넓은 범위의 타동과 자동 역시 같은 연결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타동과 자동을 원형적으로 확대하면 사동과 피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동과 피동의 관계 또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사동은 사건을 완성시키는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 타동보다 더 원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위자와 수동자의 에너지 흐름은 아래처럼 Langacker(1991b)의 원형적 행동 연쇄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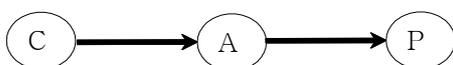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세계의 현상들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행위자가 동작을 하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인 동력으로서의 원인 제공자, 즉 ‘원인’의 논항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원인을 상위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다.¹⁶⁾

16) Hopper & Thompson(1980)는 타동성을 측정하는 변항 10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사동을 가장 높은 타동성을 구현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사동 구문에서는 참여자가 최소 둘 이상이어야 하며, 그들 중 하나는 (명시적인 혹은 비명시적인) 사동주, 즉 원인제공자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사동이 높은 타동성을 갖게 하는 변수가 되는 것이다.

6) 이 사건이 나로 하여금 울게 했다. → 나는 울었다.
 원인 행위자 동작 행위자 동작

이를 행동 연쇄 모형을 나타낸다면 아래와 같은 도식이 가능하다.



사동을 타동의 원형적 확장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위의 도식에서 보듯, 타동은 행위자에서 피행위자로 미치는 역학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사동주와 같은 또 하나의 에너지 원인을 그 상위 논항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동과 피동 역시 이처럼 확대 연결할 수 있는데, 타동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자동은 하나의 행위자(혹은 경험자)를 논항으로 취하여 동작의 결과가 그 논항에 미치게 된다. 이를 행동 연쇄 모형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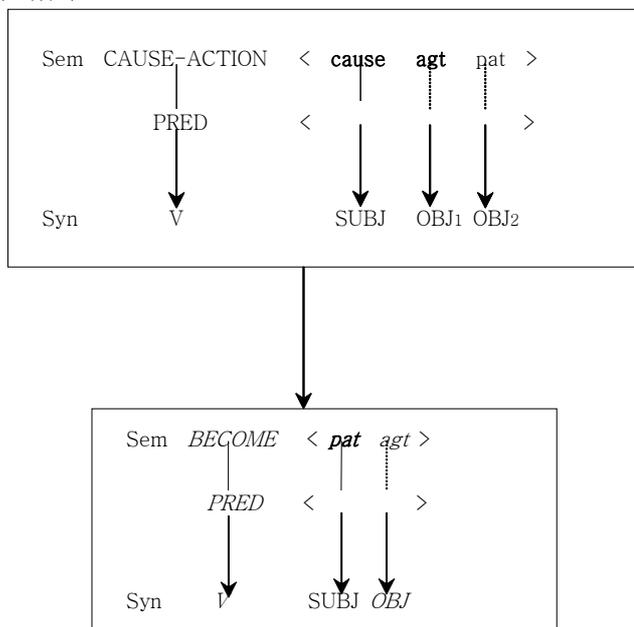
이와 같은 행동 연쇄 모형으로 나타나는 자동은 7)과 같이 여러 형태로 하위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동작의 결과가 주어에 미친다는 의미 구조상의 공통점을 가진다.

- 7) a. The man arrived.
- b. The man walked.
- c. The door ope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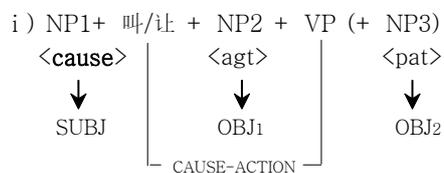
이 중 7c)와 같은 능격 구문이 피동과 의미구조가 가장 유사한데, 능격을 자동의 한 하위 부류로 설정할 수 있다면 피동 역시 가능할 것이다. 피동 구문의 주어 역시 사건을 경험하는 경험자로서 동작의 결과가 그에 미치게 되므로 상술한 자동의 행동 연쇄 모형으로 동일하게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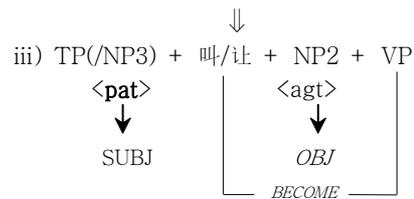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사역 이동 구문과 자동사 이동 구문의 연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위의 도식은 아래와 같이 사동 구문과 피동 구문에 변형시켜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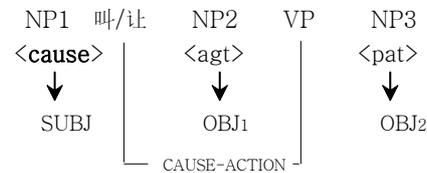
논항의 통사적 구성과 자질, 현저성은 구문의 상속 과정에서 위의 도식과 같이 변화되며, 이 내용은 앞서 살펴본 ‘叫/让’구문의 문법 의미 변화 과정과 동일하다.





2') 张三让李四偷了他的手表。

→ a. 张三t 让 李四i 偷了 他p的手表。(사동)



→ b. 张三t(他t的手表) 让 李四i 偷了。(재귀적 사동 → 피동)



위의 도식에 따르면 사동이 피동의 상위를 구성하고 있으며, 피동 구문은 사동 구문으로부터 상속되어 이 둘은 부분 관계의 연결 유형에 속하게 된다. 즉, 피동 구문이 사동 구문의 하위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이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구문이 이와 같이 예측 가능한 유사성에 의거하여 상속적으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서로 동일한 화용적 정보구조를 가지지 않으므로 완전한 동일 구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4. 나오면서

본고는 사동을 나타내는 ‘叫/让’구문이 피동의 의미 구조를 표상하게 되는 문법적 변화 양상을 통해 사동과 피동의 상관성을 가정하고, 여기

에서 나타난 상관적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Goldberg(1995:손영숙·정주리譯, 2004)의 구문 문법으로 살펴보았다. ‘叫/让’구문이 피동구문으로 해석되기 위해서 문두 논항의 수동자 성질과 사동주 논항의 잠재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두 구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변하지 않는 기반 사건은 원인-결과의 복합 사건과 그에 따른 의미 구조이다. 구문을 구성하는 두 사건의 이 인과 관계는 사동과 피동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사동은 원인과 결과를, 피동은 결과만을 현저하게 나타낸다는 면에서 사동이 피동의 상위 개념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이 둘은 부분관계 연결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동과 피동은 서로 대립적인 태의 범주에 속하며, 구문의 전환 또한 다소 비대칭적임에도 불구하고 늘 같이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동일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화자의 다양한 인지적 태도가 어떻게 언어적으로 구현되는지를 사동과 피동 구문의 대조 속에서 가장 쉽고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이 두 태가 가지는 상관성에 대한 면밀한 논의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는 그 상관성에 대한 연구의 일부로서 이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후속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이론》, 박이정, 2013
 김운신, <사동·피동 동형동사의 논항 교체 양상과 의미해석>, 《한국어 의미학》, Vol.21 No.-, 2006
 김운정, <현대중국어 사동 구문 비교 분석 연구>, 《中語中文學》, Vol.42 No.-, 2008
 김중도, 《인지문법적 관점에서 본 환유의 세계》, 경진문화사, 2005
 박향란,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 사동,피동 겸용의 기원>, 《중국 언어연구》, Vol.41 No.-, 2012
 이수진·정주연, <현대 중국어의 무표지 피동문에 대한 재고>, 《중국

- 학, Vol.34 No.-, 2009
- 이지현, <현대 중국어 피동표지 ‘讓’의 문법화 과정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제44호, 2007
- Adele E. Goldberg, 《구문문법》, 손영숙·정주리 옮김, 한국문화사, 2004
- V.Evans & m. Green, 《인지언어학기초》, 임지룡·김동환 옮김, 한국문화사, 2008
- 蒋绍遇, <“给”字句、“教”字句表被动的来源-兼谈语法化、类推和功能扩展>, 2002
- 徐 丹, <“使”字句的演变-兼谈使字的语法化>, 2003
- 项开喜, <使成兼表被动现象的多角度考察>, 《世界汉语教学》, 第25卷 第3期, 2011
- 李崇兴·石毓智, <被动标记“叫”语法化的语义基础和句法环境>, 《古汉语研究》, 第3期, 2006
- 常文芳·郜峰, <“被”字句、被动句和受事主语句之间的关系>, 《巢湖学院学报》, 第6卷 第1期, 2005
- 石毓智, 徐 杰, <汉语史上疑问形式的类型学转变及其机制: 焦点标记‘是’的产生及其影响>, 《中国语文》, 第5期, 2001
- 梅德明·韩巍峰, <显性非宾格结构的主题化分析>, 《外语教学与研究》, 05期, 2010
- 潘海华·韩 景, <显性非宾格动词结构的句法研究>, 《语言研究》, 03期, 2005
- 张谊生, <试论“由”字被动句—兼论由字句和被字句的区别>, 《语言科学》, 03期, 2004
- Hopper, P & Thompson,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1980
- Langacker, R.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ume II*,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a
- Langacker, R. *Concept, Image, Symbol: The Cognitive Basic of Grammar*, Berlin : Mouton de Gruyter, 1991b

〈中文提要〉

根据使动标记的‘叫/让’实现被动意义的语法变化过程，我们能预测到使动与被动之间的关联性。本稿在此基础上，以Goldberg(1995:손영숙·정주리譯, 2004)的构式语法的观点考查了其相关因素是怎样相联的。为了将‘叫/让’实现成被动，句首论元的受事性质和使动者的潜在发挥重要的作用，但使动与被动的共同且不变的事件结构就是原因-结果的致使结构。换句话说，构成句子的两个事件基于因果关系，这就是相连使动与被动的重要因素。对同样的一个事件，使动的认知焦点在原因和结果，而被动的认知焦点在结果，根据这些认知观点和Goldberg理论，可以判断使动是被动的上位概念，因而它们之间的关联性也可以用‘部分关系继承(subpart link)’来解释它们之间的关联性。

关键词：使动，被动，再归使动，部分关系连结，类推，重复模型，叫/让构文

투 고 일 : 2014.2.25

심 사 일 : 2014.3.3~3.31

게재확정일 : 2014.4.20

路线介词“顺着”与“沿着”辨析*

张幼冬**

<目 录>

- I. 引言
- II. “顺着”、“沿着”所在句的句法分析
- III. “顺着”、“沿着”的语义和语用
- IV. 结 论

I. 引 言

现代汉语中用于位移事件的介词很多，如“自、从、打”标引起点，“向、朝、往”标引方向和目标，“到”标引终点或目标。而“顺着”、“沿着”是一对最常用的表示事件位移或虚拟位移路线的介词。我们称其为“路线介词”，而不采用“方位”介词、“经所”介词的说法，是因为“方位”介词太宽泛，而“经所”介词突出的是路线中经过的某些处所，是路线中的“点”，而路线介词刻画的是“线”，是以线形事物为参照。在标引事物经过的路线时，“顺着”和“沿着”有什么相同和不同之处呢？这是学习者深感困惑的问题。特别是外国留学生，由于缺乏汉语的语感，在使用时常常出现错误，而在现有的语法书和词典中也难以找到满意的答案。

《现代汉语虚词例释》¹⁾指出，“顺着”有三个义项，表示“遵循、按照、听从”的意思是“顺着”独有的；而表示“事物经过所遵循的路线”时，“沿着”跟

* 本文为作者主持的山东省高等学校人文社会科学研究项目“目的语环境下的留学生汉语写作技能发展研究”（编号：J12WE18）的阶段性成果。

** 中国 山东师范大学 国际交流学院 教授

1) 北京大学中文系《现代汉语虚词例释》，商务印书馆，1996，pp.392~395.

“顺着”用法基本相同。《现代汉语虚词词典》²⁾及《现代汉语词典》³⁾的解释跟上面差不多。《现代汉语八百词》的解释比较具体一些，在解释“顺、沿”的介词用法时指出⁴⁾：后面是较长的名词短语时必加“着”，“沿着”可用于抽象意义的途径，而“顺着”不能。书中没有对“抽象意义的途径”进行具体的界定。我们观察语料发现“思路、线索、想法”这样的抽象名词用“顺着”、“沿着”引出都是可以的。显然，关于“顺着”、“沿着”的异同，在现有的语法书和词典中难以找到满意的答案。从另一方面看，学者们的研究成果大多集中在“顺着”、“沿着”的历时演变上，对“顺、顺着”及“沿、沿着”从动词到介词的虚化机制、演化时间等做了比较深入的考察。但极少有人对这一对介词做共时的比较。可见，要弄清二者在语义和使用上的规律性，必须进行更加细致、具体的考释。

本文的内容，以较大规模的语料库统计为研究的依据，从事实观察和描写入手，通过比较、挖掘“顺着”、“沿着”在句法、语义和使用上的异同点，探寻其细微的内在差异和规律，以期为汉语教学及对外汉语教学提供帮助。本文使用的语料，除特别注明外，均来自北京大学CCL语料库。

I. “顺着”、“沿着”所在句的句法分析

1. 介词“顺着”和“沿着”都由动词演变而来

1) “顺着”和“沿着”的演变

“顺着”由动词“顺”加“着”演变而来。《说文解字注》⁵⁾中说“顺：理也，理者治玉也，玉得其治之方谓之理。凡物得其治之谓之理，理之而后天理见。”到元代开始有“顺+着”的用法，清代时这种用法大量增加。在意义渐渐虚化过程中，“顺着”分化为动词、介词、副词。当“顺着+名词”可成句，与后续的动词之间有停顿时，是动词用法；当“顺着+名词”

2) 侯学超《现代汉语虚词词典》，北京大学出版社，1999，p.524.

3)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现代汉语词典》第5版，商务印书馆，2005，p.1284.

4) 吕叔湘《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商务印书馆，2005，p.509.

5) 《说文解字注》，p.418.

不能成句，与后续的名词之间无停顿时，就是介词。“顺着”作为动词的主要意思是“顺从、按照、遵循”义。下面的例句中，前句是动词用法，后句是介词用法。

(1) 等到行完了礼，一同送出大门，骑上牲口，顺着大路，便向城中进发。

(2) 出至院外，顺着沁芳溪看了一回金鱼。

据马贝加(1992)考察⁶⁾，“沿着”也是由动词“沿”加“着”演变而来。古代汉语中“沿”原为动词，“缘水而下”义。上古时“沿”的宾语是表示流水的名词，后来“向下游”的意思消失，进一步扩大了语义范围，从“流水”扩大到一般实体事物。我们考察语料发现，“沿+着”的用法形成于明代，有动词和介词两种用法，标引任何事物行经的路线或虚拟运动的路线。如：

(3) 崔宁和秀秀出府门，沿着河，走到石灰桥。^③

(4) 雪香扶着小妹姐，沿着回廊曲榭兜一个圆圈子，便要回去。^④

表一 “顺着”和“沿着”的出现和变化

朝代	顺着				沿着		
	总例数	动词数	介词数	副词数	总例数	动词数	介词数
元	2	1	1		1		1
明	31	11	14	6	6	4	2
清	499	107	378	14	53	19	34

①例句(1)出自《官场现形记》，转引自万莹《析介词“顺”、“顺着”》。

②例句(2)出自《红楼梦》，转引自万莹《析介词“顺”、“顺着”》。

③例句(3)出自《警世通言》，转引自雷冬平《近代汉语常用双音虚词的演变研究及认知分析》。

④例句(4)出自《警世通言》，转引自雷冬平《近代汉语常用双音虚词的演变研究及认知分析》。

从上面的图表可以看出“顺着”、“沿着”的历时变化：二者几乎同时出现，但“顺着”使用频率高，“沿着”使用频率较低；“顺着”有动、介、副三种词性，动词的使用比例逐步降低，做介词、标引路线成为主要用法。“沿着”也有动词、介词两种词性，介词的使用比例高于动词。从总体上看，“顺着”的使用频率比“沿着”高得多。

6) 馬貝加〈介詞“沿”的產生〉；《語文研究》1992年3期，p.37.

2) 现代汉语中“顺着、沿着”的使用情况

现代汉语中“顺着”作动词的用例很多，表示顺应、顺从或按照某顺序，介词“顺着”仍有同样的用法，二者在语义上有延续；而“沿着”虽然也有“按照某一顺序”的语义，可以用作动词，但使用数量极少，主要用作介词，表示经过的路线。如：

(5) 其实养牛也是这理儿，得顺着牛的脾气秉性。

(6) 白干酒与盐水豆儿，也能使人饱；然后提着钓竿与小鱼，沿着柳岸，踏着夕阳，从容地进入那古老的城门。

2. 介词“顺着”和“沿着”做介词时的句法考察

要全面观察介词“顺着”、“沿着”的句法和语义，必须结合其所在句的主语、谓语、宾语、状语等各句法成分来分析，为了方便叙述，我们用符号表示为：

NP+顺着/沿着+X+N+Z+VP，其中NP是主语，X是修饰语，N是介词宾语，Z是状语，VP是谓语。

1) 句子的主语NP

在“沿着”、“顺着”句中，作主语的一般是指人和物的名词或短语。

2) 句子的介宾N

①表示人行走的路线或有路线特征的词语，如“路、街、河、梯子、绳子、杆子、台阶、管道”等词语。如：

(7) 我顺着故地小径走入野地，在荒村陋室里勉强记下野歌。

(8) 每个家庭都要预备一根绳子，有了危机情况可以顺着绳子下楼。

②有些词语表示的事物整体看没有线性特征，但有边缘，如“海、湖、楼房、草地”等。如：

(9) 下了课，顺着球场边往宿舍走，有个女孩追上来悄悄地问我：“老师，你喜欢苹果吗？”

(10) 说话的时候，钓鱼人顺着湖堤向上走了。

③表示事物经过处的词语，没有线性特征，但（删）事物在上面经过时能形成线状的痕迹。如：

(11) 汗水顺着我的两颊流下来。

(12) 在漱玉泉旁, 丰溢的泉水顺着开口的石板潺潺流下, 给人一种真正“清泉石上流”的感觉。

④表示事物运动的方向或虚拟运动路线的词语, 如“方向、思路、逻辑、声音、眼光、手势、道路、思想、话题、脉络、本能、轨迹、惯性”等。如:

(13) 她不解地顺着我的手指方向看去。

(14) 他的耳朵顺着声音的方向听去, 辨别出有人从水池左后方走来的声音。

3) 句子的谓语VP

①表示人的动作经过一定的路线。如“走、跑、跳、找、奔、扑、冲、钻、游、喊、登、挖、到、来、眺、上、下、行、爬、回、攀”等。如:

(15) 我沿着海边公路漫无目的地走。

(16) 当滔滔黄河从甘肃流入宁夏中卫后, 便沿着银川平原向内蒙古方向奔流而去。

②表示人在行进途中做某事, 是伴随发生的动作行为。如:

(17) 回家时她沿着小摊买了一些菜。

(18) 他不顾炎夏高温, 沿着海峡西岸, 先后考察了厦门、泉州、莆田、福州等地市的国有企业。

③表示人的动作行为经过虚拟的路线, 如“看、望”等。

(19) 她顺着祥子的眼光也看见了那个巡警。

(20) 我们顺着林荫道望去, 看见两边的树, 伸展着双臂, 热烈地挽在一起。

④表示交通工具的运行, 如“行驶、穿行、飞行”等。如:

(21) 小汽车沿着深广公路疾驰。

(22) 我们的大客车沿着著名的丝绸之路行驶, 茫茫戈壁, 空旷寂然。

⑤表示固体、液体、气体等事物的运动、变化。如“滚、流、冲、上、下、盘旋、越过”等。如:

(23) 不明飞行物沿着一条由南向东然后向西的路线飞行。

(24) 雨水顺着头发流到全身, 她感到一阵彻骨的寒冷, 浑身颤抖

，牙齿打战。

⑥表示事物的存在方式，有线性特征，用于描写。如“排列、延伸”等。如：

(25) 这些宫殿沿着一条南北向中轴线排列，并向两旁展开，南北取直，左右对称。

(26) 在台湾南部，阿里山的樱花沿着公路一直延伸到远方。

⑦表示抽象事物的运动、变化。如“发展、进行、前进、进入、取得、步入、献给、奋斗、审视、实现、扩大、展开、寻求、推进、经营、对抗、进发、加快、辐射、追寻、部署”等。如：

(27) 不仅传统农区要走这一步，其他地区也将沿着这个轨道前进。

(28) 经过磋商，我们就能逐步建立信任、缩小分歧，扩大共识，使核问题沿着和平解决的道路走下去。

4) 句子的状语Z

Z主要处于介词短语和谓语动词之间，有时可用于介宾前，意义上差别不大，我们不做区分。“顺着”、“沿着”句的状语类型有如下几种：

①可以表示运动的方向，如“向下、向南、向前、逆向”等。

(29) 我们从公路下来，沿着一条小路向一个山坡开去。

(30) 我国敦煌的鸣沙山，当人顺着沙坡向下滑时，能听到像飞机轰鸣一样的声音。

②可以表示运动速度，如“缓慢地、迅速地、匆匆”等。

(31) 彩车和游行队伍，沿着谭林和苏迪尔曼两条主要大街缓缓行进。

(32) 爆炸发生后，火势沿着空调管道迅速在整个超市内蔓延开来。

③可以表示运动行经的处所，如“从、经”等。

(33) 他们从直升飞机上顺着绳索下到了地面。

(34) 中山港建成后，其上游所有出口货物全部穿过洪泽湖，再沿着淮河入海通道经中山港直接出海。

④可以修饰运动的情状，如“弯弯曲曲地、一步一步、逐个”等。

(35) 这时候，一队攀登者沿着沟一步步爬了上来，他们全身都已湿透。

(36) 逛了好一会儿，他们才下山往回走，沿着百步梯，弯弯曲曲地在山谷里转。

5) 句子的宾语和补语

当谓语是及物动词时，可以带宾语。当谓语是不及物动词时，常表示动作进行或持续，也可以带补语，表示动作的方向或结果。如：

(37) 小林满脸通红，一个人沿着舞场边走过来。

(38) 吉普车沿着弯弯曲曲的乡间小道开到村南的一座农家院落。

III. “顺着”、“沿着”的语义和语用

1. “顺着”与“沿着”的相同语义

1) 表示人具体的动作、行为，有一定的运动路线。

(39) 人们沿着这些梯子攀上峭壁，寻找和采集燕窝。

(40) 我上了十米跳台，往下一看，头晕目眩。我顺着梯子下到七米跳台，仍感到下面游泳池的如渊深邃。

2) 表示一般事物的物理运动方式，包括固体物的滚、滑等；液体的流、淌、渗、洒、滴等；气体的吹、飘等；交通工具的飞、驶、盘旋、飞翔等。

(41) 眼泪沿着脸颊流下来，她再也说不出第二句话。

(42) 他看到儿子脸色苍白，豆大的虚汗顺着脸颊往下滚。

3) 表示人的动作、行为按虚拟的位移路线进行，用“方向、引路、思想、足迹、逻辑、线索”词语表示心理空间中的虚拟路线。

(43) 案件侦破紧张有序，多路干警沿着不同的线索奋力追寻着犯罪分子的蛛丝马迹。

(44) 就算是那个罪犯已经死了，我们也一样可以顺着这个线索找到更多的突破点。

4) 表示按照某种顺序做某事。“顺着”用法较多，“沿着”用法较少。如：

(45) 他是从当战士起，沿着班、排、连、营、团、师、军长的顺

序成长为高级指挥员的。

(46) 幼儿园教育、小学教育、初中教育一直到高中毕业教育，循序渐进，沿着人生认识发展顺序安排内容，涵盖了这一教育过程所需要的知识。

2.“顺着”句特有的语义

1) 表示顺应、借助于某种力量，跟它的方向一致，这时不能用“沿着”。如：

(47) 顺着风对人呼喊，声音并没有更加宏大，但能使听的人听得更清楚。

2) 当介宾N是某种声音时，只能用“顺着”，不能用“沿着”。如：

(48) 记者顺着犬吠的声音来到了赛场西侧的一个院落。

3.“沿着”句特有的语义

1) 介词“沿着”的宾语表示的线路可以是直线、曲线、螺旋、之字形、菱形、弧形、圆圈等各种形状。如：

(49) 太阳总是高挂天空，沿着与地平面几乎平行的圆周转圈。

2) 谓语动词可以表示动作在固定的路线间往复运动。如：

(50) 经过长期的训练，他培养成了沿着固定路线往复走动的习惯，每天都保持着必要的活动量，直到去世。

4.“顺着”、“沿着”的语用对比

我们从北大CCL语料库选取了小说、新闻、科技三种语体，小说又区分不同作者的不同风格，从纵向、横向两个方面对语料进行了比较。

1) “顺着”、“沿着”在小说语体中的特点

在小说中，“顺着、沿着”后面的宾语N一般是表示真实位移路线的名词，如“小路、街、道、河、湖、海”及其他具体事物名词，抽象介词宾语很少，而且只限于“思路、眼光”等抽象度低的名词；谓语使用抽象动词很少。

在老舍作品中，使用介词“顺着”110例，抽象的介词宾语只有“思路、语气、主张、眼光、心意、意思、程度、口气”6例，占5.5%，谓语使用抽象动词的用例为零；老舍作品中使用“沿着”22例，抽象介宾有3例，“路、心、思索”，占13.6%，使用抽象动词作谓语的有2例。从比例上来说，“沿着”使用抽象介宾、抽象动词的比例稍多于“顺着”。但区别不显

著。

在王朔作品中，“顺着”的用法27例，抽象介宾有“目光、视线、思路、方向、意思”等7例，都属于抽象度比较低的词语，占25.9%；抽象动词作谓语2例，占7.4%。王朔作品使用“沿着”104例，抽象宾语4例，占3.8%，抽象动词作谓语4例，占3.8%。

对其他当代作品的考察结果与王朔小说相似，“沿着”的用法多于“顺着”。由此看来，老舍小说较多地沿袭清代、民国时期的使用习惯，与当代作品有明显不同。

表二 “顺着”和“沿着”在现代、当代小说中的使用情况

语料来源	顺着用例数	沿着用例数
老舍小说	110	22
王朔小说	30	105
张炜小说	12	21
杨绛小说	2	2
钱钟书小说	无	1

2) “顺着”、“沿着”在新闻语体中的特点

我们在CCL语料库《人们日报》中统计得到“顺着”的用法234例，抽象介宾大大增加，有“手势、激情、思路、眼光、线索、脚印、声音、指点、挥洒、势头、搏动、走势、经过、脉络、潮流、路子、方法、思路、轨迹、回音”等，共61例，占26%；在1200个“沿着”的用例中，除了抽象介宾的数量大大增加外，抽象度也高于“顺着”中的介宾，还有很多比喻的用法，如“社会主义道路、历史的隧道、社会发展的路线”等。所有的抽象介宾用例共520条，占43%，远远高于“顺着”的用法。另一方面，与之相搭配的抽象谓语动词大幅增加，普通动词的比喻用法也很多，如“沿着社会主义大道走下去”，“走”有比喻义。（删）

（51）当前，中国人民正沿着和平发展的道路，聚精会神搞建设，一心一意谋发展。

3) “顺着”、“沿着”在科技语体中的特点

我们统计了CCL语料库中的《中国儿童百科全书》得到使用“顺着”20例、“沿着”93例，仍然是“沿着”的用法更多，句子的语义多表示自然物理现象的惯常性运动，运动方向有双向、多向特征，运动路线有非直

线性特征。如：

(52) 实验证明：不管玻璃丝怎样弯曲，从它的一端射入的光都会顺着它弯曲地传播，而从另一端射出。

小结：小说语体中，虽然因作家风格不同，“顺着、沿着”的使用有一些差别，但总的来说，后面接抽象名词的类型和数量都比较少，多表示人或事物真实位移及伴随情况。在新闻语体中，“顺着”比“沿着”的用例少，后面接抽象名词的用法也少；“沿着”后接抽象词语的情况比较普遍，有很多比喻用法，表达的是与社会相关的政治、经济、军事、文化、历史、科学等发展变化所遵循的路线、规律等；在科技语体中，“沿着”的用例多于“顺着”，常常表示事物的惯常性及多方向、非直线运动。

IV. “顺着”、“沿着”所在句的意象图式

1. 意象图式的类型

a表示物理世界的位移，路线是现实存在的，人或事物的位移在这条路线上进行，直线性特征明显，有目标或预设的终点。常见的介宾有“路、道”。

(53) 顺着一条下坡的小路，我们走到了伏尔加河源头。

(54) 顺着环城路向北，一大片新楼房在从前的田地里拔地而起。

b表示物理世界的位移，介宾是具体的物体，如“梯子、座位”等。人或物经过后形成虚拟的路线。如：

(55) 我们俩默默不语，沿着一根根石柱向前面阳光刺眼的街口走去。

(56) 顺着石阶走向烈士陵园的时候，我的心情深沉、激动、肃穆。

c表示物理世界的位移，面积较大，人或物经过的是它的边缘，如“河、湖、树林，绿地”等，运动是非直线型。

(57) 高晋和那个女人钻进一辆计程车，沿着广场中心的绿地转了一圈驶上高架马路向城里开去。

(58) 在朋友家吃完饭，我们便沿着附近的小湖散步闲聊。

d表示事物在某区域内按照一定的方向运动时留下线性痕迹，主要

是液体的运动,如“滴,淌,流”等。N的线性特征不明显,但运动后的线性特征突出。

(59)炎炎烈日下,农民弯腰驼背在地里锄禾,汗水顺着满是皱纹的脸上落下来,流进脚下的黄土地。

(60)雨暴风狂,雨水顺着雨衣流到她的裙子上,又顺着她的腿肚子一直流进她的鞋里。

e表示物理世界的位移路线,有管形特征,人或事物在其内部运动,运动过程不可见,但可感知。如:

(61)人的血液在全身,始终沿着一定的管道,按照一定的方向流动着。

(62)现代科学创造的奇迹之一是使光像电流一样沿着导线传输。

f表示静态存在的人或事物呈线性排列,观察者的视线有位移的表现。如:

(63)道路两旁,一排排的汽车沿街而停,顺着慢车道一字排开。

(64)顺着闹市区的街道望去,两边的霓虹灯、广告牌,层层叠叠,千姿百态。

g表示非直线型位移路线,突出运动的过程。如:

(65)逆风行船时,帆船要沿着“之”字形路线,左右迂回前进。

(66)如果有两个体重相同的小孩同时从滑梯顶部往下滑,甲沿着斜线滑道下滑,乙沿着弧形滑道下滑,那么哪个小孩先滑到底部呢?

h表示物理世界的位移,运动和动作是伴随发生的,表示运动的词在语言中不出现,只出现伴随动作和动作后的结果。如:

(67)他耐着性,擦着墙根,沿着门看门上的姓名牌。

(68)李燕北迟疑着,目光沿着街道两旁古老精雅的店铺一家家看过去,眼睛里仿佛充满了悲伤。

i表示在按照某一路线行进过程中有顺序地做某一事情,有逐一性。如:

(69)沿着泥泞的乡间小路,温家宝走家入户,详细询问灾情和救灾工作进展情况。

(70)老朱像一座精确的钟表,每天按时从邮电所出发,沿着熟悉的邮路,从一个投递点到另一个投递点,按时把邮件送到群众手里。

j表示运动按某一路线进行，重在刻画反复性、持续性，突出行为本身的伴随性特征。如：

(71) 白天，树袋熊沿着树枝爬上爬下，寻找桉叶充饥。

(72) 传说伏羲有人的头，蛇的身子，从小就很有神力，能沿着通天的大树自由向上，长大后当了东方的天帝。

k表示在同一时间段内的多路线、多方向、多终点位移运动，体现多事件的伴随性特征。如：

(73) 保安队员们抖擞精神沿着一人多深的交通壕，分头跑向自己的位置。

(74) 挂着外省车牌的“自驾车”，源源不断地从广东雷州半岛跨海而来，沿着海南环岛高速公路向三亚、兴隆、博鳌、五指山等旅游地进发。

l表示心理空间中的虚拟位移路线，运动或动作没有位移特征，但可以感知，虚拟的路线有明确的起点和隐含的终点，是源点和目标点间的虚拟位移。这类的虚拟路线有“目光，视线，声音，手势”等。

(75) 顺着女儿的视线，父亲发现女儿并没有在看这些工艺品，而是在看价目表。

(76) 顺着她的手势望去，只见一片片稻田长势喜人，翠绿的禾苗在微风的吹拂下荡起层层波浪。

m表示社会空间中事物的位移路线，路线是无定的，可触知性低。涉及事件的范围更广、时间跨度等更大。这类的介宾有“思路、路子、足迹”等。

(77) 后来禅宗的主流是沿着慧能的路线发展的。在其中，空宗与道家的结合，达到了高峰。

(78) 余先生的思路颇具新意，顺着这条思路走下去，仿佛可企望打开文化反思的别一洞天。

n表示隐喻的“路线”，这类的介宾有“道路、航线、轨迹、隧道”等，修饰语X常常为“社会、人生、历史”。如：

(79) 顺着这条无垠的时光隧道，你会把人类、战争、侵略、受害一起装进脑海。

(80) 回归以来，香港居民享有前所未有的民主权和自由，也说明

香港继续沿着“一国两制”和基本法的轨道向前发展。

我们观察后发现，表示物理世界的真实路线时，a~f的意象倾向于使用“顺着”，g~k倾向于使用“沿着”。表示心理空间的虚拟路线时，意象l倾向于使用“顺着”；表示社会空间的虚拟路线时，意象m和n都使用“沿着”。“顺着”和“沿着”有比较明确的互补分布。

2. “顺着”句的典型意向图式特征描述

所谓典型意象，就是有最大区别特征的意象。在上文的分析中，我们仍无法从直觉上对“顺着”或“沿着”产生深刻的印象。因此，我们把二者最不同的意象进行对比。

1) 真实位移路线的方向性强、突出动作结果

动词“顺着”有顺应、适应的语义，介词“顺着”的语义在某种程度上仍含有顺应的语义，体现为：在真实位移句中，某些位移主体的运动，受外力的影响或借助外力，主体位移的方向与外力的方向一致。如：

(81) 灰尘漫天翻滚，顺着高空风势飘散到前苏联的西部。

(82) 潮落的时候，元军从北面冲击；潮涨的时候，元军又顺着潮水从南面进攻。

真实位移路线的位移往往有结果，或可以预测位移的终点、处所等。如“汗水顺着他的脸颊流下来”隐含着“流到身上某处”。

2) 非真实位移路线的可触知性高

应该说，虚拟位移路线都是不可触知的，但程度并不一样。“顺着”后的抽象名词，可触知性高的。如N为“目光、视线、声音”时，修饰语X是具体有定的人或物，其动作行为VP的路线虽是不可见的，但可感知，位移路线的长度可推测，因而具有一定的空间性特征。下面的例句中，VP的结果所在的位置，就是目光位移的终点，在视线所及的范围之内。如：

(83) 顺着他的眼光看去，街对面确实有个花哨的摊子。

(84) 黄昏，我顺着狗叫的声音，走进了一个偏僻的山村时，星星已开始在苍茫的天空中闪烁了。

“思路、方向”是中等程度的抽象词语，可触及性较高，涉及的也是具体的事件和时间，有一定的时间性。如：

(85) 搞社会主义市场经济需要优秀军人，顺着这个思路，双星集团多年来积极支持部队开展“争当优秀士兵”的活动。

(86) 奶奶顺着孙女手指的方向望去：那张小方桌确实很结实，又很美观。

3. “沿着”句的典型意象图式特征描述

1) 真实位移路线的过程性强

①有伴随性动作或结果

“伴随性”体现在谓语动词上表现为：直接使用并列的动词谓语形式、连谓结构或“边VP1边VP2”的谓语形式。有时结果体现在后续句。如：

(87) 他们从成都出发，沿着川藏线边演边走，边采访，一个半月到拉萨。

(88) 借书处设有图书期刊自动走台系统，运载车沿着轨道能在水平、垂直、倾斜状态下自找重心行走。

②重在描写

“沿着”句介宾与“顺着”句介宾相比，有更长的描写性修饰成分。为了更充分地说明问题，我们考察了老舍、王朔小说中“顺着”、“沿着”介宾的描写性修饰语，如“昏暗的、狭长的、一个个”等表示情状的成分，排除限制性修饰语，如“公园的铁栏杆、屋门的墙上”中的定语。得到的结果是：老舍小说中，“顺着”介宾的描写性修饰语有3例，占2.7%；“沿着”句的描写性修饰语有22例，占36%。王朔小说中，“顺着”句的描写性修饰语有3例，占11%， “沿着”的描写性修饰语有39例，占37.5%。如：

(89) 我们轻松地笑个不停，满不在乎地沿着夜阑人静、灯火辉煌的大街中心线往城里走。

(90) 所谓轴线对景, 就是人沿着一条长长的, 笔直的路, 由远而近地观赏一个景。

③运动事件涉及的参与者多、路线的范围大、时间长、面广。

(91) “助学长征”将于今年10月15日从江西省瑞金市出发, 沿着当年主力红军长征所经过的地区步行, 跨越江西、广东、湖南、广西、贵州、云南等十个省区, 预计于明年到达陕北。

(92) 公元627年, 中国僧人玄奘孤身一人从西安出发, 沿着丝绸之路一路西行, 到达当时的天竺学习佛教教义。

2) 虚拟位移路线的可触知性低

“道路、路子、方向”等词语是低触知性的, 用于说明规律性的事物, 并不跟具体的事件相联系, 抽象度最高, 常用于惯常动作、将来事情的表达。

(93) 北大能够有今天, 他有不可磨灭的功绩, 我们将沿着他开辟的道路走下去, 把北大建设得更好。

(94) 只要上下统一认识, 积极稳妥地推进改革, 就可以促进国民经济继续沿着好的方向发展。

总之, 在表达非真实位移路线时, “顺着”、“沿着”都使用抽象介宾, 但抽象度不同。以“方向”为例, “手指的方向”和“社会发展的方向”不一样, “船沿着一定的航线行驶”, 跟“沿着市场经济的正确航线行驶”也不同, 前者的N虽然是抽象的, 但X是有定的, 空间上有一定的感知度; 后者的X是无定的, 无空间性, 抽象度高, 多与相应的抽象动词搭配, 如“前进、发展”等。

四. 结论

从历时的角度看, “顺着”与“沿着”几乎同时出现, “顺着”的出现早于“沿着”(删), 但“顺着”使用频率高。介词“顺着”的语义有三种, 其中两个语义跟动词“顺着”有关, 即“顺从、顺应、适应”和“按照一定的次序”, “顺着”的动词和介词用法在语义上有承续。“沿着

”的出現晚於“順着”（刪），主要用作介詞，動詞用法很少。

從共時角度看，當代文獻中，“沿着”的使用頻率高於“順着”，在科技語體、新聞語體中的表現最明顯，在小說中，當代作家使用“沿着”普遍多於“順着”，與“沿着”在其他語體中的使用情況也是一致的。

“順着”句突出的意象是：運動主體接受某種外力並借助外力按一定的方向運動；在表示虛擬運動時，介賓的抽象度低，可觸知性高。介詞“沿着”的語義重點是刻畫過程性、伴隨性運動特徵，意象圖式常常涉及多個運動主體、朝不同的方向、做直線、曲線等單程或往返運動；在表示虛擬運動時，介賓的抽象度高，可觸知性低，表達社會空間中事物的運動、發展時有很多比喻用法。

<參考文獻>

- 崔喜亮，〈認知語言學：研究範圍和研究方法〉；《漢語作為第二語言的習得與認知研究》，北京大學出版社，2008
- 陳昌來，〈現代漢語介詞的內部差異及其影響〉；《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5年 5期
- 尚平，〈介詞+著現象考察〉；《語言文字應用》2005年 9期
- 雷冬平，〈近代漢語常用雙音虛詞的演變研究及認知分析〉，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8
- 馬貝加，〈介詞“沿”的產生〉；《語文研究》1992年 3期
- 馬貝加，〈漢語中“沿著”義的動詞與介詞〉；《溫州師範學院學報》2006年 10期
- 萬瑩，〈析介詞“順”、“順著”〉；《雲南師大學報（對外漢語教學與研究版）》6卷 4期，2008
- 呂叔湘，《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2005
- 侯學超，《現代漢語虛詞詞典》，北京大學出版社，1999
- 北京大學中文系《現代漢語虛詞例釋》，商務印書館，1996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現代漢語詞典》第5版，商務印書館，2005

<Abstract>

**The Semantic and Pragmatic Differences between
Shunzhe(顺着)’ and ‘Yanzhe(沿着)’**

“顺着” and “沿着” are two prepositions about path of action. The minor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difficult to master in Chinese learning. Based on the large-scale corpus, this article tries to compare and contrast the two words synchronically and dychronically from the semantic and pragmatical percetives. It also compare the schemata of their typical images.

The preposition “顺着” appeared before “沿着”, thus it was used more frequently than “沿着”. The meaning of “顺着” as a verb was consistent with the meaning as a preposition; On the contrary, “沿着” appeared later than 顺着, mainly used as preposition. From the synchronic perspective, “沿着” has higher use frequency than “顺着”, which is evident in scientific works and news writing.

The prominent image of “顺着” is the real displacement of objects, moving in a certain direction with the aid of external force. The prominent image of “沿着” highlights the process and concomitant of motion, usually in different directions, whether in a straight line or in zigzag motion. When describing the virtual movement, “顺着” is less abstract than “沿着”, and the sentence with “沿着” often has a lot of metaphoric meanings.

62 · 中國學 第47輯(2014.4)

Key words : preposition on path; 'shunzhe'; 'yanzhe';
semantically; pragmatically; schemata of image

투 고 일 : 2014.2.24

심 사 일 : 2014.3.3~3.31

게재확정일 : 2014.4.20

갈등해결의 수사학 관점으로 바라보는 《도덕경》*

안성재**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갈등 해결의 기본 삼(三) 요소
 - 2-1. 검소(儉)
 - 2-2. 자애로움(慈)
 - 2-3. 감히 앞에 나서지 않는 겸손함(不敢爲天下先: 불감위천하선)
 3. 갈등 해결의 궁극
 - 3-1. 객관성과 공정성(中)
 - 3-2. 어느 누구하나 버리지 않는 조화(和)
 4. 지나친 법과 제도의 세분화 반대(不言: 불언)
 5. 신뢰(信)
 6. 신중함(慎)
 7. 나오는 글
- 참고문헌
中文摘要

1. 들어가는 글

노자(老子)의 유일한 저서로 알려진 《도덕경(道德經)》은, 그간 무위자연(無爲自然) 즉 억지로 작위하지 말고 자연으로 귀의하라는 독특한 인생과 처세술이 내포된 철학서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로 ‘무위

* 본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3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仁川大學校 教育大學院 副教授

자연'의 진의(眞意)는, 법과 제도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억지로 통제하지 말고 천성(天性)에 따라서 스스로 그러하게끔 하도록 통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도덕경》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5천여자로 기록한, 고대 중국의 통치이념서적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 그리고 노자는 그 핵심을 '나'와 '너'를 편 가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우리'라는 개념의 대동(大同)사회로의 복귀에 두었다.¹⁾

이렇듯 노자의 《도덕경》은 비록 그 취지가 한 나라의 최고통치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이제 이를 현대사회에 응용함으로써,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본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총 81장으로 구성된 《도덕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노자가 과연 이 첨예한 대립속의 현대사회 갈등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나아가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갈등 해결의 기본 삼(三) 요소

2-1. 검소(儉)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지도자가 사리사욕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何謂貴大患若身? 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 及吾無身, 吾有何患?²⁾
어떠한 것을 자신을 중시하는 것처럼 큰 재앙을 중시한다고 이르는가? 내게 큰 화가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돌보기 때문이다. 이에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내게 무슨 화가 있겠는가? 《도덕경》 13장

무엇을 나라를 이끄는 일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오히

1) 《노자의 재구성》, 어문학사, 2012년.

2) 본문에 대한 해석은 《노자, 정치를 깨우다》(어문학사, 2013)를 근거로 함.

려 너무 집착하게 되면, 결국에는 큰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일컫는가? 태평성대 특히 대동 사회를 이끈 지도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백성들 아래에 처함으로써 백성들의 신망과 지지를 받았는데, 그와 반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고 집착하여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 들어 덕치를 펴지 못하면, 결국 지도자의 자리를 지킬 수 없거니와 나아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태평성대를 이끈 지도자들은 이처럼 자기를 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았다. 자기를 아래에 두어 항상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였기에, 그들의 신망과 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으니, 지도자에게 어떠한 재앙이 닥칠 수 있었겠는가?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馳騁畋獵令人心發狂,
難得之貨令人行妨.

화려한 색은 사람의 눈을 어지럽히고, 번잡한 소리는 사람의 귀를 영활하지 못하게 하며, 푸짐한 음식은 사람의 입을 어긋나게 하고, 질주하여 하는 사냥은 사람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며, 희소한 물건은 사람으로 하여금 순조롭지 못하게 한다. 《도덕경》 12장

화려한 색채는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어지럽혀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화려한 소리는 사람의 귀를 현란하게 어지럽혀 정확하게 듣지 못하게 하며, 지나치게 풍성한 음식은 사람의 미각을 상하게 하여 올바르게 음미하지 못하게 하고, 절제 없이 마음껏 하는 사냥은 사람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여 올바른 정치를 펴지 못하게 하며, 진귀한 보물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혀 규칙을 어기게 한다.

不欲以靜, 天下將自定.

탐욕이 없게 됨으로써 평정을 찾게 되니, 세상은 장차 스스로 안정되게 된다. 《도덕경》 37장

사리사욕이 사라져 혼란이 없어지면 지도자가 말이나 명령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니, 세상은 다시 대동사회로 돌아가게 되어 평안해진다.

知足不辱，知止不殆，可以長久。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험하지 않으니, 오래
할 수 있다. 《도덕경》 44장

따라서 지도자가 욕심을 탐하지 않고 그 자리에 만족하면 곤욕스럽지
않을 수 있고, 더 큰 것을 바라지 않고 멈출 줄 알면 백성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게 되니, 오랫동안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고 나아가 백성들
에게서 잊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服文綵，帶利劍，厭飲食，財貨有餘。是謂盜夸，非道也哉！
 화려한 비단을 입고, 날카로운 검을 차며, 음식에 빠지고, 재물은 넘
쳐난다. 이를 일컬어 훔쳐서 자랑한다고 하니, 도가 아니다! 《도덕경》
53장

오늘날의 지도자는 사치스러움에 빠져서 나라를 돌보지 않고 착취하
며, 자애로운 덕으로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일삼거나 강압적인
수단으로 백성들을 통제하는 등의 권위의식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지도자가 백성들을 착취하여 호의호식하는 것을 일컬어서 남의 것을 훔
쳐서 자랑한다고 하니, 이는 대동사회의 통치이념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다!

2-2. 자애로움(慈)

노자가 말하는 자애로움의 구체적인 함의는 타인의 허물은 감싸주고
관대하고도 너그럽게 대하지만, 자기의 허물은 부끄러워하고 나아가 더
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그 허물을 고치려고 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儼兮其若容。
정중하니 그것은 마치 포용하는 듯하다. 《도덕경》 15장

정중하니, 이는 마치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모두 포용하는 듯 삼가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

柔弱勝剛強.

유약함이 강직함을 이긴다. 《도덕경》 36장

자애로움으로 통치하면 백성들이 따르지만, 엄격한 법률이나 예약제도를 강화하여 누르려 하면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된다.

強梁者不得其死，吾將以爲教父.

포악한 자는 그 죽음을 얻지 못하게 되니, 나는 장차 그림으로써 가르침의 규범을 삼는다. 《도덕경》 42장

법률과 제도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폭군들은 그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뿐더러 비명횡사하게 되었으니, 나는 고대의 문헌들을 통해서 그러한 대동사회의 통치이념을 이해하여 세상에 알리는 규범으로 삼는다.

天下之至柔，馳騁天下之至堅.

세상의 지극히 유약한 것이, 세상의 지극히 단단한 것을 제어한다. 《도덕경》 43장

자애로움의 덕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법률과 예약제도로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정치이다.

見小曰明，守柔曰強.

세밀한 것을 관찰하는 것을 밝음이라 이르고, 연약한 것을 지키는 것을 강하다고 이른다. 《도덕경》 52장

백성들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을 순일한 덕을 밝히는 것이라고 일컫고, 자애로움의 덕으로 일관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진정 강하다고 하는 것이다.

夫慈，以戰則勝，以守則固。天將救之，以慈衛之.

무릇 자애로움이란, 그것으로서 전쟁에 쓰면 곧 승리하고, 그것으로서 수비에 쓰면 곧 견고해진다. 하늘이 장차 그를 구원하려 하면, 자애로움으로 그를 지킨다. 《도덕경》 67장

이처럼 어느 누구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 포용하는 자애로움으로 전쟁을 하면 상대가 감복하여 승리할 수 있고, 자애로움으로 적군을 막게 되면 백성들이 화합하여 더 견고해진다. 이러한 자애로움을 지키고 실천하면 천성에 따라서 스스로 그러하게 하므로, 어떠한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故抗兵相加，哀者勝矣.

그러므로 필적하는 군대가 서로 가해지면, 자애로운 쪽이 이긴다. 《도덕경》 69장

따라서 실력이 비등한 군대가 서로 충돌하게 되면, 자애로운 덕으로 상대를 대하는 군대가 이기게 된다.

人之生也柔弱，其死也堅強. 萬物草木之生也柔脆，其死也枯槁. 故堅強者死之徒，柔弱生之徒. 是以兵強則不勝，木強則兵. 強大處下，柔弱處上.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유연하지만, 죽으면 뻣뻣해진다. 만물의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죽으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강경한 것은 죽음의 부류이고, 연약한 것은 삶의 부류이다. 이 때문에 무기로 강박하면 곧 패배하고, 나무가 단단하면 곧 무기가 된다. 강대함은 아래에 처하고, 부드러움이 위에 처한다. 《도덕경》 76장

부드러움은 살아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길하지만, 강경함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길하다. 만물의 초목이 연하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있음을 뜻하지만, 시들어 말라버린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경함은 죽음 즉 불길한 것에 속하는 것이고, 부드러움은 살아있음 즉 길한 것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지도자가 강제적인 수단으로 억압하면 백성들이 등을 돌려서 결국 그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게 되고, 나

무가 단단하면 곧 베여서 무기가 되니, 천성에 따라서 주어진 삶을 다 할 수 없게 된다. 제도로 억압하여 통제하는 것은 하등의 통치이고, 자애로운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 상등의 통치인 것이다.

天下莫柔弱於水，而攻堅強者莫之能勝，其無以易之。 弱之勝強，柔之勝剛，天下莫不知，莫能行。

세상에는 물보다 연약한 것이 없지만, 강경한 것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연약한 것이 강경한 것을 이기는데, 세상에는 모르는 이가 없지만, 능히 행하는 자가 없도다. 《도덕경》 78장

대동사회의 통치이념인 자애로운 덕은 마치 물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부드럽지만 백성들이 따르고, 형벌이나 제도 등 강경한 수단으로 통제하면 오히려 백성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에, 덕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자애로운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제도로 통제하는 것보다 더 이상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지도자가 없지만, 실제로는 덕치가 과연 실현가능한지 반신반의하여 행하는 이가 없다.

2-3. 감히 앞에 나서지 않는 겸손함(不敢爲天下先: 불감위천하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국민의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들지 않고, 항상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밑에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노자는 끊임없이 《도덕경》을 통해서 지도자란 국민의 밑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外其身而身存。非以其無私邪？故能成其私。

이 때문에, 성인은 자기를 뒤에 두지만 자기가 앞서게 되고, 자기를 도외시하지만 자기를 보존할 수 있다. 자기를 사사로이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도덕경》 7장

따라서 태평성대 그중에서도 특히 대동 사회를 이끈 지도자들은 자신을 백성들 아래에 두었지만, 오히려 백성들의 신망을 받아 위에 올라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자기를 버리고 백성들의 뜻에 따랐지만, 오히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그 지도자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대동 사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신망을 받아 위에 올라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그 지도자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를 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따라서 그들은 오히려 것처럼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고, 또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는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上善若水，水善利萬物而不爭。處衆人之所惡，故幾於道。

최고의 선은 물과 같으니, 물은 만물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들과 다투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기에, 그러므로 도에 근접한다. 《도덕경》 8장

상위에 있는 선함이란 물과 같이 부드럽고도 자애로운 것이니, 이러한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만물에게 큰 도움을 주지 결코 방해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물과 같은 부드러움과 자애로움의 덕치를 추구하는 대동사회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어려워하고 자신을 그들의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진정한 대동사회의 통치이념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다.

功遂身退，天之道。

공을 이루면 자신은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리이다. 《도덕경》 9장

이처럼 대동사회의 지도자들은 공로를 세워도 그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으니, 이는 지도자가 지켜야 할 하늘의 도리 즉 순리인 것이다.

自見者不明，自是者不彰，自伐者無功，自矜者不長。其在道也，曰餘食贅行，物或惡之，故有道者不處。

자신의 안목에만 의존하는 이는 명확하게 볼 수 없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이는 분명히 할 수 없으며, 스스로 자랑하는 이는 공로가 없고, 거만한 이는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 그것은 도에 있어서, 먹다 남은 음식이나 군더더기라고 말하여, 만물이 그들을 싫어하니, 그러므로 도가 있는 사람은 머물지 않는다. 《도덕경》 24장

자기의 안목에만 의지하여 많은 이들에게 옳은지 그른지를 묻지 않는 지도자는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겨서 많은 이들과 상의하지 않는 지도자는 시비를 분명히 가리지 못하게 되며, 자기가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지도자는 결국 위대한 업적을 세울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지위에 거만해하는 지도자는 결국 남들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지도자의 태도는 대동사회의 통치이념에 있어서 먹다 남은 음식이나 군더더기처럼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하늘이 부여한 천성을 따르기를 바라는 만물은 그러한 태도를 싫어한다. 따라서 진정 대동사회의 통치이념을 깨닫고 실천하는 지도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故貴以賤爲本，高以下爲基。是以侯王自謂孤寡不穀。此非以賤爲本邪？非乎？故致數興無興。不欲瑋瑋如玉，珞珞如石。

따라서 귀함은 비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높음은 낮음을 기반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천자와 제후는 스스로를 고, 과, 불곡이라고 칭하였다. 이는 비천함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아니한가? 그러므로 최고의 영예에 이르면 영예가 없는 것이다. 옥과 같이 귀하기보다는, 차라리 돌과 같이 단단한 것이 낫다. 《도덕경》 39장

그러므로 지도자와 같이 귀한 신분은 반드시 자신을 낮춰서 백성들을 나라의 근본으로 귀히 여기고, 지도자와 같이 높은 신분은 반드시 자신을 낮춰서 백성들을 숭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도자는 스스로를 외로운 존재, 작고 미약한 존

재, 곡식만도 못하여 백성들을 잘 기르지 못하는 존재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야말로 지도자가 자신을 낮춰서 백성들을 나라의 근본으로 귀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대동 사회를 이끈 성인들처럼,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가 존재함을 알 뿐인 것이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지도자는 옥처럼 겉으로 화려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차라리 돌처럼 겉은 보잘 것 없지만 속은 단단하여 내실이 있는 모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동의 통치이념인 천성에 따르려고 삼가 노력해야지, 불필요하게 앞일을 내다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人之所惡，唯孤寡不穀，而王公以爲稱。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고, 과, 불곡이나, 천자와 제후는 그럼으로써 호칭을 삼았다. 《도덕경》 42장

사람들이 싫어하여 꺼리는 것이 외롭다 미약하다 곡식만도 못하다는 말인데, 성인들은 이러한 말들로 호칭을 삼아서 스스로를 백성들 아래에 놓은 것이다.

牝常以靜勝牡，以靜爲下。
모성이 항상 고요함으로 부성을 제압하는 것은, 고요함으로 아래에 처하기 때문이다. 《도덕경》 61장

백성들은 법과 제도로 억압하여 통제하는 지도자보다 항상 말과 명령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자애로운 덕을 베푸는 지도자를 더욱 따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도자가 말과 명령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백성들 아래에 두기 때문이다.

江海所以能爲百谷王者，以其善下之，故能爲百谷王。是以欲上民，必以言下之；欲先民，必以身後之。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능숙하게 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모든 계곡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백성의 위에 처하려면, 반드시 말을 함에 있어 그에게 낮춰야 하고; 백성을 영도하려면, 반드시 몸을 백성들 뒤에 두어야

한다. 《도덕경》 66장

계곡에서 나오는 모든 물줄기가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강과 바다가 계곡 아래에 처해있기 때문이니, 그럼으로써 강과 바다는 모든 계곡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지도자가 백성들을 통치하려면 말과 명령을 함부로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하며,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서 이끌려면 반드시 백성들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3. 갈등 해결의 궁극

3-1. 객관성과 공정성(中)

중간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정 가운데 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모두 수렴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中)이라는 것은 그만큼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또 중(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여 최종적으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이야기한다.

多言數窮, 不如守中.

말이 많으면 누차 곤궁해지니, 중간을 지키는 것이 낫다. 《도덕경》 5장

지도자가 덕을 닦지 않아서 함부로 말하거나 명령을 내리게 되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 항상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滌除玄覽, 能無疵乎?

관직을 줌에 깨끗하고 들여다봄에 통달함에 있어, 결점이 없을 수 있는가? 《도덕경》 10장

지도자가 관리를 임용할 때 공정한 방법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또 선발한 인재가 과연 덕망이 있는지를 깊이 있게 관찰함에 있어, 모든 이들이 그 선발기준과 자격에 동의하게 할 수 있는가?

寵辱若驚，貴大患若身。何謂寵辱若驚，寵爲下，得之若驚，失之若驚，是謂寵辱若驚。

총애함과 모욕에 마치 놀란 듯 하는 것은, 자신을 중시하는 것처럼 큰 재앙을 중시하는 것이다. 어떠한 것을 총애를 얻음과 굴욕을 받음에 놀란 듯하다고 일컫는가하니, 총애를 얻음은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얻음에 놀라는 듯하고, 그것을 잃음에 놀라는 듯하니, 이를 총애를 얻음과 굴욕을 얻음에 놀라는 듯하다고 이른다. 《도덕경》 13장

총애를 얻기 위해 급급해하고 또 총애를 얻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실망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다. 이렇듯 나라를 이끄는 일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결국에는 큰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총애를 얻기 위해 급급해하고 또 총애를 얻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실망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다. 이렇듯 나라를 이끄는 일에 종사하는 자가 총애를 얻기 위해 급급해하고 자기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하등의 부류라고 일컫는 것이다. 총애를 받았다고 놀란 듯 크게 기뻐하고 총애를 받지 못했다고 놀란 듯 크게 실망하는 것을 일컬어, 총애를 얻기 위해 급급해하고 또 총애를 얻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실망한다고 하는 것이다.

天之道，其猶張弓與！高者抑之，下者舉之，有餘者損之，不足者補之。天之道，損有餘而補不足。人之道則不然，損不足以奉有餘。孰能有餘以奉天下？唯有道者。

하늘의 도리는, 그것이 마치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다! 높으면 그것을 낮추고, 낮으면 그것을 높여주며, 남으면 그것을 덜어주고, 부족하면 그것을 보충해준다. 하늘의 도리는,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함을 보충

해준다. 사람의 도리는 그렇지 않아서, 부족함을 착취하여 그림으로써 남는 것을 돕는다. 누가 풍족함으로써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도가 있는 자이다. 《도덕경》 77장

천성에 따르는 통치이념이란, 마치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준하고, 그런 후에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조준한 것이 목표보다 높으면 낮춰주고, 낮으면 높여주며, 힘이 남으면 빼고, 부족하면 더해주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중(中: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중간 즉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과 “화(和: 어느 것 하나 소외됨이 없이 함께 어우러짐)”이다. 천성에 따르는 통치이념은, 이처럼 남음이 있으면 그것을 덜어서 부족한 쪽으로 보충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작위하는 통치는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부족한 백성들을 더욱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운다. 과연 누가 남음이 있으면 그것을 덜어서 부족한 쪽으로 보충해주어서 백성들을 섬길 수 있겠는가? 바로 대동의 통치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성인이다.

3-2. 어느 누구하나 버리지 않는 조화(和)

조화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낮거나 혹은 못함을 뜻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天下皆知美之爲美，斯惡已；皆知善之爲善，斯不善已。故有無相生，難易相成，長短相較，高下相傾，音聲相和，前後相隨。
세상이 모두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되는 것을 아는 것, 이는 바로 추함일 따름이고; 모두 선함이 선함이 되는 것을 아는 것, 이는 선하지 못함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이 함께 생겨나고, 어려움과 쉬움이 함께 형성되며, 길고 짧음이 함께 건주고, 높고 낮음이 함께 기울며, 소리와 음률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가 함께 따른다.
《도덕경》 2장

세상이 모두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를 아는 것은, 바로 추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다. 모두 어떤 것이 선인지를 아는 것은, 선하지 못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대동사회의 이치는 있음과 없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어려움과 쉬움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길고 짧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높고 낮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소리와 음률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앞과 뒤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挫其銳，解其紛，和其光，同其塵。

그 날카로움을 억누르게 하고, 그 분규를 해결하며, 그 광채를 조화롭게 하고, 그 속세와 함께 한다. 《도덕경》 4장

대동사회의 통치이념은 날카로운 사회의 모순을 억눌러 둥글게 하고, 그 혼란과 어지러움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모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의 기세를 조화롭게 하고, 속세와 한데 어우러져서 어느 누구하나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

天長地久。天地所以能長且久者，以其不自生，故能長生。

천지는 장구히 존재한다. 천지가 장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장구히 존재할 수 있다. 《도덕경》 7장

하늘과 땅은 변치 않고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이렇듯 하늘과 땅이 변치 않고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늘과 땅만이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 즉 자연의 모든 생물 및 무생물들과 어우러져 함께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가 변치 않고 오래 유지되려면 이처럼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하나 버리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것이다.

三十輻共一轂，當其無，有車之用。埴埴以爲器，當其無，有器之用。鑿互牖以爲室，當其無，有室之用。故有之以爲利，無之以爲用。

서른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였는데, 바퀴통 속이 비어있어야 수레의 작용이 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에 빈 공간을 만들어야 그릇의 쓰임이 있다. 창문을 내어 집을 짓는데, 집에 빈 공간을 만들어야 집의 쓰임이 있다. 그러므로 있음으로써 이롭게 되고, 없음으로써 쓰이게 되는 것이다. 《도덕경》 11장

서른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바퀴통이 비어서 바퀴살에 힘이 고르게 전달되어야 만이, 수레가 앞으로 나가게 된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의 중간부분을 움푹 패어 비어 있어야 비로소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창문을 내어 집을 짓는데, 벽과 지붕을 두른 집의 안 부분을 비어줘야 사람이 살 수 있고 물건을 둘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는 “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움을 주는 것이고, “없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쓰임이 있게 되는 것이니, 어느 한 쪽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좋음”과 “나쁨” “긍정”과 “부정”이 모두 공존해야 한다.

是以聖人常善救人，故無棄人；常善救物，故無棄物。（생략）故善人者，不善人之師；不善人者，善人之資。

이 때문에 성인은 항상 사람을 잘 구제하여, 그러므로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항상 사물을 잘 바로잡아, 그러므로 버려지는 사물이 없다. (생략) 그러므로 선량한 이는 선량하지 못한 이의 스승이고; 선량하지 못한 이는 선량한 이의 자원이다. 《도덕경》 27장

이처럼 대동 사회를 이끈 성인들은 어느 누구하나 버리지 않고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조화롭게 살았다. 또한 하늘이 부여한 천성에 따라 다스렸기 때문에, 만물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덕을 밝혀서 따르는 이는 그렇지 못한 이들의 스승이 되어 모범을 보이고, 덕을 밝혀서 따르지 못하는 이들은 덕을 밝혀서 따르는 이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니, 이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

知其雄，守其雌，爲天下谿。(생략) 知其白，守其黑，爲天下式。(생략)
知其榮，守其辱，爲天下谷。
그 강함을 알고, 그 부드러움을 지키면, 세상의 개울이 된다. (생략)
그 밝음을 알고, 그 어두움을 지키면, 세상의 규범이 된다. (생략) 그
영화로움을 알고, 그 치욕을 지키면, 세상의 계곡이 된다. 《도덕경》
28장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굳건하고도 단호하지만 또 자애로
움으로 포용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고 따르게 된다. 지도
자가 세상의 긍정적인 면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면 역시 인정하고 보호
하면,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의 뜻을 따르게 되어 세상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올랐지만 그 지위나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을 공경하게 되면, 백성들이 모두 그
를 자애롭다고 여겨서 신뢰하고 지지하여 따르게 된다.

萬物負陰而抱陽，沖氣以爲和。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으로 향하며, 기운이 합해져 그림으로써 조
화롭게 된다. 《도덕경》 42장

세상 만물은 부드러움과 부정적인 것들을 함께 짊어지고 강함과 긍정
적인 것들을 향해 나아가니, 이 두 기운이 합쳐져 결국 어느 누구하나
버려지지 않고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린다.

善者吾善之，不善者吾亦善之，德善。 信者吾信之，不信者吾亦信之，
德信也。
선량한 자는 내가 그를 선량하게 대하고, 선량하지 못한 자도 내가 그
를 선량하게 대하면, 덕이 선해진다. 믿을 수 있는 자는 내가 그를 신
임하고, 믿을 수 없는 자도 내가 그를 신임하면, 덕에 신의가 있어진
다. 《도덕경》 49장

지도자가 선량한 이를 선하게 대우하고, 선량하지 못한 이조차도 선
하게 대우하면, 그 지도자의 덕이 순박해진다. 지도자가 믿을 수 있는

이를 믿고, 믿을 수 없는 이조차도 믿으면, 그 지도자의 덕에 믿음이 생긴다.

人之不美，何棄之有。(생략) 古之所以貴此道者何? 不曰以求得，有罪以免邪! 故爲天下貴.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 어찌 그를 버릴 수 있겠는가. (생략) 예부터 이러한 도를 귀히 여김은 어찌된 것인가? (아름다운 말을) 말하지 않아도 언음을 구할 수 있고, 고귀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귀히 여긴다. 《도덕경》 62장

지도자가 이러한 대동의 통치이념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를 포기하여 배척할 수 있겠는가? 왜 예로부터 대동의 통치이념을 그토록 중시했던 것일까? 대동 사회를 이끈 지도자들의 도리와 일월성신을 관찰하여 얻은 정화 같은 훌륭한 말을 하지 못해도 버려지지 않고, 이러한 성인들의 삼가여 순일한 덕을 배풀었던 태도를 실천하지는 못해도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세상이 이처럼 대동의 통치이념을 중시하고 따르는 것이다.

4. 지나친 법과 제도의 세분화 반대(不言: 불언)

《左傳(좌전)》 <昭公(소공) 29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晉(진)나라 趙鞅(조양)과 荀寅(순인)이 范宣子(범선자)가 지은 刑法(형법)을 큰 술에 새겼다. 그러자 공자는 “진나라가 법도를 잃었으니, 곧 망할 것이다. 천자에게서 받은 법도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제 그 법도를 버리고 형벌로 다스리려 하면, 백성들이 오로지 그 형벌에만 마음을 둘 것이니, 어찌 윗사람을 공경하고 자신의 본업을 지키겠는가? 범선자의 형법은 당시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제압하는 임시방편이었을 따름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³⁾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冬，晉趙鞅，荀寅，帥師城汝濱，遂賦晉國一鼓鐵，以鑄刑鼎，著范宣子所謂刑書焉，仲尼曰，晉其亡乎，失其度矣，夫晉國將守唐叔之所受法度，以經緯其民，卿大夫以序守之，民是以能尊其貴，貴是以能守其業，

이처럼 공자는 백성들을 형벌로 다스리는 법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쑤(진)나라는 공자의 예언대로 결국 망해서 戰國時代(전국시대)에 韓(한)나라와 魏(위)나라 그리고 趙(조)나라로 분할되게 된다.⁴⁾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자와 공자는 모두 지나치게 엄격한 법과 제도로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아가 덕치를 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是以聖人處無爲之事，行不言之教。

이 때문에, 성인은 무위의 일로서 일을 처리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도덕경》 2장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동 사회를 이끈 지도자들은 억지로 작위하여 법률과 제도로 통제하지 않고, 천성에 따라서 백성들과 나라를 다스렸으며, 함부로 말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대동의 통치이념을 실천했다.

多言數窮，不如守中。

말이 많으면 누차 곤궁해지니, 중간을 지키는 것이 낫다. 《도덕경》 5장

지도자가 덕을 닦지 않아서 함부로 말하거나 명령을 내리게 되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 항상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어

貴賤不愆，所謂度也，文公是以作執秩之官，爲被廬之法，以爲盟主，今棄是度也，而爲刑鼎，民在鼎矣，何以尊貴，貴何業之守，貴賤無序，何以爲國，且夫宣子之刑，夷之蒐也，晉國之亂制也，若之何以爲法，蔡史墨曰，范氏，中行氏，其亡乎，中行寅爲下卿，而干上令，擅作刑器，以爲國法，是法姦也，又加范氏，焉易之，亡也，其及趙氏，趙孟與焉，然不得已，若德可以免。

4) 전국시대에는 七雄(칠웅) 즉 7개의 나라가 割據(할거)한 국면을 일컫는데, 秦(진) 楚(초) 齊(제) 燕(연) 韓(한) 魏(위) 趙(조)나라가 그것이다. 이 중 韓(한)과 魏(위) 그리고 趙(조)나라는 쑤(진)나라에서 분할된 나라이기 때문에, 三晉(삼진)이라고도 일컫는다. 그리고 이러한 群雄割據(군웅할거)의 국면을 끝내고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나라는, 다름 아닌 始皇帝(시황제)의 秦(진)나라이다.

는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致虛極，守靜篤。(생략) 歸根曰靜；是謂復命。復命曰常，知常曰明；不知常，妄作，凶。

지극히 공허함에 도달하고, 지극히 고요함을 견지한다. (생략) 근본으로 돌아감을 고요함이라고 하니, 이를 복명이라고 한다. 복명을 “상(변치 않음)”이라고 하고, “상”을 아는 것을 “명(덕을 밝힘)”이라고 하는데; “상”을 알지 못하면, 경거망동하게 되고, 불행해진다. 《도덕경》 16장

대동사회의 통치이념은 새로운 제도를 자꾸 만들어 백성들을 통제하지 않으므로, 마치 비어있는 것과도 같은 경지에 이른다. 또한 신중하고 삼가여 말이나 명령을 함부로 하지 않으므로, 마치 고요한 정적과도 같은 상황을 유지한다. 덕을 치세의 원칙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말이나 명령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 것이니, 이를 일컬어서 천명 즉 다시 천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 하늘이 부여한 천성에 따르는 것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일관하는 변치 않음이라고 하고, 이러한 일관하여 변치 않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덕을 밝히는 것이다. 변치 않고 일관되게 덕을 밝히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백성들을 평안하게 다스리지 못하여 나라를 장구히 보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와 지도자의 끝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悠兮，其貴言。功成事遂，百姓皆謂我自然。

유유하여, 말을 귀히 여긴다. 일이 완성되어도, 백성들은 모두 우리가 본래 이러한 것이라고 말한다. 《도덕경》 17장

대동사회의 성인들은 침착하고 여유가 있어, 말이나 명령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동사회의 백성들은 지도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 그의 뛰어난 지도력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삼가 노력하여 일을 완성하여도 백성들 스스로 그러한 것이라

고 여겼던 것이다.

希言自然，故飄風不終朝，驟雨不終日。孰爲此者？天地。天地尚不能久，而況於人乎！

말을 드물게 하는 것이 스스로 그러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광풍은 아침까지 불 수 없고, 폭우는 온종일 내릴 수 없다. 누가 이렇게 하는가? 바로 천지이다. 천지의 난폭함조차도 오래갈 수 없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도덕경》 23장

말이나 명령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늘이 부여한 천성에 따르는 것이다. 광풍이나 폭우 같은 자연의 난폭함조차도 오래 지속될 수는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 만든 법률과 제도로 누르면 오래갈 수 있겠는가? 즉 억지로 작위하면 일시적으로 작용할 뿐,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존재가 이처럼 억지로 작위하지 말고, 천성에 따라 스스로 그러하도록 시키는가? 바로 천지이다. 이처럼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광풍과 폭우조차도 오래갈 수 없는 법인데, 하물며 일개 사람이 만든 법률과 제도로 통제하는 것이야 굳이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不言之教，無爲之益，天下希及之。

불언의 가르침, 무위의 이로움, 세상에는 이에 미치는 것이 드물다.
《도덕경》 43장

사관의 신분으로 역사적 고증을 통해 깨달은 대동의 통치이념은, 말이나 명령을 함부로 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세상에는 이러한 대동의 통치이념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없다.

5. 신뢰(信)

‘믿을 신(信)’은 ‘사람 인(人)’과 ‘말씀 언(言)’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회의자(會意字)이니, 그 본래의 뜻은 ‘사람이 말한 것은 믿을 수 있다.’로

풀이된다. 따라서 중국의 허신(許慎)이 만든 문자 해설서인 《설문해자(說文解字)》⁵⁾를 보면, ‘믿을 신(信)’과 ‘정성 성(誠)’은 그 의미가 사실상 서로 통하는 글자로 ‘정성을 다하다’로 풀이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성 성(誠)’은 다름 아닌 ‘말씀 언(言)’과 ‘이름 성(成)’이 합쳐진 역시 회의자로,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노자는 17장과 23장을 통해서 두 번이나 같은 말로 강조하고 있다.

信不足焉，有不信焉。

신용이 부족하면, 불신이 생긴다. 《도덕경》 17장

지도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미덕이 신뢰인데, 그러한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백성들은 지도자를 믿고 따르지 않게 된다.

6. 신중함(慎)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豫焉若冬涉川。猶兮若畏四鄰。

주저하니 마치 겨울철 강을 건너는 듯하다. 망설이니 마치 사방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도덕경》 15장

그렇다면 이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 ‘미리 예(豫)’는 ‘주저하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사실 이 단어는 본래 ‘커다란 코끼리’를 지칭한다.⁷⁾ 따라서 첫 문장인 ‘주저하니 마치 겨울철 강을 건너는 듯하다.’는 ‘커다란 코끼리가 마치 겨울철 강을 건너는 듯하다.’라는

5) 《說文解字今釋》，岳麓書社，1997년.

6) 원문은 다음과 같다. 信：誠也。從人，從言，會意。誠：信也。從言，成聲。

7) 《說文解字今釋》，岳麓書社，1997년. 원문은 다음과 같다. 豫：象之大者。賈侍中說：“不害於物。”從象，予聲。《說文解字今釋》，岳麓書社，1997년.

뜻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코끼리가 겨울철 강을 마구 건너겠는가? 즉 이는 그만큼 신중해야 함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히려 유(猶)’ 역시 ‘망설이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애당초 이는 ‘원숭이’를 가리켰던 단어이다.⁸⁾ 따라서 ‘망설이니 마치 사방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역시 본래는 ‘원숭이가 마치 사방을 두려워하는 듯하다.’로 풀이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와 땅에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들은 경계심이 대단히 강해서 끊임없이 사방을 살펴보며 조심스레 먹거나, 금방 가로채서는 나무 위로 올라가 먹지 않던가.

따라서 오늘날의 법률용어인 ‘집행유예’는 그만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것이니, 즉각적인 형 집행을 잠시 유보하고 시간을 두면서 조심스럽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노자는 뒤이어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신중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나아가 강조하고 있다.

重爲輕根，靜爲躁君，是以聖人終日行，不離輻重。(생략) 輕則失本，躁則失君.

진중함은 경솔함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군주이어서, 이 때문에 성인은 온중일 길을 가지만, 군수물자를 실은 무거운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생략) 경솔하면 근본을 잃고, 경박하면 군주의 지위를 잃는다. 《도덕경》 26장

진중함이라는 것은 경솔함의 바탕이 되고, 고요함이라는 것은 조급함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 사회를 이끈 지도자들은 일생동안 진중함을 떠나지 않고 삼가여 지낸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경솔하면 근본 즉 진중함을 잃게 되고, 경박하면 고요함을 잃게 되어서, 결국 그 지위마저도 잃게 되는 것이다.

8)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1997년. 원문은 다음과 같다. 獮屬。從犬，酋聲。《說文解字今釋》，岳麓書社，1997년.

躁勝寒, 靜勝熱, 清靜爲天下正.

분주함은 추위를 이기지만, 고요함은 더위를 이기니, 청정함이 세상을 올바르게 한다. 《도덕경》 45장

법률과 예악제도를 강화하여 백성들을 억지로 통제하면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할 뿐이지만, 말이나 명령을 함부로 하지 않고 천성에 따르는 대동의 통치이념을 따르면 오랫동안 나라를 평온하게 할 수 있으니, 말이나 명령을 함부로 하지 않는 순일한 덕으로 다스리면 세상이 제 자리를 찾아 안정된다.

圖難於其易, 爲大於其細. 天下難事必作於易, 天下大事必作於細. 是以聖人終不爲大, 故能成其大. 夫輕諾必寡信, 多易必多難. 是以聖人猶難之, 故終無難矣.

어려운 일을 도모하려면 쉬울 때에 착수해야 하고, 큰일을 하려면 자잘한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양성되고, 세상의 큰일은 반드시 자잘한 데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성인은 시종 큰일을 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큰일을 이룰 수 있다. 무릇 쉬이 승낙하면 반드시 신용이 적어지고, 지나치게 쉽게 보면 반드시 재난이 많아진다. 이 때문에 성인은 오히려 그것을 어려워하니, 그러므로 시종 어려움이 없다. 《도덕경》 63장

행하기 어려운 일은 행하기 쉬울 때에 착수해야 하고, 큰일을 하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어렵거나 큰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어려운 일은 분명히 쉬울 때 해결하지 않아서 어려워진 것이고, 모든 큰일은 분명히 작을 때 해결하지 않아서 커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대동 사회를 이끈 성인들은 일이 커지기를 기다렸다가 하지 않았으니, 유비무환의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큰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쉬이 승낙하게 되면 나중에 백성들이 그를 믿지 못하게 되고, 일을 하찮게 여기면 나중에 더 큰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대동 사회를 이끈 지도자들은 결코 일이 작거나 쉽다고 해서 알보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항상 큰 어려움 없이 나라를 오랫동안 평온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其安易持，其未兆易謀，其脆易泮，其微易散，爲之於未有，治之於未亂。合抱之木，生於毫末。九層之臺，起於累土。千里之行，始於足下。(생략) 民之從事，常於幾成而敗之，慎終如始，則無敗事。
그것이 안정적일 때 유지하기 쉽고, 그것이 징조를 보이지 않을 때 도모하기가 쉬우며, 그것이 무를 때 해소하기가 쉽고, 그것이 미약할 때 없어지기가 쉬우니, 있기 전에 그것을 처리하고, 혼란스럽기 전에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아름드리 큰 나무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생겨난다. 구층의 누각은, 흙을 쌓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천리 길을 가는 것은 발아래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생략) 사람들이 일을 함에, 항상 거의 완성될 즈음에 그것을 그르치니, 시작할 때처럼 끝까지 신중하면, 곧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 《도덕경》 64장

상황이 안정적일 때 유지하기 쉬운 법이고, 사건이 징조를 보이지 않을 때 도모하여 준비하기가 쉬우며, 사물이 아직 굳지 않고 무를 때 녹이거나 풀기가 쉽고, 일이 아직 커지지 않고 미약할 때 사라지기가 쉬우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처리하고, 세상이 동요하기 전에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들레가 한 아름이 넘는 큰 나무는 작은 묘목에서부터 크는 것이다. 높은 누각은 흙을 쌓아 기초를 다지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천리 길을 가려면 먼저 첫 걸음을 떼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일을 처리할 때 종종 거의 끝에서 망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처럼 초지일관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 결코 일을 망치지 않는다.

禍莫大於輕敵，輕敵幾喪吾寶。

화는 적을 가벼이 여기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적을 가벼이 보다가는 하마터면 나의 보물을 잃게 된다. 《도덕경》 69장

대동 사회를 이끈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로 제후국이나 외부부족국가를 대했기 때문에 그들을 알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니, 만약 지도자가 그렇게 행동하면 자애로움과 겸소함 그리고 감히 세상의 앞에 서지 않음의 자세를 잃는 것이다.

夫唯病病，是以不病。聖人不病，以其病病，是以不病。
무릇 결점을 꺼리게 되면, 이 때문에 결점이 없다. 성인은 결점이 없는데, 그 결점을 결점으로 여기기에, 이 때문에 결점이 없다. 《도덕경》 71장

백성들이 기민함과 얄은피를 쓰는 것이 결국 지도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에 지도자가 삼가여 순일한 덕을 베풀면, 결국 백성들이 기민함과 얄은피를 쓰지 않게 된다. 대동 사회를 이끈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기민함과 얄은피를 쓰지 않도록 했는데, 그러한 것이 결국 지도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삼가여 순일한 덕을 베풀 것이다.

7. 나오면서

사람들은 《도덕경》의 저자를 노자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예부터 그를 도가(道家)사상 나아가 도교(道教)의 시조로까지 숭앙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도덕경》에 기록된 노자의 말은 노자가 직접 지어낸 것이 아니라, 《상서(尙書)》 등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하여 그 핵심내용을 체계적으로 뽑아낸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⁹⁾ 그렇다면 노자가 《도덕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취지는 무엇이었을까?

我有三寶，持而保之。一曰慈，二曰儉，三曰不敢爲天下先。慈，故能勇；儉，故能廣；不敢爲天下先，故能成器長。今舍慈且勇，舍儉且廣，舍後且先，死矣。夫慈，以戰則勝，以守則固。天將救之，以慈衛之。
나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어, 그것을 지키고 보호한다. 첫 번째는 자애로움을 말하고, 두 번째는 검소함을 말하며, 세 번째는 감히 세상의 앞에 서지 않음을 말한다. 자애롭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하기 때문에 넓힐 수 있으며; 감히 세상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천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자애로움은 버리고 용감함만을 우선시하고, 검소함을 버리고 넓히는 것만을 우선시하며, 뒤로 물러남을 버리고 나설 것만을 우선시하니, 사경에 이른다. 무릇 자애로움이란, 그것으로서 전쟁에 쓰면 곧 승리하고, 그것으로서 수비에 쓰면 곧

9) 《노자의 재구성》, 어문학사, 2012년.

견고해진다. 하늘이 장차 그를 구원하려 하면, 자애로움으로 그를 지킨다. 《도덕경》 67장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에게서 이러한 이상적인 대동의 통치 이념을 지키고 보호하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지도자가 선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모두 포용하는 자애로운 태도이고, 두 번째는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않고 검소한 태도이며, 세 번째는 백성들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앞에 놓는 겸손한 태도이다. 오늘날의 지도자는 자애로움을 뒤로한 채 용감하기만 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으려고 하며, 백성들의 뜻을 뒤로 한 채 자신의 뜻을 펴려고 하니, 자신의 자리를 보존할 수 없을뿐더러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이처럼 어느 누구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 포용하는 자애로움으로 전쟁을 하면 상대가 감복하여 승리할 수 있고, 자애로움으로 적군을 막게 되면 백성들이 화합하여 더 견고해진다. 이러한 자애로움을 지키고 실천하면 천성에 따라서 스스로 그러하게 하므로, 어떠한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는 다름 아닌 본문에서 언급한 바 있는 검소(儉)와 자애로움(慈) 그리고 감히 앞에 나서지 않는 겸손함(不敢爲天下先: 불감위천하선)이다. 또한 노자는 이 세 가지 보물 이외에도, 지나친 법과 제도의 세분화를 반대(不言: 불언)함으로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서 신뢰(信)와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는 신중함(慎)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吾言甚易知, 甚易行; 天下莫能知, 莫能行. 言有宗, 事有君. 夫唯無知, 是以不我知. 知我者希, 則我者貴.

나의 말은 매우 이해하기가 쉽고 매우 실행하기가 쉬운데;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다. 말에는 요지가 있고, 일에는 주체가 있다. 무릇 모르니, 이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를 이해하는 이가 드무니, 나를 본받는 이가 귀하다. 《도덕경》 67장

이에 노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대동의 통치

이념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자애로움과 검소함 그리고 감히 세상의 앞에 서지 않는 겸손함을 바탕으로 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태도로 어느 누구하나 버리지 않고 함께 함으로써, 탄 마음을 품지 않고 순일한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는 이해하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어렵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한다. 대동 사회를 이끈 지도자들은 항상 신중하게 말을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었고, 나랏일을 처리할 때는 자애로움과 검소함 그리고 감히 세상의 앞에 서지 않는 겸손함을 바탕으로 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태도로 어느 누구하나 버리지 않고 함께 함으로써, 탄 마음을 품지 않고 순일한 덕으로 세상을 다스렸다. 이러한 대동의 통치이념을 모르니, 내가 전하는 대동 사회 성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전하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드무니,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대동사회의 통치를 배워서 실천하려는 이들이 귀해진다.

주지하다시피, 노자는 당시 정치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춘추시대를 살다가 홀연히 세상을 떠나 유유자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궁극적 이상향인 대동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수사학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으니, 이제 이를 통해서 노자의 참뜻을 이해하고 나아가 《도덕경》을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老子譯註》，馮達甫，上海古籍出版社，1991년.
- 《老子校錫》，周謙之，中華書局，1984년.
- 《說文解字今釋》，湯可敬，岳麓書社，1997년.
- 《左傳》，左丘明 著，李維琦 註，岳麓書社，2001년.
- 《노자의 재구성》，안성재，어문학사，2012년.
- 《노자，정치를 깨우다》，안성재，어문학사，2012년.

<中文摘要>

作为老子唯一著述的《道德经》一直被认为是一本蕴含着自然无为的哲学书籍，而这些自然无为的含义也被解释为不该积极参与社会活动，而离开混乱的世俗而归於自然。尽管如此，作者认为自然无为，其实有着别的意义；千万别用过渡细致化的法律与制度来管制老百姓，而应当顺其自然。换言之说，《道德经》应该说是用五千多字来记录国家最高领导应当遵守之道理的古中国统治理念书。对老子来说，他通过《道德经》一贯主张了应该回到大同社会。因此，笔者打算首先介绍和具体说明老子所提出的作为领导应具有的态度：简约、慈爱、谦虚、不言、信赖、谨慎，再把老子在《道德经》所表达的一些道理应用到现代社会，而试图寻找一些能够解决社会矛盾的方法。

關鍵詞：老子，道德經，矛盾解決，現代社會，修辭學

주제어：노자, 도덕경, 모순해결, 현대사회, 수사학

투 고 일 : 2014.2.25

심 사 일 : 2014.3.3~3.31

게재확정일 : 2014.4.20

朱淑眞詞에 보이는 사랑과 고독*

정태엽**

< 목 차 >

1. 서론
2. 朱淑眞의 生涯
3. 朱淑眞詞에 나타난 사랑
4. 朱淑眞詞에 나타난 고독
5. 결론

1. 서론

詞史的으로 朱淑眞은 중국의 대표적인 女流詞人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朱淑眞이 中國詞史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반해 그녀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 근래 중화권에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李清照와 朱淑眞이라는 두 여류사인의 작품과 풍격을 비교하는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순수한 朱淑眞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논의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朱淑眞의 生涯와 작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 들어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대부분이 朱淑眞과 다른 여류사인을 비교한다든지 주숙진 詩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고 주숙진의 詞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¹⁾ 즉 朱淑眞이 여류사인으

* 본 논문은 2014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로 조성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부 교수.

1) 국내에서 朱淑眞 詞에 대한 전문연구는 학위논문으로 沈應紀의 《朱淑眞詞 研究》(이화여대 석사논문, 2002년)가 있다. 김현의《李清照·朱淑眞詞 研究》(동국대 석사논문, 2012년)는 이청조와 주숙진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주숙진에 대한 언급은 미미한 편이다. 소논문으로는 任日鎬의 〈朱淑眞研

로서 중국문학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비중을 고려 할 때 그녀와 그녀의 詞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朱淑眞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던 원인은 그녀의 生涯에 대해 신뢰할만한 史料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역대로 연구자들은 주숙진과 관련된 자료들을 자신의 관점에 맞게 재구성하게 발표하였고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다양한 異說이 존재하게 만들었다. 또 이런 다양한 견해들은 후대 연구자들에게 더 큰 혼동을 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주숙진의 작품 속에서 남편과의 불화와 혼외 연애를 묘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의 도덕성을 강조했던 宋代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깊은 연구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비슷한 시기 女流詞人인 李清照에 비해 朱淑眞의 詞가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로 인해 관심을 덜 받는 측면도 있었다. 이런 몇 가지 이유로 朱淑眞詞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부진한 측면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숙진 생애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들을 史料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또 그녀의 비극적 삶이 朱淑眞詞의 내용과 풍격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주숙진의 생애와 朱淑眞의 詞에 나타난 사랑과 孤獨을 통해 그녀만의 특별한 詞作 세계와 風格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冀勤이 輯校한 《朱淑眞集注》(中華書局, 2009년)의 작품들을 저본으로 삼았다.²⁾

究》(《대동문화연구》, 1982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숙진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中文으로 되어있다. 또 이경규의 〈朱淑眞詞研究〉(《강원인문논총》 2003년)는 주숙진의 사 작품에 대해 분석하고 그녀의 작품들이 어떤 작가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배다니엘의 〈朱淑眞 詩에 나타난 자연미 고찰〉(《中國研究》, 2009년)은 주숙진의 詩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또 최근 이지운의 〈송대 여성작가 朱淑眞과 그의 시 연구〉(《중국어문학지》2013.12)는 주숙진의 생애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정리하고 詩들을 영물시, 애정시, 영사시, 영회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시의 작법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는데 모두 주숙진의 시에 대해서만 고찰하고 있다.

2) 《朱淑眞集注》(中華書局, 2009년)에는 朱淑眞의 詞가 補遺詞 4편을 포함에

2. 朱淑眞의 生涯

일반적으로 朱淑眞은 號가 幽棲居士이고 錢塘(杭州) 사람이라 한다. 그러나 《四庫全書總目提要》를 보면 朱淑眞의 貫籍에 대해 두 가지 기록이 있다. 《四庫全書總目提要》〈斷腸集二卷〉에서는 “淑眞은 錢塘 여인으로 號를 幽棲居士라 한다(淑眞, 錢塘女子, 自號 幽棲居士)”고 되어있고, 《四庫全書總目提要》〈斷腸詞一卷〉에서는 “淑眞은 海寧 여인으로 스스로 幽棲居士라 했다(淑眞, 海寧女子, 自稱幽棲居士)”고 되어 있다. 즉 같은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도 그녀의 貫籍에 대해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³⁾. 뿐만 아니라 그녀의 출생이나, 본적, 집안, 생애 등에 대해서도 學界에서는 千古의 수수께끼라 할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異見이 있다.

먼저 그녀의 출생 시기에 관한 것을 살펴보자. 朱淑眞에 대해 처음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그녀의 詩歌集인 《斷腸集》이다. 이 《斷腸集》은 朱淑眞이 죽은 후 반세기가 지나 魏仲恭이 그녀의 詩와 詞를 모아 편찬한 詩歌集이다. 《斷腸集》에 있는 魏仲恭이 쓴 〈斷腸集序〉를 보면 서문을 쓴 연대를 ‘淳熙壬寅二月望日’이라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壬寅’은 孝宗 淳熙9년(1182년)이므로 서기 1182년을 말한다. 이를 근거로 朱淑眞을 孝宗 淳熙9년(1182년)이전에 죽은 인물로 보았다. 그런데 清代 王士禎은 《池北偶談》卷15에서 “辛亥(康熙10년 1617년) 겨울, 북경에서 宋代 朱淑眞이 손으로 쓴 《瑤璣圖》한권을 보았는데 글체가 아름다웠다⁴⁾”고 언급하고 다시 제일 끝에 “紹定三年(1230년) 2월18일 錢塘의 幽棲居士 朱氏 淑眞 씀”이라고 되어 있었다. 제일 앞에 ‘瑤璣變幻’이라는 小篆의 네 글자가 있었고 끝에 작고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⁵⁾”고

모두 30수 실려 있다. 지금까지 출판된 주숙진 詩詞 관련 작품집 가운데 가장 완전하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朱淑眞 詞의 번역은 이경규의 〈朱淑眞詞 研究〉와 沈應紀의 《朱淑眞詞 研究》의 번역을 참조해 번역했다.

3) 이는 시대에 따라서 地名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 뒤에서 밝히겠다.

4) 王士禎 《池北偶談》: 「辛亥冬, 於京師見宋朱女郎淑眞手書《瑤璣圖》一卷, 字法妍嫵。」 王士禎《池北偶談》中華書局, 366쪽.

언급하며 朱淑眞과 朱淑貞이 같은 인물이며 아울러 紹定三年(1230년)까지 생존했던 인물로 보았다. 이에 반해 《四庫全書總目》에서는 “전해져 내려오는 목적들은 천에 하나 진짜를 찾기 힘들기에 《瑤璣圖》 또한 朱淑眞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⁶⁾고 언급하며 王士禎의 주장과 그 책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부정적으로 보았다.

다시 근래에 들어서 繆鉞선생은 〈朱淑眞生活年代考辨〉에서 魏仲恭이 《斷腸集》을 편찬하고 序文을 적으면서 연대를 ‘淳熙壬寅二月望日’이라 밝히고 있고 여기서 ‘壬寅’은 孝宗 淳熙9년(1182년) 이므로 주숙진을 孝宗 淳熙9년 이전의 인물로 보았다. 또 王士禎이 《池北偶談》에서 《瑤璣圖》를 보고 그 저작연대가 紹定三年(1230년)이라 했으므로 두 작품은 거의 50년의 차이가 나고 이름 또한 ‘朱淑眞’과 ‘朱淑貞’이 다름으로 둘은 다른 시대 사람으로 보았다⁷⁾. 이에 대해 鄧紅梅는 〈朱淑眞事迹新考〉에서 王士禎이 《池北偶談》에서 언급하는 《瑤璣圖》의 저자인 淑貞은 朱淑眞과 같은 인물로 보는 것이 옳으며 또 朱淑眞의 《瑤璣圖》저작연대가 紹定三年(1230년)이라 했으니 魏仲恭이 〈斷腸集序〉에서 서문을 쓴 날짜는 ‘淳熙壬寅(1182)’이 아니고 淳佑壬寅(1242년)이 되어야 옳은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魏仲恭의 〈斷腸集序〉가 후대에 ‘熙’자를 ‘佑’자로 잘못 板刻한 때문이며 이는 元代版本의 오류로 생긴 문제일 것으로 보았다.⁸⁾ 즉 鄧紅梅는 주숙진을 남송시대인 淳佑壬寅(1242년) 전에 살았던 인물로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魏仲恭이 쓴 〈斷腸集序〉의 ‘淳熙壬寅(1182)년’과 鄧紅梅가 주장하는 淳佑壬寅(1242)년 사이에는 60년의 연대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아무런 문헌적 근거나 정확한 고증 없이 假說로써 주숙진이 淳熙壬寅(1182)년 이전에 살았던 인물인지 淳佑壬寅(1242)년에

5) 上掲書: 「“紹定三年春二月望後三日, 錢唐幽棲居士朱氏淑眞書” 首有‘瑤璣變幻’四小篆, 後有小朱印。」 367쪽.

6) 紀昀 《欽定四庫全書總目》: 「然流傳墨迹, 千僞一眞, 此文出淑眞與否, 無從考證。」 中華書局, 1997년 2373쪽.

7) 繆鉞, 〈朱淑眞生活年代考辨〉, 《文獻》1991년2期, 47-48쪽.

8) 鄧紅梅, 〈朱淑眞事迹新考〉, 《文學遺產》1994년, 74쪽.

살았던 인물인지를 주장하는 것은 양측 모두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 보여 진다.

정확한 朱淑眞의 생존연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숙진의 시가
집을 편찬하고 〈斷腸集序〉를 쓴 魏仲恭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魏仲恭의 생애에 대한 史料상의 문헌적 고찰이 먼저 필요한데 아쉽
게도 魏仲恭의 생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正史의 史料는 없다. 魏
仲恭에 대해 언급한 문헌을 찾아보면 李默의 《嘉靖寧國府志》卷8 〈人
文紀中〉에서 “魏良臣은 字가 道弼이고 溧水사람으로 宣城으로 옮겨가
살다 宋代 宣和三年(1121)에 進士에 급제했다. (中略) 자식으로는 子伯
友, 仲恭, 叔介이 있는데 모두 뛰어났다⁹⁾”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魏仲恭’이 ‘魏良臣’의 둘째 아들임을 알 수 있고 또 위로는 형 ‘伯友’가
있고 동생으로 ‘叔介’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동생인 ‘魏叔介’에 대
해서는 韓元吉 《南潤甲乙稿》卷21의 〈朝奉大夫軍器監丞魏君墓志銘〉
에서 “叔介는 字가 端直으로 (중략) 淳熙四年(1177년)에 병으로 관직을
그만두니 겨우 38세였다.¹⁰⁾”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墓志銘〉을 통해
魏叔介가 淳熙四年(1177년)에 38세의 나이로 죽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그는 1140년생이다. ‘魏仲恭’이 만약 동생 ‘魏叔介’보다 최소 한
해 먼저 태어났다 하더라도 1139년생이 된다. 즉 위중공은 1139년 이
전 인물인데 만약 鄧紅梅가 〈朱淑眞事迹新考〉에서 주장하는 대로
〈斷腸集序〉를 쓴 연대가 淳佑壬寅(1242년) 이라면 그 사이에는 백년
이 넘는 시간 차이나 난다. 그렇다면 백 살이 넘는 노인이 주숙진의 작
품을 모아서 〈斷腸集序〉를 썼다는 것인데 이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
다. 더군다나 〈斷腸集序〉에서 “武陵 땅(오늘날 湖南 常德)에 이르렀을

9) 李默 《嘉靖寧國府志·卷八》〈人文紀中〉：「魏良臣，字道弼，溧水人，徙居宣城，登宋宣和辛丑進士，除壽昌令，……遷左右司檢正權吏部侍郎，……秦檜稍忌之，出知池、廬二州。檜死，召拜參知政事……竟以資政殿學士出知紹興，……歷潭、洪二州卒。子伯友、仲恭、叔介皆貴。」

10) 韓元吉 《南潤甲乙稿·卷21》〈朝奉大夫軍器監丞魏君墓志銘〉：「君諱叔介，字端直，世爲建康人，其考葬王父於宣城，因家焉，遂爲宣城人。考則諱良臣，參天子大政，爲學士資政殿，贈太保，諡敏肅。君於敏肅爲季子，淳熙四年以疾不祿，年才三十八。」

때 여관에서 호사가들이 종종 朱淑眞의 사를 낭송하는 것을 보았다.¹¹⁾” 는 구절이 있는데 그렇다면 백 살이 넘은 魏仲恭이 외지를 떠돌다 자신이 들은 것을 옮겨 적었다는 것이며 이는 더욱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현재 전하는 문헌들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주숙진의 생졸 년대는 〈斷腸集序〉 서문에 쓰인 淳熙壬寅(1182년) 이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鄧紅梅의 ‘남송 후기설’을 이외에도 역대로 朱淑眞이 생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첫째는 그녀가 북송시대 사람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녀가 남·북송 교체시기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셋째는 남송 중기 시대라고 보는 견해다. 먼저 朱淑眞을 북송시대 사람으로 보는 견해는 明代 田汝成(1503—1557)이 《西湖遊覽志序·香奩艷語》에서 “숙진과 같은 시기에 魏夫人이 있었는데 曾子宣의 아내로 역시 시에 뛰어났다. 술을 마련하고 淑眞을 초청하여 어린 歌妓들에게 춤을 추게 하고, 이에 따라 詩 ‘飛雪滿群山’을 韻으로 띄웠다. 이에 朱淑眞은 취중에 붓을 들어 오언절구를 지었다.(後略)¹²⁾” 고 언급하며 주숙진과 위부인을 동시대 인물로 보았다. 실제로 같은 내용이 朱淑眞의 《斷腸集》에 〈會魏夫人席上, 命小鬟妙舞. 曲終, 求詩於予, 以 ‘飛雪滿群山’爲韻, 作五絶〉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즉 田汝成의 주장은 詩에서 ‘魏夫人’이라고 언급한 사람이 북송시대 丞相인 曾布의 부인인 魏玩이라는 것이다. 明末 沈際飛 또한 《草堂詩餘別集》에서 評語를 붙이면서 “曾子宣丞相 내자와 朱淑眞은 같은 시대 사람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후대 況周頤 또한 《蕙風詞話》에서 이런 견해를 이어받아 曾布의 활동연대를 언급하며 朱淑眞이 북송사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¹³⁾. 그러나 우리

11) 魏仲恭 〈斷腸集序〉: 「比往武陵, 見旅邸中好事者往往傳誦朱淑眞詞」《朱淑眞集注》, 中華書局, 2009년, 1쪽.

12) 田汝成著, 陳志明注, 《西湖遊覽志序·香奩艷語》: 與朱淑眞同時有魏夫人者, 曾子宣內子也, 亦能詩. 嘗置酒邀淑眞, 命小鬟隊舞, 因索詩, 以“飛雪滿群山”爲韻. 淑眞醉中援筆賦五絶云. 《西湖遊覽志》 東方出版社, 2012년.

13) 況周頤 《蕙風詞話》卷4〈朱淑眞北宋人〉, 《詞話叢編》제5권, 中華書局, 4497쪽.

는 정확한 위부인의 생애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그녀의 남편인 曾布를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宋史》에 《宋史·曾布傳》의 기록을 보면 曾布(1036-1107)는 字가 子宣으로 북송시대 神宗, 哲宗, 徽宗때 벼슬을 하였다. 그의 부인 魏玩은 仁宗 康定元年(1040)에 태어나서 徽宗 崇寧2년(1103)에 죽었다. 만약 朱淑眞과 魏玩이 교류를 했다면 朱淑眞은 북송시대 위부인이 죽기 전인 徽宗 崇寧2년(1103) 시대에 활동한 작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료를 고찰해보면 몇 가지 관점에서 朱淑眞이 이 시대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먼저 《宋史·曾布傳》을 보면 崇寧元年(1102년) 曾布가 재상에서 파직당하고 밖으로 쫓겨나 다시는 汴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107년 죽는다. 만약 朱淑眞이 汴京에서 위부인과 來往을 했다면 아무리 늦어도 1102년 이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때 朱淑眞의 나이를 20살 정도로 추정하면 남송이 臨安(항주)에 수도를 정한 高宗 紹興8년(1138)때는 이미 주숙진의 나이 60이 다 된 노인이 된다. 그런데 朱淑眞은 60세까지 살지 못하고 요절했다고 <단장집서>에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주숙진의 많은 詩詞에서 臨安(항주)을 배경으로 연인과 연정을 나누는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60세의 여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¹⁴⁾

다음으로 朱淑眞의 작품들 속에 東園, 西樓, 水閣, 桂堂, 依綠亭등이 나오는데 이런 집안의 구조는 북방 汴京(開封)의 가옥 구조가 아니고 남방 臨安(항주)의 가옥구조로 보여 진다. 다른 하나는 만약 朱淑眞이 젊은 시절 汴京에 살았고 위부인과 왕래를 했다면 분명 靖康之變으로 金나라가 침입해와 북송이 멸망하는 참상을 보았을 것이고 그녀도 남쪽으로 도망 나오며 망국의 통한을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도 다른 작가들처럼 비분한 감정을 쏟아낸 작품 속에 쏟아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¹⁵⁾ 따라서 朱淑眞이 북송시대 사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

14) <清平樂·夏日湖上>, <元宵> 등의 작품들을 보면 알 수 있다.

15) 이에 관해서는 葉嘉瑩선생도 <論朱淑眞生活年代及其斷腸詞> (<四川大

들다.

두 번째로 그녀가 남북송 교체시기에 생활했다고 보는 견해다. 冀勤은《朱淑真集注》의 序文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 성과를 정리하며 朱淑眞이 대략 북송 神宗 2-3년(1079-1080) 사이에 태어났고 南宋 高宗 紹興初年(1131-1133)간에 죽었다고 보았다. 張璋과 黃奮 역시 자신들이 校注한 《朱淑眞集》¹⁶⁾ 前言에서 〈會魏夫人〉이라는 시에서 위부인과 교류한 것을 근거로 북송 神宗 元豐 初年(1078년)에 활동했었고, 〈夜宿依綠亭〉이란 시를 근거로 南宋 高宗 紹興8년 臨安으로 遷都 했을 때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보았다. 즉 주숙진을 북송말기에서 남송초기의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주숙진의 작품 속에 전란을 겪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점이나 이와 관련된 어떤 사료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음을 볼 때 이 주장 또한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세 번째로 朱淑眞을 남송 중기 사람으로 보는 견해다. 魏仲恭이 쓴 〈斷腸集序〉를 근거로 ‘淳熙壬寅二月望日’은 孝宗 淳熙 9년(1182년)이라는 것과 서문 속에서 “武陵 땅(오늘날 湖南 常德)에 이르렀을 때 여관에서 好事家들이 종종 朱淑眞의 사를 낭송하는 것을 보았다.¹⁷⁾”는 구절이 있는데 이때 사람들 입에서 朱淑眞의 사가 불리어졌다면 이것은 朱淑眞이 죽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녀의 삶이 孝宗 淳熙 9년(1182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남송중기였음을 알 수 있다. 주숙진이 남송의 수도인 臨安으로 遷都한 후 살았는지는 증거는 작품속의 詩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朱淑眞集》의 詩에서 호수를 언급한 詩 제목을 보면 〈湖上閑望二首〉, 〈湖上小集〉, 〈下湖卽事〉, 〈遊湖歸晚〉, 〈湖上詠月〉 등 호수와 관련된 작품들의 많다. 최근 출판된 《朱淑眞李清照詩詞逐字索引》¹⁸⁾을 통해 고찰하면 朱淑眞의 작

學學報》1991년 第3期)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16) 張璋 黃奮校注, 《朱淑眞集》, 上海古籍出版社, 1986년.

17) 魏仲恭, 〈斷腸集序〉: 「比往武陵, 見旅邸中好事者往往傳誦朱淑眞詞」 《朱淑眞集注》, 中華書局, 2009년, 1쪽.

18) 鄭夔子 編, 《朱淑眞李清照詩詞逐字索引》, 鳳凰出版社, 2011년.

품 속에 ‘호수(湖)’를 언급한 詩詞가 모두 12句가 있는데¹⁹⁾ 이 중 〈吊林和靖二首〉에서 ‘서호의 바람과 달빛은 누구를 위해 청명한지(西湖風月爲誰清)’라는 구절이나 〈游湖歸晚〉의 “아쉬운 서호의 풍경, 산 머리로 석양이 지내(戀戀西湖景, 山頭帶夕陽)”라는 구절들은 朱淑眞이 서호에 생활한 분명한 증거라 하겠다. 즉 남송의 수도가 臨安(항주)임을 고려해 볼 때 작품 속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호수는 西湖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그녀의 작품 속에 항주(錢塘)를 ‘皇州’나 ‘帝城’으로 표현하거나 남북송 교체기 詞人인 李清照의 작품을 빌려 쓰거나 남송시인 張孝祥의 시를 빌려 쓴 점을 들어 주숙진이 이들 이후인 남송 중기 인물임을 증명하는 연구자도 있다.²⁰⁾ 이상의 많은 연구와 문헌적 자료들을

19) 〈梅蒸滋甚因懷湖上二首〉	雲暗湖光雨四垂, 珠玑萬斛撒琉璃
〈喜雨〉	瓊瑰萬斛瀉碧落, 陂湖池沼皆泱泱
〈新荷〉	蕩漾湖光三十頃, 未知葉底是誰蓮
〈湖上閑望二首〉	薄雲疏日弄陰晴, 山秀湖平眼界清
〈秋日述懷〉	我因無好況, 揮斷五湖秋
〈夜留依綠亭〉	水鳥棲煙夜不喧, 風傳宮漏到湖邊
〈試墨〉	翠樓高壓浙山頭, 海角湖光豁醉眸
〈吊林和靖二首〉	不見孤山處土星, 西湖風月爲誰清
〈游湖歸晚〉	戀戀西湖景, 山頭帶夕陽
〈湖上詠月〉	清宵三五涼風發, 湖上閒吟步月明
〈鶯〉	野花啼鳥喜新晴, 湖上波光漾日明
〈清平樂〉(夏日游湖)	攜手藕花湖上路, 一霎黃梅細雨

20) 魏秀琪는 네 가지를 통해 朱淑眞이 남송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다. 첫째는 朱淑眞의 〈元夜遇雨〉란 시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錢塘을 ‘皇州’로 표현한 것이나 〈元夜〉라는 시에서 ‘帝城’으로 표현한 것을 볼 때 송 왕조가 이미 臨安으로 천도하고 난 이후 창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朱淑眞 작품 속에는 많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과 백성들의 상황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현존하는 작품 속에는 남북송 교체시기의 정치나 백성들의 생활등을 언급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통해 朱淑眞이 남송의 안정적 시기의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셋째는 주숙진이 前人들의 작품을 인용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杏花〉라는 작품에서 ‘淺注胭脂剪絳綃’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宋 徽宗이 靖康2년(1127) 금나라의 포로가 되어 북으로 잡혀 가면서 쓴 〈燕山亭·北行見杏花〉의 ‘裁剪冰綃, 輕疊數重, 淡著胭脂勻注’를 인용했기에 남송시대에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雪夜對月賦詩〉의 ‘看來表裏俱澄澈’이라고 읊은 것은 남송시인 張孝祥이 乾道2년(1166) 쓴 〈念奴嬌·過洞庭〉에서 ‘素月分輝, 明河共影, 表裏俱澄澈’을 인용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李清照의 많은 작품의 명구들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宋 徽宗이나, 張

종합해 볼 때 朱淑眞은 남송 中期의 인물로 짐작된다.

그녀의 貫籍에 대해서도 歷代로 의견이 분분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견해로는 첫째 그녀의 貫籍을 ‘錢塘’으로 보는 견해다. 둘째는 ‘海寧’으로 보는 견해다. 먼저 朱淑眞의 본적을 錢塘(杭州)로 보는 견해는 明代 田汝成(1503~1557)의 《西湖游覽志餘》卷16에서 “朱淑眞은 錢塘사람이다”²¹⁾고 하면서 부터이다. 또 그의 아들인 田藝蘅(1524~?)의 《詩女史》에서 ‘錢塘人’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清代에 이르러 王士禎이 《池北偶談》卷15에서 주숙진이 ‘錢塘’사람이라고 언급했다. 또 후대의 연구가들은 그녀의 詩詞 속에서 항주의 西湖를 묘사한 작품들을 많이 남긴 것을 근거로 朱淑眞의 貫籍을 錢塘으로 보기도 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朱淑眞을 海寧 사람으로 보는 견해로 田藝蘅의 《斷腸集·紀略》에서 朱淑眞을 “浙中 海寧 사람으로 朱熹의 姪女이다”²²⁾고 언급한 것에서 시작된다. 또 胡薇元的 《歲寒居詞話》에서도 “海寧 사람 朱淑眞은 바로 주자의 질녀이다”²³⁾고 언급하며 朱淑眞을 海寧 사람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田藝蘅이 주숙진을 《詩女史》에서는 錢塘사람이라고 하고 뒤에 《斷腸集·紀略》에서는 海寧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²⁴⁾ 앞뒤가 맞지 않는 듯 보인다. 또 앞서 언급한 《四庫全書總目提要》

孝祥(1132~1170), 李清照(1084~1155) 보다는 후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네째로는 〈斷腸集序〉에서 魏仲恭이 자신이 수집하여 편집한 작품이 원작의 십분의 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300여수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민간에 朱淑眞의 작품이 널리 불리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魏仲恭이 서문을 적은 1182년은 朱淑眞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朱淑眞生平研究綜述〉, 《浙江教育學院學報》, 2002년 第5期, 21쪽.

21) 田汝成, 《西湖游覽志餘》: “朱淑眞者, 錢塘人.” 上海古籍出版社, 1980, 312쪽.

22) 《朱淑眞集注》: 「淑眞, 浙中海寧人, 文公姪女也。」 中華書局, 276쪽.

23) 《歲寒居詞話》〈斷腸詞〉: 「又海寧朱淑眞, 乃文公姪女, 有斷腸詞, 亦清婉作。」 《詞話叢編》제5권, 中華書局 4036쪽.

24) 田汝成이《西湖游覽志》에서 朱淑眞을 元代사람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때 그는 朱淑眞에 대해 깊이 알고 있지는 못했고 전해들은 소문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

〈斷腸集二卷〉에서도 ‘淑眞’을 ‘錢塘’ 사람이라 서술했다가 뒤에 《四庫全書總目提要》 〈斷腸詞一卷〉에서는 “淑眞은 海寧사람이다.”고 쓰며 ‘錢塘’과 ‘海寧’을 오가고 모순된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주숙진의 貫籍을 ‘海寧’이라 했다가 ‘錢塘’이라했다 하는 걸까? 먼저 ‘海寧’이란 지명의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자.

《中國古今地名大辭典》을 통해 보면 宋代에 ‘海寧’이라는 地名은 오늘날 安徽의 休寧을 말한다.²⁵⁾ 《宋史·地理志》를 보아도 徽州(歙州)²⁶⁾ 관할에는 休寧이 있었고 海寧은 그 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송대 문헌에서 ‘海寧’이라 말한 것은 바로 安徽 ‘歙州’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黃嫣梨는 《斷腸集·紀略》, 《晉書》, 《隋書》, 《宋史·地理志》, 《元史·地理志》, 《明史·地理志》 등의 史料를 통해 朱淑眞이 祖籍이 安徽 ‘歙州’인 海寧임을 밝히고 있다.²⁷⁾ 즉 田藝衡이나 《四庫全書總目提要》 〈斷腸詞一卷〉 등에서 朱淑眞의 貫籍이 ‘海寧’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朱淑眞의 祖籍을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주숙진이 실제로 생활했던 곳은 지금의 항주인 ‘錢塘’이었고 그녀의 祖籍은 安徽 海寧이었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朱淑眞의 原籍은 安徽 海寧(安徽 徽州 歙縣)이었으며 이후 결혼해서 실제로 거주했던 本籍은 浙江의 錢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숙진의 貫籍은 ‘錢塘’과 ‘海寧’ 둘 다 옳다 할 수 있지만 시와 사의 창작 배경이 되었던 대부분의 장소는 錢

25) 戴均良 主編, 《中國古今地名大辭典》에 따르면 ‘海寧’이라고 칭하는 곳은 3곳이 있다. 첫째로 지금의 安徽 休寧이고 둘째로 지금의 廣東 惠來이고 세 번째 지금의 浙江 海寧이다. 지금의 海寧은 杭州의 동쪽에 위치한 海寧市지만 그곳은 三國時代 吳나라때에는 鹽官縣으로 불리다가 元代 天曆2年(1329)에야 海寧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元代 이전의 典籍에서 海寧이라 언급하는 것은 마땅히 安徽성 休寧으로 보아야 옳다. 上海辭書出版社, 2005년.

26) 歙州는 新安江 상류에 위치해 있다. 춘추시대부터 歙州로 불리다가 隋煬帝가 전국을 州 단위에서 郡 단위로 바꾸면서(607년) 新安郡으로 불렸다. 이후 唐 高祖 武德4年(612年)에 다시 新安郡을 歙州라 불렀다. 이를 다시 宋徽宗 宣和3年(1121年)에 歙州를 徽州로 개칭했다.

27) 黃嫣梨, 〈朱淑眞事迹索隱〉, 《文史哲》, 1992년, 25쪽.

塘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朱淑眞은 錢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朱淑眞의 남편과 혼인생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가장 먼저 魏仲恭의 〈斷腸詩集序〉를 보면 “어린 시절 불행히도 부모가 신중하지 않아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어 市井 民家の 妻가 되었다²⁸⁾”고 언급했다. 이후 田汝成의 《西湖游覽志餘》, 田藝衡의 《詩女史》, 馮夢龍의 《情史》등에서도 魏氏의 말을 답습하여 ‘市井 民家の 妻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朱淑眞의 혼인에 대해 가장 먼저 새로운 견해를 낸 사람은 況周頤이었다. 그는 朱淑眞 시 〈賀人移學東軒〉, 〈送人赴試禮部〉, 〈春日書懷〉, 〈寒食咏懷〉, 〈舟行卽事〉, 〈題斗野亭〉, 〈秋日得書〉 등을 근거로 들면서 기존의 견해를 반박했다. 況周頤는 《蕙風詞話》卷4에서 ‘남편 집성씨는 고증하기 어렵다. 당초 예부시험에 응시하였으며 후에 강남에서 관리를 지낸 듯하다. 숙진은 일찍이 남편의 벼슬을 따라 오, 월, 형, 초 지역으로 옮겨 다녔다.’²⁹⁾고 했다. 즉 시들의 내용이 대부분 안락하고 화려한 생활을 묘사한 것임을 볼 때 그녀가 市井 民家の 妻로 시집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 〈會魏夫人席上〉, 〈宴謝夫人堂〉, 〈次韻見贈兼簡吳夫人〉 등과 같은 작품을 보아도 高官부인들과 교류하는 내용이 많은데 市井 民家の 妻로 이런 교류를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다. 특히 〈春日書懷〉에서 “관직 따라 동서도 따라 다니며 자유가 없으니, 천리 밖 님으로 부터 온 전갈에 눈물이 흐른다(從宦東西不自由, 親幃千里淚長流)”는 내용으로 볼 때 관직을 맡은 남편을 따라 왔다 갔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주숙진의 남편은 고관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직위가 있는 벼슬은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며 魏仲恭이 말하는 市井의 民家

28) 《朱淑眞集注》〈斷腸詩集序〉: 「早歲不幸, 父母失審, 不幸擇伉儷, 乃嫁爲市井民家妻。」

29) 況周頤, 《蕙風詞話》〈生查子誤入朱淑眞集〉: 夫家姓氏失考, 似初應禮部試, 其後官江南者. 淑眞從宦, 常往來吳越荆楚間. 《詞話叢編》제5권, 中華書局, 4495쪽.

로 시집간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3. 朱淑眞 詞에 나타난 사랑

그렇다면 그녀의 애정관계는 어떠하였을까? 그녀의 詞 대부분이 悲劇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때 朱淑眞과 애정 관계는 그렇듯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詩에서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을 원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난다. 예로 〈愁懷〉란 작품을 보면 “해오라기와 원앙이 한 연못에 머무네, 깃털과 날개가 서로 어울리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봄이 꽃과 함께 하지 않으니, 마치 성장을 정지한 연리지 같다 하겠네.(鷗鷺鴛鴦作一池，須知羽翼不相宜。東君不與花爲主，何似休生連理枝.)”라 읊고 있다. 여기서 ‘해오라기(鷗鷺)’와 ‘원앙(鴛鴦)’은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부관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도 ‘깃털(羽)’과 ‘날개(翼)’나 ‘봄(東君)’과 ‘꽃(花)’등의 불화를 통해 자신과 남편의 불편한 관계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悶懷〉이라는 시에서는 “황혼이 진 정원에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홀로 외로운 등불을 마주하니 恨이 쌓인다. 바늘과 실이 더디게 기워가니 애간장이 끊기고, 오동잎 하나하나 칼 같은 바람에 잘리운다.(黃昏院落雨瀟瀟，獨對孤燈恨氣高。針線懶拈腸自斷，梧桐葉葉剪風刀)”고 했다. 여기서도 ‘바늘(針)’과 ‘실(線)’이란 다름 아닌 자신과 남편을 비유하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바늘과 실이 더디게 기워진다는 것을 통해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朱淑眞이 남편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첫째는 주숙진이 결혼하기 전후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둘째로 남편이 학문적으로 깊이가 없어서 朱淑眞과 문학적 교류를 나눌 수 없었다는 것, 셋째로 남편이 名利를 탐하는 관리라서 朱淑眞과 맞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인 결혼 전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설이다. 戚榮金은 그녀의 작품 〈淸平樂·夏日游湖〉, 〈江城子·賞春〉, 〈菩薩蠻·秋〉 등을 예로 들며

朱淑眞이 결혼 전 분명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³⁰⁾ 직접 〈清平樂·夏日游湖〉란 작품을 살펴보자.

惱煙撩露，	자옥한 안개 이슬이
留我須臾住。	나를 잠시 머물게 하네.
携手藕花湖上路，	그대와 연꽃 핀 호수 가에서 손잡고 노닐 때，
一瞬黃梅細雨。	갑자기 보슬비 내린다.

嬌痴不怕人猜，	사랑에 빠져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 않고，
和衣倒睡入懷。	옷 입은 채 너의 품에 잠드네.
最是分携時候，	결국은 이별할 시간이 되어，
歸來懶傍妝臺。	돌아와 천천히 화장대에 기대네.

이 詞는 위의 〈愁懷〉나 〈悶懷〉시에서 남편에게 보이는 원망적 심정과 다른 사뭇 다른 내용을 읊고 있다. 사랑에 빠져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嬌痴不怕人猜) 과감하게 너의 품에 안기는 모습(和衣倒睡入懷)을 통해 얼마나 깊이 交際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위의 사람들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별하고 돌아와 자신의 화장대 앞에 앉는 모습들은 분명 그녀가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朱淑眞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다른 작품 속에서도 보인다. 〈江城子·賞春〉을 보자.

斜風細雨作春寒，	비껴 부는 바람과 가랑비로 싸늘한 봄，
對尊前，	술잔을 대하자니
憶前歡。	지난날 즐거움 떠오르네.
曾把梨花，	일찍이 배꽃을 잡고서，
寂寞淚欄干，	쓸쓸히 난간에서 눈물 떨구었지.
芳草斷煙南浦路，	아름다운 꽃과 안개에 가린 남포 길에서，
和別淚，	이별의 눈물 흘리며，
看青山。	푸른 산을 바라보았지.

30) 戚榮金, 〈朱淑眞籍貫與生平考述〉, 《江漢大學學報》, 2008년, 69쪽.

昨宵結得夢夤緣,	지난밤 꿈속에서 맺은 인연은
水雲間,	강물과 구름사이로
悄無言.	말없이 사라지네.
爭奈醒來,	어쩔 수 없이 깨어났지만
愁恨又依然.	슬픔과 원망은 또 다시 예전과 같네.
展轉衾裯空懊惱,	잠자리를 뒤척이며 부질없이 괴로워하니
天易見,	하늘은 쉬 보이지만
見伊難.	그대 보기 어려워라.

술잔을 들고 ‘지난 과거의 즐거움을 회상하는 것(憶前歡)’이나 ‘배꽃을 잡고서 혼자 난간에서 눈물 떨구는것(曾把梨花, 寂寞淚欄干)’은 남편을 생각하며 쓴 작품이라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과 안개에 가린 남포 길에서, 이별의 눈물 흘리며, 푸른 산을 바라본다(芳草斷煙南浦路, 和別淚, 看青山)’는 묘사를 분명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다. ‘南浦(남쪽 포구)’는 이별의 장소다. 이 남포로 가는 길에서 떠나는 님을 보내며 눈물을 참다 멀리 푸른 산을 바라보는 모습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슬픈 이별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하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해 꿈에 다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습과 더불어 근심으로 잠 못드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다. ‘강물과 구름 사이(水雲間)’이란 본래 白居易의 〈白雲泉〉³¹⁾에서 나오는 구절이다. ‘구름은 본시 마음 두지 않고 물은 본래 멈추지 않는다(雲自無心水自閑)’는 것은 구름과 물은 본래 만나려고 마음을 먹지 않지만 구름의 그림자는 물에 드리우고 물은 증발하여 구름이 되니, 인연이 없을 수 없는 둘의 관계를 표현한 말이다. 즉 ‘水雲間’이란 서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지만 결국 서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작가의 간절한 바람이 스며들어 있는 구절이다. 朱淑眞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구에서 ‘하늘 보기는 쉬워도 그대 보기는 어려워라(天易見, 見伊難)’는 구절을 통해 깊은 여운을 남기고

31) 天平山上白雲泉, 雲自無心水自閑. 何必奔冲山下去, 更添波浪向人間.

있다. 다시 〈生查子〉 하편을 보자.

酒從別後疏,	술은 이별한 뒤로 멀리하고,
淚向愁中盡.	눈물은 근심으로 끝이 없구나.
遙想楚雲深,	초망 구름 짙은 곳에,
人遠天涯近.	사람은 저 멀리 있고 하늘만 가까워 졌네.

여기서는 이별에 대한 슬픔과 멀리 가버린 님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편 첫 구에서 “술은 이별한 뒤로 멀리한다(酒從別後疏)”는 것이나 “눈물은 근심으로 끝이 없다(淚向愁中盡)”는 것은 정말 그리움에 사무친 표현들이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멀리 떠난 님에 대한 생각과 아스라한 情懷를 구름과 경물에 의탁해 표현하고 있다. 정말 그 시대의 작품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담하고 솔직한 심경의 술회이다.

그녀가 남편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며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는 작품으로 〈青平樂〉을 들 수 있다.

風光緊急,	풍경이 갑작스레 변하여,
三月俄三十.	어느새 삼월 삼십 일 되었네.
擬欲留連計無及,	계속 머무르게 할 계책이 없기에,
綠野煙愁露泣.	푸른들 안개는 수심 어렸고 이슬은 흐느끼네.
倩誰寄語春宵,	누구에게 부탁하여 봄밤의 소식을 전하나?
城頭畫鼓輕敲.	성벽의 북이 가볍게 울리네.
繾綣臨歧囑付,	아쉬워하며 이별의 갈림길에서 당부하노니,
來年早到梅梢.	내년에는 매화꽃 피는 때 보다 일찍 오소서.

이 사를 두고 계절의 지나감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평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일반적인 봄날의 애상을 그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꼼꼼히 짚어보면 이 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쓴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두 번째 구에서 3월 30일이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봄이 몇 월 몇 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기

에 이것이 떠나는 사람을 두고 썼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달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 4월에 떠나야 하기에 3월 말까지 머무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3월 30일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마지막 날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그를 계속 잡아두고 싶지만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없음(欲留連計無及)’을 한탄한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처럼 주변의 ‘풀들과 안개 이슬 등 모든 경물이 슬픈 것처럼 보인다(綠野煙愁露泣)’고 묘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제 님이 떠나게 되면 ‘누구에게 부탁하여 이 봄밤의 소식을 전할까?(倩誰寄語春宵)’ 하고 연락할 길이 요원함을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봄밤은 지나가고 다시 새벽이 되어 이제 정말 님이 떠나야할 시간이 되었다. 새벽을 알리는 성곽의 북소리가 들린다.(城頭畫鼓輕敲) 어찌할 수 없이 떠나는 님을 따라서 멀리까지 배웅하다 결국 헤어지는 갈림길에 이르러 작가는 다시 님에게 당부한다(繾綣臨歧囑付). 특히 이 구절에서 ‘繾綣’이라는 용어는 唐·宋代에 ‘정이 깊어 헤어지기 어렵다’는 의미로 쓰였다. 여러 용례를 보면 ‘繾綣’이란 용어가 자연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대한 어휘임을 알 수 있다.³²⁾ 즉 이 詞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며 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내년에 올 때는 가장 먼저 피는 저 매화보다 더 일찍 찾아와서 자신과 긴긴 시간을 같이하자고(來年早到梅梢)’ 말한다. 구절구절이 님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애절한 사랑이 담긴 작품이다.

이러한 朱淑眞 사에 보이는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에 대한 사랑을 두고 역대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葉嘉瑩 선생은 작품의 객관적 관찰을 요구하며 朱淑眞의 다른 이성에 대한 사랑에 대해 〈江城子·賞

32) 唐宋代에 ‘繾綣’이란 어휘가 쓰인 용례들을 보면 白居易의 〈寄元九〉에서 ‘어찌 의식을 탐해서리오, 님의 마음에 감동하여 헤어지지 못하네(豈是貪衣食, 感君心繾綣)’라고 했고, 王安石的 〈解使事泊棠陰時三弟皆在京師〉에서 ‘오랫동안 머무름도 옳지 않은 것 같아, 떠나려 해도 아쉬워 헤어지지 못하네(久留非可意, 欲去猶繾綣)’ 등과 같이 두 사람의 감정이 깊어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쓰였다. 또 唐 元稹의 〈鶯鶯傳〉을 보면 ‘잇으려 해도 잇지 못해 가슴속 한이 맺히고, 헤어지려해도 결국 헤어지지 못하는 마음(留連時有恨, 繾綣意難終)’처럼 남녀 간의 감정이 깊어 헤어지지 못함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였다.

春〉, 〈青平樂·夏日游湖〉 등의 작품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긍정했다.

朱淑真이 쓴 閨情의 작품들은 기타 여성작가들이 쓴 閨情의 작품들과 절대 다른 점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일반 여성들이 쓴 규정은 대략 자신의 남편에 대한 相思나 그리움이며, 설령 결혼 전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쉽게 입 밖으로 내뱉으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婚外의 ‘몰래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 쓰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여인은 정절을 아름다움으로 여기는 엄격하고 오래된 전통이 있었기에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과거의 여성작가들이 자신의 ‘不貞’한 사랑에 대해 詩나 詞에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쓰려 하지 않았다. (중략) 그러나 朱淑真의 사에는 오히려 드러내놓고 자기 스스로 婚外 사랑에 대한 작품들을 쓰고 있다.³³⁾

주숙진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드러내 놓을수 없는 婚外의 사랑을 과감하게 드러냄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그녀의 詞는 더욱 淒然하고 고독한 風格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주변의 질타 속에서 만들어진 자신만의 사랑에 대한 감정은 주숙진 사를 다른 詞人들과 구분되는 幽深하고 淒苦한 風格으로 이끌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朱淑真詞에 나타난 孤獨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은 자연히 서로를 疏遠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婚外 연인 관계는 전통적 사회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限時的일 수밖에 없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두 상황 속에서 봉건 사회 여인이 처하게 되는 것은

33) 葉嘉瑩, 〈宋代兩位傑出的女詞人--李清照與朱淑真〉: 「朱氏寫閨情之作更與其它女性作者所寫的閨情之作, 也有着一點絕大的不同之處, 那就是一般女性所寫的閨情, 大約只限於對於自己的丈夫的相思和懷念, 連婚前對於愛情的向往都不敢輕易出之於口, 更遑論對於婚外情的“幽歡”之叙寫了. 因為女子之以貞潔爲美, 在中國有着嚴格而悠久的傳統, 一般而言, 幾乎所有的過去的女性作者, 絕少有人敢在自己的詩詞中明白自寫其“不貞”之情的. (中略) 而朱氏之詞乃公然竟有不少自寫其婚外戀情的作品.」 (《中國文化》第29期, 115쪽.)

孤獨하게 홀로 버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朱淑真의 詞에는 비극적 고독을 읊은 작품들이 많다. 《朱淑真李清照詩詞逐字索引》³⁴⁾에 따르면 朱淑真 詩에서는 모두 29군데 ‘獨’자가 들어간 詩句를 썼고 詞에서는 5군데 ‘獨’자가 들어간 詞句를 썼다. 비록 횡수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숙진의 가장 대표적 작품들이 모두 고독한 풍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독의 내용의 작품들은 후대 주숙진사를 평가할 때 주요 근간이 되었다. 주숙진 사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魏仲恭의 〈斷腸詩集序〉 한 단락을 보자.

여행 중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朱淑真의 사를 따라 불렀는데, 매번 옆에서 들을 때 마다 清新하고 婉麗하며, 깊은 생각과 감정이 담겨있어 사람의 마음 속 일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니, 어찌 가벼운 사람들이 다다를 수 있는 경지겠는가? 일찍이 그녀의 사를 한번 읊고 세 번 감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見旅邸中好事者往往傳誦朱淑真詞, 每竊聽之, 清新婉麗, 蓄思含情, 能道人意中事, 豈泛泛者所能及, 未嘗不一唱而三歎也.³⁵⁾)

魏仲恭은 주숙진의 사가 清新하고 婉麗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녀의 사가 幽深하고 淒涼한 풍격이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朱淑真 작품 중 幽深하고 淒涼한 풍격의 작품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홀로 남겨져 고독한 규방생활을 하며 閨怨의 情緒를 많이 담아냈기 때문일 것이다. 楊映紅은 ‘朱淑真的 詩와 詞 작품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애간장을 끊게 하는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바로 그녀의 고독하고 근심어린 마음을 幽深하고 淒苦한 意境에 담아 사람들로 하여금 비극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³⁶⁾’고 보았다. 朱淑真的 고독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減字木蘭花〉 작품을 보자.

34) 鄭夔子 編, 《朱淑真李清照詩詞逐字索引》, 鳳凰出版社, 2011년.

35) 魏仲恭 〈斷腸詩集序〉, 《朱淑真集注》, 中華書局, 2009년, 1쪽.

36) 楊映紅, 〈朱淑真詩詞幽深淒苦的意境探析〉: 「朱淑真的詩詞之所以令人讀之斷腸, 其中一個重要的原因就在於她能將孤寂愁絕的情懷寓於幽深淒苦的意境之中, 給人以一種悲劇美。」《甘肅廣播電視大學學報》, 2003년 6월, 23쪽.

獨行獨坐,	혼자 서성이다 혼자 앉아
獨倡獨酬還獨臥.	혼자 노래하고 혼자 화답하고 또 혼자 누워본다.
佇立傷神,	우두커니 서서 정신을 잃는다.
無奈輕寒著摸人.	사람을 감싸 안는 차가운 날씨에 어찌할 줄 몰 라.
此情誰見,	이 마음 누가 알까.
淚洗殘妝無一半.	눈물로 세수하니 화장은 반도 남아 있지 않네.
愁病相仍,	근심은 병이되고 병은 근심의 짝이 되어
別盡寒燈夢不成.	차가운 등불 다하도록 잠들지 못하네.

아주 짧은 형식의 작품이지만 朱淑眞의 고독한 심경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고독함이 한계점에 이르러 주체할 수 없는 슬픈 심경을 뒤흔치게 묘사하고 있다. ‘혼자 주위를 배회했다가 다시 혼자 앉았다가,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혼자 누워보는(獨行獨坐, 獨倡獨酬還獨臥)’ 모습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작가는 첫 구절 첫 글자부터 ‘獨’자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두드러지게 표현했다. 첫 구의 11개 글자 가운데 무려 5개가 ‘獨’ 자이다. 劉文忠은 “상편은 5개의 ‘獨’자를 통해 여류사인의 표현하기 힘든 내면의 고민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초조하고 불안한 행동, 한 가닥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심정을 모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³⁷⁾”고 했다. 張璋은 “그녀는 남다른 뛰어난 필치가 돋보인다. 짙은 필치로 시작하여 첫 구 11개 글자 가운데, 연이어 5개의 ‘獨’자를 써서, 수심의 구름이 가득하고, 급박하고 긴장감이 짙은 분위기를 만들어, 깊고 차가운 밤 고독하고 복잡하고 답답한 심정을 두드러지면서도 형상적으로 묘사했다.³⁸⁾”고 언급하고 있

37) 劉文忠, 《唐宋詞鑑賞辭典》: 「上片以五個‘獨’字, 寫出了女詞人因内心孤悶難遣而導致行動焦灼不寧、百無一可的情狀, 全是動態的描寫。」1332쪽.

38) 唐圭璋 主編, 《唐宋詞鑑賞辭典》: 「她異筆突起, 濃筆開場, 起首在十一個字中, 接連用了五個“獨”字, 真是弄得愁雲密布, 緊羅密鼓, 以濃厚的氣氛, 突出而形象地描繪了深更寒夜、孤獨煩悶之狀。」, 江蘇古籍出版社, 1994년, 779

다. 朱淑眞의 詞에는 모두 다섯 군데 ‘獨’자가 들어간 詞句가 있는데 그 중 두 구가 이 詞에 있다³⁹⁾. 그만큼 이 사를 통해 자신의 고독한 심경을 강하게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이어지는 구는 고독에 사무쳐 멍하니 넋이 나간 모습과 차가운 바람만이 자신을 감싸는 모습을 형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상편이 고독한 자신의 모습을 묘사했다면 하편은 자신의 내면의 고독함을 표현하고 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물로 뒤범벅된 자신의 얼굴을 그 누구도 보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작가는 마음의 ‘근심(愁)’이 너무나 깊어 병이 되고 밤새도록 잠들지 못한다. 朱淑眞이 내면적 고독으로 얼마나 근심(愁)했는지 그녀는 ‘근심과 병이 서로 짝이 된다(愁病相仍)’고 했다.⁴⁰⁾ 주숙진의 삶과 작품세계가 얼마나 고독하고 근심에 쌓여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방증이라 하겠다. 다시 朱淑眞의 고독한 심경을 표현한 작품 〈菩薩蠻·秋〉 두 번째 수를 보자.

山亭水榭秋方半,	산 속 정자와 물위 누대에는 가을이 짝하였는데,
鳳幃寂寞無人伴.	봉황을 수놓은 병풍은 적막하여 짝하는 이 없네.
愁悶一番新,	시름은 새로이 일어나고,
雙蛾只舊顰.	눈썹은 예전 같이 찡그려진다.
起來臨繡戶,	잠 못 이루고 일어나 비단 창문으로 다가서니,
時有疏螢度.	마침 그때 반딧불 몇 마리 날아가네.
多謝月相恰,	고맙게도 달이 나를 가없게 여겨,
今宵不忍圓.	오늘밤은 기울어 등글지 않네.

이 사는 가을밤 산 속의 정자와 물위의 누대까지 모두 짝이 있는데

쪽.

39) 여기서 보이는 두 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홀로 난간에 기대보니 낮은 길다.(獨倚欄干晝日長)〈鷓鴣天〉, ‘혼자 작은 난간에 기대어(獨倚小欄干)〈菩薩蠻〉, ‘혼자 난간에 기대어(獨自倚欄干)〈菩薩蠻·咏梅〉 등이 있다.

40) 朱淑眞이 근심에 쌓여 있었다는 것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주숙진 詩 삼백여 편 가운데 ‘근심(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이 무려 75句나 되고 詞에서도 9군데 보인다. 이는 전체 작품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鄭夔子 編, 《朱淑眞李清照詩詞逐字索引》, 鳳凰出版社, 2011년, 91쪽)

자신만이 쓸쓸하게 혼자임을 묘사하고 있다. 첫 두 구는 짝을 이루고 깊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와 대조적으로 아무도 짝할 이 없어 적막하기 그지없는 규방 묘사를 통해 고독한 자신의 처지를 대비적으로 표현했다. 다음 구 또한 ‘새로이(新)’ 일어나는 ‘근심(愁悶)’과 ‘오랫동안(舊)’ 시름으로 찌푸려져(皺) 있는 눈썹(雙蛾)의 ‘新’, ‘舊’ 대비를 통해 끊임없이 생겨나는 자신의 근심과 고독을 극적 대비를 통해 표현했다. 하편 첫 구에서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일어나 창가에 다가서는 여인의 모습을 묘사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여 찾아왔을까 창가로 다가서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반딧불만 보인다. 이러한 상심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작가는 스스로 기울어진 달을 통해 위로를 삼는다. 마지막 두 구는 이지러진 달에 슬픔에 잠긴 자신을 투영시켜 이사를 극적 전환점으로 이끌어가는 妙句라 할 수 있다. 周嘯天은 “똑같이 고독한 심경을 쓴 것인데 소동파는 둥근달을 두고 글을 쓰며 ‘무슨 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항상 이별할 때 달은 저리 둥근가?’라고 했고, 朱淑真是 기울어진 달을 두고 ‘고맙게도 달이 나를 가엾게 여겨, 오늘밤은 기울어 등글지 않네.’ 라고 했다. 사물에 감정을 이입시킨 것이나, 원망과 고마움이 모두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므로 이 모두가 서로 다른 것 같아도 묘한 공통점이 있으니 이 사의 가장 흥미로운 곳이 바로 마지막 結尾 두 구이다⁴¹⁾”고 했다.

朱淑真的 〈菩薩蠻·秋〉 첫 번째 작품 역시 고독함이 주된 풍격을 이루고 있다.

秋聲乍起梧桐落,	가을바람 일자 오동잎은 떨어지고,
蛩吟唧唧添蕭索.	귀뚜라미 지지우는 소리에 쓸쓸함이 더하네.
敲枕背燈眠,	베개 베고 누워 등불을 등지고 잠이 들자,
月和殘夢圓.	달은 남은 꿈과 어우러져 등글어라.

41) 《唐宋詞鑑賞辭典》：「同是寫孤獨情懷，蘇東坡在圓月上做文章：“不應有恨，何事長向別時圓”；朱淑真則在缺月上做文章：“多謝月相恰，今宵不忍圓。”移情於物，怨謝由我，真有異曲同工之妙。此詞最有興味之所在正是結尾兩句。」上海辭書出版社，1996年，1339쪽.

起來鉤翠箔,	일어나 비취 발을 걷어 올리자,
何處寒砧作.	어디서 쓸쓸한 다듬질 소리.
獨倚小欄干,	홀로 작은 난간에 기대니,
逼人風露寒.	차가운 바람과 이슬이 사람을 괴롭히네.

이 사 역시 쓸쓸한 가을의 정경 묘사를 통해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밝히고 있는 작품이다. 첫 두 구는 가을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떨어지는 오동잎과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통해 쓸쓸한 가을의 풍경을 형상화했다. 다음 두 구는 혼자 등불을 등지고 잠을 청하는 고독한 여인의 모습과 더불어, 이지러진 조각달과 깨어진 자신의 꿈이 반반 합하여 둥글게 만든다는 기막힌 설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이 반쪽 난 꿈과 이를 놓지 못하고 이루어 보려는 여인의 안쓰러운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편에서는 결국 여인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서 발을 걷어 올린다. 이때 어디선가 다듬이 소리가 들려온다. 깊은 가을밤 홀로 잠 못 이루는 고독한 여인에게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는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래서 마지막 구에서 ‘차가운 바람과 이슬이 사람을 괴롭힌다(逼人風露寒)’고 했다. 쓸쓸함과 고독함이 끝없이 묻어나오는 작품이다. 특히 마지막 두 구를 두고 沈應紀는 “특히 ‘寒砧’, ‘風露’를 빌어 詞人의 처량한 심정을 부각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쓸쓸한 느낌이 강하다. ‘寒’자는 쌀쌀한 기운을 나타내는 동시에 무한한 절망에 쌓인 詞人의 심정을 암시적으로 묘사하였다.”⁴²⁾고 분석했다.

朱淑眞이 행복하지 못했던 결혼생활과 고독한 朱淑眞의 삶은 봄날을 보내며 哀傷的으로 쓴 〈蝶戀花·送春〉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난다.

樓外垂楊千萬縷,	집밖에 늘어진 천 가닥 만 가닥 버들가지
欲繫青春,	봄을 붙들려하나,
少住春還去.	잠시 머물다 다시 가버리네.

42) 沈應紀, 《朱淑眞詞研究》,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2년, 42쪽.

獨自風前飄柳絮， 隨春且看歸何處。	홀로 바람 앞에 나부끼는 버들 솜은 봄을 따라 또 어디로 가는가?
綠滿山川聞杜宇， 便做無情， 莫也愁人苦。 把酒送春春不語， 黃昏却下瀟瀟雨。	푸르름 가득한 산천으로 두견새 소리 들리니 짐짓 무정한 듯 하려해도 근심을 가눌 수 없네. 술잔을 들어 봄을 보내는데 봄은 말이 없고 황혼녘 부슬부슬 비만 내리네.

이 사는 상편에서는 봄의 정취를 묘사했고 하편에서는 봄의 정취와 더불어 봄을 보내는 고독한 여인의 애석한 마음을 표현했다. 상편 첫 구에서는 봄을 맞이하여 빈 가지에서 경이롭게 자라나는 버들잎의 모습을 통해 깊어가는 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賀知章은 〈咏柳〉에서 ‘가는 잎 새 누가 마름질하여 내놓는가? 이월 봄바람은 재단사의 가위 같구나(不知細葉誰裁出，二月春風似剪刀)’라고 했다. 그만큼 새로 돋아나는 봄날 잎 새들은 경이롭다. 朱淑真 역시 수없이 늘어진 버들가지를 통해 경이로운 봄날의 모습을 표현했다. 이를 두고 范之麟은 “그렇다면 왜 이것들을 빌어 봄의 정취를 표현했을까? 주로 버드나무 가지의 가늘고 부드러운 것이 실 같다는 형상을 이용해 그것이 마치 사물을 묶어 둘 수 있을 것이라 연상했기 때문이다. ‘봄은 잠시 머물다 다시 가버리네’ 라는 말은 작가의 상상 속에서 봄을 묶으려 했던 버드나무 가지는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버드나무 가지는 오히려 봄을 2월에서 3월말로 끌고 가버려서, 봄이 잠시 머무르다 또 얼른 가버렸다⁴³⁾”고 했다. 떠나가는 봄을 잡아보려 하나 결국 잡지 못하자, 다시 작가는 버들 솜을 형상화 시켜 ‘봄을 따라 또 어디로 가는가(隨春且看歸何處)’라며 애석함을 표현했다. 黃庭堅詞 〈清平樂〉 중 ‘만약 누가 봄이 간 곳을 알면, 돌아오도록 불러서 함께 머무르리(若有人知春去

43) 范之麟, 《唐宋詞鑑賞辭典》: 爲什麼借它來表現惜春之情呢? 主要利用那柔細如絲縷的枝條的構造成似乎可以系留着事物的聯象. “少住春還去”, 在作者的想象中, 那打算繫住春天的柳條沒有達到目的, 它只把春天從二月拖到三月末, 春天經過短暫的逗留, 還是決然離去了. 上海辭書出版社, 1996年, 1336쪽.

處, 喚取歸來同住)’라는 구절이 연상되는 부분이다.

하편 첫 구에서는 두견새의 울음소리로 촉발된 작가의 감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무리 무정한 듯해도 고독으로 인한 근심은 건디기 힘든 것이다. 楊映紅은 “부부의 감정적 불화에 다시 폐쇄적인 규원생활은 더욱 그녀의 이런 고독하고 처량한 감정을 자극하여, 무정하게 들려오는 두견새의 울음소리조차도 여류 사인을 더욱더 처량하게 느끼게 하고, 저물어가는 봄날의 풍경에 감정을 의탁할 수밖에 없게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의 청춘과 봄날의 관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봄이 존재하는 것은 그녀의 젊음도 존재한다는 것이고, 봄을 머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녀의 젊음도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봄을 보내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는 것은 바로 쉽게 가버리는 자신의 젊음과 아직 다 누리지 못한 봄날에 대한 한탄이다. 즉 ‘잔인한 봄님은 너무 박정하여, 잡지 붙들려 해도 그조차 어려운 것이다’”⁴⁴⁾고 했다.

마지막 구에서 ‘보내는 봄(送春)’, ‘부슬부슬 내리는 비(瀟瀟雨)’를 통해 처연하고 고독한 감정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 구절은 歐陽修 〈蝶戀花〉의 ‘눈물어린 눈으로 꽃에게 물으나 꽃은 말이 없고, 꽃잎은 어지러이 그네 따라 날아가네(淚眼問花花不語, 亂紅飛過鞦韆去)’라는 구절과 형식과 풍격 상 매우 비슷하다. 모두 규원에 갇혀서 홀로된 여인의 고독감과, 봄과 대비되는 상실감을 멋진 詞로 승화시킨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밖에도 〈眼兒媚〉에서 ‘청명절이 지났어도, 되돌아보지 못함은, 구름이 붉은 누각을 숨겼기 때문이라(清明過了, 不堪回首, 雲鎖朱樓)’는 구절은 누군가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차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낮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꼬리 울음소리 아

44) 楊映紅, 〈朱淑眞詩詞幽深淒苦的意境探析〉: 「由於夫妻感情不和, 再加之閉鎖的閨閣庭園生活造成了她這孤獨淒苦之情, 連聲聲傳來杜鵑無意的哀鳴聲, 也使女詞人倍感淒涼, 只能寄情於殘春的景色. 因為她深深地知道, 她的青春和春天之間的關係, 春天在, 她的青春就在, 春天留不住, 她的青春也就一去不復返了. 對春天的依依不捨, 正是爲自己易逝的青春和還未充分享受的大好春光的哀鳴: “惆愴東君太情薄, 挽留時暫也應難. 〈恨春五首〉 其一.”」《甘肅廣播電視大學學報》제13권, 2003년 6월, 24쪽.

름다운데, 어디에서 봄의 시름을 불러일으키는가(午窗睡起鶯聲巧, 何處喚春愁)'라는 구절들은 쓸쓸하고 고독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謁金門> 상편에서도 '열두 난간에 한가로이 기대니, 생겨나는 근심을 하늘은 모른척하네(十二欄干閑倚遍, 愁來天不管)'라 하고 하편 마지막 두 구에서 '뜰 가득 꽃잎 떨어져도 주름 걷지 않으니, 애간장 끊기고 꽃잎은 멀어감 가네(滿院落花簾不卷, 斷腸芳草遠)'라고 하여 자신의 근심과 고독, 사랑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 등을 뛰어난 詞句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두고 王乙은 <試論朱淑真的孤獨意識>에서 "朱淑眞의 孤獨은 소극적이고 세상으로부터 숨는 방법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었다. 가려서 자신을 보기 좋게 꾸미거나, 천리 밖에서부터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막거나, 자신을 상아탑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성취하고, 자신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녀의 창작 결과는 바로 혼자라는 外的空間과 고독이라는 內的空間이 적막한 세월을 따라 만들어낸 孤獨美의 형태로 외부에 드러난 것이다. 고독은 바로 그녀 창작의 내구력이 되었다.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에 익숙해지고, 고독을 따르는 결과는 필연적으로 고통의 종점인 애간장이 끊기는 것이다. 그러나 애간장이 끊기는 다른 한 면은 바로 인생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다.⁴⁵⁾"고 했다. 결국 주숙진의 사랑은 버림받고 혼자 남겨지는 운명을 자초했고 이런 그녀의 운명은 자신의 詩와 詞를 淒然하고 孤獨한 풍격으로 이끌었다 하겠다.

5. 결 론

우리는 朱淑眞의 생애와 작품을 살펴보았다. 朱淑眞의 생존 년대에 대해 정확히 고증하기는 어려웠지만 최소한 북송시대나 남북송 교체기

45) 王乙, <試論朱淑真的孤獨意識>: 朱淑眞의 孤獨, 並不是消極遁世之法, 而是積極戀世之道; 不是掩蓋乃至粉飾自己, 拒人於千里之外, 把自己圍於象牙之塔, 而是爲了成就自己, 爲了顯示自己真正的人生價值. 因此, 她創作的結果, 便是隻身孤影的外在空間, 孤冷漠然的內在空間, 依着寂寞無聲的時光, 外化爲孤獨的美. 孤獨成爲她創作的內驅力. 愛好孤獨、習慣孤獨、順從孤獨的結果必然是痛苦的極限——斷腸, 而斷腸的另一面, 則是對人生的摯愛.」《雲南師範大學學報》, 1992年 第3期, 52쪽.

가 아닌 南宋中期 인물이라는 것은 살펴볼 수 있었다. 또 그녀의 貫籍에 대해 祖籍이 安徽 海寧이며 대부분의 생활은 浙江 錢塘에서 지냈다는 것을 작품들에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 그녀의 결혼설 또한 魏仲恭이 〈斷腸集序〉에서 市井의 民家로 시집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이며 여러 문헌과 작품들을 볼 때 어느 정도의 직위가 있는 관리에게 시집갔음을 고찰 할 수 있었다. 주숙진의 詩詞를 총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그녀의 결혼생활이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었다는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작품들 속에서 암시적으로 나타나는 단서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또 朱淑眞이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와 婚外의 사랑을 나누었던 것을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결국 이런 시대를 뛰어넘는 사랑은 朱淑眞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이끌어 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해 朱淑眞詞의 내용과 풍격은 삶의 변화와 함께 한층 더 심원한 意境을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晩年에 창작되어진 것들로 보이는 작품 속에서는 이런 주숙진의 孤獨한 심경이 절절히 묻어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孤獨함이 주숙진 사의 비극적 내용과 함께 독특한 풍격을 형성하게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본 논문은 주숙진 생애와 비극적 사랑이 詞에 어떻게 반영되었나를 고찰해 보았다. 봉건사회 여성이라는 제한 속에서 婚外의 사랑이라는 시대를 뛰어넘는 모험은 개인적으로는 한없는 고통과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했지만 결국 그런 悲哀와 孤獨이 주숙진 詞를 한층 더 높은 경지로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繆鉞선생의 주숙진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주숙진 사를 감상하고 연구해야 할지를 잘 지적해주고 있다. 그는 “朱淑眞의 일생과 그 작품을 관찰해 볼 때, 고대 봉건사회에서 뛰어난 재능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여자가 결혼과 사랑의 문제로 받게 된 고난과 그녀의 변형된 반항심리로 인한 대담한 반항을 보게 된다. 朱淑眞의 행위와 작품은 고대 봉건사회에서 비평과 질책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은 마땅히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그 재능을 느끼고,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하고, 그 불운함을 애답아 해야 할 것이다”⁴⁶⁾고 했다.

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 새로운 평가는 결국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평가를 한 연구자에 의해 달라진 것이다. 주숙진에 대한 연구 또한 기존의 연구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에서 더욱 참신한 연구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朱淑眞, 《朱淑眞集注》(中華書局 2009년)
鄭龔子編, 《朱淑眞李清照詩詞逐字索引》(鳳凰出版社, 2011년)
張 璋 黃畬校注, 《朱淑眞集》(上海古籍出版社, 1986년)
王士禎, 《池北偶談》(中華書局 1997년)
紀 昀, 《四庫全書總目提要》(中華書局, 1997년)
沈應紀, 《朱淑眞詞研究》(梨花女大 碩士論文, 2002년)
이경규, 〈朱淑眞詞 研究〉《江原人文論叢》, 2003년
唐圭璋 主編, 《唐宋詞鑑賞辭典》(江蘇古籍出版社, 1994년)
周嘯天, 《唐宋詞鑑賞辭典》(上海辭書出版社, 1996년)
葉嘉瑩, 〈宋代兩位傑出的女詞人--李清照與朱淑眞〉(《中國文化》第29期)
繆 鉞, 〈論朱淑眞生活年代及其《斷腸詞》〉(《四川大學學報》, 1991年 03期)
繆 鉞, 〈朱淑眞生活年代考辨〉(《文獻》, 1991年 2期)
黃嫣梨, 〈朱淑眞事迹索隱〉(《文史哲》, 1992년)
鄧紅梅, 〈朱淑眞事迹新考〉(《文學遺產》, 1994年 第2期)
魏秀琪, 〈朱淑眞生平研究綜述〉(《浙江教育學院學報》, 2002년 第5期)

46) 繆鉞, 〈論朱淑眞生活年代及其《斷腸詞》〉: 觀察朱淑眞的一生及其作品, 可以看到, 在古代封建社會中, 一個有才華與文化修養的女子, 在婚姻、戀愛問題上所受到的苦難以及她在變態的逆反心理支持下的大膽反抗. 朱淑眞的行爲與作品, 在古代封建社會中, 是會受到批評與非議的, 但我們今天應當予以同情的理解, 賞其才, 諒其心, 而哀其遇矣.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1年 03期) 43쪽.

- 王 乙, 〈試論朱淑真的孤獨意識〉(《雲南師範大學學報》, 1992年 第3期)
- 楊映紅, 〈朱淑真詩詞幽深淒苦的意境探析〉(《甘肅廣播電視大學學報》, 제13권, 2003년 6월)
- 魏秀琪, 〈朱淑真生平研究綜述〉(《浙江教育學院學報》, 2002년 第5期)
- 戚榮金, 〈朱淑真籍貫與生平考述〉(《江漢大學學報》, 2008년)
- 이지운, 〈송대 여성작가 朱淑真과 그의 시 연구〉(《중국어문학지》 2013.12)

〈中文提要〉

虽然朱淑真中国词学史上著名的女词人，但是由於史料的缺少与不正确，對於她的姓名、生平、籍贯的有不同的说法。因此，在她的生平以及作品的评价上也有许多异见。特別对她的生平，至今词学界仍然异说纷纷，难为定论。本论文根基於近代学术界的研究成果，探析了有关朱淑真的姓名、籍贯、生活年代。同时经过她的诗词作品内容分析了她的生活年代。

本论文在词的内容分析上，从朱淑真的感情历程来看，用“爱情”和“孤独”两个主题来窥见了她的作品和精神世界。由此，我们会发现朱淑真词作品的内容与风格上一个明显的特点，那就是大胆率真的恋爱作品。她不拘於传统礼教，表达了自己对爱情的渴望和婚姻的不满，因此，在她的作品中有不少婚恋的内容。朱淑真词的又一个明显的特点就是孤独意识。《断肠集》的绝大多数的作品是闺怨内容。由於她爱情婚姻生活的不幸，作品中又颇多怨恨之词，流露着她的孤寂和绝望。我们从她的诗词创作中可以触摸到封建时期一个女人一生的感情历程。

关键词：朱淑真, 婚外恋, 贯籍, 生涯, 爱情, 孤独

투 고 일 : 2014.2.20

심 사 일 : 2014.3.3~3.31

계재확정일 : 2014.4.20

문학적 형상화 이전 시대의 關羽형상*

남덕현**

<목 차>

1. 머리말
2.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의 관우
3. 당(唐)대의 관우
4. 송(宋)대의 관우
5. 맺음말

1. 머리말

관우가 죽은 이후 언제부터인가 시작되어진 관우숭배는 명대 문학작품 소설 《삼국연의(三國演義)》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민간은 물론 계층을 뛰어넘는 전중국적인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이런 문화현상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삼국시대 관우 사후 이어진 위진남북조시대를 지나고 수당(隋唐)시대와 송대를 거치면서 후일 관우숭배 문화현상의 기틀이 마련되어져 갔다. 원(元)대의 평화(平話)와 명(明)대의 소설 《삼국연의》와 같은 문학적 영역에서의 형상화 이전에 이미 여러 조대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관우는 서서히 그 형상을 구축해 갔던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보여진 각 시대별 관우모습과 창조되어진 관우형상은 그 시기 나름의 특징을 지니면서 후일 관우숭배의 원형과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학 속에서의 관우형상이 창출되기 전, 그 이전 시대에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dhnam@pusan.ac.kr)

보여진 시대별 관우형상을 고찰하여 후일 관우숭배 문화현상 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위진남북조 시기의 관우

위진남북조 시기의 관우숭배 모습은 그가 죽은 이후 형주지역에서 민간의 지역신 정도로 모셔지다가 점차 여러 지역의 민간인들에게 전해져 숭배되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민간문화의 특성이자 한계로 인해 민간에서의 그 구체적 실체와 모습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시기의 산적되어진 일부 역사적 기록과 문인 역도원(酈道元)의 《수경주(水經注)》에 적혀 있는 기술을 통해 당시 관우모습을 찾아 그 형상을 살펴볼 수 있겠다.

1) 역사적 기록 속의 관우

위진남북조 시기는 중국 역사 속에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시대 중의 하나이다. 주변 이민족들의 위협은 물론이고 내부적 분열이 계속되어 민족 정체성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시대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민간인들의 가슴 속에서는 지나간 시절 영웅들에 대한 향수가 짙게 드리워져 있게 되고 마냥 그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삼국시대 최고 영웅이었던 관우는 장비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관·장으로 병칭되어지며 차츰차츰 칭송되어지게 된다. 당시 세상에서는 관우의 역사적 사적이 상당한 수준으로 높이 평가되어지며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관우와 관련된 일련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먼저 《진서(晉書)》권(卷)120 <이류재기(李流載記)>를 보면

무릇 또한 한 시대의 관우·장비이다.
(蓋亦一時之關張也.)¹⁾

1) 上海書店 編, 《二十五史》(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晉書》卷120 載記 第20, 355쪽.

라고 적고 있다. 서진(西晉) 시기에 이류²⁾는 형 이특(李特)과 함께 무용
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다. 당시 칭송을 받던 인물 이류를
칭찬함에 관우·장비를 들어 그들에 비견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진서》 권126 <독발족단재기(禿發僞檀載記)>를 보면,

무용이 장비·관우와 같다.
(武同飛羽.)³⁾

라고 적고 있다. 독발족단⁴⁾은 16국시기 16국의 하나였던 남량(南凉)
국⁵⁾의 군주였다. 무용이 뛰어난 군주였던 그를 역시 관우·장비에 견주
어 언급하며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선비(鮮卑)족 정권으로써 수도인 락
도(樂都)가 오늘날 청해성(青海省)에 속했던 지역이고 그 주된 거주지가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서부와 영하(寧夏)의 일부지역이었다는 것을 감
안해보면 이 위진남북조 시기에 서북쪽의 이민족 정권에게까지도 관우
의 명망이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진서》권112 <부생
재기(苻生載記)>를 보면,

용맹하고 권모술수가 다양하고 공격하면 반드시 취하고 싸우면 반드
시 이기는 관우·장비와 같은 부류로서 만인의 적이다.
(驍勇多權畧，攻必取，戰必勝，關張之流，萬人之敵者.)⁶⁾

2) 李流(248~303), 字가 玄通이고, 西晉의 장수이다. 西晉 元康 8년(298년)에
유민들을 잘 인도하여 인심을 얻었다. 본고의 역사적 인물과 일부 원문에 대
한 자료는 관련 사이트(참고문헌 참조)를 참고하였다.

3) 《晉書》卷126 載記 第26 《二十五史》 앞의 책, 368쪽.

4) 禿發僞檀(365~415), 河西 鮮卑족이다. 16국시기 南凉국 군주로서 402년에
서 414년까지 재위하였다.

5) 南凉(397~414)국은 16국시기의 河西지역의 鮮卑족 禿發烏孤가 세운 나라이
다. 수도는 오늘날 青海省 지역의 樂都이었고, 강성한 시기에는 지금의 甘肅
省 서부와 寧夏 일부지역을 무대로 하였으며, 3명의 군주를 거치며 18년간
존속하였다.

6) 《晉書》卷112 載記 第12 《二十五史》 앞의 책, 336쪽.

라고 적고 있다. 부생⁷⁾은 16국시기 전진(前秦)의 군주였다. 남량국 군주 독발족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록 이민족이 세운 나라이긴 하지만 능력 있는 지도자로서 군주를 칭송함에 관우·장비에 비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이민족들에게도 관우의 명망이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또 《진서》 권81 <유하전(劉遐傳)>을 보면,

유하는 자가 정장이다. …… 매번 적을 공격할 때 마다 장사들을 이끌고, 견고함을 함락시키고 선봉을 꺾었다. 중원지역에서는 그를 장비·관우와 견주었다.
(劉遐字正長 …… 每擊賊, 率壯士, 陷堅摧鋒, 冀方比之張飛關羽.)⁸⁾

라고 적고 있다. 유하⁹⁾는 활과 말 타기를 잘하고 용맹스러워 당시 중원 지역 사람들에게 관우·장비에 비견되었던 인물이다. 이 시기 사람들은 그의 전투력을 칭찬함에 관우·장비를 떠올려 비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들의 용맹스런 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북조 시기 북조 왕조인 북위(北魏)의 기록 중 《위서(魏書)》 권73 <양대안전(楊大眼傳)>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그 용맹스런 공적을 미루어보면 모두 관우·장비가 그 만 못하다고 여겼다.
(當世推其驍果, 皆以爲關張弗之過也.)¹⁰⁾

라고 하며 양대안을 칭송하면서 관우·장비를 들고 있다. 물론 당대 인물에 대한 후한 평가를 위한 것이지만 이미 당시에 관우·장비의 용맹과 인기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겠다. 또한 같은 《위서》권73의 <최연백전(崔延伯傳)>을 보면

7) 苻生(335~357), 字가 長生이고, 16국시기 前秦의 군주로서 355년부터 357년까지 재위하였다.

8) 《晉書》卷81 列傳 第51 《二十五史》 앞의 책 249쪽.

9) 劉遐(?~326年), 字가 正長이고, 廣平 易陽사람이다. 출생년도는 알 수가 없고 晉 成帝 咸和 元年에 죽었다. 죽어 安北將軍에 봉해졌다.

10) 《魏書》卷73 列傳 第61, 《二十五史》 앞의 책, 190쪽.

최연백은 박릉사람이다. …… 최공은 옛날의 관우·장비이다.
(崔延伯博陵人也. …… 崔公, 古之關張也.)¹¹⁾

라고 적고 있다. 최연백¹²⁾은 북위의 최고 장수이었다. 이런 당대 최고의 장수를 칭송함에 그 비교의 대상으로 삼국시대 명장 관우·장비를 거명하며 그 무용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서 보듯 관우와 장비는 이 시기에 그 위상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또 《남사(南史)》 권40 <설안도전(薛安都傳)>을 보면,

효건 원년 …… 설안도가 단기로 곧장 쳐들어가 목을 베어 돌아오자, 당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관우가 안량을 죽인 것이 더 뛰어난 것은 아니라고 했다.
(孝建元年 …… 安都單騎直入, 斬之而反, 時人皆云, 關羽斬顏良不是過也.)¹³⁾

라고 하며 관우의 무용에 비추어 설안도¹⁴⁾를 칭송하고 있다. 효건(孝建)¹⁵⁾은 남조 송 효무제(孝武帝) 유준(劉駿)의 연호이다. 설안도는 북위에서 처음 출사를 하였지만 유송(劉宋)으로 건너가 유준을 도와 큰 공을 세운다. 여기서는 설안도의 용맹함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미 이시기에 관우 무용의 대단함과 백마전투에서의 활약상이 잘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또한 남북조시기 남조 왕조의 기록 중에서 《송서(宋書)》 권43 <단도재전(檀道濟傳)>을 보면,

11) 《魏書》卷73 列傳 第61, 《二十五史》 앞의 책, 190쪽.

12) 崔延伯은 博陵사람이다. 북위의 장군으로 征虜將軍·荊州刺史 등을 역임했다.

13) 《南史》卷40 列傳 第30, 《二十五史》 앞의 책, 113쪽.

14) 薛安都(410~469年), 字가 休達이며, 河東 汾陰 즉 지금 山西省 萬榮縣 사람이다. 北魏에서 출사하였으나 劉宋으로 가서 左軍將軍·平北將軍·徐州刺史 등을 역임하고 北魏로 돌아와 北魏 皇興 三年(469年)에 병으로 죽었다.

15) 454年 1月~456年 12月.

용맹이 있어, 당시에 그를 장비·관우에 비하였다.
(有勇力, 時以比張飛關羽.)¹⁶⁾

라고 적고 있다. 단도재¹⁷⁾는 남조 송나라의 장수이다. 동진(東晉)을 이어 남쪽 중국 정통왕조의 맥을 계승한 유송에서 정남대장군(征南大將軍)을 지낸 그의 용맹함을 장비·관우에 비유하며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 왕조의 기록에서도 관우·장비의 용맹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또 《남사(南史)》 권44 <문혜태자전(文惠太子傳)>을 보면,

힘과 용맹이 빼어나 당시에 관우·장비로 여겨졌다.
(拳勇秀出, 當時以此關羽張飛.)¹⁸⁾

라고 적고 있다. 문혜태자¹⁹⁾는 남조 제(齊)나라 세조(世祖)인 소색(蕭曠)의 아들 소장무(蕭長懋)를 말한다. 태자로서 역량이 남달랐던 그의 재능을 관우·장비에 비견하고 있다. 이 정도로 남조 왕조에서도 관우의 명망은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태자를 관우와 장비에 비기며 그 의기와 용맹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진서(陳書)》 권31 <소마가전(蕭摩訶傳)>을 보면,

명철이 소마가에게 말하길 : 만약 이 오랑캐를 없애버리면 저들 군대의 기세를 꺾을 수 있소. 그대는 관우·장비 같은 명성이 있어 가히 안량을 벨 수 있을 것이요!
(明徹謂蕭摩訶曰 : 若殪此胡, 則彼軍奪氣. 君有關張之名, 可斬顏良矣.)²⁰⁾

라고 적고 있다. 소마가²¹⁾는 남조 진(陳)나라에서 표기대장군(驃騎大將

16) 《宋書》卷43 列傳 第3, 《二十五史》 앞의 책, 155쪽.

17) 檀道濟(?~436), 南朝 宋나라의 장수로서 征南大將軍을 역임하였다.

18) 《南史》卷44 列傳 第34, 《二十五史》 앞의 책, 121쪽.

19) 蕭長懋(458~493), 字가 雲喬이고 齊나라 世祖인 蕭曠의 아들이며 文惠太子라 불리었다.

20) 《陳書》卷31 列傳 第25 《二十五史》 앞의 책, 44~45쪽.

21) 蕭摩訶(532~604), 字가 元胤이고 蘭陵사람 이며, 南朝 시기 陳나라의 名將

軍)을 지낸 명장이다. 진나라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그를 백마전투의 전공을 지닌 전설 같은 인물 관우에 비기고 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역사 속 관우의 전공과 용맹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처럼 관우의 혁혁한 전공은 이미 이 시기에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위진남북조 시기의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관우와 장비의 이름은 당시 세상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죽어서 형주지역 민간신의 수준에서 출발되었던 관우형상이 이 시기에 이르러 짧은 역사적 기록이긴 하나 나름 정통 왕조의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소수민족 국가에서 까지도 인정받고 있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특히 조위(曹魏)와 서진(西晉) 왕조를 계승하여 정통성을 잇고 있다는 동진 이후 남조의 송·제·양(梁)·진 왕조에서도 삼국시대 촉나라 장수였던 관우가 위나라 장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용맹만큼은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그 인정의 수준도 태자나 각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명장의 용맹을 칭송함에 활용하여 비교할 정도로 상당하였다. 또한 남조 왕조는 물론이고 북조 왕조와 북쪽 변방지역의 이민족이 세운 나라에서까지도 그들의 국왕을 칭송하고 찬양함에 관우의 용맹을 들어서 표현할 정도로 관우의 명성이 알려져 있고 높이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관우모습이 상당히 인정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독보적인 신격지위가 확보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살피본 바와 같이 대체로 무용이 대단한 장수정도로 세상에 알려져 있었을 뿐이고, 또 장비와 병칭되어지면서 그 언급과 중시의 정도와 비중을 볼 때 두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수경주》에 나타난 관우

이 시기 문인들의 관우에 대한 인식은 북위 역도원의 《수경주》에 관우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어 이를 통해 그 면모를 짐작해볼 수 있

으로 侍中·驃騎大將軍 등을 역임하였다.

겠다. 이 책은 위진남북조 시기 북조 산문의 대표적 작품이다. 인문지리와 관련한 내용이 주류인데 각 지역의 지리를 설명하면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 삼국시대 인물 유비(劉備)·원소(袁紹)·조조(曹操)·제갈량(諸葛亮) 등과 관련된 여러 지역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 들어 있다. 촉한(蜀漢)의 명장이었던 관우에 대한 기술 또한 역사적 사건과 함께 몇 군데 실려 있다. 먼저 《수경주》권38, <자수(資水)>를 보면

또 동북쪽으로 익양현 북쪽을 지나고 있다. 현에는 관우뢰가 있다. 소위 관우탄이라는 곳이다. 남쪽에 감녕 옛 성채가 있다. 옛날에 관우가 물의 북쪽에 군대를 주둔하였다. 손권이 노숙과 감녕에게 관우를 이물에서 막게 하였다.

(又東北過益陽縣北, 縣有關羽灘, 所謂關羽灘也. 南對甘寧故壘. 昔關羽屯軍水北, 孫權令魯肅甘寧拒之于是水.)²²⁾

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삼국시대 촉한과 동오가 대치했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관우가 차지하고 있던 명장으로서 위치와 존재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겠다. 특히 관우의 영웅적 모습에 대한 언급이 빠지질 않고 있는데《수경주》권5, <하수(河水)>를 보면,

동북을 지나 여양현 남쪽, …… 진의 동남쪽에 백마성이 있다. …… 원소가 안량을 파견하여 백마에서 동군태수 유연을 공격하였다. 관우는 조공을 위해 안량을 베어 은혜에 보답하였는데 바로 이곳에서였다.

(又東北過黎陽縣南, …… 津之東南有白馬城 …… 袁紹遣顏良攻東郡太守劉延于白馬, 關羽爲曹公斬良以報效, 卽此處也.)²³⁾

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역도원은 관우가 수만 군중 속에서 안량의 목

22) 酈道元 著, 陳橋驛 校證, 《水經注校證》(北京: 中華書局, 2013), 848쪽.

23) 酈道元, 앞의 책, 127쪽.

을 베어 그 무공을 떨쳤던 역사속의 기록²⁴⁾을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있다. 이런 언급을 볼 때 이미 이 시기에 관우의 역사 속 영웅적 행적과 의미가 문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또 《수경주》 권28, <면수(沔水)>를 보면,

면수는 또 평노성의 남쪽을 지난다. …… 동쪽으로 변성이 있다. …… 건안 때, 관우가 이 성에서 우금을 포위했다. 면수가 범람하여 3장이 나 넘었다. 성이 함락되고 우금이 항복했다.
(沔水又逕平魯城南, …… 東對樊城, …… 建安中, 關羽圍于禁于此城, 會沔水泛溢, 三丈有餘, 城陷禁降.)²⁵⁾

라고 적고 있다. 이 대목 역시 관우가 물로써 우금군을 대패시킨 역사적 기록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서 《삼국지(三國志)》의 기록을 보면

건안 24년, 유비가 한중왕이 되었다. …… 이 해에 관우가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변성에서 조인을 공격하자 조조는 우금을 보내 조인을 돕게 하였다. 가을이 되어 폭우가 쏟아져 한수가 범람하여 우금이 통솔하는 칠군이 모두 물에 빠져다. 우금은 관우에게 투항하였다.
(二十四年, 先主爲漢中王. …… 是歲, 羽率衆攻曹仁于樊, 曹公遣于禁助仁. 秋, 大霖雨, 漢水泛溢, 禁所督七軍皆沒. 禁降羽.)²⁶⁾

라고 적혀 있다. 이 역사적 기록에서 ‘한수’라고 적혀있는 사건의 장소를 역도원은 《수경주》에서 ‘면수’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확한 고증적 성격의 역도원의 기술은 이전 역사속 많은 기록들을 《수경주》 전편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런 책에

24) 《三國志·武帝紀一》: “二月, 紹遣郭圖, 淳于瓊, 顏良攻東郡太守劉延於白馬.” 陳壽 撰 裴松之 注, 《三國志》(上·下)(長沙: 岳麓書社, 2006), 14쪽. 《三國志·關羽傳》: “紹遣大將軍顏良攻郡太守劉延於白馬, 曹公使張遼及羽爲先鋒擊之. 羽望見良麾蓋, 策馬刺良於萬眾之中, 斬其首還, 紹諸將莫能當者, 遂解白馬圍. 曹公即表封羽爲漢壽亭侯.” 陳壽, 앞의 책, 633쪽.

25) 酈道元, 앞의 책, 636~637쪽.

26) 《三國志·關羽傳》, 陳壽, 앞의 책, 635쪽.

서 관우와 관련된 지역에 대한 언급이 있음은 당시에 적어도 한 시대의 명장이었던 관우의 존재와 가치가 인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또 관우의 지도자로서의 면모에 대한 기술도 있다. 《수경주》권34, <강수이(江水二)>를 보면,

강수는 동쪽으로 강릉현 옛성 남쪽을 지난다. 옛 성은 관우가 축조한 것이다. 관우가 북으로 조인을 포위하였을 때, 여몽이 기습하여 점거하였다. 관우가 말하길 : 이 성은 내가 축조한 것이어서 공략할 수가 없으니 군대를 이끌고 물러나야 한다.

(江水又東逕江陵縣故城南, …… 舊城, 關羽所築, 羽北圍曹仁, 呂蒙襲而据之. 羽曰 : 此城吾所築, 不可攻也, 乃引而退.)²⁷⁾

라고 적고 있다. 역사적 기록²⁸⁾ 속에 관우가 그 옛날 유비의 명을 받아 형주를 10년간 지킬 때, 형주성을 축조하여 형주민들과 함께 했던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기술이다. 또 관우의 역사적 최후와 관련한 기술도 있는데 《수경주》권32, <저수(沮水)>를 보면,

저수는 동남으로 여성의 서쪽과 마성의 동쪽을 지나고 또 남쪽으로 맥성의 서쪽을 지난다. 그곳은 옛날에 관우가 거점으로 투항 했던 곳으로써 여기에서부터 마침내 모반을 하였다.

(沮水又東南逕驢城西、磨城東, 又南逕麥城西, 昔關雲長詐降處, 自此遂叛.)²⁹⁾

라고 적고 있다. 이 역시 지리를 설명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정확한 고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관우가 맥성을 탈출하여 옥천산에서 생포되기까지 벌여야만 했던 역사 속의 결전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이시기 대표적 인문지리서이자 산문 작품인 《수경주》에 지리의 설명과 함께 삼국시대 인물과 사건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 보이고

27) 酈道元, 앞의 책, 762-763쪽.

28) 《三國志·關羽傳》: “先主西定益州, 拜羽董督荊州事.” 陳壽, 앞의 책, 634쪽.

29) 酈道元, 앞의 책, 721쪽.

있는데, 그 중에 관우와 관련된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민간은 물론이고 문인들에 의해서도 역사속의 실제 인물 관우의 위상과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물론 위진남북조 시기의 다른 여러 문인들도 필기소설에서 삼국시대 인물에 대해 기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갈홍(葛洪)의 《포박자(抱朴子)》와 《신선전(神仙傳)》이나, 배계(裴啓)의 《어림(語林)》과 습작치(習鑿齒)의 《한진춘추(漢晉春秋)》 및 유의경(劉義慶)의 《세설신어(世說新語)》등과 같은 이 시기 다른 대표적 문인들의 대표적 작품이 모두 삼국 인물의 언행을 기록하면서도 관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해야할 점이다.³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진남북조 시기의 역사서 속 단편적 기록과 역도원 《수경주》 속의 기술을 통해본 관우 모습은 무용이 대단한 장수로 장비와 병칭되어지며 세상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다만 아직은 관우형상이 역사 속 용맹스런 훌륭한 영웅적 장수로서 존경과 경외감을 지니게 하는 모습일 뿐, 인간적 의인으로서의 모습이나 제대로 신격을 지닌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역사 속의 기술은 전장과 관련된 부분의 용맹에 대해서만 칭송되고 있을 뿐이고, 역도원의 《수경주》를 제외한 다른 문인들에 의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음을 보면 당시 관우의 세상 속 위치와 지위는 아직 많은 부분이 미약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후일 당송시대에까지 그에 대한 숭배분위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은 아마도 그의 충의와 용맹으로 대표되어지는 형상이 주로 민간과 전장과 관련된 곳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3. 당대의 관우

당대에 이르면 관우형상은 또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된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보였던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화려한 한사람의 역사적

30) 劉海燕, 《從民間到經典》(上海: 上海三聯書店, 2004), 29쪽.

인물로서의 영웅적 발자취는 잊혀 간다. 분열과 혼란을 극복하고 통일 되어진 나라와 사회에서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회고 보다는 밝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현실 사회 구성과 건설이 더 큰 관심사가 되었기에 지나간 역사와 그 시대 인물에 대한 향수는 덜 중요한 요인이 되어 버린다.

이에 따라 삼국시대의 위대한 장수 관우는 다른 어느 시대의 유명 장수들처럼 단지 전쟁 속에 등장하는 영웅적 인물의 한사람으로 아마득한 기억으로 남을 뿐이었다. 특히 삼국시대라는 분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조조의 위나라를 정통으로 여겼던 당나라로써는 더욱더 축한 장수의 존재와 가치가 덜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도 통일 국가 당나라는 전통적 유가 사상의 영향이 짙어 대체로 문을 숭상하는 분위기 이다보니 옛 장수들에 대한 이해는 그저 아련한 추억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다보니 축한의 영웅 관우는 당대 사회 속에서는 서서히 잊혀져가며 칭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1) 문인과 통치계층의 관우인식

먼저 문인들의 관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우세남(虞世南)이 편찬한 《북당서초(北堂書鈔)》에는 관우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 되고 있는데 살펴보면,

관우는 《좌씨춘추(左氏春秋)》를 좋아하였다. <강표전(江表傳)>에 이르길 : 관우가 《좌씨춘추》를 좋아하여 거의 모두를 막힘없이 외었다.

(關某好左氏, 江表傳云 : 關某好左氏, 諷誦略皆上口.)³¹⁾

라고 하며 관우의 유가적 문인스러움을 얘기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기록인 역사서 《삼국지》에 근거하여 한 이야기이다.³²⁾ 허나 이 책에서

31) 《欽定四庫全書》子部, 《北堂書鈔》卷九十七 <藝文部·好學>, 889-471쪽.

32) 《三國志·關羽傳》: “江表傳曰: 羽好左氏傳, 諷誦略皆上口.”, 陳壽, 앞의 책, 636쪽.

우세남은 관우의 상대였던 적장 방덕(龐德)이라는 인물을 관우보다 더 많이 언급하고 있고,³³⁾ 더구나 관우는 폄하만하고 칭찬은 하질 않고 있다. 또한 《예문류취(藝文類聚)》에도 위나라 장수의 사적은 비교적 많으나 관우에 관한 기록은 없다.³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관우가 당시에 차지한 위치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우의 지위는 통치계층의 관우에 대한 태도를 보아도 역시 그러하다. 대표적인 예로써 무성왕묘(武成王廟)에 배향되어진 관우를 보면 보다 더 분명히 이 시기 관우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당 측천무후(則天武后) 시대 무장을 배양하려던 정책³⁵⁾과 관계 지어 건립되어진 무성왕묘에 관우가 배향되어졌다. 정치적 목적이 강했던 무성왕묘는 종교적 형태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곳에는 범려(范蠡)를 비롯한 64명의 무인 명장이 배향되었는데³⁶⁾ 관우가 그 중 한사람이었다. 무성왕은 당 숙종(肅宗) 이형(李亨)이 춘추시기의 강태공(姜太公)에게 내린 봉호이다. 이때의 관우지위는 특별한 수준이 아니고 명망 높은 군신(軍神)을 보조하는 정도의 지위로서 단지 배향된 64인의 명장 중 한 명에 불과하였다.³⁷⁾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의 여러 가지 역사상 공적을 감안해보아도 비록 명장이기는 하지만 관우의 적으로서 관우에 비길 바 못되는 장료(張遼)와 함께한다는 점은 아직은 관우의 위치가 제대로 숭배되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관우를 죽게 한 장본인인 육손(陸遜), 여몽(呂蒙)과 함께 배향되었다는 것은 관우에 대한 배려조차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후대 관우의 지위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만큼 이 시기 관우의 지위는 아직 미미하였다는 것을

33) 《欽定四庫全書》子部, 《北堂書鈔》卷四十七 <死王事子孫封>: “龐德罵關羽死封子爲侯, 《魏志》龐德傳德爲關公所得謂曰不早降何謂德罵曰孺子何謂降也.” 889-158쪽.

34) 劉海燕, 앞의 책, 30쪽.

35) 《舊唐書》卷24 志第四 <禮儀>四: “則天長安三年, 令天下諸州宜教人武藝, 每年準明經進貢例申奏.” 《二十五史》 앞의 책, 123쪽.

36) 《大唐郊祠錄》卷十: “又詔令選范蠡等名將六十四人圖形于壁, 每因釋奠皆從祀焉.” 劉海燕, 앞의 책, 35쪽 재인용.

37) 馬書田 馬書俠, 《全像關公》(南昌: 江西美術出版社, 2008) 102쪽 참조.

잘 알 수 있겠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관우는 유비의 사당에서도 배향되어 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관우의 주군이었던 유비를 모시는 사당도 촉나라 지역은 물론 유비의 고향 등을 비롯한 여러 곳에 있었다.³⁸⁾ 관우는 이들 유비 사당 속에서 유비를 모시는 모습으로 동시에 모셔지고 있었다.³⁹⁾ 이미 유비에게 보여주었던 의리 있는 인간적 모습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2) 민간에서의 관우 모습

다음으로 민간에서의 관우 모습을 살펴보자. 이렇듯 전통 유가왕조 시기에 문인과 통치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관우는 다른 형태를 통해 점차 그 형상을 갖추어가며 후일 관우숭배의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민간에서 종교적 형태를 통해서이다. 즉 관우형상이 종교와 밀접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관우와 종교와의 관련성은 그가 죽은 후 어느 순간부터 그가 죽은 옥천산의 사당과 그에 관련된 전설에서부터 나타났다. 형주는 전통적으로 옛날 초나라 지역에 속한다. 초나라 초가의 대표적 작품인 구가(九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나라의 무가(巫歌)적 풍습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⁴⁰⁾ 그러다보니 형주 옥천산 지역에서는 그 지역 귀신숭배의 전통에 따라 그 지역 영웅이었던 관우가 죽자 그를 기리는 사당이 자연스레 세워져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관우의 사당이 처음 지어진 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당대 동정(董挺)이 정원(貞元) 18년에 쓴 <형남절도사강릉윤배공중수옥천관묘기(荊南節度使江陵尹裴公重修玉泉關廟記)>를 보면,

38) 杜甫도 촉의 유비사당을 참배하였다. <謁先主廟>: “慘淡風雲會, 乘時各有
人. 力侔分社稷, 志屈偃經綸. …… 遲暮堪帷幄, 飄零且鈞緡. 向來憂國淚, 寂寞
灑衣巾.” 《全唐詩》(臺北: 宏業書局, 民國71年) 卷229, 2505쪽.

39) <蜀先主廟記>: “祠宇崇于故里, 甘皇后配享于神座之中, …… 關羽、張飛爪
牙, 悉標于西廡. 威生戶牖, 武耀庭除.” 《全唐文》第11冊.

40) 《隋書》卷31 志第26 地理下: “大抵荊州率敬鬼, 尤重祠祀之事. 昔屈原爲制
九歌, 蓋由此也.” 《二十五史》 앞의 책, 114쪽.

절 서북쪽 삼백 보 위치에, 촉나라 장군 도독 형주절도사가 관공을 섬겨 사당이 있게 되었다.

(寺西北三百步, 有蜀將軍都督荊州事關公遺廟存焉.)⁴¹⁾

라고 적고 있는데, 이전에 이미 관우 사당이 있어 그를 숭배해 왔음을 알 수 있겠다. 수나라 때 지의(智顛)선사가 옥천산에 절을 세웠다는 기록과,⁴²⁾ 이미 그 이전 진(陳)나라 수나라시기에 관우 부자가 지의대사를 도와 옥천사를 세웠다는 전설에다, 후대 사람들이 종종 수나라 때 옥천산에 관우가 현성하여 절을 세워 관우를 제사지낸 것이 관우숭배의 시작 이라고 여기 있는 것,⁴³⁾ 등을 보면 어쨌든 이 시기에 관우와 옥천산 지의선사의 불교가 어떤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시기 관우모습은 민간에서 종교와 관계를 맺고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정도는 종교를 통해 그 존재감이 부각된 점은 있지만 아직도 단지 귀신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다. 《북몽쇄언(北夢瑣言)》권11을 보면,

당 함통의 난이 지난 뒤, 저자거리의 뜰소문에는 관삼랑 귀신 병사가 마을에 들어온다 하여 집마다 두려워하였다.

(唐咸通亂離後, 坊巷訛言關三郎鬼兵入城, 家家恐悚.)⁴⁴⁾

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관삼랑은 관우를 지칭하는 것인데,⁴⁵⁾ 이 처럼 관우는 민간에서 한편으로 그냥 민간의 귀신 수준에 머물러 약간의 신통력을 보여주는 정도였던 것이다. 또 단성식(段成式)의 《유양잡조(酉

41) 《全唐文》卷684, 周紹良 主編, 《全唐文新編》(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0), 7731쪽.

42) <隋天台智者大師別傳>: “于當陽縣玉泉山而立精舍. 蒙敕賜額號爲一音. 重改爲玉泉.”, 《續高僧傳》卷17<隋國師智者天台山國清寺釋智顛傳>: “遂于當陽縣玉泉山立精舍. 敕給寺額. 名爲一音.”

43) 劉海燕, 앞의 책, 32쪽 참조.

44) 孫光憲 撰, 《北夢瑣言》卷11.

45) 劉海燕, 앞의 책, 37쪽 참조.

陽雜俎》속집(續集) 권3을 보면 관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무종 원년 용주에 나무들이 떠나서 강을 막았다. 자사 조사종이 수군을 불러 나무를 건졌는데 대략 백여 개를 얻었다. 관아가 작고 땅이 좁아 다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개원사를 고쳤다. 다음 달 어느 날, 어떤 이민족이 원숭이 같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오래된 푸른 옷을 입고 있었다. 무엇을 만들려는 지는 말하지도 않고 관장군이 시켜 나무를 베어 오게 했는데, 오늘은 이 마을에 접수해 두었다가 무슨 계산인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내년에 가져가겠다고 말하였다. 이민족은 마을 사람에게 말했다. 이듬해 7월 날이 더워지려할 때 갑자기 큰 물이 닥쳤다. 마을은 강에 접해있고 산에 기대 있어서, 매년 큰물 때마다 50여 장까지 이르렀다. 이때 물높이는 100장이나 되었고, 이천여 명이 물에 떠내려갔다. 마을 터는 10장이나 깊이 패인 곳이 생겼고 세 칸의 집채만 한 큰 돌이 마을 터에 쌓였다. 물은 검고 비린내가 나다 저녁이 되자 가라앉았다. 지주관 우장기와 관리가 겨우 배로 언덕에 올랐다. 열 달 후 예전 마을 땅은 말랐으나 큰 돌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물건도 있지가 않았다. 오직 개원사 현종 진용각 만이 원래 자리에서 십여 보 떨어진 곳의 모래 위에 높이 서 있었고, 기타 철석상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武宗之元年, 戎州水漲, 浮木塞江, 刺史趙士宗召水軍接水, 約獲百余段. 公署卑小, 地窄不復用, 因并修開元寺. 后月余日, 有夷人逢一人如猴, 着故青衣, 亦不辯何制, 云關將軍差來采木, 今被此州接去, 不知爲計, 要須明年却來取. 夷人說于州人. 至二年七月, 天欲曙, 忽暴雨至. 州城臨江枕山, 每大水猶去州五十余丈. 其時水高百丈, 水頭漂二千余人. 州基地有陷深十丈處, 大石如三間屋者, 堆積于州基, 水黑而腥, 至晚方落. 知州官虞藏玘及官吏才及船投岸. 旬月后, 舊州地方干, 除大石外, 更无一物. 惟開元寺玄宗真容閣去本處十余步, 卓立沙上, 其他鐵石像, 无一存者.)⁴⁶⁾

라고 적고 있다. 관우가 인간세상을 벗어나 신이 되어 신통력을 발휘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역시 신격형상을 띤 하나 초보적 귀신수준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46) 段成式 撰, 曹中孚 校點, 《酉陽雜俎》續集卷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3), 140쪽.

이와 같이 당대의 관우형상은 종교적 형태와 관계되어지며 신격형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후일 관우 숭배문화 속의 관우신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초보적 귀신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저 종교적 형태를 띤 지역신 정도의 귀신이었을 뿐, 문인과 통치계층에 의해 아직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 시기에 관우숭배 모습은 전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역사적 인물로서의 인격형상을 뛰어넘어 종교적 영역과 결합되어지며 신격형상을 띄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하겠다.

4. 송대의 관우

1) 통치자와 문인들의 관우추존

송대에 이르면 관우가 서서히 신격을 발휘하며 신으로 본격적으로 모셔지게 된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송대 통치자들의 추존이 크게 영향을 미친 듯하다. 이처럼 송대 황제가 관우를 왕으로 추존하면서부터 이후 명나라 황제가 황제로 추존할 때까지 관우는 중국 전통종교 속에서 끊임없이 그 지위가 높아지며 결국 천신의 지위에까지 올라가게 된다. 송대 통치자들의 관우 추존을 살펴보면, 8대 황제인 휘종(徽宗) 승녕(崇寧) 원년(1102년)에 충혜공(忠惠公)으로 봉한 후, 대관(大觀) 2년(1108년)에 무안왕(武安王), 선화(宣和) 5년(1123년)에 의용무안왕(義勇武安王)으로 추존하게 되고, 남송에서도 계속 추존되어 진다.⁴⁷⁾ 사실 이런 황제들의 관우 추존은 송대 민간에서 일었던 관우인기가 영향을 미쳐 된 것이지만 이 외에 통치차원에서의 다른 내적·외적인 이유가 있었다.

먼저 내적부분에서 보면, 송 왕조는 역사적으로 오대십국의 전란을 수습하고 새로이 통일을 이룬 왕조이기에 유가사상의 부흥을 통해 문인 사대부 계층과 민간의 민심을 국가적 차원에서 결속시키고자 하였다.

47) 宋萬忠 武建華 標點注釋, 《解梁關帝誌》(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92), 卷一 <封號>, 66쪽 참조.

이런 필요성 속에 당시 민간에서 일고 있던 관우에 대한 인기를 활용한 새로운 유가적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 동요할 수 있는 민심을 다스려갔던 것이다. 이리하여 유가 문인적 분위기를 지니고⁴⁸⁾ 유가 이념에도 잘 어울리는 관우의 충의적인 이미지는 나날이 확립되어져 간다.

이러한 분위기에 송대 문인들 역시 그 뜻을 함께 하며 유가적 이미지의 관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게 된다. 문인들은 송 왕조가 표방한 내적이유의 뒷받침을 위해 민간인들과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그 긍정적 면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유가정통성 회복을 큰 과제로 내세우며 민간과의 공감을 위해 민간에서 인기 있던 관우에 대하여 유가적 색채를 한껏 더하여 마치 유가적 인물의 전형인양 미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관우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한 《해량관제지(解梁關帝誌)》에 실린 북송 장상영(張商英)의 <영사조사(咏辭曹事)> 시를 보면,

달은 이지러져도 그 빛을 바꾸지 않고,
칼은 구부러져도 그 끝은 한 곳을 가리키네.
달은 이지러져도 밝음으로 쉽게 차오르고,
칼은 구부러져도 서리가 긴 채 칼집 속에 있다네.
이익을 쫓아 찾음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뜻있는 선비의 마음을 굴복시키기 어렵다네.
사나이는 죽음에도 절개가 있으니,
죽일지언정 그 뜻을 헤아릴 수는 없다네.
초사 하사(月缺不改光, 劍折不改鋦. 月缺白易滿, 劍折尚帶霜.
趨利尋常事, 難屈志士腸. 男兒有死節, 可殺不可量.)⁴⁹⁾

라고 하며 관우의 절개를 한없이 칭송하고 있다. 다른 어떤 측면보다도 결코 주군을 섬김에 변치 않았던 그 충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⁵⁰⁾ 민간인들과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관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였

48) 《三國志·關羽傳》：“江表傳曰：羽好左氏傳，諷誦略皆上口。”，陳壽，앞의 책，636쪽.

49) 《解梁關帝誌》卷四 <藝文下>，앞의 책，256쪽.

50) 남덕현, <중국 고전시가 속의 關羽 모습>, 《中國學研究》제62집(서울: 중국학연구회, 2012.12), 47~48쪽 참조.

던 것이다. 북송의 정함(鄭咸)도 <원우중수묘기(元祐重修廟記)>에서

관우는 충의대절로써 촉나라 선주 소열황제 유비를 섬기었다.
(關氏, 以忠義大節事蜀先主昭烈皇帝.)⁵¹⁾

라고 하며 역시 관우의 절개를 칭송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기 문인들은 공통적으로 관우의 언행과 절개를 유가에서 대의로 내세우는 충의와 기개로 여기며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송 당시 문인의 공통된 인식은 송 왕조가 내적으로 오대의 전란으로 인해 삼강오륜이 해이해진 세상을 바로잡고 유학의 부흥을 임무로 삼았던 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관우형상에다 의인적인 모습을 덧씌우고 유가적 문인 색채를 더하여 유가정신에 부합하는 인물로 자연스레 그 형상을 조성해 갔던 것이다.

이러하다보니 관우로 인해 촉한 왕조와 촉한의 인물 전체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지게 된다. 북송은 조위를 정통 왕조로 치긴 했지만 어느새 사대부 문인들 사이에서는 촉한에 대한 온정적 시각이 자리 잡게 되고 또 자연스레 이어져가며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소식(蘇軾)의 《동파지림(東坡志林)》을 보면,

왕팽이 일찍이 말하길 “거리의 어린아이가 변변치 못해 그 집안에서 싫어하였다. 번번이 돈을 쥐 모여 앉아 옛날이야기를 듣게 했는데, 삼국 이야기를 함에 유비가 패한 걸 들으면 눈썹을 찌푸리며 눈물을 흘리다가 조조가 패한 걸 듣고는 바로 기뻐서 신나게 노래를 했다.” 이로써 군자와 소인의 은덕은 백대에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구나.
(王彭嘗云, 塗巷中小兒薄劣, 其家所厭苦, 輒與錢令聚坐聽說古話, 至說三國事, 聞劉玄德敗, 顰蹙有出涕者, 聞曹操敗, 即喜唱快. 以是知君子小人之澤, 百世不斬.)⁵²⁾

라고 적고 있는데, 민간인들의 촉한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알 수 있겠

51) 《解梁關帝誌》卷四 <藝文上>, 앞의 책, 167쪽.

52) 蘇軾 撰, 王雲五 主編, 《東坡志林》(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4年) 卷1, 5~6쪽.

다. 이처럼 촉한 인물에 대한 동정과 우호적 분위기는 관우를 인정하고 숭배한다는 이유로 인해 사대부 문인과 민간인들이 계층을 뛰어넘어 함께 공감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다음으로 외적부분에서 보면, 다른 한편에서 관우가 송대 통치자와 문인들에 의해 추존되어 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송나라가 당시에 처해 있던 대외적 상황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송나라는 당나라 말기의 절도사로 인한 혼란을 통해 경험한 학습효과로 인해 무를 억제하고 유가사상을 중심으로 문을 숭상하는 정책을 편다. 이런 까닭에 군사력이 약해져 북방 이민족 거란과 여진 등의 침략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된다. 여러 차례 변방의 재해와 변란을 겪으며 많은 시련을 겪다 끝내 북송이 금(金)에 망하는 치욕적인 정강(靖康)의 변을 당하게 된다. 북송 시기는 물론이고 중원을 잃고 남쪽으로 쫓겨 온 남송시기에는 이러한 민족적 동요와 불안의 시대를 맞아 적에 대항하기 위해, 충의에 바탕 한 무력과 용기의 정신이 온 나라를 하나로 단결시키는데 꼭 필요하게 된다. 이에 온 나라가 관우와 같은 한 시대 뛰어난 용맹을 지녔던 훌륭한 영웅적 장수를 더욱 우러러 그리워하며 드디어 정신적으로 흠모하며 숭배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특히 남송이 더 그리웠는데, 관우의 충의정신과 절개는 남송이 바로잡고자 하는 민족정기와 고양하고자 하는 민족기개와 부합되어 지면서 그 추존이 북송에 이어 계속되어졌다. 휘종의 아홉 번째 아들 강왕(康王) 조구(趙構)가 세운 남송에서도 관우는 고종(高宗) 건염(建炎) 2년(1128년)에 장무의용무안왕(壯繆義勇武安王), 효종(孝宗) 순희(淳熙) 14년(1187년)에 장무의용무안영제왕(壯繆義勇武安英濟王)으로 봉하여진다.⁵³⁾ 남송은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 민족과 나라의 생존을 위해 관우를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관우 형상은 점차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 형태로 특징 지워지게 된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남송 문인들 역시 관우의 충의와 용맹스런 모습을 여러 면에서 더 과장하고 부각시켜 그 형상을 강화해 나간다. 남도(南壽)의 <소흥중수묘기(紹興重修廟記)>를 보면,

53) 《解梁關帝誌》卷一 <封號>, 앞의 책, 66쪽 참조.

관우의 충의와 용맹함은 천성에서 나왔다. 매번 예봉을 꺾고 적을 부수는 데 향하는 곳에는 앞에 당할 자가 없었다.

(王忠義勇烈, 出於天性. 每摧鋒破敵, 所向無前.)⁵⁴⁾

라고 하며 관우의 용맹을 극찬하고 있다. 백마전투에서 수많은 군중 속에서 안량을 베어버린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소진(蕭軫)의 <순희가봉영제왕비기(淳熙加封英濟王碑記)>를 보면,

삼국이 정립하고, 한나라의 복이 이미 떠나 천하 영웅호걸들이 구름처럼 모여 향응함에 누군들 조조를 위해 채찍 잡길 원치 않았을 따름이다. 관우가 일찍이 조조의 은혜를 입음은 선주와 군신의 분별이 정해지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선주에게 진심을 다하며 그 초심을 바꾸지 않았다. 분명히 보지 않았으면서도 확실히 지키고 굳건히 행하는 것이 어찌 능히 이룰 수 있겠는가?

(三國鼎峙, 漢祚已移, 天下英雄豪傑, 雲合響應, 孰不願爲曹操執鞭耳. 壯繆嘗受曹之恩, 其於先主君臣之分未定, 而惓惓於先主, 不渝其初, 非見之明, 守之確, 行之剛者, 詎能爾耶.)⁵⁵⁾

라고 하며, 그 불명확한 동란기에 권세와 부귀를 쫓기 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의로써 유비와의 의리를 지켰음에 대해 무한한 찬사를 보내고 있다. 관우가 조조의 휘하에서 예우를 받으며 지내었고 더구나 안량의 목을 베는 전공을 세운 후에 그는 더 권세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마다하고 유비에게 돌아간 점을 송대 문인들은 더 크게 칭송하려 한 것이다. 전쟁에서의 용맹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신하로서 임금에게 바친 충성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송대 문인들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 더 필요했던 관우의 충의와 절개를 전면에 내세워 세상에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54) 《解梁關帝誌》卷四 <藝文上>, 앞의 책, 169쪽.

55) 《解梁關帝誌》卷四 <藝文上>, 앞의 책, 170쪽.

2) 민간에서의 관우 모습

송대 민간에서 관우는 전대에 이어 통치계층의 추존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다. 이는 지도층의 관우 추존과는 관계없이 당시 송 왕조가 처한 시대적 상황 하에 민간 문화 속에서 종교전설 등을 통해 관우신앙이 서서히 발효되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송나라 황제들이 관우를 왕으로 추존하게 되었던 것인데, 직접적으로는 당시에 널리 전해지고 있었던 관우와 해현 염전 이야기에서 영향을 받은 듯하다. 해현 염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당 대종(代宗) 대력(大曆) 때부터 있었다.⁵⁶⁾ 송대 민간전설을 보면 이미 당시에 널리 알려져 일반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바로 관우가 치우(蚩尤)를 물리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으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송대 민간 세상에서는 누구나 알고 믿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있었다. 진종(眞宗) 때에 관우가 치우와 싸워 물리쳤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호기(胡琦)의 《관왕사적(關王事迹)》을 보면,

송대 대종상부 7년, 해주에서 염전의 물이 줄어 손실이 큼을 상소 올렸다. 황제는 사자를 파견하여 돌아보게 했고, 돌아와 보고하여 아뢰길 : 신은 한 노인을 만났는데 스스로 성황신이라 하였으며 신으로 하여금 상주하여 말하게 하길 염전을 망친 자는 치우라고 하라 하였습니다. …… 치우는 사악한 신이다. 신주 용호산의 장천사는 귀신을 부릴 수 있으니 그를 불러 다스리게 하면 치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에 천사를 불러 궁으로 오게 했다. 황제가 그와 치우의 일을 논의하자 장천사가 말하길 : 이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고로 충렬지사로서 죽어서 신이 된 촉나라 장수 관우가 충성스럽고 용맹합니다. 폐하께서 기도하여 그를 불러 치우를 토벌하게 하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공이 있을 것입니다. …… 한 수염을 기르고 갑옷을 두르고 검은 찬 사람이 공중에서 내려와, 궁전 앞에서 경의를 표했다. …… 하루는 검은 구름이 염전 위에서 일어나고 큰 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56) 《新唐書》 卷224 <叛臣>(下) : 大曆中, 淫雨坏河中鹽池, 味苦惡. 韓滉判度支, 慮減常賦, 妄言池生瑞鹽, 王德之美祥. 代宗疑不然, 命(蔣)鎮馳驛按視. 鎮內欲結滉, 故實其事, 表置祠房, 號池曰‘寶應靈慶’云. 《二十五史》 앞의 책, 691쪽.

과 번개가 치니 사람들이 떨면서 두려워하였고 단지 공중에서 쇠창과 철마의 소리가 들렸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운무가 사라져 날씨가 좋아지고 염전의 물은 다시 예전과 같아졌다. …… 황제는 크게 기뻐 하며 사자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宋大中祥符七年，解州奏鹽池水滅，亏失常課。上遣使往視，還報曰：“臣見一父老，自稱城隍神，令臣奏云，爲鹽池之患者，蚩尤也。” …… 蚩尤，邪神也，信州龍虎山張天師，能使鬼神，若令治之，蚩尤不足慮也。于是召天師赴闕，上與之論蚩尤事，對曰：此必無可優，自古忠烈之士，沒而爲神，蜀將軍關某，忠而勇。陛下禱而召之，以討蚩尤，必有陰功。 …… 一美髯人擐甲佩劍，浮空而下，拜于殿庭。 …… 忽一日，黑雲起于池上，大風暴至，雷電晦暝，居人震恐，但聞空中金戈鐵馬之聲。久之，雲霧收斂，天色晴朗，池水如故， …… 上大悅，遣使致祭。)⁵⁷⁾

라고 적고 있다. 송 진종 대중상부(大中祥符) 7년인 1014년에 사악한 신 치우가 해현 염전에 해악을 끼쳐 염전의 물이 마르게 되자, 백성들의 피해가 커져 큰 곤란을 겪게 된다. 그래서 황제가 도교의 장천사와 논의한 끝에 충의의 신인 관우를 불러 치우를 처치하게 된다. 관우가 명을 받들어 치우를 물리치자 염전 상황이 회복되어 백성들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또 <정통도장·한천사세가(正統道藏·漢天師世家)> 제 3권을 보면,

승녕2년, 해주에 염전의 물이 넘침을 상주하자 황제는 도사 서신웅에게 물었다. 대답하길 : “교룡이 해를 끼치는데, 마땅히 장천사에게 명하십시오.” …… 12월 15일 장천사를 불러 황제가 말하길 : “해주의 염전에 물이 넘쳐, 백성이 해를 걱정하고 있기에 그대를 불러 다스리고자 하오.” …… 조금 지나 번개가 치고 날이 어두워지더니 교룡이 잘려 죽어 물 위에 떠올랐다. 황제가 묻길 : “그대는 교룡을 처치하는데 어느 장군을 이용하느냐? 볼 수 있겠느냐?” 말하길 : “신이 부리는 것은 관우인데, 마땅히 불러 오게 하겠습니까.” 곧 검을 잡은 자가 궁의 왼 편에 불러왔는데, 관우가 마침내 나타나자 황제가 놀라 관우에게 승녕전을 던져주었다. 말하길 : “이로써 너를 봉하노라.” 세상이 이로 인해 승녕진군으로 모시며 제사지내게 되었다.

(崇寧二年，解州奏鹽池水溢，上問道士徐神翁，對曰：“蛟孽爲害，宜宣

57) 劉海燕, 앞의 책, 40~41쪽 재인용.

張天師.”……十二月望日召見，上曰：“解池水溢，民罹其害，故召卿治之。”……逾頃，雷電晝晦，有蛟孽斫死水畜。上問：“卿向治蛟，用何將？還可見否？”曰：“臣所役者關羽，當召至。”即握劍召于殿左，羽隨見，上警擲崇寧錢與之。曰：“以封汝。”世因祀爲崇寧真君。)⁵⁸⁾

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 휘종 승녕 2년에 관우가 도교의 장천사를 도와 염전의 물을 넘치게 하여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던 교룡을 처치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우에게 죽은 교룡이 바로 치우가 변화한 요괴라는 것이다. 즉 관우가 치우를 물리쳐 염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송선화유사(大宋宣和遺事)》에도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살펴보면,

승녕 5년 여름, 해주의 교룡이 염전에서 해를 끼쳤는데, 10여 리에 기를 뿌리자 기속에서 가축들이 갑자기 다들 물어뜯어 다친 사람이 심히 많았다. 황제가 한대 장도룡을 계승한 삼십대 천사 장계선에게 명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며칠이 안 되어 교룡의 피해는 평정되었다. …… 황제가 말하길：“그대는 어떤 신을 이용하였는가?” …… 홀연히 두 신이 궁전에 나타났는데: 한 신이 진홍색 옷에 갑옷을 두르고 푸른 두건에다 아름다운 수염이 있었다. …… 계선이 금갑옷 입은 자를 가리켜 말하길：“이 자가 바로 촉장 관우입니다.”
(崇寧五年，夏，解州有蛟在鹽池作祟，布炁十餘里，人畜在炁中者，輒皆嚼噬，傷人甚衆。詔命嗣漢三十代天師張繼先治之。不旬日間，蛟祟已平。……帝曰：“卿用何神”……忽有二神現於殿庭：一神絳衣金甲，青巾美鬚髯；……繼先持示金甲者曰：“此卽蜀將關羽也。”) ⁵⁹⁾

라고 적혀 있다. 역시 휘종 승녕 5년에 관우가 교룡으로 변하여 해주의 염전에 요술을 부려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던 치우를 처치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장천사와 승녕진군이 언급되어 있는 등 민간신앙인 도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 전설이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송대 민간에서는 대단히 널리 알려

58) 周廣業 崔應榴 《關帝事迹徵信編》 卷十四，〈靈異〉。

59) 王雲五 主編，黎烈文 標點，《大宋宣和遺事》(臺北：臺灣商務印書館，民國57年) 元集，15~16쪽。

져 있던 이야기였다. 이처럼 민간에서 유행되어지던 전설을 통해 볼 때 관우의 신적인 모습이 이 시기에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던 듯하다. 즉 관우가 서서히 민간에서 영험한 능력을 가진 신으로 떠오르며 그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결국 통치자로부터 추존을 받고 문인들에 의해 인정되어진 관우는 북방 민족과 대치하고 있던 남송에 이르러서는 그 가치가 더 부각되어지고 민간에서는 종교적 영험성까지 드러내기 시작하다보니 온 세상에 관우를 추존하고 섬기는 분위기가 일어 곳곳에 관우 사당이 생겨나게 된다. <송회요집고·예이십(宋會要輯稿·禮二十)>을 보면,

축나라 한수정후 사당이 하나는 당양현에 있다. …… 하나는 동쪽 변두리 구향사에 있다. 관우의 자는 운장이고 세상에 이 절이 알려질 때 이미 이 사당이 있었다. 읍민들이 역병이 들면 반드시 이 절에 가서 기도하였고 승려가 먹을 것을 주었다.
(蜀漢壽亭侯祠，一在當陽縣，……一在東隅仇香寺。羽字雲長，世傳有此寺時，卽有此祠，邑民疫癘必禱寺僧以給食。)⁶⁰⁾

라고 적고 있다. 이는 이미 관우 사당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었고 벌써 당시 민간인들이 관우의 신격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치자에게 작위를 받고 추존되어지고, 문인들에 의해서도 인정받게 된 관우는 그 지위가 송대에 한층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관우에 대한 민간인들의 호감 역시 더 보편화되어지고 그 표현도 더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특히 송대 중후기, 시민계층이 형성되면서 설화사가 등의 민간문학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 때 관우를 비롯한 삼국인물 이야기는 서서히 설삼분(說三分)과 삼국희(三國戲) 등의 다양한 형태의 민간문학을 통해 민간으로 깊이 전해지게 된다.⁶¹⁾

60) 徐松輯, 《宋會要輯稿》(北京: 中華書局 2006) 第十九冊 <禮二十> 卷1206, 779쪽.

61) 張賴, <明道雜誌>: “京師有富家子, 少孤專財, 群無賴百方誘導之. 而此子甚好看弄影戲, 每弄至斬關羽輒爲之泣下, 囑弄者且緩之.” 朱一玄, 《三國演義資料匯編》(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3), 113쪽.

이렇게 시작되어진 관우와 민간문학의 만남이 후일 원대 평화와 명대 소설 《삼국연의》와 같은 문학적 영역의 형상화를 거치면서 관우숭배의 큰 요인이 되는 것이다.

5. 맺음말

오늘날 관우숭배 문화현상 속의 관우형상은 평화 및 《삼국연의》와 같은 문학 속에서의 문학적형상화를 거치기 이전에 이미 여러 조대를 지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그 기본적 모습이 갖추어져 있었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미 장비와 더불어 병칭되어지며 그 용맹을 상당히 인정 받고 있었다. 이후 수당시대에는 지도층보다는 민간에서 종교와 관계되어지며 신격형상을 띄기 시작하였다. 송대에 이르러서는 송대가 처한 여러 시대적 상황에 의해 관우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급상승되어지며 마침내 본격적 신격형상을 나타내며 숭배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는 이후 민간문학과 문학적 영역에서 예술적 형상화를 거쳐 오늘날 관우숭배의 모습으로 승화되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목할 점은 위진남북조 시기 정통성을 지닌 남조 왕조는 물론이고 북조 및 16국 등 중국의 중심에서 벗어난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 국가들이 관우에 대해 지녔던 관심이다. 이는 후일 원나라 청나라와 같은 이민족 왕조에서의 관우숭배 모습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오늘날 온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어져 있는 관우숭배문화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듯하다.

결국 문학에서의 예술적 형상화는 물론이고 그 이전 시대 관우형상의 변천 과정 또한 후일 관우숭배문화 현상의 기본적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참고문헌>

陳壽撰, 裴松之注, 《三國志》(上·下) (長沙: 岳麓書社, 2006)

- 上海書店 編, 《二十五史》(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 歐陽修 等著, 張傳璽 總主編, 《新唐書》(北京: 現代教育出版社, 2011)
- 宋萬忠 武建華 標點注釋, 《解梁關帝誌》(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92)
- 劉海燕, 《從民間到經典》(上海: 上海三聯書店, 2004)
- 酈道元 著, 陳橋驛 校證, 《水經注校證》(北京: 中華書局, 2013)
- 趙 翼 撰, 董文武 譯注, 《甘二史札記》(北京: 中華書局, 2008)
- 段成式 撰, 曹中孚 校點, 《酉陽雜俎》(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3)
- 周紹良 主編, 《全唐文新編》(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0)
- 戴周嫻, 《全唐詩》(臺北: 宏業書局, 民國71年)
- 周廣業 崔應榴, 《關帝事迹徵信編》
- 蘇 軾 撰, 王雲五 主編, 《東坡志林》(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4年)
- 羅貫中, 《三國演義》(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1)
- 朱一玄, 《三國演義資料匯編》(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3)
- 徐松輯, 《宋會要輯稿》(北京: 中華書局 2006)
- 王雲五 主編, 黎烈文 標點, 《大宋宣和遺事》(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7年)
- 馬書田 馬書俠, 《全像關公》(南昌: 江西美術出版社, 2008)
- 張志江, 《關公》(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08)
- 胡小偉, 《關公崇拜溯源》(太原: 北岳文藝出版社, 2009)
- 蔡東洲 文廷海, 《關羽崇拜研究》(成都: 巴蜀書社 2001)
- 馬昌儀 編選, 《關公傳說》(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08)
- 남덕현, <중국 고전시가 속의 關羽 모습>, 《中國學研究》제62집(서울: 중국학연구회, 2012.12)
- <http://baike.baidu.com/view/631080.htm>
- http://fodian.goodweb.cn/dict_read16.asp?ID=705
- http://wenku.baidu.com/link?url=zGTJ52yv9kQLwvb0gzyCZIdV4RJGi-e-zcZyydwHF0QuJEN8Cp4vxRZ4nudW1x0_ObV6Ideft3Dg6PPMrpLHXlwvguOO5ZbOHVybBQG6qIN3
- <http://www.doc88.com/p-508795527849.html>

<ABSTRACT>

The special present of the GuanYu Culture is the worship of GuanYu. Today this present of the GuanYu worship was changed into the cultural phenomena in china and all of the world chinese area. That is called a cultural phenomena of the GuanYu worship. The image of GuanYu worship is characterized in the novel 《SanGuoYanYi》 and 《SanGuoZhiPingHua》 of Yuan dynasty. But so many facts of the GuanYu worship is closely related to the GuanYu image before literary imagination in the novel 《SanGuoYanYi》 and 《SanGuoZhiPingHua》 of Yuan dynasty. We believe that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the GuanYu image before literary imagination will bring us the right direction to understanding of the GuanYu Culture in China.

Key words : GuanYu, GuanYu image, The Novel 《SanGuoYanYi》, The GuanYu Culture, The cultural phenomena of GuanYu Worship

투 고 일 : 2014.2.20

심 사 일 : 2014.3.3~3.31

게재확정일 : 2014.4.20

韓·中·日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자살(自殺)*

이경미**

<목 차>

1. 들어가며
2. 한중일 고전문학 속 여성의 자살유형 분석
 - 1) 이드(Id)형 자살
 - 2) 에고(Ego)형 자살
 - 3) 슈퍼에고(Super-Ego)형 자살
3. 나가며

1. 들어가며

“대왕이시여. 이 페드라는 대왕의 아들로 인하여 오늘 이렇듯 잠옷을 갈가리 찢기는 능욕을 당하여 세상을 하직합니다.”¹⁾

서양문화와 문학의 근원인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페드라가 자살 전 남편에게 남긴 유서의 내용이다. 전처의 아들 히폴리토스를 연모하지만 매물차게 거절당하자, 남편 앞으로 자신을 범하려 했다는 거짓 유서를 보내고 자결하여 결국 히폴리토스마저 저주로 죽게 만든다. 구애를 거절당한 여성의 수치심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게 하고, 결국 모두 파국을 맞는다는 비극적 사랑의 이야기다. 이후 페드라의 사랑은 그리스 고전희극작가들에 의해서 ‘불륜’, ‘근친상간’이라는 부정

* 이 논문은 2013년도 동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부교수 (leejingmei@gdsu.dongseo.ac.kr)

1) 그리스 신화.

적인 낙인이 찍혔고, 자살의 동기가 비록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결코 동정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기독교문화가 주류문화로 자리한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정도가 더욱 깊어졌다. 5세기 초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서 《신국론》²⁾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누구나 명백한 살인자다. 유다는 비록 죄 때문에 자살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죽임으로 또 다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자살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어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의 저서 《신학대전》³⁾에서 조목조목 언급하며 이를 금하였다.⁴⁾ 이처럼 자살한 자들은 ‘신을 거역한’ 종교적 이유에서뿐 아니라 법과 권리를 행사하는 군주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형법상의 범죄로도 간주되어 교회묘소에 묻히지 못하며, 공개적 시체처벌⁵⁾ 등의 형벌이 가해졌다. 이처럼 범죄로서의 자살에 대한 징계와 함께 자살이라는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처럼 서양 문화권에서 ‘자살’을 흉악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던 것처럼 고대 한중일 봉건 유교 사회에서도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는 효사상에 기초하여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주된 사회

2) 총 22권으로 이루어진 아우구스티누스 후기 주요 저작으로, 세계가 창조된 이후의 역사를 지상의 나라와 신의 나라라는 두 개의 역사로 구별하여 서술하였다. 410년의 고트족에 의한 로마 함락을 기회로 분출한 기독교에 대한 비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술했다.

3) 《신학대전》은 중세의 스콜라 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표적 저서이다. ‘대전’(숨마)이라는 명칭은 12세기의 스콜라 용어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제시할 목적으로 편찬된 여러 학설의 전체적·체계적 집대성을 말한다. 성 빅토르의 후고에 의한 숨마가 최초의 전형이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가장 완성된 대표적 작품이다.

4) “인간은 사회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사회에 속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사회에 부당한 짓을 하는 것이다.” “인간은 신에게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오직 신만이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등

5) 중세시대 프랑스 소녀 마리 자겔렝의 장례를 치른 후 그녀의 사인이 음독자살로 밝혀지자 사람들은 매장한 그녀의 시체를 다시 꺼내 거적에 둘둘 말아 온 마을을 질질 끌고 다녔다고 한다.

적 의식이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효사상에 기초하여 부모를 위하여 과감히 자신의 몸을 희생하거나, 열과 충 같은 숭고한 사회윤리적 기준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의 용감하고 의로운 행위로 여겨, ‘의로움’과 ‘삶’이 양립하지 못할 때 가차 없이 ‘삶’을 포기하는 태도를 긍정하였기 때문이다.⁶⁾ 초나라 애국시인 굴원도 맥라강에 몸을 던짐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지켰으며, 춘추전국시대 영웅 오자서도 자신이 도와 왕위에 오른 부차가 중상모략으로 자신의 충성을 의심하자, 분노의 표현으로 자살한다. 금나라에 대항하여 싸웠던 애국장수 악비도 자결로 그의 억울함과 분노를 나타냈다.

위와 같은 자살에 대한 다소 이중적인 인식들은 한중일 고전문학속의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투영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조선 후기 《열녀홍씨전》의 홍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신의 결백을 온 천하에 증명하였으며, 《심청전》의 심청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 인당수에 몸을 던짐으로 아버지의 눈도 뜨며, 자신도 왕후가 된다. 한편 중국 《聊齋志異》의 상삼관도 스스로 목을 매어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하며, 일본의 《소네자키신주(會根岐心中)》의 오하쓰는 연인과의 동반자살을 통하여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냈다. 이처럼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서 여성들의 자살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여성들의 자살이 ‘효녀’, ‘열녀’의 이미지와 연결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환영받고 때로는 권장되는 기형적인 현상으로까지 변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서 여성의 자살을 주제로 혹은 이를 중요한 모티브로 삼는 작품들을 텍스트로 하여 여성의 자살의 심리와 그 속에 반영된 여성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열녀홍씨전》, 《운영전》을 중국의 경우에는 《三言》, 《聊齋志異》등을 주된 텍스트로 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소네자키신주(會根岐心中)

6) 황수연, <자결을 통해 본 욕망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6, (2008), 424쪽.

中)》, 《好色五人女》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고전문학 속에 나타난 여성의 자살에 관하여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한중일 고전문학 속 여성의 자살유형 분석

한중일 고전 문학 작품 속에 다양한 형태로 묘사되고 있는 여성의 자살의 모습을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자살의 원인을 인간 내면의 문제로 보는 정신의학적·심리학적 연구방법론을 기본 토대로 하여 작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종전 자살을 연구한 본격적인 과학적, 실증적 선행연구들이 주로 남성위주로 이루어지거나, 제도와 시대의 변화 등 보다 ‘거대담론’(metanarrative)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문학작품 속의 여성의 자살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되는 바, 보다 섬세한 작업을 위해서는 ‘미세담화’가 필요한 것인데, 이는 여성의 자살이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동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⁷⁾ 이에 필자는 자살의 동기를 여성 내부의 미묘한 감정변화에서 찾는 프로이드적 분석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정신의학적·심리학적 분석방법의 핵심적인 주제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죽음의 본능’⁸⁾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본능이 특수한 상황에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죽음의 본능’과 그의 대표적 이론 ‘인간의 세 가지의 주요성격체계’인 ‘이드’, ‘에고’, ‘슈퍼에고’를 분석틀로 하여, 한중일 고전문학작품들을 위 세 유형과 연

7) 근대 ‘자살연구’에 대한 흐름을 간략하게 고찰해보면 크게 프로이드나 융으로 대표되는 정신의학적·심리학적 자살연구와 쇼펜하우어, 키케고르, 니체 등으로 대표되는 철학적 관점에서의 자살연구, 괴테 등과 같이 문학작품으로 통해 자살을 바라보는 문학적 관점에서의 자살연구, 에밀 뒤르켐과 같이 사회학적 관점으로서의 자살연구 등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8)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는 인간에게는 삶을 즐기고자 하는 쾌락의 본능과 죽음과 고통에 대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프로이드는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인 ‘쾌락원칙’이 성적인 욕구와 충동에 의존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쾌락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심리(즉, 본래의 무기물로 돌아가려는 욕구)를 죽음본능이라고 불렀다.

결지어 작품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⁹⁾ 다만, 여성의 자살유형 중에도 그 원인이 외부적, 환경적문제에 분석되어야 하는 영역에서는 에밀 뒤르켐의 사회학적 연구방법론¹⁰⁾도 차용하여 작품분석이 보다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하고자 한다.

1) 이드(Id)형 자살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에게 있어 ‘이드’는 도덕과 사회환경에 영향 받지 않는 가장 원초적이며 본능적인 욕구로서, 주로 성욕과 공격 욕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드’는 본능적인 충동과 관련된, 무서운 힘을 가진 저장소처럼 가마솥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물과 같은 것, 화산 밑에서 이글거리는 마그마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드는 열정적으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한편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인간의 악마적 본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이드’의 표출이 여성을 자살로 몰고 가는 형태를 한중일 고전문학 작품 속에서 찾아본다면, ①여성의 사랑받고 싶은 욕구의 극단적인 추구나, 반대로 그 사랑을 얻지 못했을 때의 ②분노와 질투 나아가 ③공격, 파괴까지 서슴지 않는 자살유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1) 사랑의 욕구분출로서의 자살

여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보다 더 강렬한 정서적 욕구가 있을까?

9) 인간의 심리구조를 분류한 것으로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이다. 이드(Id)란 한마디로 욕망이다. 즉 원시적, 동물적, 본능적 요소로서 쾌락원칙에 지배되어 즉각적인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본능적 에너지다. 에고(Ego)는 “사회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슈퍼에고(Super-Ego)는 현실의 세계에서 추구할 수 없는 이상을 좇는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원시적 이드의 상태에서 사회적 에고의 상태를 겪으면서 이상과 도덕, 윤리, 상식 등에 의해 제한을 받는데, 그 억압의 체계가 내면화된 것이 바로 슈퍼에고인 것이다.

10) 에밀 뒤르켐 (David Émile Durkheim, 1858~1917)은 자살학의 고전인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먼저, 사회통합이 강하여 집단 규범이 개인에게 강하게 작용하면 ‘이타적 자살’이 많이 발생하며, 반대로 사회적 통합력이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 ‘이기적 자살’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불충분할 때 ‘아노미적 자살’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더욱이 가정과 혼인이 삶의 영역의 전부인 고대 한중일 여성들에게는 남편과 연인의 사랑은 전부이자,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자 하는 원칙이었다. 고전문학 작품 속 여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여성들은 현세에서 생명을 걸고 사랑을 지켜냈다면, 죽어서도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즉, 한중일 고전문학 작품 속 여성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사랑의 완성과 내세에서의 지속’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 민간설화 《梁山伯與祝英臺》는 ‘동양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불리며 청춘남녀의 비극을 주제로 하고 있다. 축영대가 남장을 하고 서원에 가서 공부하다 동문수학하던 양산백과 서로 사랑하게 된다. 나중에 부모께 결혼 승낙을 청하였으나 축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딸을 정혼시킨 뒤였다. 후에 산백은 마음의 병으로 죽고, 영대가 시집가던 날, 묘소 인근을 지날 때 바람과 파도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산백의 묘 때문임을 알게 된 영대는 물에 올라 통곡하자, 갑자기 땅이 갈라졌고 영대도 갈라진 땅으로 뛰어 들어가는 자살로 끝나고 있다. 그리고, 무덤 속에서 두 마리의 원앙새 혹은 판본에 따라 두 마리의 나비가 날아오름으로 사랑하는 연인들의 영혼이 원앙 또는 나비로의 변형을 통해서 사랑과 영혼불멸의 환상적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

중국 《맹강녀설화》에서도 만리장성의 축조로 남편을 잃은 맹강녀가 만리장성에서 통곡하자, 만리장성이 무너지고, 진시황의 청혼을 거부하여 물에 몸을 던지자, 그녀의 몸이 은빛 물고기가 되었다고도 한다. 《搜神記》의 ‘한빙(韓憑)부부’ 이야기에서도 강왕이 한빙처의 미모에 반해 강제로 첩을 삼고 한빙을 감옥에 가둔다. 후에 남편 한빙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남편을 따라 누대에서 몸을 던진다. 이윽고 둘을 합장한 무덤에서 나온 나무는 뿌리가 서로 엉겨 붙고 위에서는 나뭇가지들이 서로 엮히는 연리지가 되고, 그 위에 한 쌍의 원앙새가 앉아 서로 목을 놓아 슬피 울었다고 한다. 이것은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자살을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혐오스러운 구렁이나 늑대가 아닌 아름다운 나비, 은빛 물고기, 연리지, 원앙등

으로 변한 것은 이들 여성들의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는 자살’ 을 아름답게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후기 작자미상 한문소설 《운영전》은 안평대군의 궁녀 운영과 김진사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다루고 있으며, 궁녀의 신분을 뛰어넘어 ‘사랑’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관습적 제약으로 사랑이 좌절되자 ‘기도하고 지성으로 소원을 빌어 삼생의 연분을 후세에 다시 잇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다음 생애를 기약하며 자살을 택한다. 그녀의 죽음이 표면적으로는 궁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과 이루지 못한 사랑의 절망감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넘어 다음 생애에는 연분을 이루는 기약을 위한 자살로도 볼 수 있다.

내세에까지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일본 17,18세기에 크게 유행하였던 정사(情死) 사건, ‘신주(心中)¹¹⁾’ (사랑하는 연인들의 동반자살) 현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현상은 문학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내세에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불교의 내세사상의 영향으로 그러한 작품들이 크게 인기를 얻게 된다.¹²⁾ 당시 죽음은 이 세상과의 단절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신주’를 통해 내세에서는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¹³⁾ 이 유형의 대표작품으로 가부키(歌舞伎), 노(能), 죠루리(淨瑠璃)등의 다양한 장르로 변형되어 지

11) ‘신주’란 죽음에 이를 정도의 순수한 남녀간의 정사(情死)를 이르는 말로, 한때는 일종의 숭상까지 받는 정도의 자살방법으로 일본전역에 유행처럼 번져 정부에서 금지령까지 내린 일본 특유의 미학적인 색채가 농후한 죽음이다.

12) 일본 에도시대 1704년에 출판된 <신주대감(心中大鑑)>에 의하면 당시의 ‘정사(情死) 현상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신주대감은 교토와 오사카, 그리고 인근지역에서 일어나 정사사건을 취재하여 수록한 일종의 르포집 같은 것으로 총 5책에 걸쳐 21화의 정사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오늘도 신주, 내일도 신주, 아스카강 강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로 당시의 신주 열풍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김난주, <정사, 사랑과 죽음의 환상>, 《에로티시즘으로 읽는 일본 문화》(서울: 제이앤씨, 2013), 252쪽)

13) 박미림, 《소네자키 신주에 나타난 근세 일본인의 사생관》,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9, 59쪽.

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사카 소네자키 숲에서 실제로 일어난 신주사건을 작가 지카마스 문자에몬(近松門左衛門)이 극화한 《소네자키신주(會根岐心中)》이다. 이 작품의 상연 이후로 2년 남짓하는 기간 동안 30건이 넘는 정사(情死)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의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¹⁴⁾ 연인 오하쓰를 둔 간장가게 종업원 도쿠베가 자신을 조카딸과 결혼시키려는 가게 주인으로 인해 괴로워하다 믿었던 친구에게도 배신당하고 사기꾼이라는 누명마저 쓰고 결국 애인 오하쓰와 소네자키 숲을 찾아 이승에서 못다 이룬 사랑을 저승에서라도 이루겠다는 신념으로 동반자살을 하게 된다.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을 때는 이 세상에서만 약속인가요? 저 세상에서 맺어진 경우도 있으므로 하다하다 안 되면 죽어버리면 그뿐이에요.¹⁵⁾

현세에서 이루지 못했던 부부의 연을 내세에서나마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유곽을 탈출한 오하쓰와 도쿠베가 서로 마주보며 죽으러 가는 것이 기쁘다고 하는 장면, 최후의 장소를 정하고 죽음의 직전에 있는 장면에서도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죽음을 긍정하고 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아 기쁘구나.”라며 죽으러 가는 자신들의 처지를 기뻐하는 모습은 애절하고 비참하다. … “만약 도중에 추격자에게 잡혀 헤어지게 된다 하여도 사랑을 위해 죽었다는 평판은 버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면도칼을 준비하였는데 소원대로 함께 죽을 수 있는 이 기쁨이여!”¹⁶⁾

14) 김난주, <정사, 사랑과 죽음의 환상>, 《에로티시즘으로 읽는 일본문화》, 서울: 제이앤씨, 2013, 261쪽.

15) 逢ふに逢はれぬその時は、この世ばかりの約束か。さうした例のないではなし。(森修·鳥越文蔵 外『近松門左衛門集1四十三』, 小学館, 1979)

16) 顔を見合わせ、ア、嬉しと、死に行く身を喜びし。あはれさ、つらさ、あさましさ。… もしも道にて追手のかゝり、われへになるとても。浮名は捨てじと心がけ、剃刀用意いたせしが。望みのとおり、一所で死ぬるこの嬉しさ。(森修·鳥越文蔵 外『近松門左衛門集1四十三』, 小学館, 1979)

이처럼 한중일 고전 문학 속에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죽음으로 육체의 생명은 단절되었지만, 그 영혼들은 새로운 생명체인 원앙, 나비, 연리지 등으로 환생한다던지 혹은 내세를 기약하고 있다. 이것은 죽음을 파국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는 또한 고대 여성들이 ‘자살’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랑을 영원히 보호받고자 하였던 열망으로도 볼 수 있다.¹⁷⁾

(2) 분노의 욕구분출로서의 자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욕구가 강할수록 그 진심이 짓밟혔을 때는 그 사랑의 감정이 지독한 분노와 증오로 변한다. 여성이 죽음까지 불사하는 분노와 증오의 감정은 무엇일까? 심지어 타인을 공격하고 자신까지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분노의 감정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질투’에서 종종 발견된다. 여성의 견딜 수 없는 ‘질투’의 감정이 분노로 표출되고, 또 그 모습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치닫는다. 심리학자 Clanton과 Smith¹⁸⁾에 의하면 질투상황에 남자들은 폭음을 하거나 폭력으로 반응하는 반면, 여자들은 울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방식으로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고 한다. 남자들은 상대와 경쟁자 둘 다를 비난하지만, 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 의존적이고 자기처벌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한다. 이처럼 남성이 질투심을 느낄 경우 ‘살인’과 같은 극한 폭력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여성은 내부에서 억압되지 못한 질투가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향하게 하여 그 복잡한 감정은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가져오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의 자살은 일종의 ‘과멸적인 내면 심정과 회생에 대한 비원(悲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¹⁹⁾²⁰⁾

17) 선정규, <중국문학에 나타난 죽음과 소생>, 《중국어문논총》42, 2009, 72쪽.

18) Gordon Clanton, Lynn G. Smith, 《Jealousy》, Prentice Hall, 1977.

19) 馬場あき子, 《鬼の研究》, 東京: 三一書房, 1971, 220쪽.

중국 당(唐)나라 단성식의 《酉陽雜俎·諾皋記上》에 나오는 유백옥의 처는 중국인들이 최고로 꼽는 투부(妬婦)로 남편이 《洛神賦》 속에 나오는 낙수의 여신을 사모하자 “서방님, 어찌 물귀신을 추켜세우고 나를 업신여기는 겁니까? 나도 죽으면 물귀신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라며 극도로 흥분, 분노하여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한다. 그리고 물귀신이 되어 남편의 꿈에 나타나 자신도 낙수의 여신처럼 사랑해 달라고 한다.²¹⁾

일본의 아사이료이(淺井了意)의 《오토기보코(伽婢子)》제10권 제2화에 등장하는 오카노야시키부(岡谷式部)의 아내도 평소 질투심이 심하여, 부부싸움 끝에 분노에 가득 찬 ‘머리는 산발이 되고 입은 검붉게 찢어지고, 눈은 심하게 핏발이 선체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뛰어나가는’ 모습으로 우지강에 투신자살한다. 그리고 죽은 뒤 수신(水神)이 되어 우지교(宇治橋)를 건너 시집가는 새색시들을 질투해서 못생긴 새색시가 탄 배는 무사히 강을 건너게 했지만, 예쁜 새색시가 탄 배가 지나가면 풍랑을 일으켜 시샘했다고 한다.²²⁾²³⁾

이처럼 여성들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본연의 질투심을 억제하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분노의 발산은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한다. 가부장적 일부다처제하에서 현모양처의 도리를 벗어나 애욕과 질투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죄악’으로 여겨지고 있던 시대상황 속에 이러한 자살은 죽어서도 결코 아름답게 보고 있지 않았다. 여성 본연의 감정인 질투를 악덕한 것이라는 ‘초월적 규정짓기’(transcend identification)와 ‘자살’이라는 비극적 파국은 여성의 질투, 분노를 그리는 당시 보편적인 남성 작가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생각이었을 것이다.²⁴⁾

20) 졸고,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질투>, 《중국학》41, 2012, 66쪽.

21) 易中天, 《中國的男人和女人》,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3, 151쪽.

22) 松田修校注, 《新日本古典文学大系75·伽婢子》, 日本: 岩波書店, 2001, 286~289쪽.

23) 졸고,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남장>, 《중국학》44, 2013, 65쪽.

24) 졸고, 위의 책, 66쪽.

(3) 공격, 파괴 욕구의 분출로서의 자살

프로이드는 《애도와 우울》²⁵⁾이라는 논문에서 자살을 ‘반전살인(death as retroflexed murder)’으로 설명하였다. 자살은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공격성의 결과로서 나타나며, 타인에게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살인적인 분노가 반전되어 상대방을 자신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여 자신을 살해함으로써 상대방을 죽이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즉 프로이드는 자살이 자신이 동일시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 공격이라 하였다. 여성들의 애증(愛憎)을 바탕으로 한 절망과 분노의 자살에서 한층 더 나아가 때때로 그 영향력이 사후세계에까지 파급되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파괴적인 힘으로 승화되고, 자신과 타인 모두를 공격, 파멸케 하는 무시무시하고 처참한 결과를 보여 주기도 한다.

중국 당전기 《霍小玉傳》의 이익(李益)은 진사과거에 급제하고 대과 급제를 위해 상경하여, 광왕의 총비에게서 난 딸 소옥과 인연을 맺는다. 그러나 소옥이 비첩의 소생이라는 천한 신분 때문에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자 ‘밤낮으로 울면서 침식을 완전히 잊는’ 태도로 삶을 포기한다. 그리고 이생과 마지막 만남을 가지고 그 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간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 박명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고 그대는 대장부이기에 배반하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 내 죽은 뒤에 반드시 모진 원귀가 되어 그대의 처첩들을 하루 종일 편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²⁶⁾

이윽고 소옥은 죽어서 원귀가 되어 이익의 결혼생활을 온통 질투와

25) 1917년에 발표된 《애도와 우울증》은 프로이트 전집 중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 중 하나이다. 우울증 환자가 주로 여성인 것을 문제시하며 애도(슬픔)와 우울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26) “我爲女子，薄命如斯！君是丈夫負心若此！……我死之後，必爲厲鬼，使君妻妾，終日不安！”(김종균(편역), 《중국전기소설선》, 서울: 박이정, 2005)

의치증으로 물들이고 결국 파탄으로 이끈다.

또한 한국 설화 《조월천과 상사뱀에 대한 전설》에서도 여성의 애증이 자살로 치닫고 그 집념이 사후 뱀으로 변신하여 상대방을 공격, 파괴하는 내용이다. 조월천에게 구애를 거절당한 월이가 절망으로 자살하고 그 원혼은 뱀으로 변하여 조월천을 뒤따라오자 그의 스승이 뱀을 붓뚜껑에 넣어 월천에게 주면서 형제들에게도 절대 보이지 말라고 당부한다. 월천의 동생이 그것을 빼앗아 열었더니 뱀이 나와 집안의 사람들을 해치게 된다. 안동향사에 모셔져 있는 월천의 영정은 항상 뱀이 감고 있다고 한다.²⁷⁾ 사랑에 거부당한 처녀의 분노한 원혼은 자살로 이어지고 그 후 무시무시한 뱀으로 변하여 남자집안 전체를 파괴시켰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뱀이 월천의 신위를 감고 있다는 것은 원혼의 집요한 공격적 의지를 대변해 주고 있다.²⁸⁾

일본 上田秋成(우에다 아키나리)의 《雨月物語》(우게쓰 모노가타리)에 수록된 〈吉備津の釜〉(기비쓰의 솥)은 여성이 사랑과 믿음에 배신당하자 무서운 복수의 집념에 불타는 무시무시한怨靈으로 변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내어 《雨月物語》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포와 음산한 분위기로 일본 괴담 문학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일컬어지고 있다.²⁹⁾ 믿었던 남편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한 여성이 삶을 포기하고 후에 원령으로 변하여 남편과 그의 정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남편이 기녀 소테와 눈이 맞아 같이 살림을 차리지만, 이소라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 애쓴다. 성심성의를 다했지만 쇼타로는 이소라의 진심을 두 번이나 저버리고 소테와 멀리 도망가 버린다. 이소라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기만당한 사실을 알고 마음의 병으로 ‘온종일 드러누워 죽 한 모금도 들이키지 않고’ 죽어 간다. 이윽고 이소라는 무시무시한 원령이 되어 소테를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죽게 만

27) 《한국구비문학대계》7-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740~749쪽.

28) 강진옥, <상사뱀설화의 몸바꾸기를 통해 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고전문학연구》18, 2000, 129쪽.

29) 中寸幸彦, 《日本古典文学大系56·上田秋成集》, 日本: 岩波書店, 1959, 13~14쪽.

들고 무정한 남편은 시체도 남기지 않고 데려간다. ‘피묻은 벽’, ‘처마 끝에 매달려 있는 상투’ 등의 마지막 장면 남편 쇼타로의 죽음의 묘사는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과 절망에 비례했던 그녀의 자살이 가져온 엄청난 파괴력과 공격적인 힘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의 콕소옥과 한국의 월이, 그리고 일본의 이소라처럼 살아서는 봉건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의 잣대 아래서 순종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본성을 누르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초현실세계에서는 이전의 모든 유가적 도덕윤리와 규율의 속박을 일체 무시하고 내재해있던 인간 본연의 애증(愛憎)으로 인한 질투와 원망의 모습을 무서운 ‘분노’로 드러내며, 나아가 상대방을 철저히 공격하고 파괴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자살의 동기가 애증이 기반인 경우, 때때로 그 분노는 막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승화되고, 자신과 타인 모두를 공격, 파괴하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³⁰⁾

이처럼 여성의 ‘이드형 자살’의 세부적인 분류로 사랑, 분노, 공격과 파괴의 욕구를 한중일 고전작품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이드형 자살’은 그 시대에 억압된 여성의 본능적인 욕구들이 분출, 해소되는 ‘마지막 출구’였음을 알 수 있다.

2) 에고(Ego)형 자살

프로이트에 의하면 자아(에고)는 원초적, 본능적, 충동적인 이드와는 달리 현실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이성과 신중을 지향한다고 한다. ‘이드형 자살’이 주변환경과 도덕에 연연하지 않고 본능에 의한 사랑과 분노, 공격의 분출이라면, 한편 ‘슈퍼에고형 자살’은 당시의 시대적인 가치관에 근거하여 보다 높은 이상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드와 슈퍼에고의 중간과정인 ‘에고형 자살’은 환경의 제약을 인정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30) 졸고, <고전문학 속 여성들의 해원으로서의 변이에 관하여>, 《석당논총》 43, 2009, 145쪽.

판단으로 현실의 장애를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자살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하고, 사회적으로도 그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죽음만이 현실에 순응, 타협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가부장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자유가 없던 여성들에게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어느 정도 허용되었던 것이다.

(1) 소극적 현실 순응의 자살

조선 후기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의 사씨는 자신이 호의를 가지고 맞이했던 첩 교씨로부터 모해를 받아 가정으로부터 억울하게 축출되면서 인생 험로를 걷게 된다. 가정 안에서만 생활하던 여성이 가정 밖으로 쫓겨나고 유랑의 길에 오르며 가까스로 겁탈 위기를 모면한 뒤 자살하려고 회사정(懷沙亭)에 오른다. 그러나 사씨는 바로 혼절하고 꿈속에서 아황(娥皇)과 여영(女英)³¹⁾의 초대를 받고, 반첩여(班婕妤)³²⁾ 등 자신이 존경하고 흠모하던 역사상의 인물을 만나 그들의 ‘인정’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를 확인하고는 다시 돌아와 누명을 벗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가정 안에서만 비로소 존재를 인정받았던 당시 여성에게 가정과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는 여성에게는 죽음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갈 곳 없는, 받아줄 곳 하나 없는 사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살’ 뿐이었다.

31) 아황(娥皇)은 여영(女英)과 자매로 순임금의 왕비였다. 요(堯) 임금이 그의 두 딸 아황(娥黃)과 여영(女英)을 순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고 임금 자리를 물려주었다. 아울러 자신의 아들 아홉 명을 순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였다. 우순(虞舜) 임금이 남방 지역을 순시(巡視) 할 때 병으로 창오(倉梧)에서 죽자, 소상강가에서 슬픔에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피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32) 漢나라 성제의 후궁이며 유명한 여류 시인이다. 초기에는 매우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으나, 젊고 아름다운 조비연(趙飛燕)과 그 여동생이 후비로 입궁하면서 점점 실종(失寵)하게 된다. 조비연 자매는 그녀와 허황후(許皇后)를 제거하기 위해 성제에게 허씨와 반씨가 후궁들과 성제를 저주하고 있다고 무고하였고 이 때문에 허황후는 폐위되었다. 반첩여도 모진 고문을 당했으나 결백을 주장하여 결국은 혐의가 풀리고 금까지 하사받았다.

단지 순리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불안과 원망, 역사의 비정함에 대한 회한등은 꿈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양반의 아내로 강하게 눌러 왔던 두려움과 원망 등의 본능적 이드적 감정들이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결국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

조선 후기 작가 미상의 《장화홍련전》의 홍련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언니 장화를 따라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물에 뛰어든다. 아버지의 무관심과 계모의 구박아래 유일하게 믿고 따르던 언니의 죽음은 철저히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홀로 남았다는 혼란스러움을 주고, 가정에서 더 이상 아무런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녀는 자살로서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

당시 여성에게 유일한 공간인 가정과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는 여성에게는 죽음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갈 곳 없는, 받아줄 곳 하나 없는 그녀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살’ 뿐이었다. 그녀들의 자살은 ‘분노’와 ‘충동’의 자살도 아니며, 한편 ‘효’와 ‘열’이라는 위대한 가치관을 완성하는 자살도 아닌 ‘현실에 순응하는 자살’이었다. 한편 이 유형의 자살에서는 여성에게 가족과 가정이 절대적 위치임을 강조하고, 소외되거나 축출된 경우는 ‘죽음’이라는 파국만이 기다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있다.

(2) 적극적 현실 순응의 자살

여성이 현실의 제약을 깨닫고 순응하지만 앞의 유형처럼 자포자기의 심정의 소극적인 순응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에 순응 및 타협하는 자살의 유형이 있었다.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나아가 자살을 통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에게 간접적으로 사회적·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 즉 죽음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평생 죄책감을 갖게 하는 정신적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이드적 자살’에서 보이는 분노분출과 욕구폭발형의 일시적 충동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현실상황을

냉정히 인식하고 좌고우면하면서 지속적인 고려하에 이루어지는 자살이다.

명의 풍몽룡의 《警世通言》 第32卷 《杜十娘怒沉百寶箱》 속의 두십낭은 자살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배신한 이갑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서생 이갑은 장안 최고의 기생 두십낭에게 빠져 돈을 다 탕진하게 된다. 그리하여 기생어미는 두십낭에게 돈 없는 이갑을 쫓아버리지만 이갑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두십낭은 오히려 그를 위해 돈을 마련하여 주고,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결혼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때 손부라는 부호가 두십낭에게 반하여 이갑을 감언이설로 꼬드겨 두십낭을 취하려 한다. 마침 화류계 출신의 며느리를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이생은 돈을 받고 그녀를 팔기로 한다. 두십낭은 이를 알고, 이생도 알지 못하던 자신의 천만금의 보물을 아무 미련 없이 강에 던지고, 그 자신도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한다. 그 후 이갑은 미친병에 걸리고 손부도 충격으로 병에 걸려 죽고 만다.

두십낭은 돈 욕심 때문에 자신을 저버린 연인 이갑에게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지만 한편, 화류계 출신의 자신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자신의 엄청난 보물을 보여 준 뒤,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강에 던져 버리고, 자신의 헛된 꿈과 함께 물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자를 열어 보인 것은 서방님에게 천금이란 재물이 별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지요. 첩의 함 속에는 옥이 있었지만, 한스럽게도 서방님의 눈 속에는 눈동자가 없는 거지요. 제가 박복하여, 창기 생활로 극히 고달팠는데, 이제 막 그 생활에서 벗어났는데 또 버림받는군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모두 사실을 증명해줄 거예요. 첩이 서방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서방님께서 저를 배신한 것이예요!”³³⁾

33) “今日當衆目之前，開箱出視，使郎君知區區千金，未爲難事。妾櫃中有玉，恨郎眼內無珠。命之不辰，風塵困瘁，甫得脫離，又遭棄捐。今衆人各有耳目，共作證明，妾不負郎君，郎君自負妾耳！”(《警世通言》第32卷，三秦出版社，1993)

그리고 이같은 두십낭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에 이후 괴로운 나날을 보내며 마음의 병을 얻어 결국 죽게 된다.

풍몽룡의 《三言·王嬌鸞百年長恨》의 왕교란도 자신의 사랑이 배신당하자, 관부에 혼약서를 보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자결로서 증명한다. 주정장(周廷章)은 재색을 탐하여 왕교란과의 혼인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여인과 정혼한다. 이로 인해 절망한 왕교란은 상대의 변심에 복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나 왕교란은 명문가의 규수로서 재색을 갖추었으니, 만약 이대로 조용히 죽는다면 그 박정한 사람만 좋게 하는 것이다.”³⁴⁾

그리고 관부에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읊은 시와 함께 증거가 되는 혼약서를 관부에 보내고 목숨을 끊는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연인의 ‘결혼 약속’과기가 한 여성의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세상에 알림과 동시에 연인의 배신이 한 사람에게 미친 불행의 과급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설득력있게 보여 주고자 하였다.³⁵⁾ 두십낭과 왕교란의 자살은 저항할 수 없는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순응이었지만, 한편 소외되고 배제된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항변이며 저항이기도 하였다.³⁶⁾

앞장의 ‘이드형 자살’이 분노와 증오로 충동적이며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파괴시키는 자살이라면, ‘예고형 자살’은 여성 자신이 절망에 처한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죽음으로 순응하기도 하며,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냉정한 판단과 사고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당시 가부장제도의 사회하에서 오직 ‘죽음’으로서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힘없고 여린 여성들의 아픔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34) “我嬌鸞名門愛女，美貌多才。若噫噫而死，却便宜了薄情之人。”(《警世通言》卷36, 三秦出版社, 1993)

35) 오문희, 《삼언의 복수고사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10, 153쪽.

36) 천대진, 《삼언의 비극작품 시론》, 경상대학교 석사논문, 2011, 20쪽.

3) 슈퍼에고(Super-Ego)형 자살

프로이트에 의하면 초자아(슈퍼에고)는 양심과 금지의 저장소이면서 도덕적 제약을 의미한다고 한다. 초자아는 본능인 이드의 충동을 억제, 금지시키며, 사회적 가치관을 중시여기며 이상을 추구한다. 즉, 개인이 사회로부터 가치관, 도덕 등을 내면화한 개인적 가치의 총합체이다. 이처럼 자살의 동기를 여성 내부에서 끌어내어 사회의 규범과 개인의 가치관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자살의 동기를 사회에서 찾는 사회학적 이론과도 연관성을 간과할 수 없다. 사회학적 자살 연구의 고전인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중 사회통합이 강하여 집단규범이 개인에게 강하게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이타적 자살’과 ‘슈퍼에고형 자살’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자살을 사회적, 관습적, 도덕적 이념을 내면화하는 결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를 사회·윤리적 자살이라고도 부르고자 한다. 당시 가부장 제도의 봉건사회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 윤리적 규범인 효와 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효(孝)의 완성을 위한 자살

유가에서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³⁷⁾이라 하며, 한편 불교에서는 ‘부모의 은의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육체를 모두 다 함께 바치라.’³⁸⁾라고 명시하듯이 효(孝)는 한중일 고대 사회 남녀모두에게 부과되는 절대적 가치였다. 이러한 유불교 문화에 근간을 둔 한중일 고대 문학 작품 속에는 지극한 효(孝)를 완성하는 길로 자살을 선택하는 여주인공들이 있었다.

조선후기 작자미상의 《심청천》의 심청은 지극한 효의 완성을 위하여 스스로 제물되기를 자청하고 인당수에 몸을 던졌으며, 그러한 그

37) 《孝經》

38) 《心地觀經》

녀의 희생(자살)은 하늘을 감동시켜, 아버지 심봉사가 눈을 뜨고 자신도 왕후가 되는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청초 포송령의 《聊齋誌異·商三官》편의 상삼관(商三官)은 작가가 중국역사상 최고의 자객이었던 예양(豫讓)³⁹, 형가(荊軻)⁴⁰와 비교하여 높이 칭송하였고 심지어 삼국시대의 관우에까지 비교하기에 이른 여주인공이다. 17, 8세의 연약한 소녀 상삼관(商三官)은 아버지가 토호의 비위를 거슬러 몰매를 맞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아 자신의 혼인을 보류하며,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고, 홀로 복수의 길로 나선다. 먼저 원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히 모색하다 남장을 하고 극단에 들어간다. 그리고 원수의 생일 연회에 남장배우로 나타나서는 웃음과 교대로 상대의 경계심을 풀게 하고는 단 칼에 복수를 완성한다. 그리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다. 관가에서 시신을 조사하던 중 상삼관(商三官)임이 밝혀지고 관가에서는 그녀의 효심을 기특히 여겨 시체를 두 오라비에게 내어 주고 아울러 ‘토호의 집안은 이 일로 다시 그녀의 두 오빠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린다. 상삼관(商三官)이 남장배우의 모습 그대로 자살하는 것은 자신의 살인죄가 가족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가특한 희생정신으로도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희생적 자살은 관부를 감동시켜 더 이상의 피의 복수를 부르지는 않게 된다. 부모의 복수를 대신하는 효심과 가특한 희생적 죽음에 대해서 작가 포송령은 그녀와 무능했던 두 오빠를 비교하고 있다.

“집안에 여자 예양(豫讓)이 있는 줄도 몰랐다니 두 오라비가 어떤 사내였는지 알만도 하다. 하지만 삼관의 인품은 길게 노래를 읊조리며 쓸쓸히 역수(易水)를 건너간 형가(荊軻)에 비겨도 무방할 것이다. 강물도 그녀에게는 부끄러워 더 이상 흐르려 들지 않을 판인데, 명청하

39) 진나라 사람으로 그의 주군 지백이 양자에게 죽임을 당하자 복수를 결심하였으나 실패하자 옷으로 몸을 칠하고 솥을 삼켜 문둥이와 병어리로 변해 다시 복수의 기회를 노리나 또 다시 실패하자 자결한다.

40) 태자단이 진시황을 죽이려고 보낸 자객으로 실패하고 죽음을 맞는다.

게 세속을 따라 부침하는 저 무능한 인간들임에라! 원컨대 온 천하의 여자들이 색실을 사 삼관의 초상을 수놓아 받들게 한다면, 그 공덕은 필시 관우를 모시는 것에 덜하지 않을 것이다.”⁴¹⁾

상삼관(商三官)을 용기와 의리의 화신으로 보고 있는 관우와 비교하는 것은 당시의 가부장사회로서는 아주 드문 평가로 그녀의 복수행위와 자살의 동기가 효(孝)에 기초하고 있기에 가능한 평가가 아닌가 한다.⁴²⁾

(2) 열(烈)의 추구를 위한 자살

봉건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덕목인 효(孝)가 남녀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가치관이라면 열(烈)은 남녀관계에서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윤리규범이었다.⁴³⁾ 특히 한중일 고대사회는 정조관념의 경직화로 말미암아 정신적 순결보다 육체적 순결이 더 강조되어 여성의 육신을 남편의 종속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은 육체적 정조를 순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되었기에 설령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순결을 더럽혔을 경우라 해도 용납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지나친 육체적 순결의 중시는 수많은 한중일 고대 여성들의 목숨을 아깝게 희생시켰다.⁴⁴⁾ 한편 가부장제의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 사회적으로 뒷받침된 열녀승상 분위기는 대량의 열녀들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나아가 국가가 주도한 다양한 《열녀전》텍스트의 대량 생산과 보급은 유교적 가부장제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여성상 수립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여성의 자살의 동기가 이러한 열(烈)에 연결될 경우에

41) 異史氏曰：“家有女豫讓而不知，則兄之爲丈夫者可知矣。然三官之爲人，即蕭蕭易水，亦將羞而不流，況碌碌與世浮沉者耶！願天下閨中人，買絲繡之，其功德當不減於奉壯繆也。” (김혜경(역), 《요재지이·상삼관》, 민음사, 2002)

42) 줄고,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복수>, 《중국학》38, 2011, 178쪽.

43)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 서울: 월인출판사, 2006, 14쪽.

44) 신혜경, 《삼언을 통해 본 명대혼인양상연구》, 숙명여대석사학위논문, 2011, 79쪽.

는 적극적으로 칭송, 권장되는 측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⁴⁵⁾

가. 남편의 임신양명

삼국시대 일연의 《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김현감호(金現感虎)》 설화 속에서도 낭군을 위하여 희생하는 호녀(虎女)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탑돌이를 하다가 발견한 아름다운 호녀의 집까지 따라온 김현은 그녀의 오라비들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다. 그 때 하늘은 오라비들이 남의 생명을 빼앗기 좋아한다는 죄목으로 그들 중 한 명을 죽여 악행을 징계하고자 한다. 그러자 호녀는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고자 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김현에게 출세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 자신이 도성에 들어가 사람들을 해치면 나라에서는 벼슬을 내걸고 호랑이를 잡는 사람을 구할 것이니, 그때 자신을 잡아 벼슬을 얻으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다음 날 호녀는 ‘김현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찢러’ 자살한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오라비들의 생명을 구하고 동시에 김현에게 출세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의 자살은 오라비들을 위한 의리의 실천이며, 동시에 사랑하는 임을 위한 희생이라는 의미를 띤다. 후에 김현이 호랑이를 처치하고 나라로부터 상금과 벼슬을 얻게 되고 김현은 절을 지어 자기를 위하여 희생한 호랑이 처녀의 명복을 빌어 준다.

일본의 《今昔物語集》제14권 5화 《爲救野干死寫法花人語(여우의 죽음을 구제하기 위해 法華經을 書寫한 사람의 이야기)》에도 여우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여 어느 무사와 하룻밤을 보내고 그 정분을 버리지 못하여 남자 대신 목숨을 내어 놓은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무사는 여우가 죽은 이후 7일마다 법화경 한 부를 공양하여 바쳤고 그 공덕으로 여우는 극락왕생하게 된다. 암여우가 남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야기는 일본 설화 속에서도 가장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전해지

45)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전여강 지음, 이정재 옮김,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서울: 예문서원, 1999년.

고 있다.

이들 여성들은 남편과 연인의 임신양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죽음에는 ‘절을 지어 명복을 빌어주고’, ‘극락왕생하는’ 행복한 결말을 선사함으로 가부장적 가치관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나. 정절보존

명왕조와 조선후기 대량으로 나온 《열녀전》 속의 열녀들은 가부장적 봉건주의 사고로 무장되어 순종과 희생만을 미덕으로만 여기던 여인들이었고 그들에게 정절은 죽음으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였다. 특히 유학자들은 정조를 여성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라고 세뇌시켰다. ‘굶어 죽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정절을 잃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다.’라는 논리로 여성들에게 강력한 족쇄를 채운다. 여성들에게 육체적 정조를 순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되었기에 정절보존은 무엇보다 중요한 여성의 덕목이며 목숨으로 지켜야 할 덕목이었다. 그리고 훼손이 자의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더욱이 타의에 의해 순결을 더럽혔을 경우라 해도 가차 없이 죽음으로 처벌하고 있다.

《金瓶梅》와 함께 성(性)을 주제로 다룬 중국 고전소설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명말청초 극작가 이어(李漁)의 《肉蒲團》에서 명문가의 자제인 미양생(未央生)은 유부녀나 과부등 가리지 않고 유혹하는 등의 업색행각을 벌인다. 하지만 과도한 업색행각 끝에 정기(精氣)를 빼앗긴 미양생이 치료 차 경성(京城)의 한 기방에서 만난 이는 다름 아닌 명기(名妓)로 변한 그의 아내 옥향(玉香)이었다. 그가 집을 떠난 사이, 미양생이 범한 유부녀의 남편이 그에게 복수하고자 의도적으로 외로운 옥향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유혹하고 나중에 기루에 팔아 넘겨 버렸던 것이다. 결국 아내 옥향은 수치심으로 목을 매 자살하고, 뒤늦게 과오를 깨우친 미양생이 불문(佛門)에 귀의한다.

풍몽룡의 《三言·莊子休鼓盆成大道》 중 장자의 아내 전씨도 남편 사

후 절대 개가하지 않겠다고 장담하지만, 갑작스러운 장자의 죽음 후 그 맹세는 물거품이 된다. 조문객 왕손(王孫)의 용모에 반해 그와 결혼하고, 그의 병을 고치려면 산 사람의 뇌를 먹어야 한다고 하자 전 남편 장자의 관을 쪼개 뇌를 꺼내려 한다. 그 순간 장자가 벌떡 일어나고, 남편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수치스러움에 목을 맨다.

일본 에도시대를 풍미했던 우키요조시(浮世草子)의 대표 작가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의 《好色五人女》⁴⁶⁾에서도 남편에게 자신의 부정이 발각되자 자살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온다. 2권 《情を入し樽屋物語》의 오센은 주인 초자에몬의 아내에게 심한 구박을 받는다. 주인의 실수로 떨어뜨린 그릇이 오센의 머리에 맞아 틀어 올린 머리가 풀어지자 이 모습을 보고 자기 남편과 정을 통했다고 생각하여 비난하자, 오센은 인내심을 잃고 욕하는 심정에 주인 초자에몬을 유혹하기로 한다. 그리고, 뜻밖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지금까지 남편밖에 몰랐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곧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고, 몰래 미리 의논하여 언젠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⁴⁷⁾

그러나 불륜 현장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수치심에 자신은 툽으로 가슴을 찢러 자살한다. 작품 말미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런데, 여자라고 하는 것은 변덕스러운 것이라서 … 인간된 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색(色)의 길이다’라고 하여 유부녀의 간통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고, ‘악한 짓을 하면 천벌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다.’라고 오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끝을 맺고 있다.⁴⁸⁾

《肉蒲團》의 옥향과 장자부인도 남편의 오랜 시간 부재 혹은 죽음

46) 編集部, 《新版 好色五人女 現代語譯付き》, (東京:角川ソフィア文庫, 2008)

47) 各別のころざし、ほどなく戀となり、しのびのびに申しかはし、いつぞのしゆびをまちける。(井原西鶴, 校注 暉峻康隆, 東明雅 『好色五人女』、『井原西鶴集1』, 小學館, 1996)

48) 이충호, 〈호색오인녀의 여성관〉, 《일본연구》2, 2002, 65쪽.

후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 결국 훼손 혹은 신의를 저버린 행동을 한 여성들이다. 또 《好色五人女》의 오센은 다른 여성의 지나친 질투심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나 여성들의 부정(不貞)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 혹은 다른 여성들에 대하여는 아무 처벌도 하지 않고 위의 여성들만 ‘부정(不貞)한 여인’이라는 수치심으로 자결하게 만들고 있다. 《肉蒲團》의 미양생처럼 유부녀를 유혹하여 모든 비극의 씨앗을 만든 그는 불가에 귀의하여 반성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한편 그와 함께 방종하였던 여성들은 용서 받지 못하고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죽음뿐이었다. 이처럼 동일한 죄에 대해서도 남성에게는 관대하고 여성에게는 가혹하였다.⁴⁹⁾ 남편의 오랜 부재, 타인의 부당한 처우, 사랑의 발견등의 요소들은 전혀 고려받지 못하고 오직 일부종사하지 못하고, 불륜을 저지른 여성에게는 일말의 허용도 없이 자살이라는 파국을 맞아야 하는 가부장제도하의 여성의 아픔을 잘 보여 주고 있다.

(3) 효(孝)와 열(烈) 동시 추구를 위한 자살

고대 한중일 사회에서 남성이 부모와 자식에서 맺어지는 효(孝)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때때로 여성은 효(孝)와 열(烈)을 동시에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나아가, 효(孝)의 측면에서도 남성의 효(孝)는 오로지 친부모와의 관계에 한정되는 것이었으나, 여성에게는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라는 새로운 효의 대상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시부모에 대한 효 또한 윤리적 모티브로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무거운 윤리적인 의무를 지우고 있다.⁵⁰⁾

조선 후기 《열녀홍씨전》⁵¹⁾의 홍씨는 남편이 죽자 시아버지의 총애

49) 송진영, <열녀전을 통해 본 악녀이미지연구>, 《중국어문학지》9, 2001, 534쪽.

50) 줄고,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복수>, 《중국학》38, 2011, 176쪽.

51) 이시선, <열녀洪氏傳>, 《松月齋集》

와 신뢰를 받으며 시집에서 살았다. 그러나 집안의 주도권과 재산에 욕심을 낸 시아버지의 첩과 시동생 내외의 정절 모함이 있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주관 앞에서 옷을 벗어 자신의 가슴과 배를 보여줌으로써 결백을 입증하고 자결하였다. 홍씨의 자결은 다른 열녀들처럼 남편 사후 절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의지에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정절을 공인받기 위해 많은 사람 앞에 옷을 벗어 결국 아기를 낳은 흔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소송은 인류의 지극한 변고로, 만약 다른 허물과 관계된 것이라면 제가 비록 수만 번 찢겨 죽더라도 즐겨 죄를 받겠나이다. 어찌 감히 시아버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억울함을 펴려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여러 악인들이 쇠도 녹이는 입으로 시아버님의 마음을 속이고 그르쳐 망극한 말을 하여 저의 몸을 욕되게 하니 누명을 벗고 죽어 황천에서 불결한 귀신 됄을 면하기를 바라나이다.⁵²⁾

자신의 정절을 의심하는 시아버지에 대해서 며느리가 소송하는 것은 당대의 절대적 규범인 ‘효’와 크게 상충하는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불효’와 벗은 몸으로 결백을 증명하는 ‘일시적인 훼손’을 감행한다. 그리고 효와 열을 동시에 범한 자신을 자결로써 처벌함으로 ‘영원한 효와 열’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홍씨가 자결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음을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신의 의지와 권리를 행사한 여성의 슬픈 결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열’의 범위는 때때로 확대되어 출가하지 않은 여성, 즉 남편이 없는 여성에게까지 확대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중일 고대사회에서는 유부녀에게는 남편을 위한 정절 보존을 요구하며, 또한 출가하지 않은 아가씨 혹은 남편이 없는 여성들에게도 가문의 체통과 가부장적 가치관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조를 지키며 여성의 도리를

52) “舅婦之訟 人倫極變 若係他累 妾雖萬萬磔死 甘心服罪 何敢抗舅自伸 而此則群姦鑠金之口 誣誤舅心 爲言罔極 扞讎妾身 茲願一瀕而死 免作泉下不潔之鬼.”
(이시선, <烈女洪氏傳>, <<松月齋集>>)

다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명의 풍몽룡의 《三言·蔡瑞虹忍辱報仇》이야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서홍이라는 여인이 오랜 세월 동안 수모를 참고 부모를 살해한 원수에게 복수하는 내용이다. 부임지로 향하던 채서홍의 가족은 진효사(陳老四) 등 일곱 명의 선원에게 모두 살해되고, 자신은 강간당하고 버려진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채서홍은 변복(卞福)의 첩이 되어 그에게 복수를 부탁하지만, 오히려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 버린다. 그 남자는 그녀를 다시 사창가에 팔아넘길 뿐만 아니라 주원(朱源)을 유혹해 사기를 치도록 한다. 하지만 주원의 훌륭한 덕행을 알아본 채서홍은 그에게 음모를 알려주고 함께 도망간다. 이후 진사에 합격해 부임지로 가던 주원은 배의 선원이 진효사인 것을 알게 되고, 채서홍의 가족을 살해했던 흉악범들을 모두 체포하여 사형판결을 받게 한다. 가슴 깊이 사무친 부모의 원수를 갚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아 있었던 채서홍은 주원에게 유서를 남기고 가위로 목을 찢러 자결한다. 그녀의 유서에서 부모의 원한을 갚기 위해 긴 세월동안 여러 남자를 거치는 모진 수모를 견뎌냈으며, 또한 여성으로서 정절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죽음을 택했음을 토로하고 있다.

“남자의 덕은 의리에 있고, 여자의 덕은 정절에 있나이다. 여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나이까! … 내가 (치욕을) 참으면서 죽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의 치욕은 작은 일이고, 가문의 원수를 갚는 것이 중대사이기 때문입니다. … 첩은 원수를 갚고 뜻을 이루었나이다! 어찌 정절을 잃고 살기를 바라며, 가문에 치욕을 남기겠나이까, 첩은 곧 죽을 것입니다.”⁵³⁾

그녀는 정절을 지키는 것을 여자의 덕목으로 보았고 부모의 복수를 위해서는 그 어떤 치욕도 감수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채서홍은 강간을 당하고, 기루에 팔리기도 하고, 짐승 같은 자들에게 유린을

53) “男德在義，女德在節。女而不節，行禽何別！……然而隱忍不死者，以爲一人之廉耻小，闔門之仇怨大。……妾之仇已雪而志以遂矣！失節貪生，貽玷闕闕，妾且就死。”馮夢龍，〈蔡瑞虹忍辱報仇〉，《醒世恒言》卷36，三秦出版社，1993，721쪽.

당하지만 마음속으로 오직 복수 하나만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딘 것이다. 그녀는 여자로서의 정절은 잃었지만 작가는 그녀의 효성과 절개를 높이 평가하면서 고금에 비할 자가 없다고 칭송한다. 황제는 그녀를 위해 절효방(節孝坊)까지 세워주도록 한다.⁵⁴⁾ 그녀의 죽음에는 자신의 문란함이나 선택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어쩔 수 없는 공격이었을 지라도, 순결을 잃은 여성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혹은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가부장적 봉건사상이 깔려있다. 너무나도 불행했던 여성이 원수를 처단함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를 힘겹게 완성하지만, 또 다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열’이라는 한층 더 강력하고 무거운 의무였다. 결국 죽음이라는 파국을 맞게 된다.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조선 후기 안석경(安錫敬)의 《雪橋漫錄》에 수록된 한문단편소설 《劍女》의 주인집 아가씨와 여종은 멸문지화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남장을 하고 복수를 도와 줄 수 있는 검객을 찾아 무공을 익히고, 보검을 마련하는 등으로 주도면밀하게 복수를 준비하였다. 이윽고 부모님의 복수를 어렵게 완성하고 난 뒤 아가씨는 여종에게 유언을 남긴 뒤 자결을 한다. 여종에게는 스스로 좋은 배우자를 찾는 자주적인 삶을 살라고 당차게 당부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결한다.

“나는 아들이 아니어서 세상에 살아남더라도 끝내 대를 잇지는 못한다. 더구나 남장으로 8년 동안 천 리를 돌아다녔으니, 몸을 더럽히지는 않았지만 어찌 처녀의 도리라고 하겠느냐. 시집을 가고 싶어도 필시 갈 곳이 없을 터이고, 시집간들 마음에 맞는 장부를 만날 수 있겠느냐. 더구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독자여서 가까운 친척이 거의 없으니, 누가 혼주(婚主)가 되겠느냐. 나는 여기에서 스스로 목을 베어 죽으련다.”⁵⁵⁾

54) 장연호, <중한송사소설의 여성형상 비교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19, 2006, 102쪽.

55) “吾非吾親之男子, 雖生存於世, 終非嗣續之重, 而男裝八歲, 方行千里, 縱不汚身於人, 寧爲處子之道乎? 欲嫁必無所售 使得售 何得稱意之丈夫哉? 且吾家單子, 絕無強近之親, 誰爲吾主婚者耶? 吾卽自刎而伏於此.” (이우성 외 편역, 《이조한문단편집·劍女》, 서울: 일조각, 1996)

아가씨는 훼손도 아닌 단지 ‘남장’과 8년 동안 ‘떠돌아다닌’ 행위에 대해서도 양반집 처녀의 법도를 어겼다고 판단한다. 이것은 여성은 집 안에서만 순결을 보장 받고 집 밖에서는 보장 받지 못한다는 당시의 사회 가치관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여염집 규수로 일탈행위인 ‘남장’을 하고 사적 복수를 완성하는 과정은 비록 부모의 복수라는 윤리적 동기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행위이지만, 결국 다시는 전통사회로 돌아 올 수 없는 ‘죽음’으로 스스로 처벌하고 있다.⁵⁶⁾

‘남존여비(男尊女卑)’, ‘부위부강(夫爲婦綱)’이 중요한 윤리적 기준으로 여겨지는 고대 한중일 가부장체제 사회에서 이러한 원칙들은 위로부터 아래로 철저히 지켜져야 했다.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여성이야말로 성숙하고 옳은 여성이며, 나아가 사회가 원하는 ‘賢婦’,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문학 작품 속에서 칭송함으로써 ‘양보와 희생’을 여성의 미덕으로 내면화, 주지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⁵⁷⁾ 때로는 자신보다 사회윤리와 가치관을 중시하는 ‘슈퍼에고형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통하여 이러한 미덕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즉 한중일 고전 문학 모두 여성의 이러한 자살은 가부장적 봉건사회적 질서에 기능적이고, 유익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3. 나가며

이상으로 자살의 동기를 여성 내부에서 찾는 정신의학적·심리학적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한중일 고전문학속의 여성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삼국의 고전문학 속 여성의 자살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삼국 모두 유교의 영향으로 사회적, 관습적, 도덕적 이념을 내면화하는 ‘슈퍼에고형 자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여성의 자살이 ‘효’와 ‘열’과

56) 줄고,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남장>, 《중국학》44, 2013, 88쪽.

57) 줄고,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질투>, 《중국학》41, 2012, 59쪽.

관련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측면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유교와 더불어 또 다른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불교의 내세관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자살’을 삶의 마지막이라고 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통과의식의 형태로 보고, ‘자살’을 통해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과 복수를 내세에서 완성할 수 있다는 의식도 지니고 있었다. 즉 봉건적 가부장체제하의 고대 여성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사랑의 완성과 내세에서의 지속’을 추구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한도 내에서 ‘질투’나 ‘분노’ 같은 사회적 금기들을 수동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 이외에도 삼국의 독특한 문화적, 지리적 배경으로 인하여 삼국은 자신만의 렌즈로 여성의 자살을 바라보고 있음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중국과 한국은 강력한 유교의 영향으로 ‘효’와 ‘열’이 강조되고 위 두 가지를 동기로 한 여성의 자살은 칭송받기까지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유독, 중국과 한국의 고전문학 속에서 많은 열녀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를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와 남성중심주의의 구축을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순응을 그 시대 여성들에게 내면화시킨 결과물이기도 하였다. 특히 명나라의 과열된 열녀숭상분위기와 조선시대 많은 전란을 거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정절을 지키고자 열녀대열에 합류하였던 점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유교적 사회윤리 가치관의 영향이 다소 느슨하였고, 더불어 중국과 한국에서 보이는 국가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전쟁이라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대량의 열녀출현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강력한 불교의 영향으로 죽음에 대한 본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남으로써 여성의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불교라는 종교 이외에도 섬으로 고립된 특수한 자연적 환경, 신도(神道)를 중심으로 한 ‘신인동형(神人同形)’사상의 영향으로 죽음 이후 신이 된다는 독특한 정신세계가 문학작품에도 깊이 뿌리내린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무사도의 영향으로 죽음을 다소 ‘가볍게’ 또는 ‘친숙

하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이를 미화하는 탐미적 수준으로 고양시키는 정서가 그 뿌리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신세계를 대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정사(情死) 열풍에 기초한 '신주(心中)'를 소재로 하는 작품들이다.

이처럼 고대 한중일 삼국 모두 가부장적인 고대봉건사회구조로 인하여 자신의 욕망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삶의 방식과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던 여성들에게 '자살'이라는 것은 오로지 유일하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권리이자 자유였다. 그들은 삶의 방식과 내용은 선택할 수 없었을지 모르나, 죽음만은 오롯이 자신의 선택일 수 있었던 것이다. 삼국의 고전문학 속에서 '죽음에 이를 권리'를 선택할 여성들은 그 시대의 눈으로 재단된 가치관의 희생자처럼 보일지 모르나, 자살을 선택한 여성, 그 자신의 심경(心鏡)으로 본다면 봉건사회의 틈을 통해 비쳤던 희미한 자유의 빛으로서의 '허용된 위험'이었으며, 그 당시 여성들이 가졌던 가장 사치스러운 이기심의 발로이기도 하였다.

<參考文獻>

- 강진옥, <상사뱀설화의 몸바꾸기를 통해 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고전문학연구》18, 2000.
- 김난주, <정사, 사랑과 죽음의 환상>, 《에로티시즘으로 읽는 일본문화》, 서울: 제이앤씨, 2013.
- 김윤경, 《송사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사건대응 양상연구》, 울산대 석사논문, 2006.
- 김종균 편역, 《중국전기소설선》, 서울: 박이정, 2005.
- 박미림, 《소네자키 신주에 나타난 근세 일본인의 사생관》,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9.
- 선정규, <중국문학에 나타난 죽음과 소생>, 《중국어문논총》42, 2009.
- 송진영, <얼페전을 통해 본 악녀이미지연구>, 《중국어문학지》9, 2001.
- 신혜경, 《삼언을 통해 본 명대혼인양상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 2011.
- 에밀 뒤르켐 지음, 황보종우 옮김, 《자살론》, 서울: 청아출판사, 2012.
- 오문희, 《삼언의 복수고사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10.
- 이경미, 〈한중일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복수〉, 《중국학》38, 2011.
- 이경미, 〈한중일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질투〉, 《중국학》41, 2012.
-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 서울: 월인출판, 2006.
- 이충호, 《호색오인녀의 여성관》, 《일본연구》2, 2002.
- 장연호, 〈중한송사소설의 여성형상 비교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19, 2006.
- 전여강 지음, 이정재 옮김,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서울: 예문서원, 1999.
- 천대진, 《삼언의 비극작품 시론》, 경상대학교 석사논문, 2011.
- 《한국구비문학대계》7-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황수연, 〈자결을 통해 본 욕망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6, 2008.
- 겔빈S. 홀, 《프로이트 심리학》, 서울: 문예출판사, 2000.
- 馮夢龍 編著, 《警世通言》, 三秦出版社, 1993.
- 馮夢龍 編著, 《醒世恒言》, 三秦出版社, 1993.
- 馮夢龍 編著, 《警世通言》, 人民文学出版社, 2007.
- 易中天, 《中國的男人和女人》,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3.
- 馬場あき子, 《鬼の研究》, 東京: 三一書房, 1971.
- 森修·鳥越文藏 外, 『近松門左衛門集1四十三』, 小学館, 1979.
- 松田修 校注, 《新日本古典文学大系75·伽婢子》, 日本: 岩波書店, 2001.
- 井原西鶴 校注, 暉峻康隆, 東明雅 『好色五人女』、 『井原西鶴集1』, 小学館, 1996.
- 中寸幸彦, 《日本古典文学大系56·上田秋成集》, 日本: 岩波書店, 1959.
- 編輯部, 《新版好色五人女 現代語譯付き》, 東京: 角川ソフィア文庫, 2008.

<中文提要>

本论文主要以韩中日古代文学作品中出现的女性自杀现象为主题，分析了女性决心自杀的动机、展开、以及结果。本文以弗洛伊德(Sigmund Freud)精神分析理论中的人类三种意识，描述了古代韩中日文学作品中女性自杀行为：一，本我型(Id)，自我型(Ego)，超我型(Super- Ego)。通过这三种类型，对女性的自杀行为进行了分析，并对其内心反应出的社会的认识和当时的女性观进行了剖析。

我们发现，三个国家古代文学中女性自杀的行为有以下共同点。三国古代女性在‘女性自杀’的展开过程中，如以社会共同认同的儒家伦理道德‘孝’和‘烈’为动机，就得到全社会的肯定和支持，而且受了佛教的‘轮回转生’、‘因果报应’的观念，通过‘自杀行为’寄托她们的梦想和理想。

但是，因三个国家文化背景的不同，也存在一些差异性。韩国和中国，特别到了明朝，李朝时期甚至带有国家鼓励‘女性自杀’的色彩。不同于中国和韩国，日本尚死的文化又形成了日本人独特的生死观。而日本人独特的生死观又促成了女性自杀情节。

结果，儒道佛家为思想背景的男尊女卑的韩中日旧社会里，以社会认同的伦理动机为出口，‘自杀行为’给女性留下了个人自由权利的余地，同时成为唯一女性自己选择的权利。

关键词：女性，自杀，韩中日，古代文学，比较文学，弗洛伊德(Sigmund Freud)

투 고 일 : 2014.2.22

심 사 일 : 2014.3.3~3.31

게재확정일 : 2014.4.20

상하이와 홍콩의 도시성격과 할리우드 수용* - 장아이링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

곽수경**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올드상하이와 홍콩, 그리고 할리우드영화
 - 1) 중서 융합의 이민도시
 - 2) 올드상하이와 홍콩의 할리우드 수용
3. 장아이링의 시나리오와 할리우드
 - 1) 장아이링과 코미디
 - 2) 장아이링 시나리오의 특징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영화는 유럽에서 탄생했지만 그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주력하는 사이 미국이 발 빠르게 그 틈새를 비집고 성장하여 오늘날까지 세계영화 시장을 점령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할리우드영화는 올드상하이를 중심으로 영화작품, 배급과 상영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당시 카이펑(開封), 타이위안(太原), 청두(成都),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A00627]

(여러 차례 자문에 응해주고 자료를 소개해주었으며 장아이링의 영화를 볼 수 있게 도와준 홍콩영화자료관의 蒲鋒 연구주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강사 (525ksk@hanmail.net)

지난(濟南) 등과 같은 내륙 도시들에서는 할리우드영화가 그다지 환영 받지 못했던 것을 보면 할리우드의 수용은 그 수용주체의 성격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상하이와 홍콩은 한 곳은 열강들의 조계지로서, 또 한 곳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고속성장 속에서 외래문화를 적극 수용했는데, 그 한 예로 할리우드영화의 수용을 들 수 있다. 그들은 할리우드영화 관람을 모던한 행위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서구식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주입받고 동경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영화 역시 상업적 이윤 추구라는 궁극의 목표 하에 할리우드식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크게 유행했다. 각지에서 몰려들어 상하이와 홍콩을 구성하고 있던 많은 이민자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꿈의 공장’이라고 일컬어졌던 할리우드영화에 열광했다.

1940년대에 상하이 문단에 혜성같이 나타나 소설로 주목을 받았던 장아이링은¹⁾ 항일전쟁의 종결과 더불어 남편 후란청(胡蘭成)의 친일행적으로 인해 매국노로 낙인이 찍히고 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더 이상 창작 활동이 힘들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시나리오 〈끝없는 사랑不了情〉과 〈아줌마 만세太太萬歲〉로 창작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이후 대륙을 탈출하여 미국에서 정착하면서 1950~1960년대에는 홍콩의 영화사에 여러 편의 시나리오를 써주었다.²⁾ 그것들은 대부분 흥행에 크게 성공하고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것들

1) 1943년에서 1944년에 이르는 약 2년간은 장아이링이 가장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했던 시기로,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대표작들을 쏟아냈는데, 소설집 《전기傳奇》와 《유언流言》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출판한 지 나흘 만에 완판되었으며 일시에 뤼양(洛陽)의 종이 값이 오르는 기현상을 연출했다.(于青, 〈張愛玲傳略〉, 《張愛玲文集》第4卷(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94), 459쪽.

2) 장아이링은 1946년에 첫 번째 시나리오 〈끝없는 사랑〉을, 1947년에 〈아줌마 만세〉를 창작했다. 미국에 정착한 후에는 생활비와 재혼한 남편 레이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홍콩의 테마오영화사(香港國際電影懋業公司)에 시나리오 〈사랑은 전쟁처럼情場如戰場〉(1957), 〈사람과 부를 얻다人財兩得〉(1958), 〈애정운桃花運〉(1959), 〈유월의 신부六月新娘〉(1960), 〈남북은 한 가족南北一家親〉(1962), 〈어린 자녀小兒女〉(1963), 〈잊을 수 없는 노래一曲難忘〉(1964), 〈남북의 기쁜 만남南北喜相逢〉(1964)을 써주었다.

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보다도 장아이링이 관객의 기호를 잘 파악하고 상업적 노선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할리우드 차용이라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그녀가 소설을 창작할 때와는 판이한 책략으로, 그녀는 어려서부터 영화마니아였고 영화평론을 쓰는 등 영화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장하고 생활했던 상하이와 홍콩이라는 도시의 특성과 관객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아이링의 시나리오를 통해 올드상하이와 홍콩이라는 도시의 성격과 그들과 할리우드의 공생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드상하이와 홍콩의 다양한 도시성격 중에서 그들이 할리우드영화에 열광하게 된 토대이자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서융합의 이민도시의 면모와 할리우드의 수용양태를 살피고 그것의 구체적인 구현형태로서의 장아이링 시나리오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올드상하이와 홍콩, 그리고 할리우드영화

1) 중서 융합의 이민도시

상하이와 홍콩이라는 이름에는 일반적으로 무역도시, 금융도시, 소비도시, 근대공업도시, 상업도시, 국제도시, 이민도시와 같은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토대는 상하이는 조계지 건설,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상하이는 아편전쟁 이후 개항과 더불어 성장한 도시로, 개항 전에는 인구 3천 명에 불과한 작은 어촌이었다. 하지만 서구 열강들은 개항 초기부터 상하이가 가지고 있던 사통팔달의 지리적 이점에 주목했고 그 결과 개항장들 중에서도 상하이에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넓은 조계지를 건설했는데 그 과정 또한 순조로웠다. 영국이 1843년 처음으로 상하이에 조계를 형성한 후로 1848년에는 미국, 1849년에는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으며 1863년에 영국과 미국이 공공 조계지를 형성했다. 이들 조계지의 면적은 “이후 형성된 전국 23개 조계지를 합친 총면적의 1.5배나 되는 거대한 규모였다.”³⁾ 반면 상하이 이외의 나머지 개항장 중에서 광주의 경우에는 외세에 대한 저항이 강해서 1861년에야 독립적인 사면(沙面)조계지가 형성되어 영국과 프랑스 조계지가 들어섰고, 샤먼(廈門)은 1862년 영국이 사면조계지보다 더 좁은 면적에 조계지를 수립했다가 1903년에야 구랑위(鼓浪嶼)에 별도로 공공 조계지를 형성했다. 푸저우(福州)와 Ningbo(寧波)에는 조계지가 형성되지 못한 채 외국인 거류 구역만 지정되었다.⁴⁾ 이런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상하이에서 조계의 역할은 남달랐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조계지의 건설로 상하이는 새로운 통상항으로 급부상하여 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산을 흡수하며 눈부신 번영을 이루어나갔다. 그리하여 상하이의 인구는 1910년 128만 9000명, 1927년 264만 1000명, 1935년 370만 명, 1949년 506만 3000명으로 증가했고, 외국인 거주자 수도 1900년 7400명, 1920년 2만 7000명, 1930년 5만 8000명, 1949년에는 15만 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본적이 상하이인 경우는 30 퍼센트 정도였고, 조계 지역의 경우에는 가장 많았을 때도 22퍼센트가 되지 않았으며, 외국인의 국적 또한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인도, 포르투갈,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멕시코,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베트남 등 수십 개 나라를 헤아렸다.⁵⁾ 이러한 인구수의 급격한 증가와 다양한 인구구성은 상하이의 번영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이자 상하이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것

3) 김능우 외, 《중국 개항도시를 걷다-소통과 충돌의 공간, 광주에서 상해까지》(서울: 현암사, 2013), 13쪽.

4) 김능우 외, 앞의 책, 11쪽 참고.

5) 양동평 저, 장영권 역, 《중국의 두 얼굴 : 영원한 라이벌, 베이징 vs 상하이 두 도시 이야기》(서울: 펜타그램, 2008), 71쪽 참고.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상하이의 인구구성은 1910년경에도 이미 “전체 상하이 인구 130여만 명 중 75%가 이주민일 정도로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었고 이들이 광범위한 도시 하층민을 형성했다”고 한다. (전인갑, 《20세기 전반기 상해사회의 지역주의와 노동자》(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37쪽 각주 40)

이기도 하다. 바로 이처럼 상하이가 많은 이민자와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진 사회였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그것을 적극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상하이의 특징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홍콩에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홍콩 역시 아편전쟁 이후 영국에 할양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작은 항구에 불과했지만, 개항 이후 서구(영국)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성장했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대륙에서 건너온 이주민으로 구성된 사회로서⁶⁾ 이후 자유항이라는 지위를 통해 세계적인 중개무역항으로 성장하면서 국제도시, 금융도시, 소비도시로서의 면모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하이와 다른 점은 상하이가 개항 초기부터 서구 열강들의 주목을 받고 주변의 발달한 도시들을 제치고 독보적으로 발전했으며 크게는 서양과 중국의 동거, 좀 더 세분화한다면 프랑스, 영국, 미국을 위주로 한 수십여 개국의 인종과 중국의 다양한 지역과 계층사람들이 잡거했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성격을 형성한 데 반해,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적 관습을 농후하게 이식받았으면서도 중국인에 대한 영국의 차별로 인해 1967년 반영폭동 이전까지 영국에 대한 반감이 심했다가⁷⁾ 문화대혁명에 대한 두려움과 정치적 이유로 홍콩으로 건너온 대륙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토에 대한 거부감에 따른 서구 지향성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상하이가 개항 초기부터 발 빠르게 변영의 길을 걸었던 것에 비해 홍콩의 진정한 발전은 1940년대 이후 상하이의 몰락으로부터라고

6) 영국에 정식 할양되기 1년 전인 1841년 홍콩의 인구는 5,650명이었는데 1941년에는 163만 9,337명이었으며 이들 절대 다수는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장정아, <홍콩인: '국제도시의 시민'에서 '국민'으로> (김광익 외 지음, 《종족과 민족-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서울: 아카넷, 2005), 303쪽 참고)

7) 영국 할양 당시 광둥지역에는 영국인에 대한 반감이 강했고 이후에도 홍콩에서는 유럽인의 사회클립에 중국인이 갈 수 없었으며 거주지역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영국은 중국인에 대해 폐쇄적이었고 홍콩에서 중국인의 위상도 높지 못했다. (박혁순, <홍콩인 사회의 생성과 변화> (임춘성 외, 《홍콩과 홍콩인의 정체성》)(서울: 학연문화사, 2006), 42-43쪽 참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상하이 점령과 대륙의 공산화로 인해 수많은 본토인들이 홍콩으로 이주하여, “1945~1950년 사이에 홍콩 인구는 60만에서 180만으로 증가했다. 1953~1961년에는 240만에서 320만으로”⁸⁾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상하이인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런 사정과 더불어 홍콩에 있어서 이들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 인용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정말로 홍콩 이민의 주축을 이룬 자들은 상하이인들이다. 그들은 국민당의 심복인 ‘자본주의자’들로서, 산업과 금융 분야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고, ‘동양의 파리’라고 불린 상하이에서 중산층을 이루고 있었다. 홍위병에 의해 재산을 빼앗긴 그들은 현재와 같은 홍콩의 출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들 중에는 자딘-메디슨사, 스와이어사, 홍콩 상하이 은행 등 아편 전쟁 당시부터 번영해온 몇몇 대규모 항(行:商會라는 뜻)의 지도자들과 ‘1997년 이후’의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인 등 쯤화(東建華)의 부친처럼 악운을 쫓고 새 운명을 개척하길 열망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역할에 머물던 홍콩은 이들의 추진력에 힘입어 1950년부터 산업의 중심지로 활약한다.⁹⁾

이처럼 홍콩의 진정한 발전은 상하이에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었으며 상하이로부터 홍콩으로 피난한 이들은 상하이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이들은 홍콩에서 올드상하이를 재현하고자 했다.

2) 올드상하이와 홍콩의 할리우드 수용

상황1) 1935년 미국 본토에서 제작된 영화는 343편이었는데 중국에 수입된 미국영화는 364편이었다.¹⁰⁾

8) 드니 이요 저, 김주경 역, 《홍콩: 중국과의 해후》(서울: 시공사, 1998), 44쪽.

9) 드니 이요 저, 김주경 역, 앞의 책, 45쪽.

10) 여기에서는 상하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하이 등 극히 일부 대도시를 통해서 영화가 다른 지역으로 보급되었으며 이 시기 중국영화란 곧 상하이영화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상하이의 상황으로 이해해도

상황2) 미국의 8대영화사가 모두 상하이에 배급기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영화는 빠른 속도로 상하이로 들어왔다. 보통은 미국에서 상영된 지 2주일 만에 상하이에서 상영되었는데 아무리 늦어도 6개월을 넘지 않았고 거의 미국과 상하이에서 동시에 상영된 것도 있었다.¹¹⁾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상황에 의거했을 때, 비록 특정 시기이기는 하지만 상하이에서 미국 본토보다 21편이나 많은 미국영화가 상영되어 미국인들보다 상하이사람들이 더 많이 할리우드영화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필름을 가져다날라야 했던 시대에 상하이에서 미국과 거의 동시에 할리우드영화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무리가 없을 것이다. 상하이에서 할리우드영화가 어느 정도로 상영되었는지를 통해 그 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6년 중국에서 상영된 외국영화 450편중에서 90%, 즉 400편 정도가 미국에서 제작된 것이었다. …… 1934년 중국에서 상영된 외국영화 412편중에서 364편이 미국영화로, 수입영화의 88%를 차지했다. 364라는 이 숫자는 할리우드가 그 해 생산한 장편 극영화의 전체 숫자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楊遠嬰 主編, 《中國電影專業史研究》(北京: 中國電影出版社, 2006), 515쪽 참고)

1930년대에 상하이에서 상영된 영화편수의 약 85%가 할리우드영화였다. 1933년에는 중국영화시장에 수입된 외국영화 421편중에서 미국영화가 309편에 달했고 항일전쟁 이전에 미국영화 수입이 가장 많았던 1934년에는 수입된 외국영화 407편중에서 할리우드영화가 345편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영화는 다시 중국영화시장으로 밀려들어 1945년 8월부터 1949년 5월까지 4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상하이 한 곳에 수입된 미국영화가 이미 1896편에 달했으며 거의 상하이 개봉영화관에서 독점했다. (周星, 《中國電影藝術史》(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124쪽 참고)

1933년과 1934년 미국에서 수입한 극영화는 각각 309편과 345편이었는데, 이 2년간 중국 극영화 생산량의 4배 정도였다. 1933년 상하이의 영화관 37곳 중에서 19곳이 주로 미국영화를 상영했다.” …… “1930년대 상하이에서 방영한 영화의 약 85%가 미국영화였다. (顏純鈞 主編, 《中國電影比較研究》, (北京: 中國電影出版社, 2000), 86쪽과 89쪽)

1946년 상하이 ‘개봉관’에서 상영된 장편극영화 383편중에서 중국영화는 13편으로 3.4%를 차지했고 영국영화가 15편으로 3.9%, 소련영화가 3편으로 1%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영화는 352편에 달해 92%를 차지했다. (沈芸, 《中國電影產業史》(北京: 中國電影出版社, 2005), 129쪽)

11) 〈上海影戲院內幕種種〉, 《電影周刊》44(1939.7.12)(姜珩, 〈20世紀30年代上海電影院與社會文化〉, 《學術月刊》11(2002), 68쪽에서 재인용).

없다. 이것은 그만큼 미국영화업자들이 상하이에 공격적으로 영화를 배급, 상영했다는 말이며, 그만큼 상하이에서 할리우드영화의 수요가 컸고 호황을 누렸다는 말이기도 하다.

1986년 8월 상하이에서 중국 최초로 (프랑스)영화가 소개된 후 약 1년 뒤인 1897년 7월에 상하이에 정식으로 모습을 나타냈던 미국영화는 비록 출발은 유럽영화보다 늦었지만 빠른 속도로 상하이영화시장을 점령해나가기 시작했다.¹²⁾ 결국 상하이사람들은 할리우드영화에 환호했고 상하이는 미국영화의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서 “홍행 수입이 전국 총액의 35~50%를 차지”¹³⁾할 정도가 되었다. 할리우드가 상하이에서 촬영이나 배급, 상영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며 정성을 기울였던 것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상하이가 가지고 있는 할리우드영화의 소비지로서의 적합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상하이에서 초기 영화관 건립은 주로 외국인의 투자로 이루어졌는데, 1908년 스페인 영화방영상인 안.레마스(A.Ramos)에 의해 중국 최초의 정식영화관인 홍커우활동영희원(虹口活動影戲園)이 세워졌다.¹⁴⁾ “1920년대부터 상하이에 영화관이 대규모로 세워지고 새 단장을 하기 시작했고 1930년대에는 최고조에 달했다.”¹⁵⁾ “1923년부터 1939년까지 상하이 전체에 영화관이 50여 곳이 세워졌는데, 그 중 1928~1932년 사이에만 28곳이 생겼다. 상하이의 영화시장은 갈수록 확장되어 웅장한 규모나 수적으로도 이미 전국 각지를 훨씬 앞질렀다.”¹⁶⁾ 당시 영화관에는 등급이 있어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보통 3단계로

12) 1897년에 미국 영화 상인 양손(Youngson)이 상하이에 와서 덴화차집(天華茶園), 치위안(奇園), 통칭차집(同慶茶園) 등에서 영화를 상영했다. (程季華, 《中國電影發展史》第1卷(北京: 中國電影出版社, 1963), 8쪽) 이때 상하이에 와서 영화를 상영했던 인물이 미국인 제임스 리칼튼이었다는 주장도 있다.(배경환 역음, 《20세기초 상해인의 생활과 근대성》(서울: 지식산업사, 2006), 225쪽)

13) 楊遠嬰 主編, 앞의 책, 519쪽.

14) 陳文平·蔡繼福 編著, 《上海電影100年》(上海: 上海文化出版社, 2007), 8쪽 참고.

15) 姜玢, 앞의 글, 67쪽.

16) 陳文平·蔡繼福 編著, 앞의 책, 112쪽.

나뉘어져 있었고 그 밖에도 4~5단계의 순서로 빈민가에서도 상영이 되었다. 화려하고 선진설비가 갖추어진 고급영화관에서는 외국인이나 상류층 중국인이 영화를 관람했으며 주로 주요오락장으로 활용되던 작은 영화관에서는 하층민들이 저렴한 관람료로 횡수에 제한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면서 1930년대 상하이에서 영화가 다른 어떤 매체보다 먼저 대중문화로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스크린의 패자였던 할리우드영화와 할리우드식 중국영화는 관객들에게 유쾌함과 자극과 ‘꿈’을 선사하며 그들 각자를 만족시켜 주었다.

이런 상황은 상하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1940년대 이후로 상하이로부터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1950~1960년대 홍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홍콩은 줄곧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문화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서구적인 생활과 가치관에 크게 지배되고 있었다. 당시 홍콩은 경제 발전기에 처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정부의 교육, 복리, 주택 등의 문제에 대한 불만이 만연해 있었다. 상하이에서 홍콩으로 남하한 사람들은 조계 상하이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새로운 세대는 식민지라는 토양에서 성장하면서 서구 지향적 가치관을 형성했다. 그들은 영화를 통해 자신들의 그런 성향을 만족시키고 현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잠시나마 현실을 망각하고 낭만과 웃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부합하는 것은 역시 할리우드(식)영화였던 것이다.

특히 홍콩영화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1949~1966년까지를 홍콩영화의 황금기, 혹은 번영기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 동안 4천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으며, 연평균 200여 편, 어떤 해는 300여 편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이때까지 홍콩영화는 대륙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양적으로, 그리고 주제나 영화 서사방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올드상하이 영화의 창작패턴을 뛰어넘지 못했다. 주로 창청(長城), 평황(鳳凰), 신련(新聯) 세 영화제작사가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영화사들을 대표하며 현실을 반영한 영화들을 제작했지만 상업적 이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홍콩과 해외 화교들의 오락적 요구에 맞춰 영화를 제작했다. 홍콩

영화는 상업적 노선을 쫓았고, 영화 제작의 궁극적 목표는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되었다. 이는 특히 정치와 무관했던 홍콩, 경제만을 추구했던 홍콩의 사회성격과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홍콩영화의 상업성은 1960년대 후반기부터 홍콩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는데, “홍콩은 홍콩인의 홍콩”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생겨났고, 영화도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따라 변모하면서 영화제작은 전적으로 경제적 행위로 인식되었다. 영화의 교화적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락적 기능에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공포 영화나 무협영화, 코미디영화가 본격적으로 쏟아졌다.¹⁷⁾ 이런 상업적 오락영화로 대표되기는 했지만 대륙이 사회주의를 거치면서 문화대혁명에 휩싸여 이전 시기 이룩해놓았던 상하이영화의 번영을 깡그리 상실하는 동안 홍콩은 독자적으로 ‘홍콩영화’를 탄생시키며 번영을 이루게 되었고 홍콩영화의 이런 성격은 할리우드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3. 장아이링의 시나리오와 할리우드

장아이링의 소설을 읽었던 독자라면 처음 그녀의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 대부분 크게 당황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양자의 풍격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장아이링은 영화는 소설과 장르적 특징도 다르고 많은 제작비가 필요하므로 관객의 기호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했고, 그 해답을 할리우드 영화에서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장아이링의 시나리오는 할리우드 영화와 유사한 내용이거나 아예 할리우드 작품을 각색한 경우도 많은데, 이는 특히 홍콩시절의 시나리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할리우드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무엇보다도 그녀가 주로 코미디 장르를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장아이링의 시나리오에 대해 혹자는 현실적 코미디(Realistic Comedy)와 도시낭만적 코미디(Urban Romantic Comedy)의 측면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후자의 경우 1930~1940년대 할리우드의 스크루볼 코

17) 周星, 앞의 책, 400쪽 참고.

미디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¹⁸⁾ 여기에서는 먼저 코미디에 대한 장아이링의 인식을 살펴본 후, 그녀가 대륙에서 썼던 〈아줌마 만세〉와 홍콩덴마오영화사에 써준 시나리오 중에서 그녀의 시나리오 풍격을 대표하는 〈사랑은 전쟁처럼〉과 〈남북은 한 가족〉을 대상으로 장아이링 시나리오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¹⁹⁾

1) 장아이링과 코미디

세계 최초의 영화작품 중 하나였던 〈물 뿌리는 정원사〉는 코미디의 효시가 되는 작품이다. 코미디가 영화 장르로서 최초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영화가 상업적이고 오락적인 산업이라는 속성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즉 영화를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는 관객의 요구와 최대한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어 상업적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논리가 코미디 장르에서 가장 행복한 결합을 이루는 것이다. “영화는 초기부터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때문에 만약 시장(관객)이 외면하면 위험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도박성이 큰 사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화 제작자는 관객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서 재미를 찾는가, 어떤 작품에 관객이 물리고 어떤 작품이 흥행에 실패하는가 등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이 발견한 첫 번째는 역시 재미와 오락을 위해서는 다양한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코미디 계열의 작품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영화적 구문법이나 다른 기술의 완성도가 미미한 실정에서 상대적으로 관객의 반응이 좋았던 장르가 바로 코미디였다. 내용이 재미있으면 관객들은

18) 劉澍·王綱, 《張愛玲的光影空間》(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8), 89-92쪽 참고.

19) 〈아줌마 만세〉는 1947년 12월 엄청난 폭설이 내린 날에도 관객이 몰려드는 기현상을 보였고 할리우드영화를 물리치고 그 해 상하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사랑은 전쟁처럼〉은 Max Shulman의 무대극 〈The Tender Trap〉을 각색한 작품으로 의상, 장소, 인물들의 행동양식 등 모든 요소에 있어서 서구화경향이 농후하다. 51일간 상영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1957년 타이베이에서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 〈남북은 한 가족〉은 〈남북의 기쁜 만남〉과 더불어 홍콩에서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던 〈남북화〉의 후속작으로 덴마오영화사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작품이다.

그 내용에 심취해 다른 배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²⁰⁾

코미디 중에서도 슬랩스틱 코미디는 “관습화된 연기를 담은 이미지만으로 서사적 전개와 완성에 이르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었고, 예술적으로도 자체 충족적이었기”²¹⁾ 때문에 무성영화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여 무성영화시기에 대표적인 장르로서 즐거움을 선사했다. 하지만 1927년 〈재즈 싱어〉를 시작으로 영화가 소리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슬랩스틱 코미디는 명맥이 끊길 정도가 되고 그것을 대신한 것이 스크루볼 코미디(screwball comedy)였는데, 중국에서는 1940년대에 바로 장아이링 같은 작가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다.

장아이링은 일찍이 여러 편의 영화평론을 쓴 바 있는데, 그녀의 영화평론에서 가장 독창적인 점이 바로 코미디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런 인식은 시나리오 창작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결국 그녀가 중요한 코미디작가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코미디작품은 깊이를 가지게 되었다. 일찍이 장아이링이 〈가을 노래秋歌〉와 〈검은 구름이 달을 가리다烏雲蓋月〉를 평할 때 언급했다고 하는 바를 통해 코미디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²²⁾

일반 관객은 또 결국 비극이나 풍자가 아니면 영화는 깊이나 의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미디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코미디는 제대로 찍기가 힘들다는 것이 역시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지금의 관객은 코미디를 무시하지만 ‘웃음’이라는 이 천성을 억누를 수가 없다보니 당연히 비극 안에도 과도하게 희비(喜悲) 양극단에서 허둥거리는 모습을 드러낸다..... 똑 같은 희비의 결합이 〈검은 구름이 달을 가리다〉에서도 나타나지만 효과는 대단히 다르다. 이 영화의 코믹함은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서 비극이 단지 우연한 사건(코미디는 기본적으로 모두 제멋대로이고 즉각적이다)임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20) 서정남, 《할리우드영화의 모든 것》(서울: 이론과 실천, 2009), 380쪽.

21) 서정남, 앞의 책, 99쪽.

22) 劉澍·王綱, 앞의 책, 47쪽 참고.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극이 코미디보다 훨씬 깊이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코미디가 적기 때문으로, 그만큼 코미디를 제대로 만들기가 어려우며 단순히 억지웃음을 자아내는 것은 진정한 코미디가 아니다. 웃음은 감출 수 없는 인간의 본성으로, 진정한 코미디는 웃음 속에 감동이 있으면서도 인위적이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비극보다 코미디가 훨씬 만들기가 어렵고 차원이 더 높다는 것이 코미디에 대한 장아이링의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코미디에 대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장아이링은 실지로 시나리오를 창작할 때 코미디 장르를 선호했다. 소설에서 쓸쓸하고 처량한 분위기의 비극을 주로 썼던 것과 달리 영화에서는 이처럼 완전히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은 그녀 자신이 코미디의 진정한 의미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지만 영화의 오락적 기능과 상업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당시 내륙의 관객들이 진지한 영화를 좋아했던 것과 달리 올드상하이와 홍콩의 관객들은 코미디를 선호했다는 점에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2) 장아이링 시나리오의 특징

장아이링의 시나리오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해프닝, 위트와 속도감 있는 대사, 사회적 계급간의 화해와 대통합이라는 해피엔딩 등과 같은 스크루볼 코미디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한편 그녀의 시나리오에는 유쾌한 웃음 이면에 현실의 애환이 깃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말이 명쾌하지만은 않은데, 이런 점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아이링의 시나리오를 현실적 코미디라고 명명하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거짓말로 인해 발생하는 해프닝, 애환이 담긴 웃음과 해피엔딩이라는 두 측면을 통해 각각 장아이링 시나리오의 대표적인 형식적,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거짓말로 인한 해프닝

장아이랑의 시나리오에는 스크루볼 코미디라는 형식적 특징에 걸맞게 다양한 해프닝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곧 거짓말이다. 〈아줌마 만세〉와 〈사랑은 전쟁처럼〉, 〈남북은 한 가족〉은 이야기의 구조나 인물들의 관계, 사건의 전개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데, 〈남북은 한 가족〉과 〈사랑은 전쟁처럼〉은 〈아줌마 만세〉의 님은플로서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줌마 만세〉에서 영리한 중산층 가정주부인 천쓰진(陳思珍)은 가족의 화목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주 거짓말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며 해프닝이 벌어진다. 그녀는 가정부가 그릇을 깨뜨리자 시모가 불길하다고 생각할까봐 거짓말을 하지만 깨진 그릇 조각들을 이리저리 감추다가 결국 들킨다. 타이완에서 돌아온 남동생에게 시모가 좋아하는 파인애플을 타이완에서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지만 과일가게에서 파인애플을 사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던 상대가 바로 그녀의 시누이로 밝혀진다. 시모에게 숨겨둔 재산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정아버지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을 빌리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부친이 돈을 돌려받으러 오면서 들통이 난다. 홍콩에 간 아들을 걱정하는 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가 배를 타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배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또 다시 사실이 밝혀진다. 이처럼 계속되는 쓰진의 거짓말은 갖가지 해프닝을 일으키며 이야기를 끌어가는 한편 그녀의 거짓말이 모두 가정의 평화와 가족 간의 화목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객들은 유쾌한 웃음과 함께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를 지지하게 된다.

〈사랑은 전쟁처럼〉에서도 인물들 간의 거짓말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얽히고 얽치락뒤치락 하면서 많은 해프닝이 일어난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타오원빙(陶文炳)은 웨이팡(緯芳)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친구 스룽

성(史榕生)에게서 빌린 별장으로 그녀를 데려간다. 타오원빙은 그것을 자신의 별장이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사실 그곳은 웨이광의 별장이다. 타오원빙은 처음 가본 별장의 구조를 알지 못해 찢찢 맨다. 거실인줄 알고 문을 연 곳은 옷장이고 피아노 위에 놓여 있는 웨이광의 부모님 사진을 자기 부모님 사진이라고 둘러댄다. 수영장에서는 스위치를 찾지 못해 헤매다가 물속에 빠지기도 한다. 한편 웨이광은 타오원빙과 허치화(何啓華)에게 각각 그들을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두 사람은 주먹다짐까지 한다. 하지만 웨이광의 거짓말은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스톱성의 질투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진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거짓말은 상류층 인물들의 허영심과 허상을 빚댄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이것이 그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 서투르기 때문이며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몸부림이라는 점에서 연민을 느끼게 한다.

〈남북은 한 가족〉 역시 〈사랑은 전쟁처럼〉과 마찬가지로 헤프닝의 연속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서 헤프닝을 일으키는 장치는 홍콩 사람인 선징빙(沈敬炳)과 대륙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리스푸(李世普)의 대립과 그들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한 그들의 자녀 칭윈(淸文)과 만링(曼玲)의 거짓말이다. 선징빙의 식당에서 음식 값을 두고 실랑이를 하던 리스푸는 말다툼 끝에 선징빙의 식당 맞은편에 식당을 차린다. 마주보며 식당을 경영하게 된 두 사람은 매번 기싸움을 벌인다. 리스푸가 선징빙의 단체손님을 가로채자 선징빙은 리스푸가 마련한 공짜 맥주 사은행사에 사람들을 동원하여 손해를 입힌다. 상견례를 하기로 한 식당에서는 실랑이 끝에 육박전까지 벌인다. 어쩔 수 없이 자녀의 결혼을 허락하게 된 두 사람은 각각 예단과 예물 문제로 역지를 부리며 또 다시 다툰다. 한편 선징빙은 머느리는 반드시 홍콩 사람이기를 고집하고 리스푸는 사위가 홍콩 사람만 아니면 된다고 하여 그들의 자녀인 칭윈과 만링은 부모님을 속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만링은 선징빙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게에서 가져온 과일 애플 파이를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선징빙이 요리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만링은 몰래 숨기고 있던 요리책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선징빙에게 좋은 점수를 얻는다. 하지만 표준어를 잘 하지 못하는 칭윈은 리스푸 앞에서 긴장한 탓에 더욱 실수를 하여 홍콩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키지만 위생국 직원이라는 사실 덕에 리스푸가 받아들여기로 한다. 하지만 선징빙과 리스푸는 서로 사돈이 될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다시 그들의 결혼을 반대한다. 이에 대해 칭윈의 여동생인 페이밍(佩明)과 만링의 오빠 환상(煥襄)이 공조하여 칭윈과 만링이 야반도주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흘린 끝에 마침내 결혼 승낙을 받는다.

이처럼 장아이링의 시나리오에서 인물들의 대립과 거짓말이라는 장치는 영화를 이끌어가는 동력이자 이야기에 활력과 유쾌함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인물들이 하는 거짓말은 원만한 가정과 그들의 행복, 사랑의 완성을 위한 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에 관객들도 그것을 유쾌하게 수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애환이 담긴 웃음과 해피엔딩

일반적으로 비극적 결말이 더욱 큰 여운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좋아하고 만족도가 크다고 한다. “해피엔드는 관객을 집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관객을 만족스럽게 해주어, 관객이 영화관으로 다시 올 수 있게 해준다. 미국에서 행해진 모든 연구가 대중은 행복한 결말을 선호한다고 증명해 주었다.”²³⁾ 이것은 보통의 관객들은 자신과 영화의 주인공을 동일시하게 되는데 해피엔딩은 그들이 바라던 것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을 얻기 때

23) 자클린 나카시 저, 최은영 역, 《고전 할리우드 영화》(서울: 동문선, 2004), 185쪽.

문일 것이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일찍이 미국정부의 무역보고서에서도 “중국에서 미국 영화는 그 어떤 국가의 영화보다 중국인의 사랑을 받는다. 미국 영화의 화려한 걸치장과 교묘한 연출과 기술 말고도, 중국인들은 또한 많은 유럽영화의 비극적인 결말과 대조를 이루는 대다수 우리 영화의 결말인 ‘영원한 행복’과 ‘권선징악’을 좋아한다”²⁴⁾고 밝힌 바 있다.

장아이링의 시나리오에는 대부분 코미디 장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피엔딩이다. 하지만 장아이링의 시나리오가 만들어내는 웃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지 않은 현실의 고달픔과 그로 인한 눈물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아이링의 시나리오에서 웃음이라는 코드 속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현실의 문제점들은 작품에 무게감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해피엔딩 역시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게 한다.

〈아줌마 만세〉의 주인공 천쓰전은 그다지 능력도 없으면서 회재불우하다고 불평하는 남편과 쉽지 않은 시어머니에, 시누이까지 다독이며 가정을 꾸려나간다. 그녀는 평온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보통의 주부들이 그러하듯이 그녀의 노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심지어 남편은 바람까지 나서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한다. 영화는 천쓰전이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지만 결국 이혼을 철회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들이 가정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영화는 일단 해피엔딩이다. 하지만 이후의 쓰전의 일상은 그다지 변함이 없을 것이며 그녀도 그것을 잘 알기에 그녀의 이혼 철회는 일종의 체념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생각의 여지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자신도 이 작품에 대해 “그녀가 최종적으로 즐거움을 얻는 결말도 결코 그다지 즐겁다고 할 수 없다. 소위 ‘애락중년’이란 그들의 즐거움의 이면에는 한 가

24) 리어우판 저, 장동천 외 역, 《상하이모던 : 새로운 중국 도시 문화의 만개 1930-1945》(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181쪽.

닥 고달픔이 영원히 섞여 있으며 그들의 비애 또한 전혀 위안이 없는 것은 아님을 의미할 것이다”²⁵⁾라고 했던 것이다.

〈남북은 한 가족〉은 선징빙과 리스푸라는 인물을 통해 남(홍콩)과 북(대륙)의 대립과 화합을 코믹하게 다루고 있지만 자신들의 터전이었던 대륙을 떠나 홍콩으로 건너와서 새로이 정착해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홍콩에서 외지인들과 경쟁하면서 살아야하는 홍콩 사람들의 삶도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선징빙(홍콩)과 리스푸(대륙)는 여러 차례 엇치락뒤치락하는 힘겨운 과정을 겪지만 끝내 화해하고 청원과 만령은 결혼에 성공함으로써 남과 북은 화합한다. 하지만 그 순간 환상과 페이밍이 결혼하겠다고 선언하여 선징빙과 리스푸가 기절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지만 융합과 화합은 결코 한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힘겨운 과정을 겪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랑은 전쟁처럼〉의 주인공은 비록 상류층 젊은이들로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지만 그들도 쉽지만은 않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웨이팡은 뜻 남성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지만 정작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서툴러서 사랑하는 사람과 언니 웨이링(緯苓)은 물론이고 자신까지도 힘들게 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빈부를 떠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위해서는 성숙한 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면적인 웃음의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메시지는 자칫 부유층 젊은이들의 사랑 놀음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이야기에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 영화는 인물들 간의 뒤얽힌 관계가 정돈되고 각자 사랑을 찾는 것으로 끝나지만 웨이팡의 허영심과 남성편력, 그리고 스룽성의 나약함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

25) 張愛玲, 〈太太萬歲〉題記, 《張愛玲文集》第四卷(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92), 268쪽.

아 있다. 이는 스룽성이 도망치듯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웨이팡이 가로 막는 바람에 차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흔들리는 마지막 장면²⁶⁾을 통해 웨이팡의 성격을 잘 아는 스룽성이 그녀의 사랑 고백에도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4. 나가는 말

1940년대 상하이를 뒤흔들었던 장아이링은 이후 활발하게 산업화가 진행되던 1950~1960년대의 홍콩과 타이완을 거쳐 개혁개방 이후의 대륙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사회에서 그녀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이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어 장아이링붐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장아이링이 환영받았던 올드상하이와 홍콩, 타이완, 개혁개방 이후의 대륙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개방적이고 다원적이며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한 사회적 속성이 리홍장(李鴻章)이라는 청나라 권력자의 외증손녀로 태어나서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고독사하기까지 삶의 순간순간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라이프스토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함과 더불어 그녀의 작품경향과 일치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문체의식에 대한 고찰의 일부로서 할리우드영화가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던 올드상하이와 1950~1960년대 홍콩의 사회적 성격과 그들 도시에서의 할리우드영화의 수용양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구현으로서의 장아이링의 시나리오 중에서 대륙시절의 〈아줌마 만세〉, 홍콩시절의 대표작인 〈사랑은 전쟁처럼〉과 〈남북은 한 가족〉을 분석해보았다.

26) 시나리오에서는 차를 몰고 도망치듯 별장을 떠나려는 스룽성 옆에 웨이팡이 재빨리 올라타서 웃으면서 그의 목을 끌어안는 것으로 끝나는데, 자신감 없는 스룽성과 진실성이 부족해 보이는 웨이팡의 모습은 여전히하다는 점에서 영화나 시나리오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하겠다.

올드상하이와 홍콩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다른 도시들과 구별되면서도 오늘날과 같은 고속 성장을 하게 된 배경으로 각각 조계와 식민지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꼽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당시 기회의 땅이었던 상하이와 홍콩에는 중서양의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그렇게 형성된 다원적이고 복합적이며 개방적이었던 이들 사회는 외래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오히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리하여 올드상하이에서는 댄스, 재즈음악, 담배, 커피숍 등과 더불어 영화 관람 역시 모던한 행위로 여겨지면서 크게 유행했다. 그중에서도 “개봉관에서 할리우드영화를 보는 것은…(중략)…단지 오락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더욱 큰 의미에 있어서 일종의 신분의 상징이 되었다.”²⁷⁾ 1940년대 이후 상하이로부터 그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홍콩에서도 할리우드영화의 유행은 마찬가지였다.

올드상하이와 홍콩이 가지고 있던 이런 성격과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영화의 속성을 잘 이해했던 장아이링은 코미디라는 형식을 통해 보다 많은 관객들과 조우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시나리오를 창작할 때 당시 관객들이 선호했던 할리우드의 스크루볼 코미디 양식을 취하여 다양한 해프닝, 재치 넘치는 대사, 해피엔딩 등의 기교를 사용했다. 또한 여기에 일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삶의 애환과 사랑, 홍콩과 대륙의 관계 등과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작품에 무게를 더했으며 관객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흥행 성공을 이루었다.

<참고문헌>

- 姜 玢, 〈20世紀30年代上海電影院與社會文化〉, 《學術月刊》11(2002)
 劉 澍·王 綱, 《張愛玲的光影空間》(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8)
 沈 芸, 《中國電影產業史》(北京: 中國電影出版社, 2005)
 顏純鈞 主編, 《中國電影比較研究》(北京: 中國電影出版社, 2000)

27) 姜玢, 앞의 글, 68쪽.

- 楊遠嬰 主編, 《中國電影專業史研究》(北京: 中國電影出版社, 2006)
- 于 青, 張愛玲傳略, 《張愛玲文集》第四卷(合肥: 安徽文藝出版社, 1992)
- 張愛玲, 〈太太萬歲〉題記, ----
- 周 星, 《中國電影藝術史》(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陳文平·蔡繼福 編著, 《上海電影100年》(上海: 上海文化出版社, 2007)
- 김능우 외, 《중국 개항도시를 걷다-소통과 충돌의 공간, 광주에서 상해까지》(서울: 현암사, 2013)
- 드니 이요 저, 김주경 역, 《홍콩 : 중국과의 해후》(서울: 시공사, 1998)
- 리우관 저, 장동천 외 역, 《상하이모던 : 새로운 중국 도시 문화의 만개 1930-1945》(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 배경한 역음, 《20세기초 상해인의 생활과 근대성》(서울: 지식산업사, 2006)
- 서정남, 《할리우드영화의 모든 것》(서울: 이론과 실천, 2009)
- 양동평 저/장영권 역, 《중국의 두 얼굴 : 영원한 라이벌, 베이징 vs 상하이 두 도시 이야기》(서울: 펜타그램, 2008)
- 박혁순, 〈홍콩인 사회의 생성과 변화〉(임춘성 외, 《홍콩과 홍콩인의 정체성》), (서울: 학연문화사, 2006)
- 자클린 나카시 최은영, 《고전 할리우드 영화》(서울: 동문선, 2004)
- 장정아, 〈홍콩인: '국제도시의 시민'에서 '국민'으로〉(김광익 외 지음, 《종족과 민족-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2005)
- 전인갑, 《20세기 전반기 상해사회의 지역주의와 노동자》(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中文提要〉

本文對於好萊塢電影不能不受欢迎的老上海和20世紀50、60年代香港的社会性格与它们接受好萊塢電影的形态进行了考察。而且作为它的具体实践,对张爱玲剧本中她在大陆时创作的〈不了情〉和〈太太万岁〉、为香港电懋公司写的代表作〈情场如战场〉和〈南北一家亲〉进行了分析。

老上海与香港具有多种多样的城市性格,但它们与別的城市区别而能高

速成长的背景分别是租界和殖民地，对它不会有异论的余地。很多中西方人流入在老上海和香港，因此这两个具有多元性、复合性、开放性的城市，没有排斥外来文化，却积极接受它们，在其顶点上有好莱坞电影。因为张爱玲非常了解老上海和香港所拥有的这些性格与需要巨大资本的电影本性，要通过喜剧电影和更多的观众见面。因此，她采用当时观众喜欢的都市浪漫喜剧，运用偶然发生的事、灵巧的台词、大团员等技巧，提高了喜剧效果。而且她的剧本反映现实和具有人生的悲哀，所以得到观众的认同，也得到商业成功。

주제어 : 올드상하이, 홍콩, 도시성격, 할리우드, 장아이링, 시나리오, 스크루볼코미디, 현실적 코미디

关键词 : 老上海, 香港, 都市性格, 好莱坞, 张爱玲, 电影剧本, 螺旋推进器面颊喜剧, 现实的喜剧

투 고 일 : 2014.2.20

심 사 일 : 2014.3.3~3.31

게재확정일 : 2014.4.20

중국 주선율 영화의 블록버스터화 분석*

- 상업화와 국가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

박재형**

<목 차>

1. 들어가며
2. 주선율 영화의 영역확장
 - 1) 주선율 영화의 블록버스터화
 - 2) 상업영화의 주선율화
3. 중국 주선율 블록버스터 영화 속 국가이데올로기
 - 1) 무협영화 속 국가이데올로기
 - 2) 전쟁, 재난 영화 속 국가이데올로기
 - 3) 헌정영화 속 국가이데올로기
4. 나오면서

1. 들어가며

오늘날 영화는 단순한 오락이나 예술의 한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며 산업이다. 신중국 초기 영화는 정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목표아래 가장 이상적이고 확실한 정치적·교육적 도구였으며, 그들의 정치노선을 형상화하는 구체적인 수단이었다.¹⁾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54-A00153)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시간강사 (pjh9110@hanmail.net)

1) 이종희, <역사: 중국영화의 진통과 현재>, 한국 중국현대문학학회 엮음, 《중국 영화의 이해》(서울: 동녘, 2008), 55쪽.

중국은 초고속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지만 급격한 세계화 추세에 변화하는 중국사회와는 별개로 여전히 중국의 영화시장은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지배되고 있다. 영화가 가지는 사회적 특성과 파급력을 볼 때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정부로서는 영화야말로 국가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최적의 매개체일 것이다.

80년대 말 중국사회는 영화의 상업화와 대중화 추세가 확산되었다. 이에 반해 주선율(主旋律)²⁾영화는 중국정부가 기대하는 국가이데올로기의 전파로서의 기능을 서서히 상실하게 되고 상업영화에 밀리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 주선율 영화의 영역확장은 물론 시장 확보라는 당면 과제는 중국정부로 하여금 좀 더 정치성과 상업성이 조화를 이룬 주선율 영화들의 등장을 가져오게 하였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성장과 세계 영화시장의 추세에 따라 이러한 주선율 영화의 목적의식에 다양한 장르와 한층 발전된 영화제작 기술을 도입하여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영화들을 제작하며 흥행 또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주선율 영화는 그 경계가 애매해지면서 주선율 영화인지 아닌지 구분 짓지 못하는 무수한 유사 주선율 영화의 출현을 낳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중국영화의 화두로 자리 잡은 중국의 주선율 영화에서 상업성을 가미한 중국식 블록버스터 영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이데올로기를 표현해내는가의 고찰에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 블록버스터 영화의 소재인 무협을 소재로 한 무협대작영화, 전쟁과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 사회주의 기념일에 맞춰서 제작된 헌정영화 등의 세 부류의 영화소재를 분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이데올로기를 관객들에게 전파 하는가 다각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

2) “주선율(主旋律)이란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 제기한 일종의 문화사상 개념이다. 사회주의, 애국주의, 집단주의 정신을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인홍, 《중국 영상문화의 이해》(서울: 학고방, 2002), 23쪽, 비슷한 맥락으로 이웅철은 “주선율이란 국가나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태도 혹은 논리를 지칭한다.”라 보고 있다. (이웅철, <현대중국의 주선율영화와 독립다큐멘터리: 장르의 형성과 국가의 역할>, 《비교문화연구》14 : 1, 2008, 190쪽)

러한 소재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국가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을 담고 있기에 넓은 의미의 주선율 영화의 범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넓은 의미의 주선율에 대한 개념으로 큰 틀에서 중국식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의 주선율 영화가 가진 상업적 한계와 대중성 결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고 주선율의 이론을 중국식 블록버스터 영화에 접목시켜 상업적 성공을 이루어 내며 국가 이데올로기와 영화산업의 새로운 관계성을 규명하는가에 연구 목적이 있다.

2. 주선율 영화의 영역확장

1) 주선율 영화의 블록버스터화

주지하듯이, 주선율 영화란 간단히 말해 국가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국책영화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영화 본래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상업성이란 요소에 크게 구애 받지 않았다. 주선율 영화 서사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관중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각하여 국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다.³⁾ 주류영화의 문화적 표현양식인 주선율은 거대 담론으로서의 문예사조인 것이다.⁴⁾

주선율 영화의 핵심특징은 주류 이데올로기의 고취이다. “주선율개념의 핵심은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공산주의를 신앙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삼고, 중국공산당을 지도핵심으로 삼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이다. 이후 민족우수전통을 또한 계승하고, 애국주의정신을 일으키고, 일체의 우수문화 등을 학습하고, 사회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것이다.”⁵⁾

3) 인홍, 《중국 영상문화의 이해》(서울: 학고방, 2002), 83쪽.

4) 안상혁, 한성구, 《중국 6세대 영화, 삶의 본질을 말하다》(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22쪽.

5) 主旋律電影的核心特征是引揚主導意識形態。“主旋律概念的核心是堅持社會主義

주선율이란 말 그대로 음악에서 사용되는 주된 선율이란 의미이다.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용어이지만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정치적 틀에서만 규정할 수 없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천안문 사태이후 정치체제의 안정과 정치권위의 보호를 더욱 강조하면서 영화계 역시 정치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 강화의 직접적인 실현은 바로 ‘주선율’ 영화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창작현상이 되었다는 것이다.⁶⁾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주선율 영화는 1989년부터 많은 혁명역사소재영화(革命歷史題材影片)⁷⁾와 헌정영화(獻禮片)⁸⁾가 제작되었다. 이 시기부터 혁명역사소재영화나 헌정영화가 많이 생산된 이유는 1987년 인민해방군 건군 60주년, 198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40주년, 1991년 당 창건 70주년, 1993년 마오쩌둥 탄생 100주년, 1995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 1999년 건국 50주년, 2001년 당 창건 80주년 등 국가기념일에 맞추어서 영화들이 생산되었

制度、信仰共產主義、以馬克思主義爲指導思想、以中國共產黨爲領導核心、這些形成了社會主義核心價值體系。 後來又加入了繼承民族優秀傳統、倡導愛國主義精神、學習一切優秀文化等內容，形成社會的主導意識形態。” 胡克，〈中國當代電影理論與實踐〉，《當代電影》，2009年 第7期。

6) 인홍, 《중국 영상문화의 이해》(서울: 학고방, 2002), 23-32쪽 참조.

7) 혁명역사소재영화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중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을 이끌어가는 문헌적 특징을 가지며, 다른 하나는 중대한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을 이끌어가는 전기적 특징을 갖는다. 전자의 대표적 작품으로 <시안사변(西安事變)>, <개국대전(開國大典)>, <대결전(大決戰)> 등이 있으며, 후자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저우언라이(周恩來)>, <마오쩌둥 이야기(毛澤東的故事)>, <류샤오치의 44일(柳少奇的四十四天)> 등의 작품이 있다. 인홍, 《중국 영상문화의 이해》(서울: 학고방, 2002), 58~62쪽 참조.

8) 헌정영화(獻禮片)는 혁명역사소재영화와 함께 중국 정부의 주선율 이론을 가장 완벽하게 뒷받침 해주는 영화이다.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국가 기념일을 맞이하여 인민들에게 헌정영화를 통해 인민해방군의 탄생,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공산당 창건, 마오쩌둥 탄생과 그의 생애 등에 대한 기억과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시킨다. 연령대가 높은 이들은 이러한 헌정영화를 통해 그들의 역사와 지도자를 추억하게 되고, 젊은 층에게는 새로운 국가관과 민족의식, 국가의식 형태를 심어주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금껏 헌정영화는 그 소재와 인물의 다양성 등의 태생적 한계와 부족한 상업적 요인 때문에 대중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기 때문이다.⁹⁾

이러한 대부분의 작품들은 국가의 지원 하에 정책적으로 제작되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들을 상기시키며, 혁명역사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영화소재의 한계성과 관객과의 소통결여 및 영화의 본질적 요소의 결함으로 인해 상업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제작된 이후 제대로 된 배급, 상영의 경로를 밟지 못하고 학교와 군대 등에서 동원 관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중국 영화의 성장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중국 영화의 수적 성장내부의 한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¹⁰⁾

결과적으로 이는 주선울 영화의 또 다른 범위확장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화가 상업화 되고 다양한 장르의 상업영화들이 1990년대 이후 등장하면서 주선울 영화는 관객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 결국 주선울 영화는 이를 극복하고자 상업성과 대중성을 본래의 정치적 목표에 가미하게 된다. 주선울 영화자체가 상업성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주류영화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는 국가이데올로기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확산하고자 했던 중국정부의 의도를 빗나가게 하였다. 이는 주선울 영화에 상업성과 대중성을 주입시키면서 주선울의 상업화를 앞당기게 되고 결국 상업영화를 국가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 거기에 국가

9) 대표적인 작품으로 사회주의 건국 40주년 헌정영화(獻禮片) <개국대전(開國大典), 1989>과 <백색기의(百色起義), 1989>, <대결전(大決戰), 1991>, 건국 50주년 기념영화 <횡공출세(橫空出世), 1999>를 비롯하여, 혁명영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지아오위루(焦裕祿), 1990>, <저우언라이(周恩來), 1991>, 평범한 인물이 사회의 모범상으로 국가 가치관을 전달하는 영화 <콩관선(孔繁森), 1995>, <레이펑이 떠난 날(離開雷鋒的日子), 1996>, 중국 근현대사 격동의 역사를 다룬 영화 <아편전쟁(阿片戰爭), 1997>, <나의 1919(我的1919), 1999>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영화는 최근 중국영화 100주년 기념작 <타이항 산에서(太行山上), 2005>, 대장정 70주년 기념영화 <잊지 못할 대장정(不可忘却的長征), 2006> 등이 있다. 이응철, <현대중국의 주선울영화와 독립다큐멘터리: 장르의 형성과 국가의 역할>, 《비교문화연구》14 : 1, 2008, 194~195쪽 참조.

10) 임대근, <포스트뉴웨이브 시대 중국 영화와 국가 이데올로기>, 《중국문학연구》37, 2009, 263쪽.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선율 영화의 범위는 국가에 의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제작된 영화뿐만이 아니라 상업영화, 예술영화 등 다른 장르의 영화에서도 국가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면 주선율 영화의 범주에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주선율 영화의 이전, 즉 홍색영화에서는 혁명과 영웅에서 발현되는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등에 무게를 두었다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중화주의와 민족주의, 전통문화, 공공질서 등의 주제로 주선율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¹¹⁾

주선율 영화는 혁명과 영웅을 소재로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혁명역사 소재영화(革命歷史題材影片)와 헌정영화(獻禮片)에서 출발하여 상업성과 오락성을 가미해 흥행성을 높인 무협영화, 전쟁·재난영화, 최근의 건국 60주년¹²⁾, 건당 90주년 헌정기념영화¹³⁾까지 그 주제와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오늘날 중국영화산업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영화를 감상한 관객들이 이 영화가 주선율 영화인지 아니지를 구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이나 시대적 사명의 반영 등 정치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다양한 대중서사전략과 결합해 정치적 유형의 문화텍스트로 변형되어, 오늘날 중국 대중문화 속에서 문화상품의 하나로 성장해 가고 있다.¹⁴⁾

11) 박춘식,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 - 건국대업>, 광수경 외, 《영화로 만나는 현대중국》(부산: 산지니, 2012), 41~42쪽.

12)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들로는 <건국대업>(建國大業)과 <바람의 소리>(風聲), <천안문>(天安門), <경천동지>(驚天動地) 등이 대표적이다.

13) 건당 90주년 기념영화는 <건당위업>(建堂偉業)과 <상강북거>(湘江北去) 이외에도 <추지백화>(秋之白華), <선구자>(先驅者) 등 28편의 영화가 2011년에 개봉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화 <상강북거>(湘江北去)는 마오쩌둥을 필두로 구국구민의 정신으로 일어난 호남(湖南)의 혁명청년단의 홍색청춘과 역경의 세월을 통해 나타나는 순수한 혁명의 열정을 중국공산당 창당 90주년을 기념하여 그려낸 영화이며, 여감독 천리(陳力)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한 감정으로 순수하고 열정적인 혁명정신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혁명정신을 일깨우고 헌정하는 영화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14) 조복수,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의 중국 드라마 - '주선율' 드라마를 중심으로>, 《드라마 연구》 2013, 제40호.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즉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정부로서는 영화야 말로 국가이데올로기를 인민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는 최적의 매개체이다. 이는 오늘날 중국 영화 속 주선율의 다양한 변화모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영화제작에 있어서도 관객들의 눈높이 맞는 대형화된 블록버스터 영화제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2) 상업영화의 주선율화

1980년대 말,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영화의 ‘상업화’ 현상은 중국영화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국사회는 도시화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대중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급격하게 변해갔고, 문화적 취향도 더욱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은 중국의 영화산업이 상업영화로 전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1988년 한 해 동안 현대 작가 왕췌(王朔)¹⁵⁾의 소설을 각색한 네 편의 상업영화가 등장하면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90년대에 들어서 대중들의 오락 수요가 늘어나고, 대중들이 소비문화의 주체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의 상업화와 대중화 추세가 더욱 확산되었고, 상업영화는 주류영화로서 더욱더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게 되었다.¹⁶⁾

5세대¹⁷⁾ 감독 장이모우(張藝謀)와 천카이거(陳凱歌)를 필두로 중국의

15) 왕췌(王朔): 80년대 말 중국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서 당대중국의 현실에 대해 조소와 풍자, 냉소와 조롱으로 퇴폐적 문화심리를 대변, 반 사회, 반 규범, 반 이상적 정신을 표현하며 작품의 주인공들의 행위는 정상케도로부터의 이탈을 상징했다. 1988년 그의 소설 네 편이 영화로 각색되면서 수많은 아류작을 낳았고, 대표작으로는 동물흉맹(動物凶猛), 고무인간(橡皮人) 등이 있다.

16) 이중희, <역사: 중국영화의 전통과 현재>, 한국 중국현대문학학회 엮음, <중국 영화의 이해>(서울: 동녘, 2008), 67쪽.

17) 문화대혁명이 종결 후 베이징영화아카데미 첫 졸업생(1978년 동기생)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영화제의 수상 등으로 중국영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공헌했다. 전통적 요소(오리엔탈리즘)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대표적인 5세대 감독과 작품으로는 장권자오(張軍釗)의 <한 사람과 여덟 사람 一個和八個>(1983), 천카이거(陳凱歌)의 <황토지 黃土地>(1985), <대열병 大閱兵>(1986), <아이들의 왕 孩子王>(1987), <현위의

전통적 소재를 상품화한 영화들이 해외 영화제등의 수상으로 잇단 성공을 거두면서 중국영화계의 부흥을 이끌었고, 90년대 후반에는 펑샤오강(馮小剛)의 '하세편'(賀歲片)¹⁸을 중심으로 중국영화계에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였다. 펑샤오강의 작품은 대중문화의 중심인 현대 도시를 배경으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중국적 소재에 희극적 요소를 가미한 가장 성공적인 상품으로 평가받았다. 그의 영화는 중국인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중국어의 미학을 최대화 하며 중국 서민들의 삶과 꿈을 유쾌하게 그려낸 영화이며, 영화의 상업적 측면에서는 배경이나 소품, 대사 등을 통해 철저한 상업화를 이끌어 내면서 흥행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지아장커(賈樟柯), 왕샤오샤이(王小帥)등의 6세대 감독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하며 중국영화계의 또 다른 한축으로 자리잡아갔다.

중국식 블록버스터 영화란 대규모의 자본과 인원, 컴퓨터그래픽, 세트 등을 통해 중국적인 소재와 배경으로 제작된 상업영화라 말할 수 있다. 상업영화 또한 더 큰 발전을 위해 국가이데올로기와 손을 잡는데, 영화계 기존의 상업영화 흥행감독들은 은근히 영화 속에서 주선율을 주입하게 된다. 이는 중국정부주도의 영화시스템 제작이라는 독특한 상황이 맞물리며 기존의 주선율 영화의 주제가 상업영화에서 다양하게 활용되

인생 邊走邊唱>(1991), <패왕별희 霸王別姬>(1993), <풍월 風月>(1996), <무극 無極>(2005), 황젠신(黃建新)의 <흑포사건 黑炮事件>(1985), 텡창광(田壯壯)의 <말 도둑 盜馬賊>(1986), <푸른 연 藍風箏>(1993), 장이머우(張藝謀)의 <붉은 수수밭 紅高粱>(1998), <국두 菊豆>(1990), <홍등 大紅燈籠 高高掛>(1991), <귀주이야기 秋菊打官司>(1992), <인생 活着>(1994), <책상 서랍 속의 동화 一個都不能少>(1998), <집으로 가는 길 我的父親母親>(1999), <행복한 시간 幸福時光>(2000), <영웅 英雄>(2002), <연인 十面埋伏>(2004), <황후화 滿城盡帶黃金甲>(2006), <산사나무 아래 山楂樹之戀>(2010) 등이 있다.

18) 하세편(賀歲片): 설(신년) 특선영화, 연말연시 특선작의 개념. 홍콩의 성룡 영화(홍번구 류)와 같은 설 특선영화가 관중에게 크게 어필하는 것을 보고 장화평, 한삼평 등의 제작자가 펑샤오강에게 제안하여 제작. 대표적으로 <甲方乙方>(1997), <不見不散>(1998), <没完没了>(1999) 등의 작품이 있다. 강경구, <馮小剛 賀歲片에 나타난 중국적 현실과 꿈>, 《중국인문과학》2009, 제 3집.

는 형태의 작품으로 나타나게 된다.

기존의 애국주의와 영웅들의 이야기는 상업영화 특유의 다양한 촬영 기법과 대규모 투자방식, 스타배우들의 출연과 맞물려 주선율의 영역확장과 상업영화의 주선율화로 이어지고 관객들의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블록버스터화 되어 지금의 중국영화계를 이끌어 나간다. 그렇다면 중국식 블록버스터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국가이데올로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3. 중국 주선율 블록버스터 영화 속 국가이데올로기

중국식 블록버스터란 중국적인 소재, 즉 무협,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성을 가진 전쟁이나 재난, 중국 공산당의 혁명적 인물이나 사건 등의 고유한 소재에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고 중국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 대형화된 작품을 의미한다고 정의 내릴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자본주의의 유입과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에서 영화는 주류 이데올로기를 전파, 선전, 교육하는 기능의 영화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문화산업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오늘날 중국정부는 주선율의 이론을 바탕으로 상업성과 오락성을 가미한 중국식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주선율과 주류 상업대작영화(主流商業大片)¹⁹⁾의 결합으로 완성된 중국식 블록버스터들은 새로운 중국을 생산하고, 나아가 문화를 통해 중국을 통합하고자 하는 문화적 기획으로 주선율영화의 계보를 잇는 또 다른 방식이다. 지금까지 주선율 영화가 중국의 이데올로기 유지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주의 찬양과 영웅

19) 주류 상업대작영화의 개념에 대해 인홍(尹鴻)과 스동밍(史東明)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尹鴻認為這一概念“是將過去的所以主旋律電影轉換為表達核心價值、具有市場號召力的主流商業大片。”史東明梳理了這一概念的形過程。“主流商業大片的提法，在業內還不是一个很科學的概念，在2003年之前，我們的提法還是把主旋律和商業電影分開來……。”史東明、尹鴻，〈主流價值、商業訴求、電影產業〉，《當代電影》，2010年 第1期。

인물에 대한 묘사를 주로 하였다면, 최근 중국식 블록버스터 영화는 상업적 측면을 가미한 또 다른 유형의 변형된 주선율 영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식 블록버스터 영화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국가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을 담고 있기에 넓은 의미의 주선율 영화의 범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중화권의 독특한 소재인 무협코드를 이용하여 국가이데올로기처럼 정형화된 가치관이 아닌 충효사상이나 중국민족의 부흥과 중화민족주의를 부추기는 형태의 코드를 이용하여 중국적인 가치관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중국 인민들에게 중화민족의 화려한 옛 영화를 일깨우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형태의 영화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이데올로기와 국가정체성 확립에 직접적으로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둘째로, 기존의 상업영화의 틀에 주선율의 소재를 가미하고, 대규모 자본과 촬영장비 및 기술을 동원하여 제작하는 영화 들이다. 주로 전쟁, 재난 등을 소재로 하여 그 속에서 펼쳐지는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국가관에 대해 묘사해 내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그것으로 국가의 소중함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선율의 전통적 소재인 혁명역사소재영화 및 헌정영화에 이전에 볼 수 없던 대규모의 자본과 배우들의 투입으로 지루하고 재미없고 친편일률적이던 주선율 영화를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로 만들어 낸 형태이다. 그중에서도 200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과 2011년 중국공산당 창당 90주년, 신해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국책영화들은 이전에 볼 수 없던 대규모의 자본과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된 배급통로를 확보하여 주선율 영화의 상업적 성공을 이끌어 내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소재들을 통해 인민들에게 인민해방군의 탄생,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공산당 창건, 마오쩌둥 탄생과 그의 생애, 사라져간 평민영웅 등에 대한 기억과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시켜 왔다. 연령대가 높은 이들은 이러한 헌정영화를 통해 그들의 역사와 지도자를 추억

하게 되고, 젊은 층에게는 새로운 국가관과 민족의식, 국가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 무협영화 속 국가이데올로기

무협영화는 중국영화를 대표하는 장르인 동시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표현해내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대표적 상업영화이다. 최근 중국영화계는 대규모 투자방식으로 무협영화의 블록버스터화를 지향하는데 중국 무협영화는 중화민족주의와 국가이데올로기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형태이다. 미국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미국 패권주의를 드러내듯이 중국 무협영화 또한 비슷한 맥락의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지닌 대표적인 무협영화로는 장이모(張藝謀)의 무협 3부작 <영웅(英雄), 2002>, <연인(十面埋伏), 2004>, <황후화(滿城盡帶黃金甲), 2006>을 비롯하여, 천카이거(陳凱歌)의 <무극(無極), 2005>, 펑샤오강(馮小剛)의 <야연(夜宴), 2006>, 우위썬(吳宇森)의 <적벽(赤壁), 2009>, 최근의 <양문여장(楊門女將), 2011>, <전국(戰國), 2011>, <샤오린, 최후의 결전(新少林寺), 2011> 등의 작품들이 대표적이며, 막대한 자본과 다국적 스타배우의 기용 등으로 이전의 무협영화와는 질적으로나 스케일 면에서 차별화를 이루어 내었다. 중화권만의 독특한 장르인 무협영화의 잇단 성공은 무협영화의 흥행코드를 이끌어내고 수많은 아류작을 양산했다. 이러한 대작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게끔 하였고, 중국 영화산업시장에 흥행보증수표로 자리 잡게 하는 역할을 해냈다고도 볼 수 있다. <영웅(英雄), 2002>의 성공은 단지 그 거액의 경제적 수익효과 뿐 아니라, 세계화시대에 중국의 민족주의영화 발전과 탐구의 출발점이 된다.²⁰⁾

장이모(張藝謀)의 대표작 <영웅(英雄)>에서 화면을 가득채운 화려한 색채와 액션들은 전 세계에 중국적인 것의 화려함에 대해 표출하고, 진

20) 《英雄》의 성공并不僅僅在于其巨額的經濟效益, 更在于它為全球化時代中國民族電影的發展在探尋出路. 朱洁, 《20世紀90年代以來中國電影》, 中國電影出版社. 2010.

시황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한다. <영웅(英雄)>에서 보이는 영웅의 이미지는 과연 무엇인가? ‘天下’를 위해서 지배를 꿈꾸는 영웅들의 모습은 중국이 천하를 통일하여 전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중화주의의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秦나라는 곧 중국의 첫 통일 국가로서 秦나라 통일을 비추어보아 세계의 통일, 경제, 문화의 통일을 바라는 중국의 중화주의를 이면의 모습으로 비쳐진다.²¹⁾

이러한 중국 고유의 무협소재를 이용한 중국식 블록버스터 영화에는 중국이란 아이콘을 재생산하고, 중화민족의 결집을 추구하고, 중화민족의 자부심을 표현하고자하는 기조가 깔려있으며 이는 또 다른 주선울영화의 방식이다. 중국 인민들에게 중화민족의 화려한 옛 영화를 일깨우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형태의 영화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이데올로기와 국가정체성 확립에 직접적으로 또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화를 통해서 젊은 신세대 계층에 새로운 국가관과 민족의식, 국가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무협소재의 영화들은 사회주의를 뒤로하고 자본주의로 향하는 중국이 새롭게 만들어 내려고 하는 ‘강한 중국과 제국’이라는 21세기적 신화의 도구로 사용되며, 개방화 시대에 걸 맞는 ‘주선울 영화’의 변종으로 자리를 잡았다. 중국, 대만, 홍콩을 아우르는 ‘삼중국영화’²²⁾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면서 더 넓은 자장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

21) 이강인, <중국영화의 민족주의 현상에 대한 연구 - 영화<영웅>과 <집결호>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008. 제11집 1호.

22) 일반적인 의미의 ‘중국영화’는 여전히 대륙중국영화, 홍콩영화, 타이완영화 등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삼중국 영화’라는 말은 대체로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을 중심으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 개념은 대체로 1949년 이후 독자적인 전통을 이룩하며 새로운 중국영화의 면모를 보여준 세 지역, 곧 대륙중국, 홍콩, 타이완의 영화전통을 ‘삼중국’이라는 한마디 말로 아우르면서, 동시에 ‘삼’이라는 숫자로 중국을 규정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하는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단지 중국영화의 지역분화 현상을 설명하려는 양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영화의 일정한 흐름을 주도해온 대륙중국과, 홍콩, 타이완의 영화를 지칭하려는 질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

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²³⁾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양상은 중국영화의 장르적 한계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무협의 장르는 아니지만, 2010년 개봉된 영화 <공자(孔子)>는 이러한 움직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 사회주의이념이 점차 열어지고 있는 중국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중국 정부가 인민들의 사상적 이탈과 내부단속을 다스리고자 하는 아이콘으로 전통문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자의 사상을 알리기 위해 영화 속에서 논어경전을 인용함으로써 유교사상과 중화주의의 코드를 영화 전반부에 깊숙이 배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이다.

이러한 영화들과는 별개로 영화제작 측면이나 소재적인 측면에서 다른 유형의 영화들이지만 서부 대 개발 정책을 기점으로 낙후된 서북지역과 소수민족을 소재로 관심을 환기시키는 영화들 또한 이러한 중국정부의 제작의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양야저우(楊亞洲)의 <메이리의 큰 발(美麗的大腳), 2002>, 류지에(劉杰)의 <말등 위의 법정(馬背上的法庭), 2007> 등의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이라 볼 수 있는데, 소수민족의 이탈을 방지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테두리 안에 소속감을 심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제작이나 소재의 제한성, 대중적 공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대규모 흥행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어 아쉬운 점이 보인다.

2) 전쟁, 재난 영화 속 국가이데올로기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식 블록버스터 영화란 대규모의 자본과 인원, 컴퓨터그래픽, 세트 등을 통해 중국적인 소재와 배경으로 제작된 상업영화라 말할 수 있다.

대근, <개념: 중국 영화의 들레>, 한국 중국현대문학학회 엮음, 《중국 영화의 이해》(서울: 동녘, 2008), 23~24 쪽 참조.

23) 임지연, <중국블록버스터의 “트랜스내셔널” 주선율 영화의 흐름 - 컴퓨터 그래픽이미지(CGI)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 전문사 논문》 2007, 8, 47쪽.

전쟁과 재난을 소재로 관객들에게 국가이데올로기를 고취시키는 중국식 블록버스터 영화를 대표하는 영화로는 펑샤오강(馮小剛)의 <집결호(集結號), 2007>, <대지진(唐山大地震), 2010>등이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화려한 영상과 그래픽 영상기술, 대규모의 자본투입과 스타배우기용, 다국적 합작과 다국적 배우기용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전과는 차별화된 인물묘사 등으로 그 속에서 국가이데올로기를 고취하는 형식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안정된 자본 확보와 배급통로의 확보와 같은 지원이 뒤따른다.

펑샤오강(馮小剛) 감독의 최근작 <일구사이(一九四二), 2012>는 중일 전쟁을 배경으로 1942년 최악의 기근을 겪어야 했던 하남성의 참상을 묘사하였다. 장지에쓰(蔣介石)와 국민당에 대한 대륙의 시각이 펑샤오강 감독에 의해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묘사된다. 앞의 두 영화처럼 국가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작품은 아니지만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정부의 입장이 많이 유연해지고 진일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식 블록버스터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펑샤오강(馮小剛) 감독의 초기 영화는 현대 도시를 배경으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중국적 소재에 희극적 요소를 가미한 가장 성공적인 상품으로 평가받았다. 그의 영화는 중국인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중국어의 미학을 최대화하며 중국 서민들의 삶과 꿈을 유쾌하게 그려낸 영화이며, 영화의 상업적 측면에서는 배경이나 소품, 대사 등을 통해 철저한 상업화를 이끌어 내면서 흥행에 성공을 거두었다.²⁴⁾

<甲方乙方>(1997), <不见不散>(1998), <没完没了>(1999) 등의 작품들을 연말연시에 개봉시키며 흥행에 성공을 거두어 가지만 <영웅>의 성공과정 등을 지켜보며 좀 더 스케일이 크고 할리우드 대작에 대항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의 초창기 영화들이 가진 구조적 흥행의 한계성, 즉 중국어의 미학에 의존한 북방식 유머코드는 중국 전역 특히 장강(長江)이남 지역의 주목을 크게 끌지 못하였고, 이는 그의 작품풍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야연(夜宴)>으로

24) 李海霞, <馮小剛電影市場研究>, 當代電影, 2006年 第6期.

무협 블록버스터로의 시도를 시작하면서 그의 영화는 <집결호(集結號), 2007>, <대지진(唐山大地震), 2010>과 같은 전쟁,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의 제작으로 넓혀져 갔다. 국가와 영웅인물과 같은 전형적인 주선울의 소재가 아닌 코미디, 전쟁, 재난, 가족 등의 장르를 통해 국가이데올로기를 적절히 반영해 내는 그의 작품은 주선울 영화를 좀 더 상업적으로 발전시키며 관객들과 친밀한 접촉을 모색하던 중국정부의 움직임과 맞물려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집결호(集結號), 2007>와 <대지진(唐山大地震), 2010>의 흥행성공은 이를 잘 반영하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집결호(集結號), 2007>는 중국 최초의 전쟁 블록버스터 영화이자 한국의 <태극기 휘날리며>의 제작진이 참여한 한·중 합작영화이기도 하다. 주인공 구즈디(谷子地)가 실종 처리된 47명의 부하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노력을 그려낸 영화이다. <대지진(唐山大地震), 2010>은 당산시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지진으로 인해 고통 받게 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담아낸 영화이다.

두 영화는 전쟁과 재난이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다. <집결호(集結號)>의 대규모 전투신과 <대지진(唐山大地震)>의 지진당시를 참혹한 장면들은 특수효과를 사용하여 사실적이고 처절하게 묘사가 되었다. 관객들은 이러한 영화의 큰 틀에서 한편의 웅장한 드라마를 감상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두 영화는 전쟁과 재난이라는 틀을 가져와 극을 전개하지만 개인의 상처치유와 화해, 휴머니즘이란 서사로 흘러간다. 이러한 점은 이 두 편의 영화가 주선울 영화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평가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영화 <집결호(集結號)>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국민당간의 전투 속에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영웅들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영웅들은 47명의 무명의 용사들이며, 그들의 희생을 중대장 구즈디(谷子地)의 노력으로 국가가 인정하게 되고 구즈디(谷子地) 개인의 상처는 결국 국가가 치유하게 되는 방식이다. 139연대 3대대 9중대 47명의 전사자들에 대한 혁명열사 인정통지서 낭독과 중화인민공화국 해방휘장을 그들의 묘지 앞

에서 수여하는 장면은 그들이 중국인민의 해방이란 위대한 업적과 공헌을 남겼음을 국가가 알고 있다고 알려준다. 영화의 마지막에 9중대의 영웅들이여 억울함을 벗도록 하라는 마지막 대사는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비슷한 영화로 <바람의 소리(風聲), 2009>, <8인, 최후의 결사단(十月圍城), 2009> 등의 작품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영웅인물이 아닌 무명용사들을 그리는 작품들이다. 또한 장이모(張藝謀)의 <금릉십삼채(金陵十三釵), 2013>와 같은 영화는 일본이 남경에 남긴 대학살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국가에 대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다른 형태의 변형 주선울 영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대지진(唐山大地震)> 속 지진으로 인한 재난은 20여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 하여금 광덩과 광다, 쌍둥이 중 한 명만을 구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한다. 어머니는 결국 아들 광다의 목숨을 선택하고, 딸인 광덩은 구조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며 인민해방군 부부에게 입양된다. 이와 같은 영화내용의 전개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적지 않게 표현되는데,唐山지진 구조 현장에서 벌인 인민해방군의 활약과 해방군인 광덩의 양부모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광덩을 통해서도 표현된다.²⁵⁾

대지진의 고아를 입양하는 인민해방군은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캐나다에서 중국에 지진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의료봉사를 자원하게 되는 주인공의 모습과 구조 활동 중에 그 동안의 상처와 엄마에 대한 원망을 용서하고 화해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영화는 마지막으로 영상과 자막을 통해 노골적으로 제작의도를 반영한다. 개인의 상처와 희생을 국가가 언제나 기억하고 지켜줄 것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추모비명 앞에서 모든 것은 해결이 된다.

25) 광수경, <인구, 대지진>, 광수경 외, 《영화로 만나는 현대중국》(부산: 산지니, 2012), 223쪽.

2008년 중국 당산 지방정부는 1976년 지진으로 인한 24만 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벽을 건립하였다. 이 영화는 당산대지진으로 인한 24만 명의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이 영화는 위대한 도시, 탕산의 재탄생과 복원을 기념합니다.²⁶⁾

결국 두 편의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해결책은 국가의 역할이며 구체적으로 이는 인민 해방군의 활약상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이는 이러한 영화를 통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국가관, 국가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영화는 기존의 상업영화 속에 국가이데올로기와 긍정적 국가이미지를 심어놓은 대표적인 중국식 블록버스터 영화라 할 수 있다.

3) 헌정영화 속 국가이데올로기

헌정영화(獻禮片)는 중국 정부의 주선울 이론을 가장 완벽하게 뒷받침 해주는 영화이다. 헌정영화를 통해 인민해방군의 탄생,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공산당 창건, 마오쩌둥 탄생과 그의 생애 등에 대한 기억과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시켜 왔다. 연령대가 높은 이들은 그들의 역사와 지도자를 추억하고, 젊은 층에게는 민족의식, 국가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껏 헌정영화는 그 소재와 인물의 다양성 등의 태생적 한계와 상업적 요인 때문에 대중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최근의 헌정영화는 다양한 인물형상화와 스타배우의 대거기용, 촬영기법의 다양화 등으로 중국식 블록버스터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대표적인 작품들에는 건국 60주년 기념영화 <건국대업(建國大業), 2009>²⁷⁾과 중국공산당 창당 90주년 기념영화 <건당위업(建黨偉業),

26) “2008년中共唐山市委唐山市政府爲1976年大地震中罹難的24萬同胞修建了紀念牆. 向唐山大地震中罹難的24萬同胞表示沈痛哀悼. 謹以此片獻給浴火重生的鳳凰城·唐山.” 영화 <대지진(唐山大地震), 2010>

2011>²⁸⁾, <상강북거>(湘江北去), 신해혁명 100주년을 기리는 <신해혁명 1911(辛亥革命 1911), 2011> 등이 있다. 또한, <바람의 소리(風聲), 2009>, <8인, 최후의 결사단(十月圍城), 2009>, <침혈고성(喋血孤城), 2010> 과 같은 작품들은 추리, 첩보라는 소재를 주선율의 영역에 결합시키며, 소재확장에 많은 발전을 이룬 작품들도 등장한다. 이들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 던진 이름 없는 영웅들, 즉 평민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전형적인 주선율의 범주에 해당하는 영화이지만 상업영화로 보여 지기도 하는 두 장르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화이기도 하다. 특이하게도 <침혈고성(喋血孤城), 2010>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장개석 부대의 활약을 다루기도 한데, 이는 앞서 평샤오강(馮小剛) 감독의 <일구사이(一九四二), 2012>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유연해진 중국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한 듯하다.

2013년 3월 5일은 마오쩌둥을 비롯한 혁명 1세대들이 인민영웅 레이펑(雷鋒)을 기념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것을 기념하여 세 편의 레이펑(雷鋒) 소재의 영화를 동시 상영했는데, <레이펑의 청춘(青春雷鋒), 2013>, <레이펑 1959(雷鋒在1959), 2013>, <레이펑의 미소(雷鋒的微笑), 2013> 등의 작품이다.²⁹⁾ 이러한 작품들은 주선율 영화가 지닌 본래의 성격인 영화를 통한 교육과 영웅적 인물을 통한 학습효과로 사회전반적인 문화와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³⁰⁾

27) 영화 <건국대업>(建國大業), 中影集團, 中凱文化集團 등의 연합출품작, 감독: 韓三平, 黃建新, 2009.9.16일 첫 상영 후 인민폐 4억2천만 위안의 흥행 수입. <http://baike.baidu.com/view/2197830.htm>

28) <건당위업>(建堂偉業), 中影集團, 감독: 韓三平, 黃建新, 2011.6.15일 첫 상영 후 인민폐 3억8천만 위안의 흥행수입. <http://movie.mtime.com/129119/>

29) “2013年3月5日是毛澤東等老一輩革命家為雷鋒同志題詞50周年紀念日, 三部雷鋒題材影片<青春雷鋒>, <雷鋒在1959>和<雷鋒的微笑>同日上映.” 李瑾, <主旋律電影市場化的反思>, 東莞理工學院學報, 2013年 8月, 第4期. p.88.

30) “這三部影片的主旋律性質, 即發揮好影片教育, 引導和激勵作用, 為全社會掀起向雷鋒同志學習新題高潮營造良好文化環境和氛圍.” 李瑾, <主旋律電影市場化的反思>, 東莞理工學院學報, 2013年 8月, 第4期. p. 88.

기존의 주선을 영화의 전통적 코드인 혁명역사소재영화 및 헌정영화에 이전에 볼 수 없던 대규모의 자본과 배우들의 투입으로 지루하고 재미없고 천편일률적이던 주선을 영화를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로 만들어 낸 작품들의 등장은 중국영화의 흥행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도 200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과 2011년 중국공산당 창당 90주년, 신해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국책영화들은 이전에 볼 수 없던 대규모의 자본과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된 배급통로³¹⁾를 확보하여 주선을 영화의 상업적 성공을 이끌어 내었다. 2011년 6월 15일 영화 <건당위업>(建黨偉業)은 전국 1675개 극장, 7800개 상영관에서 동시에 개봉했으며, 당일 입장수입 2,100만 위안을 기록하며 개봉 열흘 만에 2억 1800만 위안의 흥행수익을 올렸으며, <건국대업>의 첫날 흥행기록 1,500만 위안을 600만 위안이나 뛰어넘었다.³²⁾ 이러한 일련의 영화배급과 홍보과정에서 중국정부는 기획, 제작,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심지어는 단체 입장권과 공짜표를 남발하였다. 단기간의 폭발적인 흥행수익과 기록갱신에는 중국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이 뒷받침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노력도 작품이 관객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주선을 블록버스터영화는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실감나는 전투장면과 다양한 특수효과의 사용, 정밀한 세트제작과 그래픽으로 시대적 사실감을 극대화 하고, 사운드 측

31) 영화 <건국대업>(建國大業)은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 전국 영화관의 80%에서 상영되었으며, 이를 위해 영화필름을 1,450 개나 제작하였다. 영화 개봉 전부터 무려 90만장의 할인티켓이 뿌려졌고 지방도시에는 모든 관객들에게 할인된 요금을 적용했으며, 일부 극장에서는 다른 영화의 상영을 중단하고 오로지 건국대업(建國大業)만을 상영하였다. 또 건국대업(建國大業)이 개봉된 이후 8일 동안에는 새로운 개봉영화가 없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263033>

32) “6月15日, <建黨偉業>紅遍大江南北, 全國共有1675家影院, 7800銀幕同時上映, 創單片上映銀幕數量新高. 首映當天全國取得2100萬元票房, 比2009年9月16日<建國大業>首映日近1500萬元, 增加了600多萬元, 創主旋律影片首映日票房新高.” 鈞錚, <建黨90周年重點影片展映活動>, 《中國電影市場》, 2011年, 第8期, p. 4.

면 등에서도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이며 중국식 블록버스터영화의 또 다른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도 영화 속 인물들이 전형적인 인물형상을 탈피 했다는 점이 크다. 이전의 주선울 영화에서는 고정화되고 격식화된 전형적인 역사적 영웅에 대한 인물묘사가 주된 흐름이라면, 최근 영화들에서는 등장인물형상의 다양화와 보편화가 이루어졌다.

서사구조에 있어서도 두 대립되는 인물형상을 이전의 주선울 영화처럼 선악의 대립으로 전개하지 않고, 인물이 처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인물의 형상을 그려냄으로써 관객들이 전통적 주선울 영화에서 그려내는 전형적인 인물형상과 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영웅적 인물들을 인간적이고 소탈하게 표현함으로써 친근감을 갖게 하고 내면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관객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이전 세대들은 이러한 영화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역사와 지도자를 추억하게 되고, 일련의 사실과 추억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젊은 층에게는 새로운 민족의식, 국가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상업적 흥행 면에서도 대규모의 스타배우기용과 노이즈 마케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스타배우기용의 효과는 상업영화의 흥행보증수표이자 필수요소이다. 때론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스타배우의 영향력만으로도 흥행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실제 이전의 주선울영화는 한 인물의 모습에 집중 조명되어, 특정주연배우의 연기만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요소였고, 조연급 배우들의 다양한 인물형상조명이 불가능해져 스토리 또한 매우 단순했다. 하지만 최근의 주선울 블록버스터 영화의 이러한 배우기용은 관객들로 하여금 좀 더 다양한 인물의 다양한 캐릭터소화를 감상하고 영화를 즐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젊은 관객층에게 이러한 스타배우들은 등장만으로도 관심을 집중시킨다. 또한 화려한 캐스팅은 수많은 언론과 방송매체에 풍부한 기사거리와 함께 영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하고, 이러한 이유로 중국 상업영화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주선울영화까지 스타배우기용의 영역은 확대되었다.

이는 이들을 우상화 하고 추종하는 젊은 층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이들 젊은 영화관객층을 주선울영화의 영역으로 거부감 없이 끌어들이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중국영화계의 고도의 전략이자 마케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³⁾ 이는 이전 주선울영화에 비해 평단과 관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게 되는 밑거름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정부가 바라는 국가이데올로기의 긍정적 확산이라 할 수 있다.

4. 나오면서

지금까지 중국 주선울 영화의 블록버스터화에 대해 상업성과 국가이데올로기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주선울 영화에 상업성과 대중성을 주입시키면서 주선울의 상업화를 앞당기게 되고 결국 상업영화를 국가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 거기에 국가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며 블록버스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중국식 블록버스터란 가장 중국적인 소재인 무협, 전쟁이나 재난, 중국 공산당의 혁명적 인물이나 사건 등의 소재에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고 중국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 대형화된 작품을 의미한다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주선울과 상업영화의 결합, 중국식 주선울 블록버스터 영화는 중국영화의 현 추세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보인다.

주선울 영화의 범위확장은 일방적인 이데올로기의 주입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와 인물의 다양한 형상화와 스타배우의 대거기용, 촬영기법의 다양화 등으로 영화의 상업적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며 중국 영화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가 영화의 제작이나 홍보, 배급 및 상영 등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영화시장에서 상업영화가 살아가야 할길 또한 국가이데올로기 전파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중국정부의 영향력이 중국인민들에게

33) 박재형, <최근 중국 주선울 헌정영화의 흐름 분석 - 영화 <건국대업>(建國大業)과 <바람의 소리>(風聲), <건당위업>(建堂偉業)을 중심으로>, 《中國學》 제41집, 2012. 150~151쪽.

예전과 같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이러한 주선울 영화의 블록버스터화는 어떠한 면에서 중국정부의 국가이데올로기 단속과 영화의 상업적 측면이 상호간의 필요로 손을 맞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영화의 본질적 측면과 상업적 측면 그리고 국가이데올로기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게 되는 흥미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구, <馮小剛 賀歲片에 나타난 중국적 현실과 꿈>, 《중국인문과학》 2009, 제3집
- 곽수경 외, 《영화로 만나는 현대중국》(부산: 산지니, 2012)
- 박재형, <최근 중국 주선울 헌정영화의 흐름 분석 - 영화 <건국대업>(建國大業)과 <바람의 소리>(風聲), <건당위업>(建堂偉業)을 중심으로> 《中國學》 제41집. 2012
- 슈테판 크라머, 《중국영화사》(서울: 이산, 2000)
- 안상혁, 한성구, 《중국 6세대 영화, 삶의 본질을 말하다》(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 인 흥, 《중국 영상문화의 이해》(서울: 학고방, 2002)
- 이강인, <중국영화의 민족주의 현상에 대한 연구 - 영화<영웅>과 <집결호>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1, 2008.
- 이용철, <현대중국의 주선울영화와 독립다큐멘터리: 장르의 형성과 국가의 역할>, 《비교문화연구》14 : 1, 2008.
- 임대근, <포스트뉴웨이브 시대 중국 영화와 국가 이데올로기>, 《중국문학연구》37, 2009.
- 임지연, <중국블록버스터의 “트랜스내셔널” 주선울 영화의 흐름 - 컴퓨터그래픽이미지(CGI)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논문》, 2007. 8.
- 조복수,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의 중국 드라마 - ‘주선울’ 드라마를 중심으로>, 《드라마 연구》, 40, 2013.
- 한국 중국현대문학학회 엮음, 《중국 영화의 이해》(서울: 동녘, 2008)
- 常 春, <“唐山大地震”의屬性,策略,得失>,《藝術評論》, 2010年 第9期

- 高群書, <我們未必把正義與在臉上>, 《電影藝術》, 2009年 第9期.
- 韓三平, <<建國大業>主旋律影片的新觀念>, 《電影世界》, 2009年 第3期.
- 胡 克, <中國當代電影理論與實踐>, 《當代電影》, 2009年 第7期.
- 李海霞, <馮小剛電影市場研究>, 《當代電影》, 2006年 第6期
- 李 瑾, <主旋律電影市場化的反思>, 《東莞理工學院學報》, 2013年 8月. 第4期.
- 史東明、尹 鴻, <主流價值、商業訴求、電影產業>, 《當代電影》, 2010年 第1期.
- 王 卓, <淺議旋律影電影的創新與突破 - 以電影<建國大業>和<風聲>為例>, 《小說論評》, 2010年 第1期.
- 王寅博, <中國主旋律電影商業化探究>, 《社會科學論壇》, 2010/20
- 張志恒, <總“獻禮”片看“主旋律”電影的市場化>, 《聲屏世界》, 2009/10
- 朱 洁, 《20世紀90年代以來中國電影》, (北京: 中國電影出版社, 2010)
- <http://baike.baidu.com/view/206879.htm>
- <http://baike.baidu.com/view/2197830.htm>
- <http://movie.mtime.com/129119/>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263033>

〈中文提要〉

主旋律电影的核心特征是引扬主导意识形态。主旋律概念的核心是坚持社会主义制度、以中国共产党为领导核心、这些形成了社会主义核心价值体系。后来又加入了继承民族优秀传统文化,倡导爱国主义精神、学习一切优秀文化等内容, 形成社会的主导意识形态。

本论文认为中国主旋律影片的大片化现象分析, 通过国家意识形态和商业的侧面。论文先分析主旋律电影和商业电影的发展情况和前景。而且, 中国主旋律影片的大片化现象分析。主旋律电影经过九十年代到现在, 经历了很多变化。最近随着商业影片的发展, 主旋律电影开始接收了多样的题材和方式。通过这些研究分析下商业影片和主旋律电影结合发生的中国式大片。其中, 主要研究分析内容是中国式大片里面的国家意识形态特徵, 指向点和

电影产业侧面的成功要因。

第三章分析了中国主旋律大片中国家意识形态。先分析了武侠影片中国家意识形态，然後分析了战争、灾难影片中国家意识形态，战争、灾难影片中以冯小刚的两片中国式大片<集结号，2007>和<唐山大地震，2010>为中心。最後分析了献礼影片中国家意识形态。的加入类型化和商业化。以献礼影片是纪念中华人民共和国60周年和中国共产党创建90周年的主旋律献礼电影为中心分析。而且，分析了中国主旋律大片的商业的侧面上比较成功的票房结果要因。

关键词：主旋律影片，国家意识形态，冯小刚，献礼影片，商业影片，大片

투 고 일 : 2014.2.24

심 사 일 : 2014.3.3~3.31

게재확정일 : 2014.4.20

중국소수민족의 미래는 미국식모델로 가는가?*

- 베이징 조선족공동체 사례연구 -

예동근**

<목 차>

- I. 서 론
- II. 미국식 종족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검토
- III. 중국식 통합모델에서 미국식모델로 전환인가?
 - 1. 마오쩌둥시대 국가주도의 조선족공동체 형성
 - 2. 덩샤오핑 시대 국가에서 시장주도의 전환
 - 3. 포스트 덩샤오핑시대 시장, 세계화주도의 재편
- IV. 결론 및 요약

I. 서 론

중국의 소수민족문제는 외부세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티벳, 위구르지역에서 분쟁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에서도 구소련의 국가 분열과 민족독립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과연 중국 소수민족정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설령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더라도 국가통제가 강한 시스템에서 성공한 것이지, 중국의 개혁개방 30년을 거친 시장경제체제 환경에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2-B00233).

** 국립부경대학교 조교수 (buuli@pknu.ac.kr)

최근 중국학계에서 중국민족통치방식이 개인과 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모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주도로 특징지역에 자치를 실시하는 전통모델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민족공동체가 지속되는 이동, 자원배치, 개인권의 차원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전통적인 개인통제가 심하고 특징지역에 집단통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치방식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¹⁾

마오쩌둥시대에 국가주도의 민족구역자치제도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민족통합과 민족공동체의 발전에 유익한 발전방향으로 추진시켰다면, 1980년대 후반 덩샤오핑 시대에 국가중심의 사회경제체제에서 시장중심의 사회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족문제, 민족공동체의 발전은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었고, 소수민족들은 동화론(同化論)의 위기를 더욱 강하게 느꼈다.

2000년대에 세계화의 물결이 확산되면서 중국정부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불확실성에 골머리를 앓게 된다. 신속히 확산되는 통신기술, 고속철도, 글로벌 차원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만, 소수민족들이 과거에 단절된 해외의 종족집단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민족성의 재집중”이란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다.

중국정부는 “민족성의 재집중”²⁾을 할 수 있는 집단을 “과경민족(跨境民族)”이라고 정의하고, 해외의 민족교류에 특별히 유의하고 있다. 한편으로 해외자본을 유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족독립을 지원하는 “문화침투”, “경제침투”로 다루면서 통제수단이 더욱 다양화되었다.

중국정부와 소수민족의 관계를 통치-피통치로 볼 때 소수민족의 운명도 국가, 시장, 글로벌라이제이션은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어떻게 국가, 시장,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응하면

1) 김영구, <제2대민족정책 논쟁 연구: 국가주의의 틈에 갇힌 공론의 장>, 《현대중국연구》, 제15집, 2014.

2) 예동근, 2010a, <종족성의 자원화와 도시 에스닉 커뮤니티 재구성: 왕징코리아타운 조선족결사체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25집; 예동근, 2010b, <글로벌시대 중국의 체제전환과 도시종족공동체 재형성: 베이징 왕징코리아타운의 조선족 공동체 사례 연구>, 《민족연구》 제43집에서 “민족성의 재집중”이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서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가?

이처럼 국가, 시장,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3가지 차원의 문제를 안고 나름대로 잘 헤쳐나가는 집단이 있다면 바로 중국조선족이다. 조선족이란 집단이 거지집거지역 주변에 2개의 모국을 갖고 있는 과정민족³⁾집단이고, 국가의 힘에 의해 빠르게 민족 집거지역을 세웠고 높은 교육열과 선진문화로 중국에서 “모범적 소수민족”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덩샤오핑 시대에 제일 빠르게 연해도시로 이주하여, 90년대 후반 포스트 덩샤오핑 시대에는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으로 가장 빠른 규모로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의 민족정책의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 국가, 시장, 세계화란 큰 맥락에서 조선족집단이 재편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조선족 집단을 이동의 주체로 볼 때, 그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주동적으로 도시공동체를 재구성하면서 “민족성의 재집중화”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일부 연구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한 일부 조선족 학자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조선족의 이동을 글로벌라이제이션, 혹은 보다 낮은 관찰단위인 초국가적 현상에 접목하여 연구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200만 인구를 가진 조선족집단의 1/4이 모국인 한국에서 노동자, 친지방문, 국제결혼, 무역으로 장기체류하고 있으며, 일본, 러시아, 미국 등 한국 이외의 해외지역에서 거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기체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웨이하이, 광저우, 선전 등 경제가 발전한 지역으로 5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 이는 전통집거지역의 공동화, 전통집거지역 해체는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정책 성공의 치적으로 보이는 “모

3) 중국에서 조선족처럼 주변국경에 모국이 있는 민족은 조선족, 몽골족, 위글족, 키리키스탄족 등을 비롯하여 12개 정도가 있다. 이 부분의 연구는 金春子, 王建民: 《中国跨境民族》(北京, 民族出版社, 1994), pp.1~2를 참고하기 바람.

4) 박광성, 2006,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노동력이동과 사회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범소수민족지역”⁵⁾의 몰락으로 새롭게 재평가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나의 소수민족의 사례로 종족공동체와 국가, 시장,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관계를 잘 반영하는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찾기는 쉽지 않다.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연구는 장기간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한 민족이론이 주도를 하면서, 해석부면에서 서양이론과 상당히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설령 서양이론을 이용하여 중국의 민족문제를 다룬 일부 연구들도 “이식형 해석”으로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다.

2000년 후반이후 국내의 소수민족의 대도시 이동이 활성화되면서 진행되는 일부의 연구들은 “ethnicity”⁶⁾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민족연구의 국제화를 시도하는 노력들이 나타났으며, 중국 국내에서 큰 논쟁을 낳았다. 논쟁의 결과 중국 전통적 민족이론가들은 서구민족이론의 수용에 반발하면서 중국 국정을 전혀 모르는 “미국화”⁷⁾작업으로 비난의 결과로 이어졌고, 서양이론의 적극적인 수용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새로운 현상을 해석할 수 없는 전통민족이론의 수정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런 논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논쟁이 무모하게 진행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경험적 연구를 착실하게 진행하면서 “이론의 검증”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런 시도의 일환으로 미국의 종족이론으로 제일 잘 해석할 수 있는 “중국민족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정확한 “연구대상”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경 미국의 종족이론도 미국사회의 종족현상의 경험연구에서 정리하여 낳은 부분으로서 미국의 종족현상과 제일 가까운 “종족현상”을 찾아서 경험연구를 시도하는 작업이 중국의 민족이론과 서구의 종족이론의 만남의 장을 만들 수 있으며,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5) 예동근, 2010b, <글로벌시대 중국의 체제전환과 도시종족공동체 재형성: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의 조선족 공동체 사례 연구>, 《민족연구》 제43집.

6) 金炳镐, 毕耀光, 韩艳伟 “民族与族群:是概念的互补还是颠覆? 民族理论的前沿研究系列论文之二” 《黑龙江民族月刊》 第二期, 2012年.

7) 纳日碧力戈, “全球化视野下的中国民族关系研究:内视, 自觉与正义”, 《中央民族大学学报》, 第38卷 第6期, 2011.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II. 미국식 종족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검토

미국의 비교적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종족이론들은 초창기에 민족융광로(Melting pot)로 알려지는 동화론이다. 동화론은 경제적 지위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구조적 동화'(structural assimilation)와 이주국 언어 습득정도와 체류기간으로 측정될 수 있는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이다⁸⁾. 고든(Gordon, 1964)의 동화이론은 그 저서와 함께 중국에서 번역되었고, 베이징의 일부 대학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에서 전통주의 공산당이념에 근거한 민족이론들은 '동화'란 용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융화'란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앙과 멀리 떨어진 변방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여전히 본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지도 모르지만, 베이징에 체류하는 소수민족의 2세들은 대부분 본 민족의 언어를 상실하여, 신속히 동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동화이론의 적용을 볼 때, 중국은 미국보다 경제발전의 지역불균형이 심각하며, 도시화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도시성"은 반드시 고려하는 종족집단을 분석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종족이론의 역사를 살펴보면, 도시 종족이론의 발전에 기반을 마련한 시카고학파를 볼 때, 미국의 종족이론은 도시연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1965년 이후, 미국의 이민법 개정과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유입은 대부분 서비스업과 관련된 업종이 대도시에서 집중되었다.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성과들을 볼 때, 그들은 여전히 전통적 동화이론에 기반으로 하여 이론적 발전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차후 미국의 동화이론은 점차 종족집단의 계층화현상에 주목하면서 더 세밀하게 분석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포르테스 등 학자들은(Portes and Rumbaut 1996, Zhou, 1997) 분절동화론

8) Borjas, G. D, 1989, "Economic theor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 (3).

(Segmented assimilation)⁹⁾을 제기하면서 동화의 경로가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패턴으로 진행된다는 연구결과를 냈다. 첫째 경로는 주류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여 중산층으로 편입되는 것이고, 둘째는 동화에 실패하여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이며, 셋째는 동일한 민족집단 사람들과 유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가는 것이다¹⁰⁾ 이론·경험적 검증결과도 중국에서 2000년도 초반에 계층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도시계층연구의 연구 성과를 허용하는 도시공간에서 제한된 분석을 할 수 밖에 없다. 변방지역의 마을공동체에서 미국의 종족이론 적용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종족이론을 ‘도시성’에 기반을 두고 베이징의 분석대상을 도시로 제한할 때, 종족이론을 도시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적인 연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종족공동체와 ‘시장’의 관계에 초점을 둘 때, 층화론(place stratification framework)의 분석틀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층화이론이 광범하게 이루어진 것은 주택담보대출 정보공개법(Home mortgage Disclosure)이 공포된 이후부터이다. Logan and Molotch¹¹⁾(1987)가 주장한 층화이론은 거주지 분화가 주택시장에서 인종·민족적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차별적 관행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의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체가 소수민족의 주택 구입, 임대에서 차별을 주었는가 하는 경험적 연구는 없지만,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에서 위구르족 등 인종에 차이가 뚜렷한 소수민족 집단들이 호텔숙박, 주택임대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뉴스와 부분적 연구들은 중국이 시장체제 시스템에 소수민족 집거지역의 형성이 차별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도시개발과정에서 시장 시스템을 통한 재집중화의 기

9) Portes, Alejandro, and L. Jensen, 1989, “The Enclave and the Entrants: Patterns of Ethnic Entrants in Miami before and after Mari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929-949.

10) Zhang, Li, 2001a, *Strangers in the City: Re-configurations of Space, Power, and Social Networks Within China's Floating Popul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1) Rous, Roger. 1991, “Mexican Migration and the Social Space of Postmodernism,” in *Diaspora* 1 (1): 8-23.

반이 취약하여서인지 등은 종족공동체연구, 특히 종족공동체의 집거지역형성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징의 조선족 커뮤니티의 형성과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시기별로 국가, 시장,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1> 베이징조선족 형성의 시기별 특징과 영향력 요인

	국가	시장	글로벌라이제이션
1949-1978	●		○
1978-1999	○	●	◎
2000-현재	○		●

설명: 영향력은 ● > ◎ > ○로 표시된다.

베이징의 조선족의 시기별 특징과 영향력 요인으로 정리하면서 종족성론(resurgent ethnicity framework)을 재정리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종족의 거주지는 국가, 시장,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강한 국가에서 시장, 글로벌화의 적응으로부터 주도하는 것으로 전환하면서 도시공간의 변화가 종족성의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1990년 후반에 왕징(望京)이란 신도시개발이 점차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베이징의 우다오커우(五道口), 하이톈취(海澱區), 고려영 등 지역의 조선족들이 왕징으로 집중이주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대규모 한인들이 베이징으로 이동하면서 전통적으로 주거하였던 우다오커우, 하이톈취, 고려영 등 지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왕징 신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다. 이는 민족성이론이 도시거주지이론과 접목하면서 연구가 나온 1)다수의 새로운 이민자들이 도시의 전통적 집거지역이 포화상태가 되어 지리적으로 팽창하는 유출효과(spillover effect); 2)새로운 이민자가 친지나 친구 곁으로 정착하는 연쇄이민(chain migration); 3)새로운 이민자의 높은 사회경제적지위(high socio-economic status) 덕분에 전통적으로 낙후한 거주지역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집거지역에

정착하는 것이다. 이런 대규모 집거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배경에서 일어나며, 또한 해외의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지위가 있는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co-ethnic 집거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 집단에 제한되어 있다¹²⁾.

이처럼 미국에서 도시성에 기반을 둔 동화, 층화, 민족성이론은 보다 정교하게 정리하여 분석틀을 만들어 대도시에 이주하여 일정한 규모를 이루고 있는 과경민족을 분석대상으로 해야 하며, 전반적인 도시의 역사적 흐름과 변화 속에서 종족커뮤니티가 어떻게 국가, 시장,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종족 집단은 베이징에 거주한 역사도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종족이론을 도시성에 기반을 두었을 때, 역사적으로 동화→층화→종족성의 재집중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베이징에서 어떤 종족집단들이 동화, 층화, 종족 재집중의 과정을 겪는지? 어떻게 겪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서구의 사례연구와 비교 가능한 분석대상을 찾아서 시계열순서로 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베이징의 조선족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는 베이징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에서 1978년 개혁개방까지 일부 엘리트들이 국가정책에 의해 수도로 이주하였으며, 베이징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현지에 동화되는 과정이 변방에 집거한 조선족공동체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1978년부터 1992년 한중수교 전 베이징으로 조선족의 이주는 주로 베이징에 있는 대학생들이 졸업 후 베이징에서 취업한 직장인들이다. 이들은 전통집거지역의 조선족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베이징 조선족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종족성을 유지하고 상징하는 중요한 집단이다. 이들은 국가의 소수민족관련 정부기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며, 조금 느슨한 호구정책을 통하여 친인척과 친구들이 베이징에 정착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서 조선족 집거지역의 확장에 역할을 하였다. 세 번째는 1992년 이후 2000년 초반으로, 한국에서 같은 혈연민족으로 상징된 한인 집단의 베이징이주와 종족연결망에 의한 조선족집단의 분산적 이동이다. 이 시기에 베이징의 도시는 신속히 확장

12) Zhou, Min and J. Logan, 1991, "Returns on Human Capital in Ethnic Enclave: New York City's Chinatow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809-820.

되면서 왕징신도시가 나타났고 점차 왕징신도시로 한인(조선족과 한국 국적자)들이 집거하면서 베이징 조선족공동체의 내부의 층화현상이 출현하면서 부동산 이익집단들이 생기는 과정이다. 네 번째는 20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로 베이징에서 부동산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주택임대와 구매가 자유로워지면서 이주의 정착화가 나타나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조선족의 공동체경제가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종족성의 재집중현상이 더욱 선명하여졌다. 이 시기에 그들이 집거하는 왕징은 한인들이 대규모로 거주하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베이징에 거주하는 조선족에게 있어서 생활터전과 휴식공간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선족은 “과경민족”으로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의 종족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베이징에 정착한 대표적 종족집단이며, 중국의 국가, 시장,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종족공동체의 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집단으로 판단하고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베이징의 조선족을 종족이론과, 중국의 사회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조선족 공동체의 형성에 영향을 준 국가, 시장,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특징과 결부하여 분석대상을 조금 더 정교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표로 표시할 수 있다.

<표2 베이징 조선족 공동체의 형성과정>

	이주배경	이주집단	이주주거지 특징	흡인요인
1949~1978	소수민족 정책	엘리트	산발적 주거	국가정책
1978~1999	시장변화	시장 개척자	코리안 거리	호구정책/ 코리안 마켓
2000~현재	글로벌화/ 초국가화	모든 조선족	코리안 타운	조선족 마켓/글로벌 마켓

Ⅲ. 중국식 통합모델에서 미국식모델로 전환인가?

1. 마오쩌둥시대 국가주도의 조선족공동체 형성

1949년~1978년은 마오쩌둥의 시대이다. 마오쩌둥 시대는 국가독점의 시대이며, 국가호출에 호응하는 시대이다. 베이징의 조선족은 이런 국가호출에 의해 베이징으로 진출하였으며, 대부분 국가기관에 집중되었다. 중앙민족대학, 사회과학원, 중국과학원, 민족출판사, 민족사무위원회, 민족번역국, 민족방송국 등 국가기관에 집중되었으며, 군 고위간부 및 퇴직간부 그 자녀들이 베이징 조선족의 중심을 형성하였다. 1950년대부터 1978년 사이 문화대혁명으로 대학진출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그래도 부분적 대학생들이 베이징에 남게 됨으로써 소수의 대학생집단도 형성되었다¹³⁾

이 시기 중국은 엄격한 호구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인구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소수민족집단에 있어서 “수도=엘리트, 특수업종자”에 속하였다. 예컨대, 1978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박물관에서 중국민족문화궁에 파견되었던 소춘희씨는 빼어난 외모와 우연한 기회로 1980년대 위안화 2각(角)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고, 또 베이징의 민족문화궁에 일 자리를 갖게 되면서 베이징에 정착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가의 호출에 의한 특수직종은 베이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이다. 예컨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을 실시하는 중추기관인 민족사무위원회, 베이징 민족사무위원회 등 직종, 조선어관련 방송, 중국민족 등 민족언어 관련 등의 국가기관, 대학의 조선어문 관련 부처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3) 예동근, 2012. <조선족의 도시 이주적응과 다민족 관계>, 《디아스포라연구》, 제6권, 제1호.

<그림1> 화폐도안에 있는 조선족 소녀¹⁴⁾



조선족 소녀 소춘희

1980년 중국화폐도안과 연변박물관소녀 소춘희

민족문화궁과 같은 기관으로 파견, 정착하여 베이징으로 진출한 것은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이며, 다른 국가호출에 비하여 그 비례도 매우 적다. 비교적 많은 이동과 정착경로는 언어, 문자와 관련한 교육, 문화, 언론기관으로 파견이다. 예컨대, 베이징대학 동방언어학부(한국의 단과대학에 해당)의 조선어학부의 설립과 교원 충원, 중앙민족대학교 조선어학부의 설립과 교원충원, 민족번역국의 조선어부서의 교원 충원 등 많은 문화, 교육, 출판업계에서 민족정책실시의 일환으로 조선족엘리트들이 동원되어 베이징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그 당시 비교적 중요한 이동경로였다.

그 당시 북한과 중국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문화교류가 빈번하였고, 북한과 교류가 많은 부처에 조선족들이 배정되었고, 군 장교출신의 고급간부들이 베이징의 중난하이(中南海)와 가까운 핵심지역에 거주하였지만, 인구수는 매우 적었다.

당시 조선족이 비교적 많이 거주한 지역은 민족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베이징의 서북지역인 하이텐구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때 당시 “단위”제도를 실시하였고, 학교기관과 주거지역의 공간이 함께 있는 도시건설계획에 의해 집중되었다. 여타 소수민족집단지 무슬

14) <http://news.sohu.com/20061013/n245778098.shtml>

림을 신앙하는 회교도들은 “니우지에”(牛街)에 집중되었고, 이슬람의 음식문화도 고유의 종교문화가 있기에 무슬림 국가의 국민대접, 종교사찰 등 관련한 주방장, 민족호텔관리, 종교생활재생산 등 관련한 국가호출에 의한 이동이 다른 소수민족집단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¹⁵⁾.

이러한 이동과 정착은 미국의 이민국가에서 이동의 자유에 기반을 둔 정책과 전혀 다르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힘도 상당히 약하다. 이전 냉전 시대전의 사회주의 국가의 인구이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조선족의 이주 역시 국가중심으로 일어났으며, 베이징의 조선족사회를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덩샤오핑 시대 국가에서 시장주도로의 전환

1978년부터 1992년의 중국은 덩샤오핑의 시대이다. 덩샤오핑 시대에 베이징 조선족의 이주에서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개혁개방이란 시장체제의 도입과 함께 시장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하여졌다. 1980년대 초 이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졌지만,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친척, 친구, 고향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매우 어려웠다.

1982년도에 베이징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인구는 3,734명으로 집계되었는데, 1949년부터 조선족이 백 명도 넘지 않았다는 증언에 따르면, 국가에 의한 기계적 유입이 주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90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베이징 조선족 인구는 1990년도에는 7,375명으로 증가하였다(중국국가통계국, 1993)¹⁶⁾. 이는 국가기관이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중국의 각 부처에서 인원감축을 하는 시기에 국가의 기계적 유입은 한계가 있었으며, 자연 성장률도 2배 이상 증가할 수 없다.

이 시기는 국가의 역할도 있었지만, 단순히 국가의 기계적 유입으로

15) 良警宇, 《牛街：一个城市回族社区的变迁》，中央民族大学出版社，2006.

16) 제3차, 제4차 통계자료는 대부분 베이징 호구를 갖고 있는 인구를 표집으로 하였기에, 통계에 집계된 인구는 대부분 베이징 호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 80년대 초반에 여전히 엄격한 인구통제가 실시되었음으로 베이징조선족인구는 5천 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한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당시 개혁개방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적 요인에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잠시 중단되었던 이동이 1992년부터 갑자기 폭증하면서 “농민공”이란 형태로 노동력의 이동이란 특이한 대량이동현상이 중국에서 나타났다. 소수민족의 이동은 한족보다 느렸으며, 소수민족지역의 특수요인과 대다수 소수민족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하여 이동이 한족집단보다 더 어려웠다.

이동을 배출하는 배후지역으로 소수민족들은 이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언어, 문화가 사라지고, 민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하였고, 한족들보다 정치적 지위, 사회적 신분의 상승이 이동함으로써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조선족은 1992년부터 인구이동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고 인구이동이 다른 소수민족과 다르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종족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¹⁷⁾.

그럼 왜 1990년대 조선족의 이주는 다른 민족 집단에 비하여 빨랐으며, 어떤 경로로 이동이 일어났고, 이시기 이주의 특징은 국가중심의 엘리트이주와 어떤 차별이 있는가?

예동근(2009, 2010, 2012)과 박광성(2006)의 연구에서 1992년 한중수교로 한국인들이 베이징, 칭다오 등 대도시로 집중 이주함으로써 “종족성흡입이동”이란 특이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¹⁸⁾. 즉 베이징에 진출한 유학생, 주재원 등이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의 재생산에서 “언어”와 “문화”의 코드가 중요시 되는 노동력이 필요하였는데, “조선족”이란 종족집단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한중수교 이전에는 주로 조선족이 개혁개방과 산업화, 도시화의 확산으로 베이징으로 진출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1982년에 베이징에 상주하는 조선족은 3,734명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7,375명으로 2배

17) 예동근, 2010b, <글로벌시대 중국의 체제전환과 도시종족공동체 재형성: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의 조선족 공동체 사례 연구>, 《민족연구》 제43집.

18) 박광성, 2006,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노동력이동과 사회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은 전국 전체에서 제2차의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조선족이 거주하는 경제가 낙후한 동북지역이 인구배출의 강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강한 것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베이징의 조선족이동과 커뮤니티형성에서 다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여성의 이주와 정착에 대한 연구이다. 1980년대 초~1990년대 말 조선족의 이동과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노동력의 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1980년대 초반에 이동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다.

이는 중국의 도시화, 산업화과정에서 서비스업종의 확장에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족의 여성들은 식당, 관광업, 숙박업 등에 빠르게 적응되었다. 특히 외지에서 강한 적응력은 농촌의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높았다. 동북 3성의 조선족 여성들이 조선족이 집거하는 하이톈구의 학교 부근에서 ‘짚지장사’란 자영업에 주로 종사하는 형태로 베이징으로 이주를 시작하였고, 점차 사업이 확장되면서 가족이동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베이징의 경우가 베이징호구를 가진 베이징의 조선족들은 모두 국가기관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족의 일부는 시장에 의하여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자영업은 처음에는 혼자 할 수 있지만, 규모가 조금 확대되면 친척, 동향, 친구들을 찾아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조선족의 시장중심의 서비스업종은 갈수록 특정한 공간에 집중되었다.

예컨대, 중앙민족대학 뒷골목에 조선족관련 음식업체들, 중국언어대학이 위치한 지역 주변에 조선족관련 업소들은 갈수록 동향인, 종족성을 중심으로 시장분산형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베이징의 조선족의 이동이 시장분산형으로 다층화되는 것은 베이징의 도시건설과 한국인의 이주 및 거주환경에 대한 수요의 다층화로 변화되었고,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또 하나의 연결망을 이루는 것은 다른 종족집단이 없는 특이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한국인 관광객의 증가, 중국 유학 붐 등으로 인해 비교적 다양한 계층의 한국인들이 베이징에 거주하게 되었다. 90

년대 말까지 베이징시 정부는 엄격한 외국인 격리정책을 실시하였다. 외국인은 대부분 국가가 지정한 호텔을 중심으로 거주해야만 했고, 일반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은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997년까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 유학생이 일정한 규모를 형성하면서, 집값이 싼 베이징시 하이톈구 우다오커우(五道口)의 베이징 어언대학 중심으로 코리안 거리가 형성되었다. 한국 간판으로 쓰인 음식점, 병원, PC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들이 살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더불어 중국이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면서 개발한 ‘아시아촌’이 새롭게 개발되었다. 이 지역은 비싼 집값, 우수한 거주환경으로 인해 대부분 주재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변해갔다. 이렇게 우다오커우의 베이징 어언대학과 ‘아시아촌’이 코리아타운의 두 결집점이 되었던 것이다.¹⁹⁾

코리아타운의 발달에 힘입어 동북 3성의 조선족도 베이징으로 활발히 진출하게 되었다. 우선 한중수교와 중국의 시장개혁의 하나의 결과로 나타났던 ‘샤하이(下海) 바람’, 즉 공무원들이 공직을 버리고 시장경제에 뛰어들어 비국유기업에서 종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조선족 대학생들도 졸업 후 ‘철밥통’을 버리고 월급이 많은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여행사의 가이드로 출발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이다.²⁰⁾

현재 베이징에서 일정한 규모의 재산을 모은 자산가들을 보면 대부분 1990년대 초 한국 기업 혹은 여행사를 통하여 자본축적을 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공무원 생활을 할 당시 배분된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코리아타운과 격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자은 주로 유학생과 주재원이었고, 이들이 중국생활 적응을 위해 조선족 보모(保姆)를 고용하면서 가정부의 수요가 증가했다(예동근, 2009, 2010, 2012).

19) 예동근, 2010b, <글로벌시대 중국의 체제전환과 도시종족공동체 재형성: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의 조선족 공동체 사례 연구>, 《민족연구》 제43집.

20) 위와 같음.

우다오커우 지역 코리아타운의 강제 철거, 왕징 신도시의 입주 시작으로 인하여, 우다오커우 지역과 ‘아시아촌’에 살던 한국인은 집값이 저렴한 ‘화자디’ 지역과 왕징 신도시에 새로이 모여들었다. 이것이 ‘뉴 코리아타운’, 즉 ‘왕징 코리아타운’의 시작이었다(예동근, 2009, 2010, 2012).

덩샤오핑의 시대의 조선족의 베이징이주를 정리하여 보면, 1978년부터 1989년 천안문사태 전까지 이동은 제한적이었으며, 베이징의 조선족들이 친인척을 중심으로, 일부 모험정신이 있는 개척자들이 베이징으로 진출하였지만 소수에 불과하였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 함께 제2차 개혁시대가 열리면서 시장화란 거대한 사회적 변혁이 일어났으며, 국유기업 민영화, 도시주택의 상품화를 통해 주택거주지의 차별화가 일어났다. 특히 1994년부터 첫 번째로 상품화로 개발한 왕징4구, 왕징3구 고급 아파트단지가 개발되면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주택거주지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중국은 그 이후 본격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이동의 붐과 함께 조선족의 이동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를 맞이하면서 조선족이동은 한민족이란 종족성의 재집중화로 이동경로가 점차 종족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1992년 이후부터 우다오커우(五道口)중심으로 코리아안거리가 형성되었고, 점차 서쪽으로 확산되면서 화갑지(花甲地)로 확장되었다. 1990년 대 말에 왕징이란 신도시가 확장되면서 일부 한인들이 왕징에 집거하기 시작하였고, 종족 집거지역이 형성됨으로 인해 조선족들의 왕징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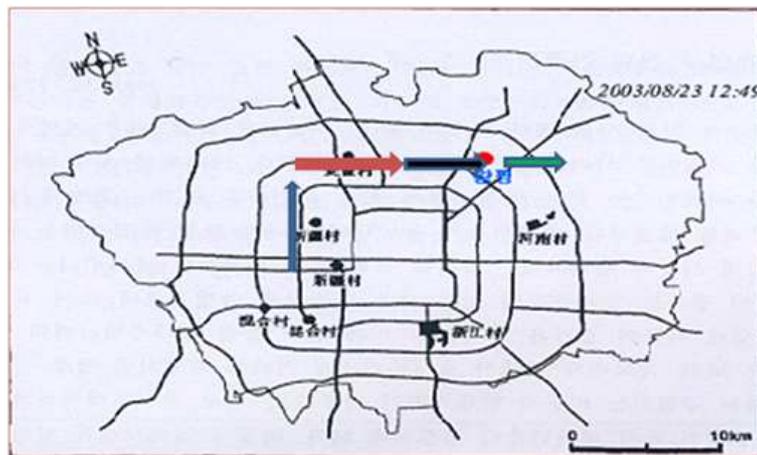
또한 주택의 상품화와 함께 계층이 분화되면서 다양한 계층들이 출현하였다. 조선족 커뮤니티에도 일찍 정착한 조선족(老北京)과 개혁개방 이후 정착한 조선족(新北京), 그리고 2000년 후반에 왕징을 중심으로 집거지역을 형성하는 왕징 조선족(望京朝鮮族)사이에는 서로 다른 문화코드를 형성하고 있으며, 계층분화도 조금씩 뚜렷하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동주체가 여타 소수민족과 한족들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높은 임금”을 받는다. 미국의 코리아타운 한인들의 이주자들의 교육수

준이 중국계, 일본계와 비교할 때 뚜렷한 강점이 없다. 그리고 임금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비교되는 점이다. 즉 조선족의 이동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신분상승을 더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동경로와 주거지특징으로 볼 때 조선족의 베이징 도시이주는 점, 선, 원으로 집거지역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로 뒤집은 “ㄴ”인 “ㄱ” 형태로 지속적으로 공간확장이 되면서 집거지역이 확장되는 특징이다. 베이징에 여타 이주민들의 집거지역은 철거되면서 사라지는 반면 조선족의 집거지역이 한인종족성에 기반으로 하는 집거지역으로 파고들면서 확장되는 특징은 미국의 코리아타운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새로운 집거지역의 형성과 구 집거지역의 해체 혹은 쇠락으로 출현하지만, 조선족의 집거지역은 점-선-면으로 연결되면서 기능적 분화가 강화되는 특징이다.

<그림2> 조선족의 “ㄱ”형 집거지역 형성과정



3. 포스트 덩샤오핑 시대 시장, 세계화주도의 재편

조선족의 도시이주가 2000년대에 집중되는 것은 2000년대에 한국인

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여 이동진입의 장벽을 낮춘 것과 관련이 있다. 다른 하나는 조선족이 해외이주를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대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인적자본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자본을 축적한 조선족들은 동북지역의 농촌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인과 조선족이 많이 집거하는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시기에 조선족 인구 이동이 대규모로 일어났고 주거권역의 인구규모가 신속하게 증가되었다. 이진영, 박광성의 2006년 연구에서 50~60만 명의 조선족이 새롭게 형성된 국내 주거권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만 명 정도가 해외에 집거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²¹⁾ 이진영은 중국의 수도권에는 조선족이 17만 명, 한국인이 12만 5천 명, 상하이 창장 삼각주 유역을 지칭하는 화동지역에는 조선족이 약 8만 5천여 명, 한국인 6만 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그리고 산둥반도 인근지역에는 조선족 18만 명, 한국인이 12만 명, 대련에는 조선족과 한국인을 합쳐 5만 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심양의 경우에는 시타(西塔) 거리의 한국인, 조선족 상권은 한국주(韓國周)를 열 정도로 성장하였다. 해외 조선족 인구와 관련하여 최근의 법무부 통계는 재한 조선족 인구를 38만 명으로 추정하며²²⁾ 박광성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 5~10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의 논의로 볼 때, 2000년에 들어서서 5대 경제권²³⁾의 코리안 주거권역은 한국인과 조선족을 포함하여 100~120만 명 규모로 성장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은 200만 총 인구의 1/4가량이 국내 연해도시로 이주하였고, 같은 수의 조선족이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국내 연해도시로 재이주하는 상황이 반복됨을 볼 때, 연해지역의 코리아타운은 갈수록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1) 박광성, 2006,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노동력이동과 사회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2) 법무부, 2009, 《외국인 정책통계연보자료》.

23) 이진영은 연해지역의 5대 경제권역을 베이징-천진 수도권, 청도-위해 산둥권, 심양-대련 발해만권, 상해-남경 화동권, 심수-광주 화남권으로 나누고 있다(이진영, 2006).

왕징 코리아타운이 급속히 성장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 1992년도 한중 수교 당시 한중 간 인적교류는 연간 13만 명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을 지나면서 양국 간의 인적교류는 482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후 매년 1만 명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매년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2005년에는 392만 명, 2006년과 2007년에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은 70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유학생의 수도 2001년부터 매년 25%씩 증가하여 1999년도에 16,0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06년에는 54,000여 명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중국에 체류하는 전 세계 유학생의 38%에 해당한다. 어학연수 및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생까지 포함하면 60,000명 내지 7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⁴⁾.

2000년 이후, 한중 간 경제교류도 매우 활성화되었다. 2007년에 중국은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면서 한·중 간 무역총액은 1,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대중수입은 2002년부터 연평균 30%씩 증가하면서 2007년에 63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대중수출은 2002년에 200억 달러를 넘긴 이래 매년 평균 12.2% 속도로 증가하면서 2007년에 8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0년 이후에 왕징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현재 왕징에 거주하는 공식통계에 따르면 조선족 거주인 수는 1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현지조사에 따르면 왕징에 사는 조선족은 3만여 명으로 보고 있고, 한국인은 5~6만 명으로 보고 있다.

왕징 지역은 1970년대만 해도 라이광잉촌(來廣營村)에 속한 농촌지역이었다. 1980년대 초기에도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생원, 베이징 청년정치학원, 베이징 중의학원 등 소수의 학교 외에는 대부분 농지로 이루어졌고, 주거지는 농민들이 사는 허술한 단층집이 다수였다. 왕징 지역 중 처음으로 개발된 곳은 화자디(花家地)였다. 화자디는 원래는 주로 산

24) 但兴悟, 2007, “中韩关系十五年”, 《한중수교 15주년 & 재한조선족유학생 네트워크 창립 4주년 기념 심포지엄》, 크라운호텔, 2007년 11월 24일, pp.1~5.

초(花椒) 재배지로 활용되었던 농지지역으로, 산초지란 뜻으로 화자오디(花椒地)라 불리던 것이 1988년 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지역에 처음으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화자오디’와 발음이 비슷한 화자디(花家地)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 그 후, 중앙미술학원이 이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많은 미술가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화가들이 모이는 지역이라 해서 화자디(花家地)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1990년대 초에 베이징시에서 왕징 지역을 거대 주택단지로 건설하면서 베이징을 마주보고 있는 도시이면서 부도심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왕징 신도시(望京新城)’가 형성되었다. 1997년 입주를 시작한 ‘왕징신성’ 아파트로 대표되듯이 왕징은 점차 베이징의 외곽지역에서 서울의 분당과 같은 중산층 계층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또한 원주민이 거의 없던 지역에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여기에 한국인이 우선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다국적, 다민족이 거주하는 국제지역으로 변화되었다.

왕징은 베이징의 동북부 지역 외곽의 4환과 수도비행장 고속도로 교차점에서 부채형으로 외곽으로 연장된 지역이다. 왕징은 주로 3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설계·건설되었는데, 남에서 북으로 가면서 왕징신성, 신기술개발구, 물류창고 지역이 들어서 있다.

글로벌형 코리안커뮤니티 형성과 재편과정을 정리하여 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포스트 덩샤오핑시대)시장화는 가속화되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1997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일부 한국인들은 베이징을 떠나면서 코리아타운이 약간 감소되는 경향은 있었으며, 조선족기업들도 새롭게 자립과 새로운 도시사회에 적응되는 길을 찾아야 했다. 종족성을 기반으로 형성한 서비스사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현지화로 눈길을 돌리면서 내수시장을 확장하는데 조선족은 독특한 언어와 문화로 적응력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왕징은 거대한 조선족타운을 형성하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종족집거지역을 형성하였고, 종족공동체가 형성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 왕징의 조선족들

은 더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연교(燕郊)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보다 저렴한 주택가격 등으로 주변화되는 경향도 있지만, 왕징은 종족성커뮤니티의 상징성을 갖는데 성공하였다. 왕징은 전체 조선족공동체에서 있어서 일자리 창출, 생산과 생활이 혼잡한 공간에서 점차 분화되어 중요한 생활공간과 소비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은 여전히 부정하기 힘들다.

I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베이징 조선족 공동체의 형성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949년 마오쩌둥 시대의 국가중심의 이동, 덩샤오핑 시대의 시장중심의 이동, 포스트 덩샤오핑 시대의 글로벌 이동을 중심으로 조선족의 이동과 정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베이징의 조선족 공동체의 형성을 중국의 거대한 사회변혁을 국가주도, 시장주도, 글로벌화 중심이란 키워드로 변화의 핵심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종족공동체가 어떻게 태동되고, 활약하고, 변화를 겪으면서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정리하였다. 미국의 도시화 맥락에서 종족공동체가 겪는 국가중심의 동화, 시장중심의 층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종족성의 재집중화와 다양화란 3단계 현상이 베이징의 조선족의 이주에서 재발견하였다.

종족성으로 볼 때 비슷하지만, 국적으로 구분 한 조선족과 한국인으로 나누어 볼 때 베이징의 조선족공동체는 이동주체가 여타 소수민족, 한족들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높은 임금”을 받는다. 미국의 코리아타운 한인들의 이주자들의 교육수준이 중국계, 일본계와 비교할 때 뚜렷한 우세가 없다. 그리고 수령하는 임금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비교되는 점이다. 즉 조선족의 이동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신분상승을 더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동경로와 주거지특징으로 볼 때 조선족의 베이징 도시이주는 점, 선, 원으로 집거지역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로 뒤집은 “ㄴ”인 “ㄱ” 형태로 지속적으로

공간확장이 되면서 집거지역이 확장되는 특징이다. 베이징에 여타 이주민들의 집거지역은 철거되면서 사라지는 반면 조선족의 집거지역이 한인 종족성을 기반으로 하는 집거지역으로 파고들면서 확장되는 특징은 미국의 코리아타운들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대부분 신집거지역의 형성과 과거집거지역의 해체 혹은 쇠락으로 출현하지만, 조선족의 집거지역은 점-선-면으로 연결되면서 기능적 분화가 강화되는 특징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도시화중심의 종족성이론들을 동화-층화-종족성 집중화로 분석틀을 만들어 처음으로 중국의 대도시인 베이징의 도시화 과정에서 조선족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런 이론들은 여전히 대부분 소수민족들이 낙후한 지역, 농촌지역에 집거하는 종족커뮤니티를 분석하는데 매우 큰 한계를 갖고 있지만, 미래지향으로 차후 중국의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도시의 소수민족들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효한 방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 도시화율이 90%이상인 시점에 외국인들이 집거하는 지역에 종족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고 분화되면 재집중되는 것을 분석하는데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영구, <제2대민족정책 논쟁 연구: 국가주의의 틈에 갇힌 공론의 장>, 《현대중국연구》15:2(2014)
- 박광성,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노동력이동과 사회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 예동근, <조선족의 도시 이주적응과 다민족 관계>, 《디아스포라연구》6:1(2012)
- 예동근, <종족성의 자원화와 도시 에스닉 커뮤니티 재구성: 왕징코리아타운 조선족결사체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25(2010a)
- 예동근, <글로벌시대 중국의 체제전환과 도시종족공동체 재형성: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의 조선족 공동체 사례 연구>, 《민족연구》43(2010b)

- 예동근, <초국가적 도시화의 관점에서 바라 본 동북아공동체 -도시 조선
족 공동체의 형성을 중심으로->, 《21세기 동아시아 공동체구축과 민
족의 조화(국제학술대회 자료집)》(2007)
- 이진영, <중국 5대 경제권역의 새로운 재중동포 권형 형성 및 시각>, 전
남대학교 한상연구단 발표논문(2006)
- 纳日碧力戈, <全球化视野下的中国民族关系研究:内视,自觉与正义>, 《
中央民族大学学报》38:6(2012)
- 金炳镐, 毕耀光, 韩艳伟, <民族与族群:是概念的互补还是颠覆?民族理
论的前沿研究关系列论文之二>, 《黑龙江民族丛刊》2(2012)
- 但兴悟, <中韩关系十五年>, 《한중수교 15주년 & 재한조선족유학생네
트워크 창립 4주년 기념 심포지엄》(2007.11)
- 良警宇, 《牛街:一个城市回族社区的变迁》, 中央民族大学出版社
(2006)
- Borjas, G. D., 1989, "Economic theor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 (3).
- Portes, Alejandro, and L. Jensen, 1989, "The Enclave and the
Entrants: Patterns of Ethnic Entrants in Miami before and after
Mari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929-949.
- Rous, Roger. 1991, "Mexican Migration and the Social Space of
Postmodernism," in Diaspora 1 (1): 8-23.
- Zhang, Li, 2001a, Strangers in the City: Re-configurations of
Space, Power, and Social Networks Within China's Floating
Popul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Zhou, Min and J. Logan, 1991, "Returns on Human Capital in Ethnic
Enclave: New York City's Chinatow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809-820

<Abstract>

The Chinese government's ethnic minority policy is under transition from state-centered approach to market-oriented one.

While the role of state such as strict population control, resource allocation, and the guarantee of cultural right is on decrease, the power of market, which promotes de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ethnic minority community, is on the rise. Against this backdrop, an observation of the Korean Chinese community reveals that both state-centered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and market-oriented reconstruction have existed/exists in the community. This study examines state-centered construction (Mao Zedong era), transition from state-centered approach to market oriented one (Deng Xioping era), and market-oriented approach (post Deng Xioping era)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Korean Chinese community. Finally, from the theoretical standpoint of view represented by ethnic and enclave theory, it can be concluded that it is not the consequence of uniqueness of the Korean Chinese community, but a general trend across different ethnic minority groups, although the Korean Chinese community undergoes faster transformation due to the influence of neighboring their home country.

Key Word : American Model, the Future of Ethnic Minority, China, Korean Chinese Community in Beijing, influence

투 고 일 : 2014.2.23

심 사 일 : 2014.3.3~3.31

게재확정일 : 2014.4.20

근대 중국 화북 한족의 ‘만주(滿洲)’ 이동과
동북지방 노동자 구성*
- 1930년대 전반 대련(大連) 및 그 배후지를 중심으로 -

권경선**

< 목 차 >

1.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2. 화북지방 한족 노동자의 동북 이동 규모와 양상
3. 1930년대 대련 및 그 배후지 노동자의 구성과 특징
4. 나오며

1.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본고는 1930년대 전반 중국 화북지방(華北地方) 한족(漢族)의 동북지방(東北地方)으로의 이동이 대련(大連) 및 그 배후지의 노동자 구성과 노동관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근대 해항도시 대련의 사회구조적 특징의 일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구구성의 지역적 차이는 그 지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인구의 지역적 이동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의 역사적 발전과 변천을 반영하므로 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징을 규명하는데 유효하다. 근대 동북아시아의 해항도시들은 도시 건설 혹은 재건설,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이는 지역에 따라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외부로부터 대규모 인구 유입을 촉발하여 도시의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B00001).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인구구성과 사회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중국의 해항도시들 중에는 상해(上海), 천진(天津)과 같이 구 도시의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제국주의 각 열강의 조계가 들어서면서 근대 도시로 발전한 경우와, 대련, 청도(靑島)와 같이 도시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건설된 신흥도시가 있었다. 이들 도시는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내 거점으로서 외국을 비롯한 역외 지역 인구의 유입이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졌으나, 필요 노동력의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배후지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다. 특히 신흥도시로서 현지 주민으로 필요 노동력의 충족이 더욱 어려웠던 대련, 청도는 외부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청도가 필요 노동력의 대다수를 배후지 산둥성(山東省) 각지에서 공급받았던 것과 달리,¹⁾ 대련은 배후지의 인구가 희소하여 필요 노동력의 과반을 산둥성을 비롯한 화북지방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자의 내원(來源)은 대련 산업노동자의 구성과 수급관계 및 관리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 사회 및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근대 대련을 비롯한 동북지방 노동자에 관해서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일본 식민통치기 대련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도시건설 등을 다룬 郭鐵樁·關捷·韓俊英의 연구는 근대 대련의 전체상은 물론 당시 산업구조와 노동자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²⁾ 松村高夫·江田憲治·解學詩의 연구는 ‘만주국(滿洲國)’을 중심으로 당시 동북지방 산업계를 장악하고 있던 남만주철도 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이하 만철) 산하의 기업, 공장, 탄광, 부

1) 독일점령기(1897~1914) 및 일본점령기(1914~1922) 청도 산업노동자의 대다수는 산둥성 각지 출신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노동력 수급관계 및 관리방식의 기저에는 산둥성의 사회적 통념부터 지연관계까지 산동 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층위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었다. 권경선, <독일·일본점령기 칭다오의 산업구조와 도시노동자> : 구지영·권경선·최낙민 편저, 《칭다오, 식민도시에서 초국적도시로》(서울: 선인, 2014), 127~156쪽.

2) 郭鐵樁·關捷·韓俊英, 《日本殖民統治大連四十年史》(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국내에도 역서가 발간되었다. 郭鐵樁·關捷 주편, 韓俊英 부주편, 신태갑 외 옮김, 《일본의 대련 식민통치 40년사》(서울: 선인, 2012).

두에 종사하던 중국인노동자의 노동사를 고찰했다.³⁾ 대련의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柳澤遊는 20세기 전반 대련부두의 하역노동 관리를 중일전쟁 이전, 중일전쟁시기, 아시아태평양전쟁시기로 나누어 분석했다.⁴⁾ 王洪恩·曲傳林의 연구는 대련부두 노동자를 수용·관리하던 북창화공주식회사(福昌華工株式會社)를 중심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인노동자에 대한 압박과 착취의 측면을 고찰했다.⁵⁾ 동시에 이러한 차별구조에 대한 저항으로서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도 전개되었다. 薛志剛의 연구는 러시아 제국주의 하에서의 대련 지역 노동자의 투쟁을 다루었고,⁶⁾ 唐進은 1900~1920년대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의 대련 지역 노동운동을 개설했다.⁷⁾ 左域封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1920년 대련의 만철 사하구(沙河口) 철도공장에서 발생한 중일노동자 연합 파업을 분석했다.⁸⁾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민족·계급차별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던 노동자에 대한 압박, 착취라는 측면과 그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조직적, 자발적 운동을 중심으로 관련 구조와 양상을 규명했다.

필자는 기존 연구들이 밝혀낸 노동자를 둘러싼 차별과 저항의 양상과 더불어 노동자의 내원으로서 화북지방 출신자의 이동에 주목할 필요가

3) 松村高夫·江田憲治·解學詩, 《滿鐵勞動史の研究》(東京: 日本經濟評論社, 2002). 解學詩·松村高夫, 《滿鐵與中國勞工》(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이들 연구는 먼저 당시 '만주국'의 생산과정을 분석했다. 즉 만주국 정부가 어떠한 노동정책을 전개했고, 국책회사로서 만철이 만주국과 관동군 사이의 대립과 협조관계 속에서 어떠한 기업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가를 고찰했다. 동시에 노동자의 의식주라는 생활과정을 뚜렷하게 밝히는 한편, 이와 같은 생산과정과 생활과정에 놓인 중국인노동자의 조직적 혹은 자발적 저항에 주목하여 만주국 시기 동안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투쟁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4) 柳澤遊, 〈大連埠頭〉: 松村高夫·江田憲治·解學詩, 앞의 책, 249~284쪽.

5) 王洪恩·曲傳林, 〈日本帝國主義殖民統治時期的大連福昌華工株式會社〉, 《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1986:6(1986.12), 84~88쪽.

6) 薛志剛, 〈大連工人階級反抗俄國殖民統治的鬭爭〉, 《大連近代史研究》10(2013.10), 223~230쪽.

7) 唐進, 〈略論大連工人運動〉, 《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1984:4(1984.7), 81~84쪽.

8) 左域封, 〈中日無產者的兄弟聯盟——1920年滿鐵沙河口工廠中日工人聯合罷工簡述〉, 《遼寧師院學報》1982:5(1982.10), 76~80쪽.

있다고 본다. 산동성 한족의 동북 유입은 18세기부터 시작되어 청조의 봉금(封禁) 정책 하에서도 꾸준히 이어지다가 영구(營口), 대련 등의 해항지가 개항되고 항만과 철도가 갖추어지는 19세기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산동성 및 하북성 등 화북지방 한족의 유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인과 조선인을 비롯한 기타 외국인 이민도 증가했다. 특히 화북 출신 한족은 이 지역 노동자는 물론 전체 인구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한족의 이동은 출신지인 화북지방과 유입지인 동북지방의 정치·경제·사회 변동은 물론, 지역 문화의 혼종과 변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대련 및 배후지의 노동관계를 화북으로부터의 이민과 관계 지어 살펴보는 것은 대련의 사회구조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근대 동북아시아 인구 이동의 거대 조류가 이 지역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그 기초 작업으로서 만철 조사 자료를 비롯한 일본어 자료를 분석하여,⁹⁾ 1930년대 전반 화북 한족의 이동 양상과 대련 및 그 배후지의 노동자 구성, 수급·관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30년대 전반은 소위 ‘만주사변(滿洲事變)’을 거치며 일본 제국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시기로서, 이를 전후하여 화북 한족의 이동 양상과 동북지방 산업계 및 노동계의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 중요한 시기이

9) 본고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만철경제조사회가 편찬한 《滿洲の苦力》이다.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滿洲の苦力》(大連: 南滿洲鐵道, 1934). 당시 동북지방 경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일본의 국책회사 만철은 이 지역 중국인 비숙련노동자의 일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 이 자료를 편찬했으며, 본고가 주로 이용하는 것은 1934년의 증보개정판이다. 책의 범례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당시 한족 비숙련노동자는 ‘만주’ 산업계의 모든 부문에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었으며, 특히 광산, 부두·철도 하역, 토목건축공사에 종사하는 육체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지역 산업계에 있어서 한족 노동자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였고, 그 내원이 되는 화북 한족의 이동 양상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조사와 고찰의 대상이 되었다. 《滿洲の苦力》의 콜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만철 측의 필요에 의해 발행된 자료로 한족의 이동 양상과 동북지방 노동자구성 및 그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본고는 이 자료와 함께 만철에서 발행한 기타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당시 화북 한족의 이동과 대련 노동력 수급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 본론에서는 먼저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전반에 걸친 화북 한족의 동북 이동 양상을 살펴본다. 필자는 별도의 연구에서 같은 시기 산둥성 출신 한족 주민의 동북 이동의 원인과 이동 규모 및 경로, 그리고 이동 과정 중 산둥반도 해항도시의 역할을 고찰했다.¹⁰⁾ 본고의 2장에서는 그 후속작업으로서 요동반도 각 해항도시로의 입항을 중심으로 유입 인구의 규모와 목적, 경로를 개설한다. 3장에서는 이렇게 유입된 한족 노동력이 바탕이 되던 대련 및 배후지 산업계의 노동자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고, 노동력 수급관계와 노동자 모집방법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이 지역 노동자 구성 및 노동력 수급관계에서 화북 한족의 역할을 고찰하고, 나아가 당시 대련 사회구조의 일면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2. 화북지방 한족 노동자의 동북 이동 규모와 양상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친 화북 한족의 동북 이동은 연간 최대 100만 명을 넘기며 근대 동북아시아 인구이동의 일대 조류를 형성했다.¹¹⁾ 이번 장에서는 노동자를 포함한 이 시기 화북 한족의 이동 규모와 목적, 경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동 규모와 목적

<표1> 1924~1933년 동북지방 유입인구의 규모¹²⁾

연도 \ 유입지	大連	營口	安東	욕로	합계
연도					

10) 권경선, <1900~1930년대 중국 산둥인의 역외이동과 해항도시와의 관계 연구>, 《해항도시문화교섭학》 6 (2012.4), 47~87쪽.

11)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친 화북 한족 주민의 이동원인, 이동규모와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路遇, 《清代和民國山東移民東北史略》(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87). 荒武達朗, 《近代滿洲の開發と移民》(東京: 汲古書院, 2008). 윤휘탁, <'변지'에서 '내지'로 : 중국인 이민과 만주(국)>, 《中國史研究》 16(2001), 37~80쪽. 윤휘탁, <民國時期中國人的 滿洲 移住와 歸鄉>, 《中國史研究》 63(2009), 205~247쪽.

12)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15~16쪽.

1924	인원수	167,206	61,904	52,641	210,719	492,470
	비율	34	12	11	43	100
1925	인원수	197,392	96,647	40,740	197,991	532,770
	비율	37	18	8	37	100
1926	인원수	267,062	124,743	48,287	167,260	607,352
	비율	44	20	8	28	100
1927	인원수	599,452	153,771	78,879	327,645	1,159,747
	비율	52	13	7	28	100
1928	인원수	506,553	152,556	52,703	362,655	1,074,467
	비율	47	14	5	34	100
1929	인원수	512,947	148,577	53,557	331,210	1,046,291
	비율	49	14	5	32	100
1930	인원수	388,046	116,800	49,575	193,792	748,213
	비율	52	15	7	26	100
1931	인원수	226,531	79,177	36,139	125,555	467,402
	비율	48	17	8	27	100
1932	인원수	210,847	71,229	28,199	103,759	414,034
	비율	51	17	7	25	100
1933	인원수	314,401	157,782	42,779	117,000	631,962
	비율	51	26	7	16	100

<표1>은 1924년부터 1933년까지 대련, 영구(營口), 안동(安東, 지금의 단둥(丹東)) 등 요동반도의 해항도시 및 육로를 통해 동북지방으로 유입된 인구의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¹³⁾ 해당시기 동안 매년 약 41만 명에서 116만 명의 인구가 동북지방으로 유입되었는데, 화북 등지에서 온 한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들 유입 한족은 이동 목적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노동하여 돈을 모은 뒤 귀향하는 단기 이동과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동으로 나눌 수 있었다.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유입 한족 가운데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

13) 대련, 영구, 안동 입항자의 규모는 당시 선박회사 측이 관계 당국에 신고한 승객의 수를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과 같이 화북지방에서 피난민이 쇄도했을 때에는 정원 초과, 승선 후 뺏살 지불, 유아(무임) 동반 승객이 많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므로 실제 유입인구는 통계 수치를 크게 상회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 이동이 과반을 점하고 있었고, 장기 체류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건너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⁴⁾

단기 이동 중에는 노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친지방문 등의 케이스도 있었으나, 노동자 모집에 응하거나 연고(緣故)를 바탕으로 혹은 막연하게 직업을 구하러 오는 노동 이동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노동 목적의 단기 이동 인구는 대개 단신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만철무순탄광(撫順炭鑛) 종업원의 사택 거주 상황에서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1929년 말의 조사에 따르면 무순탄광의 주요 종업원인 채탄 노동자 10,826명 중에서 10,805명이 독신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중의 약 90%가 가족을 산동성 등지에 두고 단신으로 이동해 온 한족 남성이었다.¹⁵⁾

영주 이민은 1920년대 후반 이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후반은 산동성, 하북성을 중심으로 자연재해, 전란, 비적(匪賊),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미증유의 피난이 발생한 시기였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는 영주를 목적으로 일가가 함께 동북지방으로 이동한 경우가 많았다.¹⁶⁾ 이 시기부터 이동인구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했는데, 이 또한 가족 동반 영주 이민의 증가세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2> 1924~1933년 동북지방 유출인구의 규모¹⁷⁾

연도	유출지	大連	營口	安東	육로	합계
	1924	인원수	113,249	36,740	44,921	37,810
	비율	49	16	19	16	100
1925	인원수	102,961	36,752	25,543	49,291	214,547
	비율	48	17	12	23	100

14)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16쪽.

15)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21쪽.

16) 小澤茂一, 《山東避難民記實》(大連: 滿鐵臨時經濟調查委員會, 1929), 11~18쪽.

17)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24쪽. 1933년 유출지 별 인원 과 합계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데 표기의 오류로 보인다.

1926	인원수	136,547	46,382	20,631	95,832	299,392
	비율	46	15	7	32	100
1927	인원수	141,859	54,343	20,934	99,413	316,549
	비율	45	17	7	31	100
1928	인원수	168,530	85,843	19,343	107,371	381,087
	비율	44	23	5	28	100
1929	인원수	219,293	68,603	23,924	289,572	601,392
	비율	37	11	4	48	100
1930	인원수	197,195	89,764	25,377	176,168	488,504
	비율	41	18	5	36	100
1931	인원수	174,793	106,010	32,403	148,133	461,339
	비율	38	23	7	32	100
1932	인원수	215,694	135,339	28,231	119,519	498,783
	비율	43	27	6	24	100
1933*	인원수	222,891	68,130	24,725	150,000	483,746
	비율	49	19	5	27	100

영주 이민이 점차 증가했다고는 하나 단기 노동 역시 화북 한족의 주요 이동 목적이었으므로 많은 이들이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귀향했다. <표2>는 1924년부터 1933년까지 요동반도의 각 해항도시와 육로를 통해 동북지방 역외로 이동한 인구의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1920년대 후반과 같이 영주를 목적으로 한 이동이 많았던 시기에는 유입인구에 비해 유출인구의 규모가 1/3정도의 수준에 그쳤으나, ‘만주사변’, ‘만주국’의 수립 등으로 동북지방의 정치상황이 불안정했던 시기에는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를 상회했다. 동북지방의 유출입 인구는 규모면에서는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를 상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매년 20만~60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구가 동북지방 밖으로 유출되었고 이들은 대개 단기 노동을 목적으로 건너온 화북지방 한족 주민으로 추측된다.

단기 노동 이동이 많았다는 점은 노동자의 근속년수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산동성 및 하북성 출신 한족 노동자가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대련부두 하역노동자에 관한 조사 자료를 보면, 1933년 전체 노동자 15,686명 중에서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사람이 5,565명으로 전체

의 35.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대련부두에서 나온 후 기타 업종이나 노동현장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다수가 출신지로 돌아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근속년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은 6,084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대개 매년 혹은 2~3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귀성했다고 한다.¹⁸⁾

2) 이동 경로와 시기

화북 한족 주민의 이동 경로는 출신지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산둥반도 동북부는 역외지역으로 나가는 한족의 최대 송출지였다. 이 지역 주민들은 도보 혹은 운하를 통해 지부(芝罘, 지금의 연대(煙臺))나 용구(龍口)로 이동하거나 교제철도(膠濟鐵道, 청도(靑島)와 제남(濟南)을 잇는 철도)를 이용하여 청도로 이동한 후, 선박을 이용하여 요동반도의 각 해항도시로 이동했다. 산둥성 남부 및 강소성(江蘇省) 북부의 주민은 도보로 석구소(石臼所)나 해주(海州)로 가서 선박을 이용하여 청도로 입항한 후 다시 요동반도 각지로 이동했다. 내륙부에 해당하는 산둥성 서부의 주민들은 진포철도(津浦鐵道, 강소성 포구(浦口)와 하북성 천진(天津)을 잇는 철도선)를 타고 천진으로 이동한 후에 선박을 이용하여 대련으로 가거나 경봉철도(京奉鐵道, 북경(北京)에서 천진을 거쳐 봉천(奉天, 지금의 심양(瀋陽))에 이르는 철도선)를 타고 봉천으로 이동했다. 하북성 주민의 경우는 대부분 철도를 이용하여 이동했고, 일부는 천진에서 선박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산둥성 및 하북성 출신자와 비교하여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나 하남성(河南省) 주민의 이동도 보였는데, 이들은 정주(鄭州)에서 평한철도(平漢鐵道)를 타고 북경으로 가서 경봉철도로 갈아탄 후 동북지방 각지로 이동했다.¹⁹⁾

이와 같이 화북 한족 주민들은 대개 지부, 용구, 청도, 천진에서 선박을 타고 대련, 영구, 안동으로 입항하는 해로 이동과, 천진과 산해관(山

18) 福昌華工株式會社, 《碧山莊》(大連: 福昌華工株式會社, 1934), 5~6쪽.

19)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12~14쪽.

海關)을 거쳐 철도나 도보로 이동하는 육로 이동의 방식을 택했다. 그 중에서도 해로 이동이 육로 이동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유입 인구의 주요 송출지가 산둥반도의 연안에 집중되어 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해로 이동의 주요 출입항은 중국 각지의 연해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았던 대련이었다. <표1>과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대련은 해당시기 동북지방 유출입인구의 1/3~1/2 이상이 통과하던 지역이었다. 대련으로 입항하는 사람들 중에는 만철을 타고 봉천, 신경(新京, 지금의 장춘(長春)), 하얼빈, 길림(吉林)을 비롯한 동북지방 각지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대련 및 그 주변지역에 체류하며 현지 노동력으로 흡수되는 경우도 많았다.

<표3> 대련, 영구, 안동 입항자의 월별 통계(1933년)²⁰⁾

지역 월별	1	2	3	4	5	6	7
大連	11,581	44,114	63,523	28,808	22,428	15,229	19,674
營口	-	-	3,300	30,444	25,913	13,726	19,779
安東	-	-	-	8,823	4,959	3,704	4,340

지역 월별	8	9	10	11	12	합계
大連	18,919	20,421	22,072	23,641	23,991	314,401
營口	17,644	15,280	17,340	11,851	2,505	157,782
安東	4,838	5,022	7,730	3,363	-	42,779

한족 주민의 이동은 재해 등 우발적인 원인에 의한 피난과 영주 이민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단기 노동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이동 시기에도 일정한 패턴과 특징이 있었다. 단기 노동자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자로 농한기 동안 벌이를 찾아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동 시기는 농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표3>은 1933년 대련, 영구, 안동으로 입항한 승객의 월별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대련은 2~3월에, 영구와 안동은 4월경에 입항자 수가 최고치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유입인구의 최대 입항지 대련은 매달

20)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18~19쪽.

적지 않은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특히 정월 중순경부터 이동이 급증했다. 영구와 안동은 결빙기 동안 선박의 운항이 어렵고 산업 활동에 지장이 있었으므로, 동계에는 입항자가 적고 해빙기에 들어서면서 입항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대련, 영구, 안동을 통한 월별 출항자의 수치는 알 수 없으나, 같은 시기 지부·용구·천진을 통해 이동했던 한족 주민의 이동 패턴을 통해 출항 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지부는 당시 화북 한족 최대 송출항으로 이 지역을 통해 동북지방을 오가던 한족의 약 80%가 대련을 통해 이동하였다. 지부를 통한 출항은 주로 정월 중순 이후부터 4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졌고, 특히 음력 2~3월에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보리 수확이 끝나는 6~7월에 출항하는 경우도 비교적 많았다. 지부를 통해 동북지방으로 이동한 한족은 대개 결빙기 전에 귀향하여 구정을 보내고 다시 이동하는 패턴을 보였다. 용구를 통해 이동하는 한족은 주로 3~5월에 출항하였다. 용구 출항자는 대개 영구로 입항했으므로 영구의 해빙기인 4월에 출항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결빙기 전에 귀향하였다. 천진에서는 구정 이후부터 4월 하순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출항했으며, 특히 3월 출항자가 많았다. 이 지역에서 출항한 경우에도 대개 결빙기 전에 귀향하여 구정을 보낸 후 다시 이동했다.²¹⁾ 이와 같이 동북지방으로 나간 화북 한족은 대략 동계 결빙기 및 구정 전에 귀향하고, 구정 이후 혹은 해빙기 이후 다시 동북지방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렇듯 농촌 출신자가 다수를 차지하던 당시 한족의 동북 이동은 농경기와 유입지의 기후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단 이와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여타 업종과 비교하여 자연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고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제조업, 상업에 종사하던 노동자의 존재이다. 1930년대 중반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산동반도 동북부 출신 노동자의 60~70%가 제조업 노동자, 소상공인, 가게 점원으로 종사하고 있었고, 이들은 대부분 본업을 동북지방에 두고 고향과

21) 吉田美之, 〈山東河北出稼移民發航地事情〉, 《勞務時報》 61(1934), 143쪽, 209~210쪽, 227~228쪽.

노동현장을 주기적으로 왕래하고 있었다.²²⁾ 이들은 농경기나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나, 주로 구정을 전후하여 귀성과 노동 현장으로의 복귀를 반복하며 화북 한족의 이동 패턴에 영향을 주었다.²³⁾

이상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전반에 걸쳐 동북지방으로 이동한 화북 한족의 규모와 이동 목적, 이동 경로 및 시기를 살펴보았다. 화북 농촌 출신자의 단기 노동 이동이 활발한 가운데, 대련은 한족 이동의 주요 관문이자 노동력 흡수지가 되었다. 화북 한족의 이동 패턴과 특징은 대련을 비롯한 동북지방 노동자의 구성에도 반영되었다. 3장에서는 대련의 노동자 구성을 통해 화북 한족의 이동과 이 지역 노동자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3. 1930년대 대련 및 그 배후지 노동자의 구성과 특징

1) 노동자의 구성

(1) 노동자 규모와 출신지

<표4>는 1932년 6월 말 관동주(關東州)²⁴⁾ 및 만철부속지(滿鐵附屬地)²⁵⁾ 내의 공장 및 기타 노동자의 수를 업종별, 민족별로 나타낸 것이

22) 吉田美之, 앞의 글, 210쪽. 高岡熊雄·上原徹三郎, 《東亞經濟研究Ⅱ: 北支移民の研究》(東京:有斐閣, 1943), 28쪽.

23) 산동성 각지 출신 노동자의 직업 분포 및 그 원인,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권경선, 앞의 글, 54~60쪽.

24) 관동주는 1898년부터 1945년까지 요동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조차지로 현재의 대련시에 속한다. 1899년 8월 16일 청과 러시아가 《여대조지조약(旅大租地條約)》을 체결하면서 조차지로 설정된 이래(조차면적 3,200km²), 러시아와 일본(1905-1945)에 차례로 조차되었다. 1935년 기준 1,034,074명의 인구가 있었고 중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168,185명의 일본인이 있었다.

25) 만철부속지(滿鐵附屬地)는 원래 대련에서 장춘(長春)까지의 704.3km, 봉천(奉天)에서 안동(安東)까지의 260.2km, 여순선(旅順線) 50.8km, 영구선(營口線) 22.4km, 무순선(撫順線) 52.9km와 감정자(甘井子), 혼하(渾河), 유수(榆樹) 및 이들 간선이 서로 연결하는 철도 지선의 철도용지를 가리키는 말로 총길이 1129.1km, 총면적 182.76km²를 점했다(1908년). 그 후 만철은 무력을 이용하여 철도용지 외의 땅까지 부속지로 점유했다. 1936년 만철부속지의 면적은 524.34km²에 달해, 많은 성진(城鎮)과 시가용지 및 광산구역을 포함하고

다. 중국인노동자(한족, 만주족 및 기타 민족으로 구성)는 당시 전체 노동자의 약 93%, 일반노동자(교통운수·토목건축·하역에 종사하는 상용노동자)와 일용노동자의 약 96%를 점하고 있었다.²⁶⁾

<표4> 관동주 및 만철부속지 내 노동자의 수(1932년)²⁷⁾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외국인	합계
공장노동자	6,999	1,077	74,362	1	82,439
일반노동자	1,634	16	44,380	33	46,063
일용노동자	-	2,861	62,829	-	65,690
합계	8,633	3,954	181,571	34	194,192

<표5> 관동주 및 만철부속지 내 중국인노동자의 출신지(1931년)²⁸⁾

업종	출신지	만주국 외			
		山東	河北	기타	계
공장노동자	인원수(명)	25,971	5,608	636	32,215
	비율(%)	57.4	12.4	1.4	71.2
광산노동자	인원수(명)	18,811	10,094	780	29,685
	비율(%)	52.7	28.2	2.2	83.1

업종	출신지	만주국 내			합계
		關東州	기타	계	
공장노동자	인원수(명)	4,884	8,127	13,011	45,226
	비율(%)	10.8	18.0	28.8	100.0
광산노동자	인원수(명)	39	5,988	6,027	35,712
	비율(%)	0.1	16.8	16.9	100.0

<표5>는 1931년 6월에 관동청이 조사한 관동주 및 만철부속지 내 있었다.

26) 노동자의 연령과 성별에 관해서는 정확한 통계 수치를 구하지 못했으나, 20~40세 사이의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3년 말 대련 부두 중국인노동자의 연령대를 보면 20~39세가 81.2%를 차지했고, 1927년 무순탄광의 경우 21~40세가 86%를 차지하고 있었다. 福昌華工株式會社, 앞의 책, 4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39~40쪽. 단 하역과 채탄 등 육체노동은 젊은 남성 노동자가 주를 이룬 것이 당연하므로 공장노동 및 기타 업종을 중심으로 여성, 연소·연로 노동자의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7)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40~41쪽.

28)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42쪽.

중국인 공장·광산노동자의 출신지 통계이다. 이를 통해 공장노동자의 71.2%, 광산노동자의 83.1%가 소위 ‘만주국’ 외 출신자로, 그 가운데 산동성 출신자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6> 대련부두 하역노동자의 출신지 통계(1933년)²⁹⁾

출신지 구분	만주국 외							계
	山東	河北	江蘇	河南	安徽	山西	湖北	
인원수	13,991	1,120	158	40	7	14	2	15,332
비율	89.1	7.2	1.1	0.3	-	-	-	97.7

출신지 구분	만주국 내			합 계
	關東州 내	關東州 외	계	
인원수	143	211	354	15,686
비율	1.0	1.3	2.3	100.0

<표6>은 대련부두 하역노동자의 출신지를 나타낸 것으로 역시 만주국 외 출신자의 비율이 97.7%, 산동성 출신자의 비율이 89.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당시기 대련을 비롯한 동북지방 노동자는 주로 중국인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동북지방 현지 출신자보다는 산동성을 비롯한 화북지방 출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것은 같은 시기 대개 가까운 배후지로부터 노동력을 공급받고 있던 중국 내 여타 도시들과 다른 점으로, 이 지역 노동자 및 인구구성의 특징이자 화북 한족의 이동양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노동자의 종류와 조직

이 시기 동북지방의 노동자는 업종에 따라 농어업, 화학·섬유공업, 기계·기구제작, 식품가공업, 교통운수업 종사자로 나눌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던 부류가 잡역, 토목건축, 채탄·채광, 하역, 농림업

29)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43~44쪽.

에 종사하는 육체노동자로, 공장공업과 비교하여 중국인노동자의 비율이 더욱 높았다. 정확한 업종별 노동자 수치는 알 수 없으나 농림업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관공서·회사·공장 등에서 일반 잡역에 종사하던 노동자, 인력시장에서 장의·청소·제설 등 업종을 바꾸가며 일하던 일용노동자, 토목건축에 종사하던 잡역노동자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³⁰⁾

만철이 주력하고 있던 철도항만운수, 광업 관련 노동자에 관해서는 통계자료를 통해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당시 관동주와 만철부속지에는 2만5천여 명의 하역노동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대련부두의 노동자들이 약 50%를 점하고 있었다. 부두와 기차역의 하역작업량은 특산물의 출하량에 좌우되는 측면이 강했다. 이 지역의 특산물은 대개 11월~4월에 집중 출하되었으므로, 동계에는 노동자를 임시 증원하고 하계에는 상용노동자를 제외한 임시노동자는 해산시키는 정책을 취했다. 채탄노동자의 최대 수요지는 무순탄광으로 약 3만 명이 갱내 및 노천 채탄작업이나 갱내외의 잡역 및 기타 노동에 종사했다. 그밖에 본계호(本溪湖)탄광에서도 약 6천 명이 종사하고 있었고, 채광노동자로는 안산(鞍山) 및 묘아구(廟兒溝)에서 원광(原鑛)의 채굴에 종사하던 광부가 있었다.³¹⁾

숙련노동자와 직접고용노동자를 제외한 이러한 육체노동자들은 대개 파두(把頭, 만철계열사에서는 쿨리두(苦力頭) 혹은 화공두(華工頭)라고도 부름)에 종속, 관리되고 있었다. 파두는 본래 어떠한 업종에 종사하는 행방(行幫)의 우두머리를 일컫던 말이다. 행방은 동종업종이나 동향 관계를 기반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방의 규칙에 근거하여 파두와 구성원 간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었다. 각종 산업이 발전하고 노동력 수요가 높아지면서 파두는 점차 노동력 청부업자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파두를 매개한 노무관리, 즉 파두제가 각종 산업에서 채용되었다. 파두를 매개할 경우 노동자의 모집과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인이나 타 민족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언어문제 및 민족 감정상의 충돌, 노사대립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두제를 채용

30)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32~35쪽.

31) 상동.

하기도 했다. 근대적 노무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대규모 공장 등에서는 파두제가 철폐되었으나 부두나 광산에서는 유지되었다.

이들 파두는 배하 노동자에 대한 임면권(任免權)과 임금 배분 등 노동 관리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파두제 하에서 실제 작업은 배하의 이두(二頭)와 삼두(三頭), 노동자가 담당했다. 200명 정도의 노동자로 이루어진 조직을 예로 들면, 14~15명의 노동자가 하나의 방(幫, 혹은 班)을 이루어 작업에 종사했는데, 삼두는 각 반의 반장으로서 일반노동자와 함께 작업에 참여했다. 이두는 여러 명의 반장, 즉 삼두를 부하로 두고 작업을 지휘·통제하는 작업 제일선의 책임자였다. 이두, 삼두, 일반노동자 사이에는 임무의 경중이 있었으므로 파두는 이에 맞추어 임금을 분배했다.³²⁾

대련부두의 하역작업과 무순탄광은 이러한 파두제를 바탕으로 노무관리가 이루어지던 대표적인 예였다. 육체노동자의 방은 대개 동향관계를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므로 방에 근거하여 파두제가 작동하던 부두 하역작업과 채탄 작업 역시 동향관계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련부두 북창화공주식회사의 노무관리체계를 보면 동향, 친인척, 지인 관계에 따라 수십 명의 노동자를 1개의 반으로 편성한 후, 반마다 한 명의 작업반장(파두)과 부 작업반장(이두), 선생 등을 두어 노동자를 관리하도록 했다.³³⁾ 1933년 대련부두에는 270명의 쿨리두가 배하에 각각 40~50명의 노동자를 두고 노무를 관리했다.³⁴⁾ 만철 무순탄광은 개업과 동시에 파두제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1936년까지 채탄청부제도, 노동자공급청부제도, 일보작업두(一步作業頭)제도 등 제도를 변경하며 노무관리방식에 변화를 꾀했으나, 그 근간에는 결국 파두제가 작동하고 있었다.³⁵⁾

32)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35~39쪽. 파두의 배하에는 노동자 외에도 회계 및 서기를 담당하는 선생(先生)과 식사 및 숙소 관리를 담당하던 취사부가 있었다.

33) 郭鐵樁·關捷 주편, 韓俊英 부주편, 신태갑 외 옮김, 앞의 책, 38쪽.

34) 福昌華工株式會社, 앞의 책, 10쪽.

35) 만철 무순탄광의 노무관리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庾炳

이 지역 노동자 구성과 화북지방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동자 조직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노동력 수급관계와 노동자 모집방법

(1) 노동력 수급관계

이 시기 동북지방의 주요 산업이었던 광공업, 교통운수업, 토목건축공업은 업종에 따라 노동력 수급조절점에 차이가 있었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철도항만의 하역작업, 토목건축공사는 계절에 따라 노동력 수급에 주의를 기울였다. 반면 광공업은 기후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 업종으로 계절에 따른 노동력 수급 조절보다는 노동자의 자연 감소 및 생산량 증감에 따라 상시적으로 노동자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업종에 따른 노동 강도, 처우 및 고용관계 역시 노동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동북지방 공장노동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약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나 일반노동자 중의 비율(96%)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또한 중국인 공장노동자 중 동북지방 외 출신자가 71.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광산노동자의 83.1%, 대련부두 하역노동자의 97.7%보다 낮은 수치로 기타 업종과 비교하여 현지 노동자의 고용 비율이 높았음을 반영한다. 더불어 한족의 이동 시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조 공업 등은 타 업종에 비해 고용관계가 안정적이었으므로 역외지역 출신자도 대개 이를 본업으로 삼아 종사하고 있었다. 이처럼 공장공업은 업종의 특성상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이동도 잦지 않아 타 업종에 비해 노동력 수급관계가 안정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역외지역 출신자를 고용하고, 계절적 원인이나 생산량 증감에 따른 노동력 수급조절의 폭이 컸던 하역작업, 토목건축, 광업 등은 항상 노동력 수급조절에 고심하고 있었다.

<표7>은 1933년 대련부두 및 신경역 하역노동자의 하루 평균 재적

富, 《滿鐵撫順炭鑛の勞務管理史》(福岡:九州大學出版會, 2004).

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대련부두의 경우 작업량이 가장 적었던 달(7월)에는 가장 많았던 달(12월)의 약 60%의 인원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철도하역은 계절에 따른 작업량의 차이가 더욱 커서 특산물의 출하기인 동계를 전후해서는 다수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으나, 하계에는 동계의 1/2 내지 그 이하의 노동력으로 작업했다. 신경역의 경우 하계에는 동계의 1/5에 가까운 노동자가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철도항만의 하역작업은 작업량에 따라 노동자를 증·감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대련부두는 작업량이 많은 시기에는 약 2,000명 정도를 상비하여 작업에 투입하고, 작업량이 적은 시기에는 해산 수당을 지급하여 잉여 노동자를 해산시켰다.³⁶⁾

<표7> 대련부두 및 신경역 하역노동자 하루 평균 인원(1933년)³⁷⁾

지역 \ 월	1	2	3	4	5	6
大連埠頭	12,940	12,733	12,134	11,453	10,544	10,021
新京驛	1,450	690	450	300	300	380

지역 \ 월	7	8	9	10	11	12
大連埠頭	8,348	8,935	9,046	9,547	11,799	14,670
新京驛	350	310	330	400	1,050	1,100

이와는 반대로 토목건축공사는 동계 결빙기에는 모든 공사가 중단되어 노동력 수요가 급감하고, 해빙기부터 공사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토목건축업은 결빙기가 되면 필연적으로 해산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해산 후 노동자는 기타 업종이나 다른 지방에서 일을 찾거나 귀향했다.³⁸⁾

광업은 하역이나 토목건축에 비해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 그러나 기본 사용 노동력의 규모 자체가 크고, 시장수요에 따른 생산량의 변동 폭이 컸으며, 노동이동률마저 높아 노동력 수급조절에 고심하

36)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49쪽.

37)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45쪽.

38)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49쪽.

고 있었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이 지역의 노동력 수급관계는 노동자의 모집방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음에서는 이 지역의 노동자 모집방법을 통해 화북지방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2) 노동자 모집방법

이와 같이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지언정 노동력 수급관계는 이 지역 산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각 업체와 사업장은 원활한 노동력 수급을 위해 노동자 모집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시기 노동자 모집은 대개 직접모집, 위탁모집, 연고모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³⁹⁾

직접모집은 기업주가 직접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사용인을 통해 모집하는 방법이었다. 공장이나 사업체 앞에 모집광고를 붙이거나 노동자가 많이 모이는 곳에 광고를 뿌려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순탄광과 같이 전문적으로 모집기관을 설치하기도 했다.

대규모 노동력을 상시 필요로 했던 무순탄광은 각지에 모집기관을 설치하여 노동자를 모집했다. 무순탄광은 1910년대부터 청도와 천진에 출장소를, 산해관과 요녕의 금주(錦州), 룡원(凌源), 조양(朝陽)에 초공공소(招工公所)를 세우고 노동자를 모집했다. 전쟁특수로 석탄수요량이 높았던 1916~1921년 동안 이들 기관이 모집한 노동자는 70,738명으로 그 55.2%에 달하는 39,073명이 청도출장소에서 모집되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하북성이나 같은 요녕성 내에서보다 산둥성에서 더 많은 노동자를 모집한 것은 무순탄광으로 대표되는 동북지방 광업에서 산둥 노동력의 비중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⁴⁰⁾

위탁모집은 사용자가 직접 모집에 나서지 않고 중개인에게 위탁하여 모집하는 방식이었다. 동북지방 내에서 노동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주로 파두가 직접 모집에 나섰다.

일용직 잡역노동자, 보조공의 모집은 주로 각지의 인력시장을 통해 이

39)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46쪽.

40) 南滿洲鐵道株式會社總裁室人事課, 《南滿洲に於ける支那労働者募集及移動概況》(大連: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29), 24쪽.

루어졌는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모집하기도 하고 파두나 노동력 청부업자가 위탁을 받아 모집하기도 했다. 이 시기 대련에는 7~8개 정도의 인력시장이 있었다. 인력시장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대개가 화북 출신 한족 노동자들로 하역콜리의 보조, 토목공사 잡역부, 장의인부, 목수의 보조, 도로인부, 청소부 등 다양한 업종에 임시 고용되었다.⁴¹⁾

화북지방 등 역외지역에서 모집할 시에는 기업가 혹은 그 사용인이 직접 모집지로 가서 모집을 하기도 했으나, 노동 현장의 파두가 화북지방 현지의 중개인 혹은 중개기관을 매개하여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객두(客頭)라고도 불린 이들 중개인은 일종의 이민주선업자였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중심으로 희망자를 모은 후 그들을 인솔하여 직접 동북지방 현장으로 건너가거나, 혹은 대리인을 붙여 중도까지 인솔한 후 현지의 파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인도하는 형태로 노동자를 공급했다.⁴²⁾ 객두는 그 과정에서 모집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물론, 이동 희망자에게 뱃삿이나 숙박비, ‘만주국’ 입국세, 기타 여비 등을 50~150%의 고리로 빌려주고, 객잔(客棧)과 연계하여 승선권이나 승차권에 수수료를 붙여 판매했다. 객잔 또한 이동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비를 빌려주고 이동 과정 중의 안내를 맡았으며 승선권·승차권의 구매 대행 및 숙소를 제공했다. 산동성 내 객잔의 경영주와 객두는 대부분이 산동성 출신자로 주로 동향인의 이동 과정에 관여하고 있었다. 당시 많은 한족 노동자의 이동이 객두와 객잔의 연락망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객두와 객잔은 지연에 근거한 연락기관으로서 출신지와 노동현장을 이어주며 이익을 꾀하고 있었다.⁴³⁾ 이처럼 객두와 객잔은 화북지방과 동북지방 간 노동력 수급관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나,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고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고모집은 고용 노동자의 인맥을 이용하여 구인하는 방법이었다. 이 경우에는 대개 고용 노동자의 소개로 찾아온 피고용 희망

41)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31쪽.

42)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앞의 책, 47쪽.

43) 권경선, 〈해항도시의 객잔과 근대 산동인의 동북이동〉,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0(2014.4).

자 중에서 필요에 따라 채용하였고, 타 업체가 먼 지역에서 모집해 온 노동자를 연고를 이용하여 이직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0년대 전반 대련 및 그 배후지 노동자 구성에서 화북 출신 한족노동자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 구성상의 특징은 노동자의 모집관리방식에서도 드러났다. 화북 한족 노동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부두 하역작업과 광산 채탄작업에는 동향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파두제가 작동하고 있었고, 화북출신자 혹은 화북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노동자 모집 또한 이 지역 노동자의 구성과 그 특징을 반영하고 있었다.

4. 나오며

본고는 1930년대 전반을 중심으로 화북지방 한족 노동자의 동북 이동과 대련 및 그 배후지 노동력 수급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에 걸쳐 동북지방으로 유입된 역외 인구는 매년 40만~1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유입인구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던 화북 출신 한족들은 주로 산동성 농촌에서 산동반도와 요동반도의 해항도시를 거쳐 동북지방 각지로 유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련은 이동의 주요 출입구이자 노동력 흡수지로 기능했다. 이 시기 동북지방으로 이동한 한족 중에는 영주 이민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단기 노동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련 및 배후지의 노동자 구성은 이러한 화북 한족의 유입 양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전체 산업노동자의 과반을 화북 한족이 차지하는 가운데, 특히 대규모 노동력을 요하던 탄광, 부두에서는 화북지방 등 역외지역에서 필요노동력의 많은 부분을 흡수해야 했던 만큼 노동자 수급조절에 고심하고 있었다. 이 시기 파두제가 중심이 되었던 노동자 조직과 화북지방에서 혹은 그 지연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노동자 모집은 화북 한족이 대련 지역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함께, 노동력 공급지로서 화북지방과 노동력 수요지로서 동북지방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화북 한족의 이동과 대련 지역 노동력 수급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대련 지역 노동자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공장노동자, 그 밖의 숙련노동자 및 기타 업종의 노동자 구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각종 산업노동자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와 의식주 및 여가생활을 포함하는 노동자 생활 전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족 노동자뿐 만 아니라, 일본인, 조선인, 만주족, 몽고족 등 각 민족별 노동자 구성과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 노동자의 전체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족 이동과 관련해서는 이동 과정 중의 중개기관으로서 객잔과 객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화북지방과 동북지방 각지를 잇는 객잔·객두 연락망을 파악함으로써 화북 한족의 이동 프로세스는 물론, 노동력 수급을 둘러싼 화북지방과 동북지방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연구 대상 시기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가 다룬 1930년대 전반을 전후하여 화북 한족의 이동 양상과 동북지방 산업계 및 노동계의 구조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 하의 산업구조와 노동자 구성은 기존 연구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나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까지의 구조와 양상을 파악해낸다면 각 시기별 특징과 함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의 전체적인 양상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중국 측 혹은 노동자 측의 입장이 드러나는 자료의 발굴과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는 민족, 계급적으로 지배의 입장에 있던 일본 만철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정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으로 다양한 자료를 발굴, 분석하며 연구를 보충, 심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參考文獻>

郭鐵樁, 關捷 주편, 韓俊英 부주편, 신태갑 외 옮김, 《일본의 대련 식민 통치 40년사》(서울: 선인, 2012).

- 권경선, 〈1900~1930년대 중국 산동인의 역외이동과 해항도시와의 관계 연구: 중국 동북지방으로의 이동을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고고학》 6, (2012.4).
- 구지영 · 권경선 · 최낙민 편저, 《칭다오, 식민도시에서 초국적도시로》 (서울: 선인, 2014).
- 左域封, 〈中日無産者の兄弟聯盟——1920年滿鐵沙河口工廠中日工人聯合罷工簡述〉, 《遼寧師院學報》 1982:5(1982.10).
- 唐進, 〈略論大連工人運動〉, 《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84:4 (1984.7).
- 王洪恩, 曲傳林, 〈日本帝國主義殖民統治時期的大連福昌華工株式會社〉, 《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86:6(1986.12).
- 劉功成, 〈大連近代史上最大的一宗抗日鬪爭案——日本當局在偵辦抗日謀略團一案中迫害大連工人的罪行〉, 《大連近代史研究》 (2007.10).
- 薛志剛, 〈大連工人階級反抗俄國殖民統治的鬪爭〉, 《大連近代史研究》 10(2013.10).
- 滿鐵臨時經濟調查委員會, 《山東避難民記實》 (大連: 滿鐵臨時經濟調查委員會, 1929).
- 南滿洲鐵道株式會社總裁室人事課, 《南滿洲に於ける支那勞働者募集及移動概況》 (大連: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29).
- 吉田美之, 〈山東河北出稼移民發航地事情〉, 《勞務時報》 61(1934).
-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編, 《滿洲の苦力》 (大連: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34).
- 福昌華工株式會社, 《碧山莊》 (大連: 福昌華工株式會社, 1934).
- 高岡熊雄, 上原轍三郎, 《東亞經濟研究Ⅱ: 北支移民の研究》 (東京: 有斐閣, 1943).
- 松村高夫, 江田憲治, 解學詩, 《滿鐵勞動史の研究》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2002).
- 庾炳富, 《滿鐵撫順炭鑛の勞務管理史》 (福岡: 九州大學出版會, 2004).

<中文提要>

华北汉族的‘满洲’移动及其对东北地方劳动者构成的影响—以1930年代前半大连、大连腹地为中心

本论文主要考察1930年代前半华北汉族的东北移动及其与大连、大连腹地劳动力供需之间的关系。该时期流入东北地方的汉族数量每年达到40万名以上。华北汉族主要从山东省的农村经山东半岛与辽东半岛的海港城市流入东北各地。大连即是主要的关户，也是劳动力的吸收地。华北汉族的移动目的可分为劳动短期移动与永久移住，其中短期劳动移动的比率不少是其特征。大连及其背後地的劳动者构成，反映了这一点，全体劳动者的半数以上是由华北汉族构成的。伴随著域外华北地区众多劳动者的供给，围绕劳动者募集而产生的劳动力供需关系也成为该地区产业界最为费心的部分。以华北出身者为中心进行的把头与中介人的劳动者募集，作为该时期主要募集方法之一，能够反映出该区域的劳动者构成与其特征。

关键词：华北地方，东北地方，大连，汉族，劳动者，满铁

투 고 일 : 2014.2.22

심 사 일 : 2014.3.3~3.31

게재확정일 : 2014.4.20

中韩日广电行业国际竞争力比较分析 及对策研究*

- 以一般化双重钻石模型为中心 -

贺莹·金昌庆**

< 목 차 >

- 一、问题提出
- 二、国际竞争力模型的拓展
- 三、中·韩·日广播电视行业发展现状
- 四、中·韩·日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模型的构建及实证分析
- 五、结论与建议

一、问题提出

自上个世纪70年代以来，文化产业进入黄金时期，越来越多的国家和地区意识到发展文化产业的重要意义，纷纷将其列入各国的战略性支柱产业。随着全球化及网络信息技术的迅猛发展，自媒体、云计算、大数据等一波又一波的风暴席卷全球，文化产业正在进行着一场深刻的变革。在这样背景下，中·韩·日三国文化产业中所占比重最大的广播电视业，处于重要位置并且发挥着龙头行业的带头作用，其竞争战略该如何转型才能应对这一的挑战呢？如何通过明确国际竞争力的各构成要素，快速提升产业发展，使得这种优势得以持续，变成了目前各国业界和学界的共同任务。

* 本研究所获基金项目：中国福建省社科规划项目2013C099:《中韩广电行业国际竞争力比较研究》；中国厦门理工学院引进高层次人才科研项目（YSK13012）。

** 贺莹，厦门理工学院文化产业学院 讲师(F.A)；金昌庆，釜庆大学国际地域学部教授(C.A).

目前越来越多的国内外学者在研究文化产业竞争力战略，但是各国研究有关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评价的相关问题，研究时间较短尚，缺乏一定系统性的研究，因此本文将运用国家竞争优势理论和国际竞争力理论，从要素条件、需求条件、相关支持产业、企业的战略/结构/竞争角度出发，分析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的构成要因，沿着一般化双重钻石模型演进路径来探寻中国广电业在国际市场竞争中的优劣势及发展对策。

二、国际竞争力模型的拓展

一般来说，国际竞争力评价的理论模型构建大致有两个视角：一个是以竞争结果为评价出发点，一个是以竞争力影响因素为评价出发点。以前者为基础的理论模型包括IMD和WEF等机构发布的国际竞争力报告，以后者为基础的理论模型主要以迈克尔·波特的钻石模型及Cartwright、Rugman、Verbeke等。美国学者迈克尔·波特（1990）在其《国家竞争优势》专著中提出：“国家的财富不是靠继承，而是靠产业的创新与升级，竞争力可划分为国家竞争力、产业竞争力和企业竞争三个层次¹⁾；指出一个国家竞争优势来源于四个内生变量和两个外生变量构成的动态的、能激励产生竞争力的钻石系统”。

Cartwright(1993)针对海外已经存在的客观环境分析，增加5个新的海外变量提出了多因素钻石模型；Dunning(1993)鉴于波特没有考虑跨国经营要素，增加3个变量提出了国际化钻石模型；Rugman和D’Cruz(1993)针对经济规模小、市场容量不足的经济体，而考虑相关联国家的钻石联合体提出了双重钻石模型；Moon, Rugman和Verbeke(1998)因为双重钻石模型不适用于北美贸易区以外的小国经济，应该引入跨国经营，而提出了同时考虑国内钻石和国际钻石的一般化双重钻石模型，并以韩国和新加坡为例验证了一般化的双重钻石模型的解释力。我们由此可见钻石模型已经不再局限于刚刚由波特创立的框架，而是一个从横向和纵向都得到不断改进拓展的理论体系，因为本文章采用一般化双重钻石模型为基础来构建中韩日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的指标框架。

1) 迈克尔·波特(2002),《国家竞争优势》，李明轩（译），中国华夏出版社，p.47.

三、中·韩·日 广播电视业发展现状

1. 中国广播电视业的发展现状

2012年《中共中央关于深化文化体制改革推动社会主义文化大发展大繁荣若干问题的决定》全面实施,将广播电视产业上升到国家发展战略的高度,广电业总体上呈现持续发展态势,三网融合进程进一步推进,通过制播分离、跨行业、跨地区网络整合,在改变着产业结构与布局。据中国最新的《2013中国传媒国际竞争力研究报告》数据显示,2012年中国广播电视收入为3135亿元,比2011年增长15.38%;中国电影总票房收入达到170.73亿元,较2012年增长30.18%,而2013年上半年,全国电影票房收入以超过100亿元²⁾。此外,中国广电影视内容生产也总体呈上升态势,内容类型更为丰富。2011年全年制作广播电视节目694万小时,电视节目295万小时,电视动画片突破4000小时,电影故事片558部³⁾。三网融合进程加速,2012有线广播电视用户首次突破2亿户,全国广播人口综合覆盖率达97.06%,同比增长0.28%;全国电视人口综合覆盖率达97.82%,同比增长0.2%⁴⁾。

2. 韩国广播电视业的发展现状

自从朴槿惠总体上任后,韩国的广播电视监管机构采用双重监管制度,未来创造科学部主要管广播电视及科学技术政策方面,还有收费电视的政策担当。放送通信委员会主要管广播电视善后限制和禁止行为等,还担当地面电视广播及综合编制的PP政策。

韩国通过广播电视及超高速网络一体化等业务的变化,增加了信号接收费及网络连接业务收入。随着电视(家庭)购物消费者的增加,其广播波段使用业的广告、产品销售等的收入也随之增加从而促进了其销售额的增加。据韩国广播电视通信委员会发布的《2013韩国广播电视产业实态调查报告书》统计结果,2012年韩国广播电视业市场规模达13兆1,984亿韩币,较2011年增长11.3%,有线电视的市场规模达到2兆3,206亿韩元,其中家庭电

2) 李本乾(2013),《2013中国传媒国际竞争力研究报告》,中国社会文献出版社, p.80.

3) 张晓明(2013),《2013中国文化产业报告》,中国社会文献出版社, p.182.

4) 张晓明(2013),《2013中国文化产业报告》,中国社会文献出版社, p.183.

视购物的放映收入规模也比2011年增长9.3%，IPTV的销售规模为8,429亿韩元，较2011年增长36.8%⁵⁾。

此外，韩国现在多频道收费电视的利用较为普遍，其中有线电视占了69.1%，卫星电视占了8.1%，IPTV占18.1%，地面电视仅占7.9%。而且目前收费电视的用户正在逐渐增加，截至2013年3月收费电视的用户是2400万户。有线电视的用户是1491万户，其中双向数字电视用户为604万户，占到其中的40%左右。其中模拟电视用户占到59.5%，数字电视是604万户，占到40.5%，其中超高速互联网占的是308万名，网络电话VOIP是占了197万名⁶⁾。

3. 日本广播电视业的发展现状

日本的模拟电视已于2011年7月24日停播，全面过渡到地面数字广播时代。因此，日本广播电视的数字化不仅仅局限于有线电视网的数字化，还包括广播电视另一主要传送方式（卫星电视）的数字化。从家电市场电视的功能来看，可接收卫星转播已从最初的高级功能“沦落”为标准配置。卫星BS频道清晰度高，频道丰富，节目质量高的优点使得日本民众越来越习惯于观看卫星转播的BS频道。

2011年6月经济产业省确定了日本内容产业今后发展的方向和政策，其产业发展目标是，到2020年市场规模扩大到15万亿-20万亿日元⁷⁾。另据韩国内容产业振兴院发布的《2012 海外内容产业市场调查-日本市场》报告书显示，2012年日本广播电视业市场规模达到340亿美元，继知识情报（697亿美元）、广告（445亿美元）、出版（388亿美元）之后排于第四位，占有重要的地位⁸⁾。日本有线电视服务发展今后的方向，主要是两个方面：一个是智能TV，另一个是超高清UHD，通过智能有限活跃化扩大产业，接入IP技术和大数据云备份面向个人化的电视，还有扩大超高清和信息服务更多地扩大信息制作等。

5) 韩国广播电视通信委员会(2013),《2013韩国广播电视业实态调查报告书》，p.4.

6) 金正洙(2013),〈韩国有线电视产业的现状与未来〉,第二届DVB+OTT融合创新论坛发表文.

7) http://www.ce.cn/culture/gd/201203/21/t20120321_23173994.shtml “日本文化产业战略”,(2012.3.21.检索).

8) 韩国内容产业振兴院(2013),《2013海外内容产业市场调查-日本》, pp.3~4.

四、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模型的指标体系构建

1. 模型总体介绍

本模型的建立是基于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评价理论框架、文化创意产业的相关理论及中·韩·日三国的具体国情，结合一般化双重钻石模型，构建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的评价指标体系。体系中提出了要素条件、需求条件、相关产业情况、企业的战略/结构/竞争企业的战略/结构/竞争要素要素作为一级指标，每个一级指标下面由若干个二级指标构成，二级指标下面有若干的三级指标构成，最终构成广播电视产业的国际竞争力模型。

2. 模型要素

瑞士洛桑国际管理开发研究院（IMD）在其《国际竞争力年度报告》中指出了‘国际竞争力’这一个概念，是指一国创造与保持一个使企业持续产出更多价值和人民拥有更多财富的环境的能力⁹⁾。国际竞争力的评价是一种量化的概念，由若干个指标组成通过测量指标的计算结果，来反映一个国家或地区的国际竞争力。本文基于钻石模型理论及文化产业理论而建立了评价中·韩·日广播电视业的国际竞争力模型，其具体分类以及各个指标的诠释如下：

<表-1 中·韩·日 广播电视业 要素条件测量指标>

一级指标	国内外区分	构成	二级指标	三级指标	
要素条件	国内	基础条件	基础建设	信息通信	网络普及率 手机普及率
			产业规模	产业从业者数量	
				TV保有数量	
		高级条件 卫生	R&D	广播电视业的规模	
				高等教育机构(大学)的 R&D 支出	
				知识集约型就业率	
国际		海外投资	对比GDP 外国人直接投资的比重		
		知识产权收入	知识产权、著作权的总收入		
		接近性	数字内容的接近性		

第一，要素条件包括天然优势和人为优势。其中天然优势包括自然资

9) 蔡翔 (2013) , 《版权与文化产业国际竞争力研究》, 中国传媒大学出版社, p.34.

源、气候、半熟练劳动力等；而人才优势则包括高科技、熟练劳动力等，在广播电视业中具有高知识、有创意的人才优势很大程度上影响着其竞争力。因此在本模型的要素条件中选取了基础条件、高级资源作为测量指标，通过指标的具体数据来反映各国广播电视业的基础竞争优势。

〈表-2 中·韩·日 广播电视业 需求条件测量指标〉

一级指标	国内外区分	构成	二级指标	三级指标
需求条件	国内	需求的量	国内需求的量	人均国民总收入
				收费广播电视的加入用户数量
		需求的质	国内需求的质	教育指数
				人才开发指数
	国际	需求的量	国际需求的量	收音机·TV 以及摄像机的出口额
				收音机·TV 的零部件的出口额
国际	需求的质	国际需求的质	音响影像商品出口的比重	
			音响影像服务出口的比重	

第二，需求条件指的是有关产业的产品和服务的需求特性。市场需求规模的大小直接影响着国家的产业国际竞争力，是一个产业取得竞争优势的基础条件。市场需求大会促使企业加大投资，扩大生产规模从而形成规模经济，使得企业获得低成本的竞争优势，提高该产业的国际竞争力。因此本模型将消费规模 and 市场需求作为测量指标，之后通过指标的具体数据来反映各国广播电视业在需求要素上的竞争优势。这里也为了避免不必要的误差对消费规模的测量指标也采用了相对人口数。

<表-3 中·韩·日 广播电视业 相关支持产业测量指标>

一级指标	国内外区分	构成	二级指标	三级指标
相关产业情况	国内	基础设施	IT基础建设	ICT发展指数
		相关产业	电影产业	销售规模(% of GDP)
			广告产业	销售规模(% of GDP)
	国际	信用度	信用度	国家信用度
		关联产业	产业协作关联	产学关联
			教育业关联	教育系统的质

第三，对一国某一产业的国际竞争力有着重要影响的另一个因素是该国该产业的上游产业及其相关产业的国际竞争力。如果一国存在着具有国际竞争力的供应商、完善的相关产业和支持产业，则能够使该国的主导产业降低生产成本，提高产品质量，交流产品信息，从而建立起自己的竞争力优势¹⁰⁾。本模型中选取与广播电视业紧密相关的、具有代表性质的产业，如电影业、广告业作为测量指标，通过指标的具体数据来反映各国广播电视业在相关和支持产业条件上的竞争优势。

<表-4 中·韩·日 广播电视业 企业战略/结构/竞争条件测量指标>

一级指标	国内外区分	二级指标	三级指标
企业的战略/结构/竞争要素	国内	国内企业的战略/结构/竞争要素	当地竞争的强度
			国内文化产业的占有率
	国际	国外企业的战略/结构/竞争要素	国际知识产权保护
			国际传媒市场的占有率

第四，企业的战略/结构/竞争是指企业如何进行组织、管理从而创出利润，反映一国内竞争的特性。企业组织制度是否合理从根本上影响着企业的

10) 迈克尔·波特 (2002) , 《国家竞争优势》, 李明轩 (译) , 中国华夏出版社, p.89.

竞争效率，而企业战略也不可避免地要影响到企业的竞争优势。不同国家不同产业中，其企业的战略、组织形式都存在很大差异，正是因为这种差异才在很大程度上影响着一国或一个产业的国际竞争力。本模型中选取了，当地竞争强度、市场结构、著作权保护作为测量指标，然后透过指标的具体数据来反映各国广播电视企业在战略/结构/竞争上的竞争优势。

3. 数据处理

第一，考虑到此次评价的广泛性，以及为了保证此次评价的客观性，本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评价指标设定为硬指标和软指标两种。硬指标主要来源于客观指标，数据来源于联合国贸易数据库（UN Comtrade）、联合国教科文组织数据库（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世界银行数据库（World Bank）、世界货币组织（IMF）、国际电信联盟（ITU）、中国统计年鉴、韩国银行数据库、日本统计局数据库等。软指标主要来源于主观指标，是各大机构和组织发布的关于各国某一指标的评价，主要来源于WEF发布的《全球竞争力报告》、INSEAD发布的《全球创新指数报告》、中国广播电视总局、韩国文化体育观光部、韩国文化内容产业振兴院等机构发布的文件。本研究选用的大部分是2010年数据，部分为2009年数据，对于个别缺失数据采取了平均值法进行估算。

第二，计算竞争力指标系数的时候，因为每个测量指标与同一类别中的其它指标相比，其作用、地位和影响力不尽相同，必须根据每个指标的重要性程度赋予不同的权重。如果采用因素筛选综合评价的主成分和因子分析，会造成指标体系的变化。而数据包络DEA法多用来评价一个区域或产业在技术创新方面的效率，不适合本研究，因此本研究将使用熵权法作为广电业国际竞争力指标体系的方法。按照熵权法的基本原理，将每个一级指标下面的二级指标和三级指标进行比较分析，随后根据8位专家意见，选用群决策方式建立判断矩阵，进行一致性检验来判定判断矩阵是否被接受，以此确定各指标权重值，最终得出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评价指标权重。

第三，根据测量指标的具体数据，我们给予数值较大的指标为“100”做标准化处理，即消除量纲，使各指标具备比较分析的基础。数据标准化的几何意义是将坐标原点移动到最大（小）值，其变量间的相关程度不变。然后根据相对率换算出另一个数值。再与测量指标的权重相乘，根据模型便可得

到各个国家的一级指标数值也就是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的数值。

第四，熵权法的基本原理。其原理是：假设研究对象有n个样本单位组成，反映样本质量的评价指标有m个，设实际测出的原始数据矩阵为：

$R = (X_{ij})_{m \times n}$ $i=1, \dots, m$ $j=1, \dots, n$ 。其中 X_{ij} 是第j个样本在第i个指标上的得分。另外，因为指标间不同单位、不同度量的影响，要对各测量指标进行标准化，其标准化的公式为：

$$R = \begin{pmatrix} X_{11} & X_{12} & \dots & X_{1n} \\ X_{21} & X_{22} & \dots & X_{2n}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X_{m1} & X_{m2} & \dots & X_{mn} \end{pmatrix}$$

然后根据标准化后的矩阵数据可计算各指标的信息熵。第i个指标的熵 H_i 可定义为：

$$H_i = -k \cdot \sum_{j=1}^n P_{ij} \cdot \ln P_{ij}, \quad k > 0 \quad k = \frac{1}{\ln^n}, \quad \text{if: } P_{ij} = 0, P_{ij} \cdot \ln P_{ij} = 0$$

其中 P_{ij} 可定义为：

$$P_{ij} = \frac{X_{ij}}{\sum_{i=1}^n X_{ij}}, \quad (P_{ij}, i = 1, 2, \dots, n),$$

在指标熵值确定后就可以根据公式来确定第i个指标的熵权 W_i 如下所示：

$$W_i = \frac{1 - H_i}{m - \sum_{i=1}^m H_i}, \quad 0 \leq W_i \leq 1, \quad \sum_{i=1}^m W_i = 1$$

由上述基本原理可看出，如果某个指标的信息熵越小，就表明其指标值

的变异程度越大，提供的信息量也越大，在综合评价中所起的作用也越大，其权重也应越大。

4. 实证分析

(一) 中韩日广电业国内钻石模型指数

1) 要素条件测量指标数据结果如下：

<表-5 要素条件 测量指标数据结果>11)

三级指标	出处	单位	年度	中国	韩国	日本
网络普及率	ITU	%	2010	34.3	83.7	78.2
手机普及率	ITU	%	2010	64.0	105.4	95.0
广电产业 从业者数量	중국통계연감 한국방송산업 실 태조사보고서 ·요약문	%	2010 ¹⁾	75.09/ 133829.9= 0.056	2.988/ 4887.5= 0.061	5.48/ 12270= 0.042
TV保有台数	CASBAA	%	2010	92.2	100.0	99.2
广电业销售规模	PTC	亿美元	2010	161.3	45.8	289.4
R&D 支持	World Bank	%	2008	1.47	3.36	3.45
知识集约型就业率	INSEAD	%	2008	7.4	22.4	37.8
高等教育的入学率	World Bank	%	2009	24.6	104.0	59.0

11) 中国第六次全国人口普查数据显示2011年中国大陆总人口是133829.9万人；2011年韩国人口协会韩国总人口数为：4887.5万人；日本总务省日本总人口数为：12270万人。2010年汇率：1美元=6.769元人民币、1美元=1156韩元。数据：中国统计年鉴（2011）p.894；中国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统计信息网；韩国国家图书馆统计系统；韩国文化内容产业统计（2011）p.420；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Price Water Coopers（2012-2016）pp.242~268.

〈表-6 要素条件 竞争力指数〉

三级指标	权重	中国		韩国		日本		
		标准值	得分	标准值	得分	标准值	得分	
基础建设	网络普及率	0.11	40.9	4.5	100	11.0	93.4	10.3
	手机普及率	0.12	60.7	7.3	100	12.0	90.1	10.8
产业规模	广电从业者数量	0.12	92.2	11.0	100	12.0	68.9	8.3
	TV保有台数	0.12	92.2	11.1	100	12.0	99.2	11.9
	广电产业销售规模	0.14	55.7	7.8	15.8	2.2	100	14.0
小计		0.61		41.7		49.2		55.3
R&D	R&D支出	0.12	42.6	5.1	97.4	11.7	100	12.0
	知识集约型就业率	0.13	19.6	2.5	59.3	7.7	100	13.0
	高等教育的入学率	0.14	23.7	3.3	100	14.0	56.7	7.9
小计		0.39		11.0		33.4		32.9
总计			52.6		82.6		88.2	

2) 需求条件相关指标数据结果如下：

〈表-7 需求条件 测量指标数据结果〉¹²⁾

三级指标	出处	单位	年度	中国	韩国	日本
人均国民所得	world bank	\$	2010	7,640	29,110	34,610
付费广电用户数量	韩国内容产业振兴院	% 占总人口	2010	185.8/ 133829.9= 0.14	18.6/ 4887.5= 0.38	12.8/ 12270= 0.10
教育指数	UNDP	score	2010	0.623	0.934	0.883
人才开发指数	UNDP	score	2010	0.682	0.894	0.899

12) 中国第六次全国人口普查数据显示：2011年中国大陆总人口是133829.9万人；2011年韩国人口协会韩国总人口数为：4887.5万人；日本总务省日本总人口数为：12270万人。2010年汇率：1美元=6.769元人民币、1美元=1156韩元。数据：中国统计年鉴（2011）p.894；UN CTAD数据库；ITU数据库；韩国文化内容产业统计（2011）

〈表-8 需求条件 竞争力指数〉

	三级指标	权重	中国		韩国		日本	
			1.0	标准值	得分	标准值	得分	标准值
需求的量	人均国民所得	0.21	22.1	4.2	84.1	16.0	100	19.0
	付费广电用户数量	0.37	36.8	13.6	100	37.0	26.3	9.7
小计		0.59		18.3		54.5		30.7
需求的质	教育指数	0.21	66.7	14.0	100	21.0	94.5	19.8
	人才开发指数	0.21	75.8	15.9	99.4	20.9	100	21.0
小计		0.42		29.9		41.9		40.8
总计				48.2		96.4		71.5

〈表-9 相关产业条件 测量指标数据结果〉¹³⁾

三级指标	出处	单位	年度	中国	韩国	日本
ICT发展指数	ITU ICT	value	2010	3.6	8.4	7.4
电影产业	韩国内容产业振兴院	%(GDP[支出])	2010	0.13	0.15	0.14
广告产业	PWC	%(GDP[支出])	2010	0.4	0.5	0.8

13) 2010年中国GDP为：5兆9,266亿美元；2010年韩国GDP为1兆145亿美元；2010年日本GDP为5兆4,978亿美元 数据：中国统计年鉴（2011）p.894；韩国内容产业统计（2011）p.244；ITU数据库；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2012-2016), Price Water Coopers,p.97。

<表-10 相关产业条件 竞争力指数>

三级指标	权重	中国		韩国		日本	
	1.0	标准值	得分	标准值	得分	标准值	得分
ICT发展指数	0.28	42.9	12.0	100	28.0	88.9	24.9
电影产业	0.32	86.7	27.7	100	32.0	93.3	29.9
广告产业	0.40	50.0	20.0	62.5	25.0	100	40.0
总计		59.7		85.0		94.8	

4) 企业战略/结构/竞争相关指标数据结果如下：

<表-11 企业战略/结构/竞争条件 测量指标数据结果>¹⁴⁾

三级指标	出处	单位	年度	中国	韩国	日本
当地竞争的强度	INSEAD GII	score	2010	77.0	77.7	80.8
国内市场占有率	KOCCA	%	2010	20.5	15.5	19.0

14) 数据：韩国文化内容产业统计（2011）；Global Innovation Index Report(2011);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2011)

<表-12 企业战略/结构/竞争条件 竞争力指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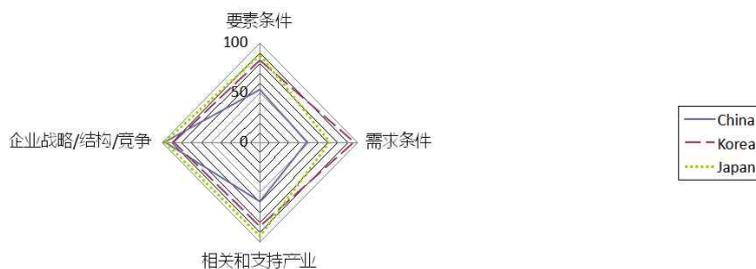
三级指标	权重	中国		韩国		日本	
	1.0	标准值	得分	标准值	得分	标准值	得分
当地竞争强度	0.61	95.3	58.1	96.2	58.7	100	61.0
国内文化产业市场占有率	0.39	100	39.0	75.6	29.5	92.7	36.1
合计		97.1		88.2		97.1	

5) 模型结果分析：

<表-13 中·韩·日 广播电视行业 国内钻石模型指数>

竞争力	竞争力体系	中国	韩国	日本
	要素条件	52.6	82.6	88.2
	需求条件	48.2	96.4	71.5
	相关产业情况	59.7	85.0	94.8
	企业战略、结构和竞争	97.1	88.2	97.1

<图-1 中·韩·日 广播电视行业 国内钻石模型指数 >



从上图1中我们可以看到中·韩·日三国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国内钻石模型指数情况，第一，中国的广播电视业整体来说呈现出不均衡的发展态势，在要素条件、需求条件、相关和支持产业方面的竞争力要远远低于韩国和日本。特别是在需求条件上的竞争力是较弱的，与日韩两国呈现不小距离。而在企业战略/结构/竞争方面相比于韩国又显示出了一定的竞争优势。第二，韩国的电视内容产业发展整体来说比较均衡，在需求条件上竞争力较强，明显高于中日两国，具有一定竞争优势。在要素条件和相关支持产业方面要远高于中国，却又稍落后于日本，而在企业战略/结构/竞争方面相比于中国和日本却显示出了一定的竞争劣势。第三，日本的广播电视业在要素条件、相关支持产业、企业战略/结构/竞争方面较中国和韩国具有竞争优势，需求条件方面较韩国处于劣势，较中国处于优势，介于中韩两国之间。

(二) 中韩日广电业国外钻石模型指数

1) 要素条件测量指标数据结果如下：

<表-14 要素条件 测量指标数据结果>15)

三级指标	出处	单位	年度	中国	韩国	日本
外国人直接投资的比率	INSEAD GII	score	2010	42.5	36.5	36.7
知识产权、著作权总收入	INSEAD GII	score	2010	1.2	51.2	57.3
数字内容的接近性	INSEAD GIT	score	2010	5.6	6.2	6.3

15) 数据：Global Innovation Index Report(2011);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2011)

<表-15 要素条件 测量指标数据结果>

三級指标	权重	中国		韩国		日本	
	1.0	标准值	得分	标准值	得分	标准值	得分
外国人直接投资的比率	0.54	100	54.0	85.9	46.4	86.4	46.6
知识产权、著作权总收入	0.23	2.1	0.5	89.4	20.1	100	23.0
数字内容的接近性	0.23	88.9	20.4	98.4	22.6	100	23.0
总计		74.9		89.6		92.6	

2) 需求条件相关指标数据结果如下：

<表-16 需求条件 测量指标数据结果>16)

三級指标	出处	单位	年度	中国	韩国	日本
收音机·TV 以及摄像机的出口额	UN Comtrade	亿美元	2010	1,055.9	312.6	94.4
收音机·TV 的零部件的出口额	UN Comtrade	亿美元	2010	234.0	164.0	113.7
音响影像商品出口的比重	UN CTAD	千万美元	2010	0.3	0.8	1.0
音响影像服务出口的比重	UN CTAD	亿美元	2010	1.2	1.9	0.9

16) 数据：UN Comtrade数据库；World Bank 数据库；UN CTAD <http://unctadstat.unctad.org>.

<表-17 需求条件 竞争力指数>

三级指标	权重	中国		韩国		日本	
	1.0	标准值	得分	标准值	得分	标准值	得分
收音机·TV 以及摄像机的出口额	0.31	100	31.0	29.6	9.2	8.9	2.8
收音机·TV 的零部件的出口额	0.23	100	23.0	70.0	16.1	48.6	11.2
音响影像商品出口的比重	0.19	30.0	5.7	80.0	15.2	100	19.0
音响影像服务出口的比重	0.27	63.2	17.1	100	27.0	47.4	12.8
总计			76.8		67.5		45.7

3) 相关和支持产业相关指标数据结果如下：

<表-18 相关产业条件 测量指标数据结果>17)

三级指标	出处	单位	年度	中国	韩国	日本
国家信用度	WEF GCI	score	2010	80.2	78.4	85.3
产学协作	INSEAD GII	score	2010	4.59	4.68	4.86
教育系统的质	WEF GCI	score	2010	4.0	3.9	4.4

17) 数据：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Global Innovation Index Report(2011)

<表-19 相关产业条件 竞争力指数>

三级指标	权重	中国		韩国		日本	
	1.0	标准值	得分	标准值	得分	标准值	得分
国家信用度	0.33	94.0	31.0	91.9	30.3	100	33.0
产学协作	0.30	93.0	28.3	95.3	28.9	100	30.0
教育系统的质	0.37	90.9	33.6	88.6	32.8	100	37.0
合计		92.9		91.9		100	

4) 企业战略/结构/竞争相关指标数据结果如下：

<表-20 企业战略/结构/竞争条件 测量指标数据结果>18)

三级指标	出处	单位	年度	中国	韩国	日本
著作权保护	INSEAD GIT	score	2010	4.0	4.1	5.3
世界传媒市场的占有率	韩国放送产业统计报告	%	2010	4.3	1.2	7.8

<表-21 企业战略/结构/竞争条件 竞争力指数>

三级指标	权重	中国		韩国		日本	
	1.0	标准值	得分	标准值	得分	标准值	得分
著作权保护	0.64	75.5	48.3	77.4	49.3	100	64.0
世界传媒市场的占有率	0.36	55.1	19.8	15.4	5.5	100	36.0
总计		68.1		5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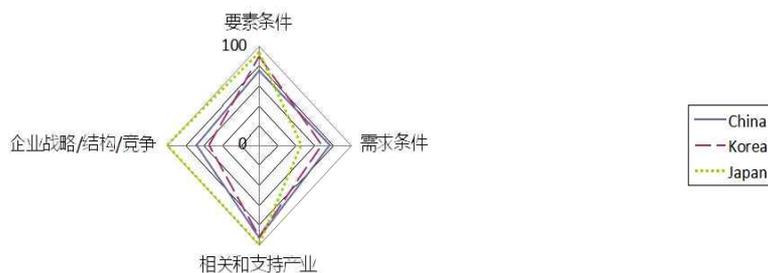
18) 数据：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2011)；韩国文化内容产业统计 (2011) p.420.

5) 模型结果分析：

<表-22 中·韩·日 广播电视行业 国际钻石模型指数>

	中国	韩国	日本
要素条件	74.9	89.6	92.6
需求条件	76.8	67.5	45.7
相关产业情况	92.9	91.9	100.0
企业战略、结构和竞争	68.1	55.0	100.0

<图-2 中·韩·日 广播电视行业 国际钻石模型指数 >



根据网络分析理论，我们可以将整个竞争力指标体系视为一个网络，每个竞争力指标都是网络中的节点，各个指标间相互连接，要素条件、需求条件、相关和支持产业及企业的战略结构竞争这四大指标构成影响产业国际竞争力网络中的中心节点。从上图2中我们可以看到中·韩·日三国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国际钻石模型指数情况，第一，中国的广播电视业整体来说在要素条件、需求条件、相关和支持产业方面的竞争力要有一定竞争优势，但企业战略/结构/竞争方面相比于日本的竞争力是较弱的。第二，韩国的广电产业发展整体来说介于中日两国之间，在要素条件上竞争力要高于中国，具有一定竞争优势。在要素条件、相关支持产业、企业战略/结构/竞争方面，却又稍落后于日本。第三，日本的广播电视业在要素条件、相关支持产业、企

业战略/结构/竞争方面较中国和韩国具有明显竞争优势，而在需求条件方面较中韩两国处于劣势。

五、结论及建议

本文首先考察了中·韩·日三国广播电视业的现状，然后结合三国广播电视业的特性，构建广电行业国际竞争力评价的理论模型。其次，通过以一般化双重钻石模型为基础、熵值法确定权重，构建中日韩广电业国际竞争力衡量指标体系。再次，综合比较三国的广播电视行业的优劣势，根据广电业国际竞争力评价结果，对三国的广播电视行业的国际竞争力进行有益的探索。

相比于韩日两国，中国的广播电视业在参与国际竞争中呈现出：

1) 在要素条件方面，特别是R&D人员数，高等教育入学率及广播电视市场规模等指数相对较低，中国广播电视业今后仍需要进一步培养高级研究人员及对广播电视关联领域的优秀人力资源加大培养力度和资金支持。另外，我国广电业的融资方式较单一，尽管已经有国家政策的扶持，民营资本和境外资本可以有条件地被允许参与广电节目的投资制作领域，但有些投资仍旧不稳定。广电业在产业化运作的时候存在着产业体制与市场本身的结构矛盾，造成资本与产业有时很难有效对接。

2) 在需求要素条件方面，今后应加大开发宽带及移动通信基础设施的建设，增加有线用户、数字电视用户、互联网用户、手机用户的人数。扩大广电产品消费区域和消费人群，是中国参与国际竞争的重要条件之一。应注重广播电视内容的文化属性，强调其“广播电视内容创意”将潜在消费人群培养成真正的消费者。应多参加国际展示会、积极开拓海外市场、注重支援国内广播电视节目在海外的上映、加强国际交流积极促进海外推广，最终得以有效地满足海外市场需求。当然，完成文化价值的传达是广播电视传播的关键，当前我国广电业承载着文化价值传达环节仍较薄弱，也是导致我国广电业国际竞争力不强的重要原因。

3) 在相关及支持产业方面，中国的广告业及ICT产业方面现在仍处于为未成熟的发展状态，其中广告业更应该注重专业化，形成广告服务的独特性，在细分市场的基础上，不同专业广告公司通过业务协作和完善的利益分配机制，从而确保整个广告行业专业化服务的顺利实施。同时ICT产业的产

品附加值很低,集成电路和软件目前仍是ICT产业的软肋,缺乏对核心技术的掌握、自主创新及品牌建设已经成为ICT产业成长的核心问题。今后要在国际市场的激烈竞争中占有一席之地,应该通过强有力的政策、税收优惠来支持企业扩大技术研发投入、增强技术创新能力,积极争取国际质量技术标准体系认可,以提高广电产业的竞争力。广电业作为核心文化产业,要作为主轴向相关产业扩散,通过生产-消费、技术-文化、投入-产出等多渠道将产业价值传递到其他产业,进而形成集群效应带动自身产业的长远发展。

4) 在企业战略/结构/竞争方面,中国广电企业应选择从本土化战略向全球化战略逐步推进的路径,在企划和调查研究方面仍需增加支持力度,在海外建立市场调查网络制度、运用广播电视的资料室、增加对海外广播电视业绩文化基础的调查、鼓励投资组合共同制作,进而实现中国广电产品的全球化。与此同时,著作权相关问题应该向发达国家学习,进一步修订《著作权法》,延长著作权保护期间、加强技术保护措施、明确法定损害赔偿责任和赔偿额等。

<参考文献>

- IMD(2012),《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pp.320~355.
- INSEAD(2011),《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pp.135~142.
- INSEAD(2011),《Global Innovation Index Report》, pp.121~178.
- PWC(2012),《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pp.211~245.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2011),《Human Development Report》, pp.127~150.
- WEF(2012),《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pp.370~390.
- 祁述裕(2004),《中国文化产业国际竞争力报告》,社会科学文献出版社, pp.1~15.
- 庞井君(2012),《中国广播电影电视发展报告》,社会科学文献出版社, p.1.
- 蔡翔(2013),《版权与文化产业国际竞争力研究》,中国传媒大学出版社, p.34.
- 金兑铉(2010),《韩国文化产业国际竞争力研究》,吉林大学博士论文,

pp.34~79.

仇琮(2009), 《试论广电产业的竞争力分析体系构架》, 《新闻实践》, 第11期, pp72~74.

陈向东(2010), 《创意产业广电行业国际竞争力的比较分析—基于中国和欧洲的对比》, 《现代商业》, pp.53~55.

中国统计局, 《中国统计年鉴2011》, pp.894~913.

韩国媒体战略研究所(2011), 《中国和台湾媒体市场的进出方案》, pp.21~23.

韩国文化体育观光部(2011), 《年韩国文化内容产业白皮书》, p.1.

韩国文化体育观光部(2011), 《文化内容产业统计》, pp.70~71.

韩国文化产业振兴院发表(2004), 《中日韩文化产业竞争力比较分析》, pp.56~70.

朴慧英(2007),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Film Industry》, 首尔大学, pp.45~70.

Website:

中国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

中国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统计信息 <http://gdtj.chinasarft.gov.cn/>

中国互联网信息中心 <http://www.cnnic.cn/>

韩国统计厅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韩国银行 经济统计系统 <http://ecos.bok.or.kr/>

韩国e-国家指标 <http://www.index.go.kr/>

韩国放送通信委员会 <http://www.kcc.go.kr/>

韩国科学技术委员会 www.nstc.go.kr/

韩国文化体育观光部 <http://www.mcst.go.kr/>

韩国知识经济部 <http://www.mke.go.kr/>

韩国知识经济部 统计门户网 <http://www.itstat.go.kr/>

UN CTAD <http://unctadstat.unctad.org>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UNESCO <http://en.unesco.org/>

Word Bank <http://data.worldbank.org/>

<Abstract>

Today, with the merging of cultural industry and modern technology,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through a harmonious social environment, an advanced legal system, is formed a new economic form taking the creative as the core drive. Whether in China, South Korea or Japan, the Broadcast Content Industry in the classification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has the key position, thus increas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Broadcast Content Industry has become important issues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In this paper, we take Broadcast Content Industry as an object of study, based on General Double Diamond model and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 Content Industry in China, South Korea and Japan, established an 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measure system to do a useful expl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Broadcast Content Industry in these three countries.

By using the results fo the evaluation, an analysis is taken panoramically regarding the position of China's Broadcast Content Industry in the world. Compare to South Korea and Japan, China still has a certain gap with South Korea and Japan in Factor Conditions, Demand Conditions and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In the future to increase the support of the Broadcast Content Industry, establish market liquidity management system, integrated computing network to improve circulation environment is necessary. Increase efforts to train excellent human resources and technical resources, encourage co-production and investment portfolio, improve the financial support is also required.

298 · 中國學 第47輯(2014.4)

Keywords : China, South Korea, Japan, Broadcast Content Industry,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valuation

투 고 일 : 2014.2.25

심 사 일 : 2014.3.3~3.31

게재확정일 : 2014.4.20

중국 베이징시 교통·통신비의 소비구조변화

김성자* · 이중희**

<목 차>

- I. 서 론
- II. 소비구조변화의 배경
- III. 소비구조변화의 원인 및 추세
- IV. 교통·통신비의 소비구조변화와 추세
- V. 결 론

I. 서 론

중국 공산당 제17기 제5중전회에서 통과된 '12·5 계획'의 10대 임무 중 내수확대가 1순위로 제시되면서 중국 내수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5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소득 향상(國富 → 民富)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투자-수출 주도의 성장방식을 전환해 내수확대전략을 견지하면서 소비-투자-수출 및 경제-사회-자원 간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¹⁾ 세계무대에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하면서 국가차원에서는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 1인당 GDP는 5,898달러로 전 세계 88위에 머물렀다(IMF 조사자료). 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GDP 대비 민간소비의 비중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보다 낮은 수준²⁾에 머물러 있다.

* 경남대학교 강사 (darakb@hanmail.net)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국학전공 교수 (jheelee@pknu.ac.kr)

1) 최명해, <중국 '12·5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314(2010), 3쪽.

그러나 민간소비의 낮은 비중은 그만큼 미래에 민간소비부문에서의 양적·질적 확대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반증이기도하다. 실제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0%대의 고속 성장을 유지해오는데 동안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은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으며 소비활동 또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중국인들의 소비는 생계형 소비 위주에서 도시주민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향유형 소비 위주로 전환하여 왔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신소비자’³⁾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소비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소비구조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의 도입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의·식·주와 관련된 생계형 소비항목들의 지출비중이 최근 몇 년 사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⁴⁾ 급변하는 중국도시의 소비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의 소비구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도시별 소비구조에 대한 연구는 희박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중국 소비구조와 관련된 연구는 김달현(1998), 范劍平

-
- 2) 김난도·전미영·김서영, 《트렌드 차이나》(오우아, 2013), 23쪽, 재인용.
- 3) ‘신소비자’란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한 능동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수단과 통제권을 이용하여 다양해지고 차별화된 개인 및 조직의 욕구충족을 위해 소비 행위를 하는 주체라고 말 할 수 있다. 신소비자는 보다 많은 정보와 제품, 서비스로의 접근력과 교섭력 및 더 많은 선택의 폭을 갖는다. 이비즈니스 마케팅에서 언급되는 신소비자란 개인이나 조직의 구매과정을 더욱 촉진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뜻한다(박중의, 《e-비즈니스 시대 소비자 행동론》(글로벌, 2003), 344쪽); 최근 중국에서도 인터넷보급률의 증가, 컴퓨터 및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내구소비재의 구매증가 등의 원인으로 바링허우(八零后·80년대 이후 출생자), 저링허우(九零后·90년대 이후 출생자)를 중심으로 ‘신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신소비자’란 용어를 중국에서는 ‘인터넷소비자(网络消费者)’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30세 이하의 젊은이들로 인터넷을 사용하여 소비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3093925.htm>, 검색일: 2014.03.13).
- 4)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국내연구의 내용과는 상반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시기적으로 2006년 이전까지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생계형 소비항목들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2001), 서석홍(2006), 方心清·王毅杰(2006), 田学斌(2007), 이중희(2007,2008,2009), 潘敬民(2009) 张计成(2011), 范燕(2011)등의 연구가 있다.⁵⁾ 그 중 특정지역의 소비구조 연구로는 김달현(1998)의 연구가 있다. 김달현(1998)의 요녕성 소비구조 연구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특정도시 소비구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고 이 또한 1998년 이전의 소비추세만을 알 수 있다. 그 외 연구들은 특정지역의 소비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연구가 아니라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특정도시의 연구가 진행되려면 이러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그 지역의 데이터분석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국토 면적이 넓고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여 사실상 ‘미니국가’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별로 세분화된 시장분석을 통한 소비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마다 문화와 민족 구성이 다르고, 도시가 소재하는 성(省)간에 부유함의 격차 역시 매우 큰 특징을 보이고 있어 베이징에서 유용한 방법을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청두(成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⁶⁾

2012년 현재 소매시장을 볼 때 베이징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⁷⁾ 중

5) 김달현, <요녕성의 소비행태의 분석>, 《아태연구》(1998); 范剑平, 《中国城乡居民消费结构的变化趋势》(北京: 人民出版社, 2001); 서석홍, <중국 도시지역 중산층의 성장과 소비구조의 전환>, 《현대중국연구》71(2006); 方心清·王毅杰, <現代生活方式前沿報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6); 田学斌, 《家庭消费结构演变的制度分析》(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7); 이중희, <중국 도시 고소득층의 소비 실태와 소비 구조의 변화>, 《아시아연구》10:2(2007); 이중희, <중국 도시의 소비 혁명 : 소비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43(2008); 이중희, <중국의 소비 양극화와 정책 대응>, 《국제지역연구》13:2(2009); 潘敬民, <中国消费结构分析>, 《合作经济与科技》376(2009); 张计成, <中国城市居民消费力分析>, 《商业经济》26(2011); 范燕, <我国居民消费结构和消费趋势的变化>, 《山西财经大学学报》33:1(2011).

6) 중국 LG경제연구소, 《LG瞭望中国》48(2013.10), 18쪽.

7) 중국에서 상품매출액이 가장 많은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순이다. 2012년 베이징과 상하이의 상품매출액은 각각 453억 9,050만 위안과 425억 3,350만 위안이며 그 중 수출은 베이징이 17억 9,740만 위안이고 상하이는 29억 9,740만 위안이다(中国统计局, 《中国统计年鉴》(北京: 中國統計出版社,

국 최대 소매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베이징시는 중국을 대표하는 소비시장 중심도시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베이징의 소비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는 교통·통신비의 지출증가로 인한 베이징시 주민의 교통·통신관련 소비추세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추세의삽법⁸⁾을 사용하였다. 추세의삽법은 어떤 현상에 대한 누적적이고 정확한 통계적 기록이 유지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즉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는 통계적 자료를 활용하고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수식이나 도표로 나타냄으로써 미래의 발생형태 또는 추세를 관찰하고 예측하는 것이다.⁹⁾ 본고에서는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행하는 『북경통계연감(北京统计年監)』과 『중국통계연감(中國統計年監)』을 이용하여 베이징시 소비구조의 통계자료를 수집·정리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지출의 8개 항목의 소비구조변화를 살펴본 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는 교통·통신비의 소비지출 구조변화를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각종 문헌자료를 통해 그 배경과 원인을 찾고 그로 인한 베이징시의 소비추세를 알아보려고 한다.

2013). 상품매출액 규모는 베이징이 더 크며 그 중 수출액 규모는 상하이보다 더 큰 것이다. 즉, 베이징시가 상하이시에 비해 수출액 규모는 작고 상품매출액 규모는 많음을 통해 베이징시의 소비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8) 외삽법(extrapolative trend tracking)은 하나의 변화는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과 형태 및 그 때 작용했던 힘들이 미래에도 다시 나타나고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 트렌드를 미래까지 적용함으로써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추세의삽법에서는 추세를 분석하여 추세의 특성이 밝혀지면 추세를 미래로 외삽 또는 투사한다. 추세분석은 과거로부터 현시점까지 추세를 추적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고 추세의삽은 추세분석을 통하여 규명된 추세의 특성을 미래로 투사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서정희, 《소비트렌드 예측의 이론과 방법》(내하출판사, 2005), 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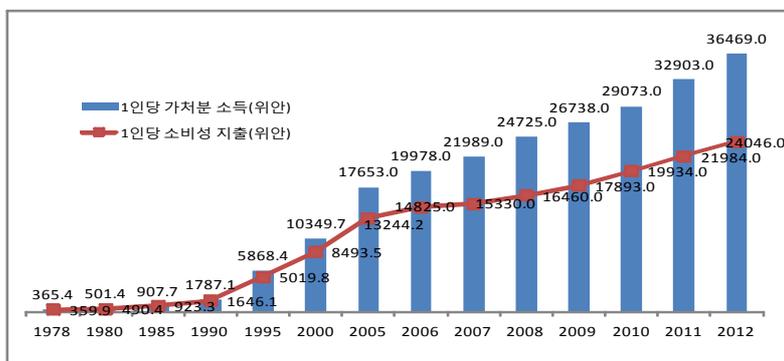
9) 하인호, 《미래학이란 무엇인가》(고도, 1995), 189쪽.

II. 소비구조변화의 배경

1. 소득수준 향상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의 저임금·저소비정책과는 달리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의 도입과 경공업 중시 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이전의 체제 역시 변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국가가 각종 기업의 자본축적을 돕기 위해서 소비를 자극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도·농 주민, 특히 도시 주민의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에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전체 주민의 소득·소비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¹⁰⁾

<그림 1> 베이징시 1인당 가처분 소득과 소비성 지출



출처 : 中国统计局, 《北京统计年鉴》(北京: 中国统计出版社, 2013).

<그림 1>에 의하면 베이징시 1인당 가처분소득은 1978년부터 2000년까지 365.4위안에서 10,349.7위안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년에 17,653.0위안으로 급증하여 2012년 현재 36,469.0위안으로 1978년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99.8배 증가¹¹⁾하였다.

10) 이중희, <중국 도시의 소비 혁명 : 소비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43(2008), 402쪽.

11)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베이징시는 특히 도시주민의 소득수준의 상당

1인당 소비성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치분소득 대비 소비성지출의 비중은 여전히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인들의 높은 저축률과 무관하지 않다. 90년대 초 GDP대비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까지 51%로 증가한 이후 2012년에 52%로 꾸준히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평균 저축률이 19.7%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¹²⁾ 그러나 최근 저축에서 소비의 성향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2011년 베이징시 주민의 저축 총액이 1조 8,900억 위안으로 1인당 평균 9만 5,000위안을 저축하고 있다. 1인당 저축성예금이 하락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그 증가속도가 각 연도별로 23.8%, 16.5%, 10.1%, 7.5%를 기록하였다.¹³⁾ 베이징시 주민의 저축은 미래소비의 잠재력을 증명해준다. 경기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그로 인한 고저축률이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소비장려 정책, 소득분배 정책 등의 요인은 향후 저축률 감소와 소비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소비수준 향상

소비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수준, 저축성향, 분배상황, 인구구성, 브랜드 선호도, 소비가치, 외국 문화에 대한 수용성, 과시성향, 가격민감도 등 매우 다양한데, 역사적 다원성이 강한 중국 시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지역별, 그리고 소비자군 별로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¹⁴⁾ 그 중에서도 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수준의 향상이 소비구조변

한 발전을 가져왔는데, 중국 상무부 진더밍(陣德銘) 부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정상포럼에서 2015년까지 중국의 사회소비품 구매총액이 5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수입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서비스 분야의 교역 발전은 주민 소비구조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KBENEWS, 〈中, 2015년 세계 최대 소비시장 부상〉 (2012.05.20)).

12) 人民网, 〈中国居民人均储蓄过万 储蓄率52%世界绝无仅有〉 (2012.11.21).

13) 王敏·郑艳丽 〈北京消费特点与潜力的分析判断〉, 《研究世界》(2013), 17쪽.

14) 김난도·전미영·김서영, 《앞의 책》(오우아, 2013), 173쪽.

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소득수준 향상은 곧 소비수준 향상과 연결이 된다. 이는 또한 소비구조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1인당 가처분소득 추이를 통해 소비수준향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래, 베이징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고 소비수준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1978년~2012년, 베이징의 GDP는 108.8억 위안에서 1조 7,879.4억 위안으로 163.3배 증가하여 연평균 10.4%의 증가율을 보였다. 동기간 베이징시 최종소비는 53억 위안에서 1조 655.1억 위안으로 200배 증가하여 연평균 12.4%의 증가율을 보였다.¹⁵⁾ GDP의 증가속도보다 최종소비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006년, 베이징시의 소비가 베이징 경제성장 공헌율 60%를 차지하였는데 2012년 현재 공헌율은 73%¹⁶⁾를 기록하였다. 이는 선진국의 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공헌율이 80%인데 이에 근접한 수준임을 볼 때 소비는 베이징 경제의 제일가는 성장 동력¹⁷⁾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베이징의 1인당 소비성 지출액은 1978년부터 2012년 사이 359.9위안에서 24,046.0위안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GDP 대비 소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임금인상 조치¹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소비수준, 특히 노동자들의 밀집지역인 대도시 중심의 소비

15) 郑艳丽 〈北京经济增长迈向消费驱动时代〉, 数据, Special Report》(2013), 8쪽.

16) 베이징은 정부소비의 비중이 많은 편이다. 2012년 베이징 주민소비와 정부소비의 비율이 6:4로 전국의 7:3에 비해 정부소비가 많은 편이다. 2006~2012년 사이 정부소비가 연평균 15.6% 성장하여 베이징 경제성장률에 대한 공헌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에서 2012년 사이 27%에서 30.8%로 증가하였다. 베이징 주민소비가 내수확대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2012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공헌율은 42.2%를 기록하였다. 2012년 이후 베이징 주민소비가 정부소비보다 더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기 시작하여 소비성장동력의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郑艳丽, 〈위의 논문〉(2013), 9쪽).

17) 郑艳丽, 〈위의 논문〉(2013), 8쪽.

18) 최명해, 〈앞의 논문〉(2010), 8쪽.

수준은 꾸준히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1997년~2003년 사이 국유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중국사회 전역으로 증폭되었고 미래를 위한 저축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¹⁹⁾ 그러나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고저축률을 유지하던 중국이 최근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 등 다양한 소비 장려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저축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²⁰⁾이다. 중국은 고저축율을 유지해오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비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2013년 중국인이 사들인 명품이 세계 판매량의 절반에 달한다. 중국 명품시장 연구기관인 재부품질연구원(財富品質研究院)이 발표한 ‘중국명품보고서(《中国奢侈品报告》)’에 의하면 2013년 중국인의 중국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구매 총액은 1,020억 달러로 전 세계 판매량의 47%에 달한다. 그 중 중국 현지 구매량은 280억 달러, 해외 구매는 740억 달러였다.²¹⁾ 이러한 중국인들의 소비력은 향후 저축률 하락, 소비장려 정책 등과 맞물려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다양한 소비영역으로의 확대가 예상된다.

III. 소비구조변화의 원인 및 추세

1. 소비장려 정책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과 해외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위축된 내수시장 확대를 방향으로 전환하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소비장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가전제품

19)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머징마켓 소비트렌드 시장은 살아있다》(울림, 2012), 32쪽을 참고할 것.

20) 골드만삭스는 중국 GDP 가운데 저축 비중이 2008년 51.3%에서 2025년 34%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삼정KPMG 경제연구원, 《위의 책》(울림, 2012).

21) 李佳佳, 〈报告称中国人买走全球近半奢侈品为最大客户〉, 《中国新闻网》(2013. 11.14).

구매에 적용되는 ‘가전하향(家电下乡)’, ‘가전이구환신(家电以旧换新)’, ‘가전절능혜민(家电节能惠民)’ 정책을 들 수 있다. 먼저 ‘가전하향’ 정책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 시 정부보조금 13%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2008~2011년까지 시행되었는데 이 기간에 보조금 지급기준을 상향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1개 품목을 추가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가전이구환신’ 정책은 낡은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구입 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2009~2011년까지 시행되었다. 세 번째, ‘가전절능혜민’ 정책은 절전형 가전제품 구입에 대해 300~850위안(상품가격의 약 1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2009~2010년까지 시행되었다.²²⁾ 중국 정부의 가전 소비장려 정책이 종료되면서 가전 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로 거란스(格蘭仕)라는 기업에서는 와인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을 출시하는 등 제품 라인을 다양화하면서 고급화에 주력하고 있다.²³⁾ 중산층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고급 가전제품 구매에 눈을 돌리고 있다.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도 소비 장려정책이 시행되었다. ‘자동차하향(汽车下乡)’, ‘자동차이구환신(汽车以旧换新)’, ‘자동차절능혜민(汽车节能惠民)’ 정책이 대표적이다. 먼저 ‘자동차하향’ 정책은 자동차 구매 시 차종별로 일정액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2009~2010년까지 시행되었으며 보조금 지급기한을 오토바이에 한해서는 2013년까지 연장 실시 하였다. 둘째, ‘자동차이구환신’ 정책으로 환경보호 기준에 미달된 차량을 새 차로 교체구입 시 3,000~6,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2009~2011년까지 시행되었으며 소형자동차, 경차, 삼륜자동차, 저속화물차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자동차절능혜민’ 정책으로 신에너지 자동차의 시범도시를 13개에서 20개로 확대하여 연비기준을 충족시키는 배기량 1.6이하의 저연료 자동차구입에 대해 3,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

22) 이철용, <수출에서 내수로, 이제 소비로>, 《LG Business Insight》(2012.02.29), 10쪽;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머징마켓 소비트렌드 시장은 살아있다》(울림, 2012), 34쪽; 云中, <农村汽车消费进入“后政策”时代>, 《国际商报》(2011.05.16).

23) 중앙일보, <中 가전 소비장려책 ‘종료’> (2011.12.22).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장려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서는 날이 악화되고 있는 교통체증문제를 완화하고자 2010년 12월 ‘베이징시 승용차 수량조정 임시 시행방안(《北京市小客車數量調控暫行規定》)’²⁴⁾을 발표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 시행방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등록 대수 제한과 교통혼잡세(交通擁堵費) 징수방안에 관한 것이다. 또한 시정부는 베이징시를 환경오염이 적은 세계 도시로 건설하고 ‘12·5규획’기간에 40만대의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기 위해 ‘노후차량의 퇴출 및 촉진 방안(《關於進一步促進本市老舊機動車淘汰更新方案》)’을 발표하고,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²⁵⁾

이러한 중국정부의 소비 장려정책은 중국인들의 소득·소비수준 향상과 맞물려 내수확대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베이징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 제한정책이 베이징시 주민의 교통비지출구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소비구조의 변화

전 세계 각국의 소비구조 변화추세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소비구조 역

24) 자동차 등록 대수를 매년 24만대(월 2만 대)로 제한하며, 매월 26일 번호판 추첨을 실시하고 있다. 승용차에 대해서만 등록 대수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 중 개인 승용차가 88%, 영업용 승용차가 2%, 관용 등 기타 승용차가 10%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외지인이 베이징시에서 차량을 등록하려면 5년 연속 베이징시에서 사회보험료 및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홍콩·마카오·대만 주민과 화교 및 외국인은 1년 이상 거주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중고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추첨 없이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폐차한 차주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의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첫째 등기변경 혹은 등기말소 절차를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둘째 3년 이상 소유한 차량이어야 하며, 셋째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완납했거나 교통사고가 해결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그러나 이 시행방안은 신에너지 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에너지 차는 차량 등록 제한, 승용차 운행 제한 등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며, 보조금 우대 혜택은 증가된다.(김부용, 〈베이징시 자동차 등록 제한정책: 파급영향 및 평가〉,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12.20), 3쪽.

25) 김부용, 〈위의 논문〉(2011.12.20), 4쪽.

시 보편적으로 일반소비품에서 내구소비재로, 또 서비스품목으로 점차 고도화²⁶⁾ 되어 가고 있다.

<표 1> 베이징시 가구당 소비지출 비중추이

(단위 : %)

	1992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 1992
식품	52.8	48.5	36.3	31.8	32.2	33.8	33.2	32.1	31.4	31.3	↓0.6
의류	11.0	15.1	8.9	8.9	9.9	9.5	10.0	10.4	10.3	11.0	0.0
가정 설비· 용품· 서비스	6.6	8.8	12.9	6.4	6.4	6.7	6.8	6.9	7.1	6.7	↑1.0
의료 보건	1.9	2.9	6.9	9.8	8.4	9.5	7.8	6.7	6.9	6.9	↑3.6
교통· 통신	2.1	4.7	7.1	14.7	15.2	13.9	15.5	17.2	16.0	15.7	↑7.5
오락· 교육· 문화	6.9	10.2	15.1	16.5	15.6	14.5	14.8	14.6	15.0	15.4	↑2.2
주거	4.7	4.5	6.9	7.9	8.1	7.8	7.2	7.9	8.8	8.2	↑1.7
기타	3.7	5.2	5.8	4.0	4.2	4.3	4.7	4.2	4.5	4.8	↑1.3

출처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監》北京: 中國統計出版社, 各年度);

國家統計局, 《北京統計年監》(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13).

중국 전체도시 가구의 소비구조에 있어서 교통·통신비의 지출비중은 1992년 2.6%에서 2012년 14.7%²⁷⁾로 5.7배 증가하여 소비항목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항목이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베이징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표 1>에서 베이징시 가구의 소비항목 중 교통·통신비의 지출비중이 1992년에서 2012년 사이 2.1%에서 15.7%로 무려 13.6%포인트 증가

26)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소비발전 단계와 12·5 계획 기간의 소비 정책>,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11:02(2011.02.23.), 3쪽.

27)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監》北京: 中國統計出版社, 1993, 2013)

하여 7.5배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교통·통신방면에 있어서 인프라투자 증가 및 WTO가입 후 자가용 판매가격의 하락, 통신방면의 원가 및 가격 하락 등으로 교통·통신비의 지출비중 증가를 야기시킨 것²⁸⁾과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소비장려 정책에서 그 배경과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동차하향’정책이 실시된 해인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 자동차 교체 구입량이 195만대에 달하여 전년 동기대비 83.4% 증가하였다.²⁹⁾ 실제로 베이징시 100가구당 가정용 자가용 보유량이 <그림 2>에 의하면 2008년 23대에 비해 소비장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해인 2009년에 30대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2010년 12월부터 실시된 베이징시 자동차 소비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베이징시 100가구당 가정용 자가용 보유량은 42대에 달한다. 이는 2012년 기준 전국 도시평균의 21.5대에 비해 약 2배 많은 보유량³⁰⁾이다.

<그림 2> 베이징시 가구당 내구 소비재 보유현황 추이



출처: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監》(北京: 中國統計出版社, 1993, 1996, 2001);
 國家統計局, 《北京統計年監》(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06~2013).

28) 李恩静, <从居民消费结构变化看扩大内需的动力取向>, 《商业时代》 01(2008), 22쪽.
 29) 赵萍, <扩消费政策推动消费高速增长>, 《国际商报》(2012.08.13).
 30)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監》(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13).

가정용 컴퓨터와 이동전화는 2005년에 이미 포화점에 이르렀다. 특히, 이동전화는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8.3대에서 43대로의 급증이 돋보인다. 가정용 컴퓨터와 이동전화, 자가용 보유량 증가는 베이징 주민들에게 소비문화의 변화를 가져다준다. 물건을 구매하려면 직접 상점이나 쇼핑센터로 가서 구매를 하는데 자가용의 보유로 더욱 용이해졌으며, 최근에는 컴퓨터나 이동전화를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11·5규획’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빠르게 발전하였는데 거래총액이 약 3.5배 증가하여 2010년에 약 4조 5,000억 위안을 기록했다. 《전자상거래 ‘12·5’ 발전규획》에 의하면 ‘12·5규획’ 기간 중국 전자상거래 목표는 거래액이 18조 위안을 돌파하는 것이다.³¹⁾

중국인들의 소득·소비수준향상은 특히 의료보건비, 교통·통신비, 오락·교육·문화비와 같이 향유형 소비항목의 지출비중 증가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 베이징시는 교통·통신비 항목의 지출비중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IV. 교통·통신비의 소비구조변화와 추세

2011년 10월에 베이징시 경제와 정보화위원회(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에서 발표한 “베이징시 ‘12·5’시기 전자정보산업발전규획”(《北京市“十二五”时期电子信息产业发展规划》)에서 “인문 베이징, 과학기술 베이징, 녹색 베이징” 전략을 핵심 지도사상으로 내걸었다. 특히 전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의 융합은 통신관련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와이브로, 3G, 4G 이동통신 네트워크, TD-LTE환경을 설립하여 3G기술을 현재 수준을 넘어 새로운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목표³²⁾를 통해 베이징시 네티즌증가의 가속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다방면의 활동이 더욱 용이해지고 활발해 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1) 第一财经日报, <‘12·5’ 전자상거래 거래액 18조 위안 돌파 목표> (2012.0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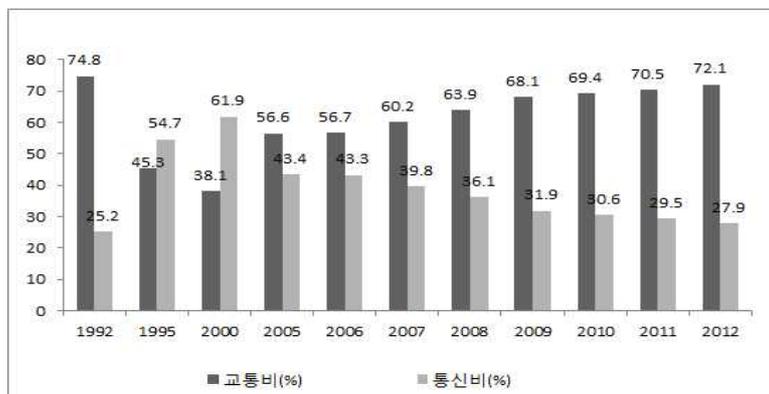
32)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 《北京市“十二五”时期电子信息产业发展规划》 (2011.10), 7쪽, 15~16쪽.

또한 자동차산업과 전자정보산업의 융합은 자동차의 스마트화, 자동화, 정보화와 전자의 일체화상품 생산방향으로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향후 거대한 자동차 전자산업규모를 형성³³⁾할 기반이 된다.

1. 교통비

중국인들의 자동차 구매가 증가하면서 교통비에 대한 지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베이징시는 2012년 100가구당 자가용 보유량이 42대로 전체도시의 21.5대³⁴⁾에 비해 약 2배 많은 보유량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가용 보유량 증가는 베이징시 교통비의 지출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3> 베이징시 가구 1인당 교통·통신비 지출비중 추이



출처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監》(北京:中國統計出版社, 1993, 1995, 2000);
 國家統計局, 《北京統計年監》(北京:中國統計出版社, 各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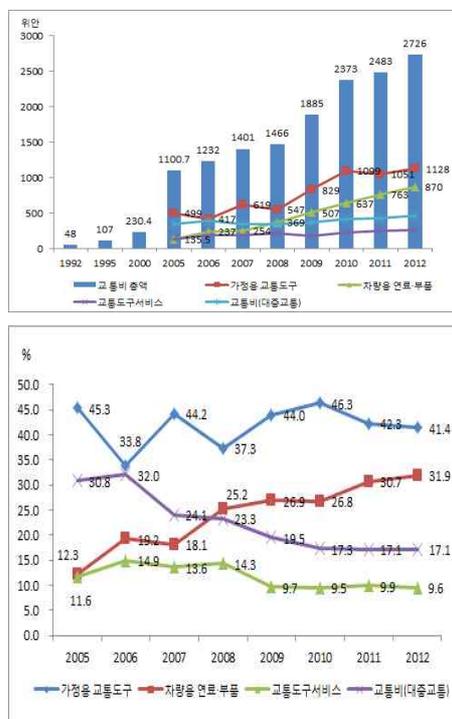
<그림 3>에서 베이징시의 교통·통신비를 교통비와 통신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2년 교통비와 통신비가 각각 74.8%, 25.2%로 교통비의

33)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 《위의 책》(2011.10), 17쪽.

34)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監》(北京:中國統計出版社, 2013), 384쪽.

지출비중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당시 도시 가정 100가구당 가정용 컴퓨터와 전화기, 가정용 자가용이 보급되지 않아 대중교통비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2005년을 기점으로 교통비가 통신비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교통비와 통신비가 각각 72.1%, 27.9%로 교통비가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 베이징시 가구 1인당 교통비 항목별 지출금액과 지출비중 추이



출처: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監》(北京: 中國統計出版社, 1993, 1995, 2000);
 國家統計局, 《北京統計年監》(北京: 中國統計出版社, 各年度).

교통비의 지출구조를 보면 2005년 이후 교통비의 증가 원인으로는

가정용 자가용 보유량 증가와 그에 따른 유지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림 4>에 의하면 베이징시 가구 1인당 가정교통도구에 대한 지출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499위안에서 1,128위안으로 증가하였고 그 지출비중은 동기간 45.3%에서 41.4%로 꾸준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가용 연료·부품비의 지출은 동기간 135.5위안에서 870위안으로 증가하였고 그 지출비중은 12.3%에서 31.9%로 급증하였다. 베이징시 자가용 등록대수는 2005년 말 258만 대에서 2011년 11월 말 약 500만 대로 늘어나, 대중교통 차량의 5~6배에 달했다. 2010년에만 신규 차량 80만 대가 증가하면서, 베이징시의 교통체증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³⁵⁾ 그에 반해 대중교통비의 지출비중은 동기간 30.8%에서 17.1%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베이징시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3억 7,000만 위안을 지급하여 가전·자동차하향과 이구환신 정책의 실시로 대중교통비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자동차 판매량이 30.8% 증가³⁶⁾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실시된 자동차 소비장려 정책은 4년 5개월 동안 베이징시 자동차 소매판매액을 12억 2,000만 위안으로 끌어올렸는데 이는 베이징시 전체 소매판매액 증가의 0.28%포인트 중 0.05%포인트에 해당한다.³⁷⁾

그러나 베이징은 2006년 이미 자동차 소비시장의 성숙기³⁸⁾에 접어들었고 성장속도도 전국 평균수준 보다 낮은데 2011년 1~10월 베이징

35) 중국사회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출근 소요시간이 베이징시가 52분으로 중국에서 가장 길고, 광저우와 상하이 각각 48분, 47분으로 2, 3위를 차지하였다(김부용, <앞의 논문> (2010.03.16), 3쪽).

36) 김부용, <위의 논문> (2010.03.16), 3쪽.

37) 王晔君, <北京促消费政策杠杆效应最高达35倍>, 《北京商报》(2013.09.03).

38) 중국의 승용차 시장은 2002년 125만대에서 2006년 416만대 규모로 급속히 성장하였고, 신규구매가 전체소비의 80%를 차지한다. 자동차 신규 등록수를 기준으로 보면 2006년 베이징, 상하이, 광둥의 자동차 소비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시장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성장속도도 중국 평균수준 보다 낮은 반면 저장(浙江), 쑤주(江苏), 산둥(山东), 쓰촨(四川)의 자동차 소비시장은 비교적 빠른 성장속도를 유지하고 있다(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자동차 소비실태와 브랜드별 판매의 지리적 분포>,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7:19(2007.11.09), 1~2쪽).

시 신차 판매량은 31만 1,7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52.5% 하락하였다. 동기간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다. 베이징시의 자동차 등록 제한정책으로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증가율이 약 4.5%포인트 하락³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베이징시 자동차 소비제한 정책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를 제한하고 교통혼잡세를 징수하면서 2010년 이후 가정용 자가용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ICT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융합을 통해 중국인들 삶의 질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다. 차량용 3G모듈은 스마트 자가용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설비 중 하나로 자동차와 와이브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일환이 되었다.⁴⁰⁾ EnfoDesk 이관싱크탱크(易观智库)의 분석에 의하면 2015년이 되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2,500만대에 이르고, 자동차 네트워킹응용과 관련서비스가 전 세계 10%의 비중을 차지하여 시장규모가 1,5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05년부터 중국 자동차 네트워킹 이용자 수가 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⁴¹⁾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향후 중국내 교통관련 산업과 통신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향후 베이징시는 자동차 소비제한 정책으로 인해 기타도시에 비해 신차 구매증가율은 감소하는 반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구매에 제약이 받지 않는 자동차나 중고차의 거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소비자를 위주로 자동차 네트워킹 이용이 증가하고 자가용 보유에 따른 연료비와 부품 및 수리비와 같은 유지·관리비에 대한 지출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통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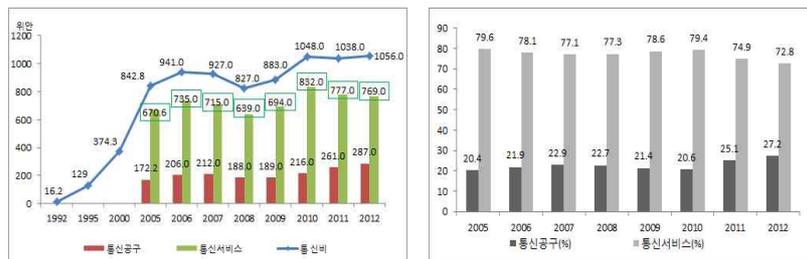
39) 刘岩, 〈北京车市下滑近60% 40万辆目标或成泡影〉, 《每日经济新闻》(2011.11.18).

40) 段文杰, 〈车联网将带来新的生活方式〉, 《Market Analysis 市场分析》(2014.02).

41) 姜宝君, 〈汽车互联大势所趋车联网将赶超移动互联网〉, 《北京晚报》(2014.03.18.).

베이징시는 “베이징시 ‘12·5’ 시기 전자정보산업발전규획”(《北京市“十二五”时期电子信息产业发展规划》)에서 2015년까지 전자정보제조업이 생산액 4,000억 위안을 실현시켜 연평균 성장률을 약 12%로 끌어올린다는 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 또 산업구조를 더욱 최적화하여 전자정보산업 구조에 있어서 이동통신의 단일화에서 다극화로 전환해오면서 중요 항목인 디지털TV, 집적회로, 이동통신의 3대 결합을 완성하여 결합률 70%이상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⁴²⁾ 베이징시 전자정보산업의 발전은 베이징 주민들로 하여금 각종 통신장비 및 그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소비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그림 5〉 베이징시 가구 1인당 통신비 항목별 지출금액과 지출비중 추이



출처: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監》(北京: 中國統計出版社, 1993, 1995, 2000); 國家統計局, 《北京統計年監》(北京: 中國統計出版社, 各年度).

〈그림 5〉에 의하면 베이징시 가구 1인당 통신비 지출금액이 1992년에서 2012년 사이 16.2위안에서 1,056.0위안으로 약 65.2배 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 교통비의 지출금액이 56.8배 증가한 것 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가정용 컴퓨터, 핸드폰, 테블릿 pc등과 같은 통신공구 구입으로 인해 지출되는 통신서비스비의 지출비중 증가가 돋보인다. 〈그림 2〉에 의하면 베이징시 100가구당 가정용컴퓨터, 이동전화의 보유는 2005년에 각각 14대, 190대로 핸드폰은 이미 포화점을 넘었으며

42)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 《앞의 글》(2011.10), 9~10쪽.

가정용컴퓨터는 2010년에 104대로 포화점을 넘어섰다. 베이징시 주민의 통신비 지출의 급증은 중국내 인터넷망의 빠른 확산으로 인한 네티즌 수의 급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6> 중국 네티즌과 인터넷 보급률 추이



출처:CNNIC, 《第33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2014.01), 15쪽.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200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6>에서 2005년 중국의 네티즌 수는 1억 1,100만 명으로 인터넷 보급률은 8.5%에 불과했으나 2013년 현재 네티즌 수는 6억 1,758만 명, 인터넷 보급률은 45.8%에 육박해 불과 8년 만에 네티즌의 수는 5억 658만 명, 인터넷 보급률은 37.3%포인트 증가하였다. 중국 인터넷 이용자 중 전자상거래도 1999년 6월에 3.2%로부터 2007년 12월에 57.1%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다.⁴³⁾

베이징의 인터넷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는데 2011년 현재 베이징의 네티즌 수는 1,218만 명, 인터넷 보급률은 69.4%로 2005년에 비해 각각 1.8배와 1.4배 증가하였다. 2011년 전국 평균 인터넷 보급률이 38.3%에 비해 31.1%포인트나 높은 보급률을 보인다.⁴⁴⁾

43) 이중희, <중국 네티즌의 추세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12:2(2008), 281쪽.

44) 2011년 현재 베이징시 누계 3G기지국이 1만 8,000개, 무선인터넷 접속이 약 5,400개; 20메가 광대역 접속이 가능한 이용고객이 176만 명, 3G이용고객이 254만 명, 고화질 디지털 텔레비전을 교대로 사용하는 고객이 130만 명에 이른다(黃 海, <北京網民規模目前約1218萬人 互聯網普及率69.4%> ,

이렇게 베이징시의 인터넷 보급률과 네티즌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전자상거래 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 1월 10일까지 베이징시 전자상거래 총 교역액이 약 3,000억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25%가 증가하였다.⁴⁵⁾ <표 2>의 “2012년 중국전자상거래 시장 데이터 조사보고”(《2012年度中国电子商务市场数据监测报告》)에 의하면 각 도시에 대해 종합적인 전자상거래 교역량, 온라인시장 매력도, 기초설비건설, 소매업발전, 창조력, 산업활동과 독점 등 6가지 지수를 발표하였다. 그 중 베이징의 총점이 114.6점으로 전국 1위로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다.

<표 2> 2012년 중국 전자상거래 상위 10개 도시

순위	도시	관할 성·시	교역량 지수	매력 지수	기초설비 건설지수	소매업 발전지수	창조력 지수	산업활동, 독점지수	총점
1	베이징	베이징	19.3	18.7	19.2	19.4	18.2	19.8	114.6
2	상하이	상하이	19.4	18.8	19.4	19.3	18.4	19.2	114.5
3	항저우	저장	18.6	19.4	19.2	18.9	19.7	18.3	114.1
4	광둥	광둥	19.5	19.0	19.1	19.1	18.2	19.0	113.9
5	선전	광둥	18.2	17.6	19.5	19.1	18.1	18.5	111.0
6	난징	장쑤	16.4	17.8	16.7	18.6	15.9	16.7	102.1
7	충칭	충칭	16.7	16.2	16.4	17.5	17.2	16.2	100.2
8	청두	쓰촨	15.9	16.6	16.8	17.9	15.3	15.7	98.2
9	샤먼	푸젠	14.4	15.3	14.6	16.8	14.5	15.3	90.9
10	닝보	저장	14.8	15.9	14.4	15.6	14.9	14.7	90.3

출처:中国电子商务研究中心, 《2012年度中国电子商务市场数据监测报告》(2013.03.20.), 19쪽.

《新聞中心》(2011.02.06)).

45) 黃海, <위의 글>, 《新聞中心》(2011.02.06).

최근 중국은 인터넷 보급율의 증가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0년 중국 인터넷시장에 미니블로그와 공동구매 열풍, 미디어사이트의 성장, 아이폰 돌풍, 아이패드 등장으로 모바일쇼핑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2012년 중국 휴대전화 이용 네티즌의 인터넷행위 연구보고”(《2012年中国手机网民上网行为研究报告》)에 따르면 2012년 6월까지 휴대전화 이용 네티즌 수가 3억 8,800만 명으로, 이는 전체 네티즌의 72.2%의 비중으로 컴퓨터 이용 네티즌 수를 추월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이용 네티즌 중 50.6%가 향후 스마트폰 구매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 중 48%가 스마트폰을 재구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⁶⁾ 향후 다른 지역보다 소득·소비수준이 높고 인터넷 보급률이 전국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베이징에서 인터넷,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비활동을 하는 신소비자의 급증이 기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V. 결 론

중국의 경제성장은 도시주민의 소득·소비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비구조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중국의 소비는 과거 의·식·주와 관련된 생계형 소비위주에서 향유형 소비위주로 빠르게 전환되어가고 있다. 특히 2009년 이후 중국정부의 주도 하에 실시된 각종 소비장려 정책들은 소득·소비수준이 높은 지역의 소비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소득·소비수준이 가장 높은 베이징시는 교통비와 통신비의 지출에 있어서의 소비구조에 대해 시기별로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46)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2012年中国手机网民上网行为研究报告〉(2012. 11. 16); http://www.cnnic.net.cn/hlwfzyj/hlwzxbg/ydhlwbg/201211/t20121116_37222.htm

이에 본고에서는 베이징시의 소비구조 중 20여 년 동안 그 지출비중이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교통·통신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교통비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베이징시 가구 1인당 자가용 구매증가로 그에 따른 자가용 연료·부품비의 지출이 급증하여왔다. 베이징은 2006년 이미 자동차 소비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성장 속도는 전국 평균수준 보다 낮으며 201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베이징 자동차 소비제한 정책으로 자동차등록 대수를 제한하고 교통혼잡세를 징수하면서 자동차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자가용 보유에 따른 연료비와 부품 및 수리비와 같은 유비·관리비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 자동차와 와이브로의 융합된 스마트자동차에 대한 투자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향후 교통관련 산업과 통신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다음은 통신비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베이징시 100가구당 이동전화와 가정용 컴퓨터보유량이 각각 2005년과 2010년에 포화점을 넘어섰다. 이는 중국내 인터넷망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네티즌수의 급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베이징시의 인터넷 보급률과 네티즌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전자상거래 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 베이징시의 인터넷 보급률은 69.4%로 전국 평균 인터넷 보급률 38.3%에 비해 월등히 높은 보급률을 보인다. 또한 2012년 베이징시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네티즌이 전체 네티즌의 72.2%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소비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향후 인터넷, 특히 스마트폰 위주로 소비활동을 하는 신소비자의 급증이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베이징시 소비구조의 평균값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소비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베이징시의 각 소득계층별 소비구조를 연구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특정 도시인 베이징시의 소비구조변화 및 특정항목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두고자

한다. 앞으로 베이징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의 권역별, 성별, 또는 계층별 연구를 통하여 더욱 정확한 소비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난도·전미영·김서영, 《트렌드 차이나》, 오우아, 2013.
- 김달현, 〈요녕성의 소비행태의 분석〉, 《아태연구》, 1998.
- 김부용, 〈베이징시 자동차 등록 제한정책: 과급영향 및 평가〉,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12.20.
- 박종의, 《e-비즈니스 시대 소비자 행동론》, 글로벌, 2003.
-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머징마켓 소비트렌드 시장은 살아있다》, 올림, 2012.
- 서석홍, 〈중국 도시지역 중산층의 성장과 소비구조의 전환〉, 《현대중국연구》 71, 2006.
- 서정희, 《소비트렌드 예측의 이론과 방법》, 내하출판사, 2005.
- 이중희, 〈중국 도시 고소득층의 소비 실태와 소비 구조의 변화〉, 《아시아연구》 10:2, 2007.
- , 〈중국 도시의 소비 혁명 : 소비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43, 2008.
- , 〈중국 네티즌의 추세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12:2, 2008.
- , 〈중국의 소비 양극화와 정책 대응〉, 《국제지역연구》 13: 2, 2009.
- 이철용, 〈수출에서 내수로, 이제 소비로〉, 《LG Business Insight》, 2012.02.29.
- 중앙일보, 〈中 가전 소비장려정책 ‘종료’〉, 2011.12.22.
- 중국 LG경제연구소, 《LG瞭望中国》 48, 2013.10.
- 최명해, 〈중국 ‘12·5규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314, 2010.
- 하인호, 《미래학이란 무엇인가》, 고도, 1995.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자동차 소비실태와 브랜드별 판매의 지리적 분포〉,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7:19, 2007.11.09.
- KBNEWS, 〈中, 2015년 세계 최대 소비시장 부상〉, 2012.05.20.
- CNNIC, 《第33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2014.01.
-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3093925.htm>, 검색일: 2014.03.13
- 北京师范大学管理学院·北京师范大学政府管理研究院, 《2013 中国民生发展报告-新城市化进程中的民生隐忧》, 北京师范大学出版集团, 2013.
-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 《北京市“十二五”时期电子信息产业发展规划》, 2011.10.
- 姜宝君, 〈汽车互联大势所趋 车联网将赶超移动互联网〉, 《北京晚报》, 2014.03.18.
- 第一财经日报, 〈‘12·5’ 전자상거래 거래액 18조 위안 돌파 목표〉, 2012.06.08.
- 段文杰, 〈车联网将带来新的生活方式〉, 《Market Analysis 市场分析》, 2014.02.
- 黄 海, 〈北京网民规模目前约1218万人 互联网普及率69.4%〉, 《新闻中心》, 11.02.06.
- 潘敬民, 〈中国消费结构分析〉, 《合作经济与科挤》 376, 2009.
- 李恩静, 〈从居民消费结构变化看扩大内需的动力取向〉, 《商业时代》 01, 2008.
- 刘 岩, 〈北京车市下滑近60% 40万辆目标或成泡影〉, 《每日经济新闻》, 2011.11.18.
- 范剑平, 〈中国城乡居民消费结构的变化趋势〉, 北京:人民出版社, 2001.
- 范 燕, 〈我国居民消费结构和消费趋势的变化〉, 《山西财经大学学报》 33 :1, 2011.
- 方心清·王毅杰, 《现代生活方式前沿报告》, 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6.
- 國家統計局, 《中国统计年鉴》, 北京:中國統計出版社, 1993~2012.
- 國家統計局, 《北京统计年鉴》, 北京:中國統計出版社, 1993~2012.
- 田学斌, 《家庭消费结构演变的制度分析》,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7.

- 王晔君,〈北京促消费政策杠杆效应最高达35倍〉,《北京商报》, 2013.09.03.
- 王敏·郑艳丽,〈北京消费特点与潜力的分析判断〉,《研究世界》1, 2013.
- 李佳佳,〈报告称中国人买走全球近半奢侈品 为最大客户〉,《中国新闻网》, 2013.11.14.
- 人民网,〈中国居民人均储蓄过万 储蓄率52%世界绝无仅有〉, 2012. 11.21.
- 云中,〈农村汽车消费进入“后政策”时代〉,《国际商报》, 2011.05.16.
- 张计成,〈中国城市居民消费力分析〉,《商业经济》26, 2011.
- 赵萍,〈扩消费政策推动消费高速增长〉,《国际商报》, 2012.08.13.
- 郑艳丽,〈北京经济增长迈向消费驱动时代〉,《数据, Special Report》, 2013.
-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2012年中国手机网民上网行为研究报告》, 2012. 11.01).
- http://www.cnnic.net.cn/hlwfzyj/hlwxyzbg/ydhlwbg/201211/t20121116_37222.htm.
- 中国电子商务研究中心,《2012年度中国电子商务市场数据监测报告》, 2013.03.20.
- 中国统计局网站 <http://www.stats.gov.cn/>
- 北京统计信息网 <http://www.bjes.gov.cn/>
- 中国社会科学网 <http://www.cssn.cn/>

<中文提要>

中国北京市交通和通信费的消费结构变化

中国北京居民的收入和消费水准越来越高。从2009年为扩大内需实施了一系列扩大消费政策。如家电下乡,汽车下乡,家电以旧换新,汽车以旧换新以及家电和汽车节能惠民等政策。这些政策直接影响了北京居民的交通和通信消费。北京市已经进入了汽车消费市场的成熟期。自从2010年12月实施

的北京汽车消费的抑制政策导致北京地区的汽车消费减少趋势。但最近对汽车和移动互联网融合的智能汽车的需求呈现出越来越高的趋势。这一趋势将会促进交通和通信相关产业一同发展。而且互联网极快速地扩散,网民也同样剧增,电子商务的规模也随着极快速地增加。因此将以互联网和智能手机为中心消费活动的网络消费者的规模也会剧增。

关键词 : 北京 消费结构 交通费 通信费 消费政策

투 고 일 : 2014.2.26

심 사 일 : 2014.3.3~3.31

계재확정일 : 2014.4.20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내부역량과 전략 적합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함정식* · 조강필** · 고명걸*** · 조혜진****

<목 차>

- | | |
|---------------|----------|
| I. 서론 | IV. 실증연구 |
| II. 이론적 배경 | V. 실증분석 |
| III. 연구가설의 설정 | VI. 결론 |

I. 서 론

1988년 민간차원의 교류로 시작된 대중국 직접투자는 1992년 한·중 국교재개를 계기로 급속히 성장해 왔다. 현재 중국은 2012년 9월 말 현재 투자액 기준으로 한국은 제2의 해외투자대상국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건수는 2만 2,373건, 총투자 누적액은 382.8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각각 41.9%, 1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2). 한국의 대중 투자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08년과 2009년에는 갑작스럽게 하락하였는데, 여기에는 중국 내 투자환경 악화, 위안화 환율절상 등의 요인도 맞물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

*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박사수료(제1저자)
**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박사과정(제2저자)
****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박사과정(제3저자)

된다. 한편, 2010년 들어 투자 건수와 액수 면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2년 9월 현재까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중 투자가 전체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건수 면에서 2003년에 56.7%, 액수 면에서 2005년에 59.7%를 차지하며 정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2012년 9월 기준으로 건수 비중이 28.0%, 액수 비중이 12.9%까지 하락하였다.¹⁾

한국의 대 중국투자가 하락하게 된 원인은 중국내 투자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내 투자환경의 변화로는 첫째,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이 FDI 유치를 위한 외국자본 우대에서 외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둘째, 중국내 진출기업의 임금채불, 부당해고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중국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정부는 노동자의 권익강화와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셋째 가파른 임금상승 등을 들 수 있다.²⁾ 이와 같이 대 중국투자 환경의 변화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공은 투자 기업과 국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과제이다. 최초투자의 성공적인 경영성과도 중요하지만, 후속투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이끌어 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경영성과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경영성과 창출에 외부환경의 영향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내부역량도 외부환경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경영성과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기업내부 및 외부 요인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기업가 정신 혹은 창업자 특성,³⁾ 자원적 요

1) 임민경·여지나,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유턴 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2) 여지나,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3) Wiklund, J., & Shepherd, 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Small Business Performance: A Configurational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1(2005), 71~91쪽 ; Sandberg, W. R., & Hofer, C. W.,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Some Guidelines for Succes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2:1(1987),

소⁴⁾ 및 전략적 요소⁵⁾, 그리고 환경특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영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전략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내부자원, 기술 그리고 외부환경의 기회 및 위협 요인과 적합성(match, fit)으로 정의된다.⁶⁾ 경영전략의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의 내부역량을 기초로 경쟁우위의 결정요인을 찾는다는 자원준거이론(resource based view)이 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내부역량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자원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려는 시각이다.⁷⁾ 이러한 이론들은 전략경영의

11~25쪽 ; Covin. J. G., D. P. Slevin. & T. J. Covin, <Content and performance of growthseeking strategies: A comparison of small firms in high-and low-technology industr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6(1990), 391~412쪽.

4) Edelman, L. F., Brush, C. G., & Manolova, T., <Co-Alignment in the Resource-Performance Relationship: Strategy as Mediato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3(2005), 359~383쪽 ; Chrisman. J. J., A. Bauerschmidt, & C. W. Hofer,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An Extended Model>,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3:1(1998), 5~29쪽.

5) Edelman, L. F., Brush, C. G., & Manolova, T., <Co-Alignment in the Resource-Performance Relationship: Strategy as Mediato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3(2005), 359~383쪽 ; Sandberg, W. R., & Hofer, C. W.,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Some Guidelines for Succes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2:1(1987), 11~25쪽 ; Duchesneau, D. A., & Gartner, W. B., <A Profile of New Venture Success and Failure in an Emerging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5(1990), 297~312쪽 ; Chandler, G. N., & Hanks, S. H.,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1994), 331~349쪽.

6) Thompson, J. D. & A. J. Strickland, 《Strategic Management: Concept & Cases》, (7th, Irwin., 1993).

7) Wernerfelt, B., <A 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5(1984), 171~180쪽 ; Grant, R. M., <The Resource Based Theory of Competitive Advantage: Implications for Strateg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2(1991), 114~135쪽 ; Barney, J. B., <Firm Resource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1991), 99~120쪽 ; Amit, R. H. and P. J. H. Schoemaker, <Strategic Assets and Organization Rent> ,

핵심주제를 내부 역량 간의 조화를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귀결시키고 있다.⁸⁾ 즉, 기업이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역량에 적합한 최적의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적합성과 관련된 개념은 전략경영 뿐만 아니라 조직이론, 상황이론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⁹⁾

그러나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 동기와 후속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 국한되어 왔으며,¹⁰⁾ 해외진출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연구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관한 연구는 중국진출 동기,¹¹⁾ 중국의 투자환경¹²⁾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가 중국진출 동기나 투자환경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으로 외부환경 중심으로 연구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3(1993), 33~46쪽.

8) Andrews, K. R., 〈The Concept of Corporate Strategy〉, 《Homewood》, (Il: Irwin., 1971) ; Chandler, A., 《Strategy and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1962) ; Hofer, C. & D. E. Schendel, 《Strategy Formulation: Analysis Concepts》, (West Publishing Co, St. Paul, MN., 1978)

9) Drazin, R. & A. H. Van de Ven, 〈Alternative Forms of Fit in Contingency Theor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0:40(1985), 514~539쪽 ; Nath, D. & D. Sudharshan, 〈Measuring Strategy Cogherence through Patterns of Strategic Choic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1994), 43~62쪽 ; Van de Ven, A. & R. Drazin, 〈The Concept of Fit in Contingency Theory〉,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7(1985), 333~365쪽.

10) 강태구, 《국제경영》(박영사, 2007)

11) 지용희, 〈해외직접투자의 경쟁우위, 예외요인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중국청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서강경영논총》, 5(1994), 357~371쪽 ; 송재훈, 〈투자결정요인과 환경요인이 한국중소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4:2(2002), 211~235쪽.

12) 안중석, 〈우리나라 대중국 직접투자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 시장 및 소유권전략을 중심으로〉 《국제경영연구》, 7:1(1996), 1~24쪽 ; 강태구·김태석, 〈한국제조기업의 대중국 투자지분에 따른 성과결정 요인의 실증분석〉, 《국제경영연구》, 16:1(2005), 83~106쪽 ; 장혜지·박기안·김찬경, 〈해외직접투자의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국제경영연구》, 16:3(2005), 27~64쪽.

가 이루어 졌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을 경영 전략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 및 내부 역량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자원준거이론 관점에서 내부 역량과 경쟁전략 간의 관계, 그리고 이들 요인 간 적합성이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가 단순히 투자동기나 중국의 투자환경에만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지 진출 기업의 역량을 감안한 경영전략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규명하여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 시사점을 제공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적합성

적합성이라는 개념은 전략 이론 및 조직 이론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론적 관점에서부터 도출되었다.¹³⁾ 이와 관련하여 Venkatarman과 Camillus(1984)는 Schendel과 Hofer(1979)의 주장을 인용하여 ‘초기 전략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사업 정책 수립영역은 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과 조화를 이루거나 정렬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략적 상황이론의 기본 논리는 기업 전략을 그 기업이 처해있는 상황에 적합 시켜야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경영전략의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는 기업의 외부환경에 대한 전략의 적합성을 중시하는 전략적 상황이론(strategic contingency theory)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내부 경영자원 및 내부역량을 기초로 경쟁우위의

13) 김형철, <벤처기업 내부역량과 경쟁전략 간의 적합성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4:2(2011), 769~787쪽.

14) Porter, M. E., 《Competitive Strategy: Techniques for Analyzing Industries and Competitors》, (Free Press, New York., 1980)

결정요인을 찾는다는 자원준거이론(resource based view)이다. 즉, 전자는 기업의 외부환경을 파악하여 전략을 선택하고 이것이 기업의 경영 성과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¹⁵⁾ 후자는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 및 내부역량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자원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려는 시각이다.¹⁶⁾

전략선택에 있어서 외부환경도 중요하지만, 기업 내부역량도 외부환경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Wernerfelt(1984)에 의해 제시된 자원준거관점은 전략경영 학자들의 관심을 산업의 구조와 같은 기업 외부의 환경요인에 더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확장 시켜주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그는 기업을 생산적인 경영자원의 집합체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은 산업조직론적 접근이 가지고

15) Kim, Linsu. & Lim, Yooncheol, <Environment Generic Strategies and Performance in a Rapidly Developing Count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4(1988), 802~827쪽 ; 이장우, <환경변화, 전략유형 및 기업성과: 비교-정태적 분석> 《경영학연구》, 18:2(1989), 245~273쪽 ; 김영배, <전략군 유형에 따른 환경, 조직구조 및 기술혁신 형태:통합적 상황모형>,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논문, 1989) ; 이장우·대니·밀러·우성진·손중환, <전략-환경 적합과 기업성과: 신기술 및 전통적 기술 배경 아래에서의 상관관계>, 《경영학연구》, 23:3(1993), 149~172쪽 ; 박종복, <전략-환경 적합성이 기술중개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4:1(2011), 275~302쪽.

16) Barney, J. B., <Strategic Factor Markets: Expectations, Luck, and Business Strategy> 《Management Science》, 32:10(1986), 1231~1241쪽 ; Conner, K. R., <A Historical Comparison of Resource-based theory and Five School of Thought with Industrial Organization Economics: Do we have a new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Management》, 17:1(1991), 121~154쪽 ; Miller, D., <External Fit Versus Internal Fit>, 《Organization Science》, 3:2(1992), 159~178쪽 ; Mahoney, J. T. & J. Pandian, <Resource-Base View within the Convergence of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3:5(1992), 363~380쪽 ; 추승엽·유정민·임성준, <경영환경, 경쟁전략 및 기업 내부역량 간의 적합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12:1(2009), 101~126쪽 ; 김형철, <벤처기업 내부역량과 경쟁전략 간의 적합성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4:2(2011), 769~787쪽.

있는 한계점들을 보완하였다.¹⁷⁾ 전통적 전략이론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내부역량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 이후 다시 등장하여 주목받게 된 이유는, 1970년대 이후 전략분야의 연구들이 산업조직론적 전략이론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에 대한 반성에 따른 것이다. 산업조직론적 전략이론은 기업 외부 환경에 의해 기업 내부 전략이 결정된다는(outside-in) 논리로, 기업의 내부(inside)에 대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자원준거관점은 기업의 내부로부터, 특히 기업이 보유한 자원에 의해 전략이 결정된다는 논리이다. 이에 의하면 기업이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자원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이러한 보유 자원에 근거해서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80년대 이전에도 Barnard(1938), Selznick(1957), Sloan(1963), Chandler(1977), Rumelt(1974) 등에 의해 기업의 성과가 기업이 보유한 역량(competences)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었다. 초기의 대표적인 학자인 Selznick(1957)과 Andrews(1971)는 기업 간의 서로 다른 역량이 경영성과의 차이에 영향을 준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Selznick(1957)은 기업의 독특한 역량이란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Andrews(1971)는 경영전략을 기업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통해 기업의 외부 환경에서 오는 기회와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Penrose(1959)는 “기업은 자원의 집합이고 자원은 잠재적인 서비스의 묶음”이라는 명제로 보유자원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Teece 등(1992)의 설명에 의하면, 산업조직론적 관점은 산업에 진입할 것을 결정할 때 먼저 산업구조분석에 따라 산업을 결정하고, 다음으로 경쟁자의 전략을 분석하여 진입전략을 채택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17) Conner, K. R., <A Historical Comparison of Resource-based theory and Five School of Thought with Industrial Organization Economics: Do we have a new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Management》 17:1(1991), 121~154쪽 ; Mahoney, J. T. & J. Pandian, <Resource-Base View within the Convergence of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3:5(1992), 363~380쪽.

전략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여 획득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에 반해 자원준거관점은 기업이 자원, 능력, 부존도에 있어 이질적이므로, 기업은 각자 자신이 처한 자원 부존도에 의해 필요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준거관점은 기존 전략에 대한 대안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이론이다.¹⁸⁾ 자원준거관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조직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유용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며,¹⁹⁾ 기업의 전략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보완적인 관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쟁우위와 성과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ller(1992)의 적합성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표본기업의 기업 내부역량과 경쟁전략 간의 적합성 정도를 측정하여, 이들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방식을 따라, 표본을 적합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적합성의 요약측정치를 활용하였다.²⁰⁾ 가설검증 이용될 적합성 측정치는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X는 내부역량($i = 1, 2, \dots$ 는 각각 역량), Y는 경쟁전략($j = 1, 2$ 는 차별화 전략과 원가우위 전략)을 의미하여, 이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는 표준화 작업을 거쳤다. <표 1>의 수식은 변수 간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두 변수의 차가 낮은 수치를 보일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 생성되었다. 즉, 역량과 전략 간의 점수 차가 적을수록 적합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역량이 최대일 때 차별화 전략 정도가 높을수록 적합성이 높다고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식에 마이너스(-) 부호를 추가함으로써, 수치가 클수록 적합성이 높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18) Barney, J. B., <Strategic Factor Markets: Expectations, Luck, and Business Strategy> 《Management Science》, 32:10(1986), 1231~1241.

19) Ghemawat, P., 《Commitment: The Dynamic of Strategy》, (New York: The Free Press, 1991)

20) Drazin, R. & A. H. Van de Ven, <Alternative Forms of Fit in Contingency Theor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0:40(1985), 514~539쪽.

<표 1> 적합성 측정치 도출방식

적합성 유형	도출방식
역량-전략의 적합성	$FTT_{(ES)} = - \sum [(X) - (Y_i)]^2$

2. 내부역량

조직의 역량(competence) 또는 자원(resource)의 개념이 전략연구에서 주도적으로 부각된 것은 80년대 이후 자원기반관점의 전략 연구가 일반화된 이후이다. 특히 기업이 속한 산업 환경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론과 대비되면서 관심사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기업 내부로 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역량 또는 자원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조직의 역량(competence)이라는 용어는 조직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Selznick(1957)이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이는 한 조직이 다른 경쟁 조직에 비해서 특별하게 잘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²¹⁾ Wemerfelt(1984)는 기업의 자원을 ‘기업의 강점 또는 약점으로 정의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resource)의 개념은 다양한 연구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자원과 역량의 차이를 나타내는 연구 또한 소수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원은 기업의 재무적·물적·인적·조직적 자산을 의미하며,²²⁾ 역량은 그러한 자원을 연계시키고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특성이라고 정의된다.²³⁾ 또한 Grant(1991)에 따르면 자원은 기업이 가진 역량의 원

21) Hitt, M. A. & Ireland, R. D., <Corporate Distinctive Competence and Performance: Effects of Perceived Environmental Uncertainty, Size and Technology> 《Decision Science》 15:3(1984), 324~326쪽 ; Meyer, A. D., <What is Strategy's Distinctive Competence?> 《Journal of Management》, 17:4(1991), 821~833쪽.

22) Hill, C. W., & Jones, T. M., <Stakeholder-Agency Theory>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9:2(1992), 131~154쪽.

천이며, 역량은 직접적으로 경쟁우위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구분된다. 또한 Diericks와 Cool (1989)은 조직의 역량을 기업이 경쟁사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자원을 조달, 개발, 배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적이고 비정형적인 메커니즘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기업 자원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Barney(1991)에 의하면 기업의 자원 및 역량은 가치, 모방의 어려움, 낮은 대체가능성, 희소성 등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자원은 기업이 가진 유형·무형의 자산 및 기업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역량은 이러한 자원 중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높은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것, 혹은 그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나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원기반관점에 따라 분류한 핵심역량유형은 <표 2>와 같이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2> 연구자별 전략유형

연구자	역량유형
Hoffer & Schendel(1978) Grant(1991), Mahonev(1995)	재무자원, 물적자원, 인적자원, 기술자원, 무형자원, 조직자원
Snow & Herbiniak(1980)	일반관리, 재무관리, 시장조사, 마케팅 및 판매관리,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생산관리, 유통관리, 인사관리, 법률적 업무
Porter(1985)	본원적활동: 물류투입, 생산, 유통, 마케팅과 판매, 서비스활동 지원활동: 기업하부구조, 인적자원관리, 기술개발, 획득활동

23) Stalk, G., P. Evans & L. Shulman, <Competing on Capabilities: The New Rules of Corporate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1992), 57~69쪽.

Hitt & Ireland(1986)	일반관리, 생산 및 운영,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재무관리, 마케팅, 인사관리, 정부관계
Barney(1991)	물적자원, 인적자원, 조직자본 자원
이석규(1997)	핵심활동: 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지원활동: 자재관리, 경리/회계관리, 연구개발관리, 정보관리
장세진(2000)	기능별 능력, 조직상의 능력
이장우(2001)	재무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술자산, 조직자산

자료: 위상배, 여행업의 환경, 역량, 전략 및 적합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5, 2005.

이상과 같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분류된 기업의 내부역량 중 Hofer와 Schendel(1978), Grant(1991) 그리고 Mahoney(1995)는 자원기반관점으로 기업의 역량을 재무적 자원, 물질적 자원, 인적 자원, 기술적 자원, 명성, 조직적 자원 등 6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들의 분류는 조직 내 역량의 원천인 경영자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내부역량과 성과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은 기업역량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역량의 유형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Hitt와 Ireland(1984)는 기업역량과 성과간의 연구에서 재무관리역량, 일반관리역량, 생산 및 운영관리역량이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업역량이라도 그 기업의 전략과 상황조건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며 조직이 이용가능한 모든 내부자원이나 역량 중에서도 특히 경영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Conant 등(1990)은 조직의 가능한 역량 중에서도 특히 경영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Grant(1991)는 자원은 기업의 핵심역량이 되어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며 이는 조직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Hamel과 Prahalad(1993)은 경쟁자가 모방하기 힘든 자원과 능력을 보유할수록 기업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우위를 통해 타 기업보다 경영성과에 높게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3. 경쟁전략

전략의 개념이 경영학에 도입된 것은 1950년대 기술의 획기적 발전 및 기업경영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기업환경에 대해 상호의존성이 증가하여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내의 상이한 기능이나 사업 등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²⁴⁾ 즉, 급속하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적응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내부의 활동을 통합해야 할 메커니즘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관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전략이라는 것이 조직의 특성, 환경, 구조, 자원, 문화와 같은 특수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전략의 개념을 가장 먼저 경영학에 도입한 Chandler(1962)는 “기업이 장기적인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이를 위한 활동 방침과 자원 배분을 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Ansoff(1965)는 “기업 성장의 분석적 관점에서 제품과 시장의 범위, 성장벡터, 경쟁우위, 시너지 효과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규칙”을 전략으로서 정의하였다. 그는 의사결정의 종류를 전략적 결정, 관리적 결정, 업무적 결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전략적 결정이란 외부와의 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제품과 시장의 선택으로 제품 목표, 다각화 전략, 확대 전략, 재무전략, 성장 기회 등이 여기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earned 등(1969)은 “외부 환경의 기회, 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내부의 강점을 이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Andrews(1971)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

24) Schendel, D. E. & C. W. Hofer, 《Strategic Management: A New View of Business Policy and Planning》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9)

과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범위를 정의하는 일련의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패턴”으로 전략을 정의하였다. 이처럼 전략의 개념이 다양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 Hambrick(1983)은 전략이 본질적으로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개념이며, 상황적(contingent)인 요소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처럼 전략의 개념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은 전략에는 과정(process)과 내용(content)이 포함되며, 의도된(intended) 전략과 실현된(realized)전략이 다르고, 기업 차원의 전략과 사업 단위의 전략이 공존하며, 전략 연구에는 분석적 구성뿐만 아니라 개념적 구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전략의 유형에 대하여 Porter(1980)는 산업구조가 기업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행동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산업구조 분석을 기초로 하여 동일한 산업 내에서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택할 수 있는 전략유형을 차별화, 원가우위, 집중화의 3가지 본원적 경쟁전략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이 외부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특히 외부환경 중에서도 기업이 속한 산업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산업 내 구조가 산업 환경을 결정짓는 구성요소임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 환경 내에서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뚜렷한 본원적 전략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그는 ‘전략적 우위(strategic advantage)’와 ‘전략적 목표(strategic target)’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는 전략적 우위측면에서는 낮은 가격과 차별화된 특성을, 전략적 목적의 측면에서는 전체 시장에서 경쟁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된 시장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 시장에서 전략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는 먼저, 원가우위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기업 내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간접비를 통제하고 경험의 축적을 통한 원가절감을 모색함은 물론 연구

25) Chaffe, E.E., <Three Models of Strateg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985), 89~98쪽.

개발, 서비스, 판매원, 광고 등의 원가를 최소화하여 전반적인 원가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서 자사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높을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Hambrick, 1983)하고 있으며, 차별화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함으로써 산업전반에 걸쳐서 그 기업이 독특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창조하여 경쟁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차별화에 대한 대가로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요구하는 전략이다. 이 가격은 통상 원가우위 기업이 부가하는 가격보다 높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제품이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서도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²⁶⁾ 집중화는 특정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말한다.²⁷⁾ 그러나 이 전략은 내용측면에 있어서 원가우위전략이나 차별화전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독립된 전략유형으로 보기는 힘들다²⁸⁾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략유형을 Porter(1980)의 본원적 전략 중 원가우위전략과 차별화전략으로 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Porter의 연구모형에서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 그리고 조직적 특성에 관한 논의가 존재함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의 내적인 특성을 중요시 다루고 있으며, 둘째로 전략적 사업단위에서의 핵심적 의사결정이 사업영역 내에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해 나갈 것인지를 고려할 때 매우 적합한 전략 유형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본원적 전략 유형은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역량의 관점과 매우 일관성이 높으며 따라서 효과적인 전략 연구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26) 이장우, 《경영전략론》, (법문사, 1999)

27) Porter, M. E., 《Competitive Strategy: Techniques for Analyzing Industries and Competitors》, (Free Press, New York., 1980)

28) Govindarajan, V. & A. K. Gupta, 〈Linking Control Systems to Business Unit-Strategy: Impact on Performance〉, 《Organizations and Society》, 10(1985), 51~66쪽.

Ⅲ.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기업의 내부역량과 경쟁전략 간의 관계, 그리고 이들 요인 간 적합성이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경쟁전략수립에 기여 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내부역량과 경쟁전략

Barney(1991)는 기업의 역량은 자원이 지속적 경쟁우위(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의 원천이 되는 조건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업의 역량과 지속적 경쟁우위, 전략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역량과 전략의 관계에 대하여 Grant(1991)는 기업의 경쟁력은 자원, 능력에서 경쟁우위 또는 역량에서 전략으로의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그는 Porter(1980)의 본원적 전략과 유사하게 차별화 우위, 원가 우위 중 한 가지를 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Miles와 Snow(1978)는 한 조직이 다른 경쟁조직에 비해서 특별하게 잘 수행하는 기업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경우 기업 성공에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내부 역량의 개발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또한 전략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주요 역량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Snow와 Hrebiniak(1980)은 Miles와 Snow(1978)의 전략유형분류를 이용하여 기업의 역량을 측정하는 변수로 일반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및 판매, 시장조사, 제품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생산관리, 유통, 법적문제, 인적자원관리 등을 적용하여 전략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규명하였는데, 분석결과 서로 다른 전략 유형 간에는 역량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Hambrick(1983b)은 Miles와 Snow(1978)의 전략유형들이 갖는 기능별 속성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략유형과 역량의 관계를 밝혔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공격형은 방어형보다 매출액 대비 제품연구개발비

와 마케팅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며, 이러한 전략유형에서는 판매역량과 연구개발 역량이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효율성을 강조한 방어형의 경우에는 생산 역량과 관련된 노동생산성과 보상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인적역량과 지원역량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전략유형의 측면에서 봤을 때, Miles와 Snow(1978)의 방어형(defender) 전략은 Porter의 경쟁전략 유형인 원가우위(cost leadership)전략과 상응하고, 공격형(prospector)전략은 차별화(differentiation)전략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²⁹⁾ 따라서 Miles와 Snow(1978)의 전략유형에 따라 분류한 역량들을 각각 Porter의 전략유형과 역량강화 전략으로 인식하여 이해할 수 있다.

또한 Miller(1986)는 차별화 전략은 강력한 마케팅 능력과 창조성(creative), 잘 디자인 된 제품, 품질에 대한 평판, 좋은 기업 이미지, 서비스 능력 등의 역량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에 높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기술의 개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원가우위 전략은 제품과 서비스를 경쟁자보다 값싼 가격으로 생산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러한 전략은 보다 싼값에 생산하기 위해 효율적인 규모의 경제를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전략 유형을 가진 기업의 경우 생산관리 역량, 즉 물류 및 생산 역량을 뛰어나게 개발시켜 이 과정에서의 원가절감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전략유형에 따라 기업 내부 역량의 특성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내부역량은 경쟁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29) Miller, D. & P. H. Friesen, <Strategy Making and Environment: The third link>,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1983), 221~235쪽 ; Segev, E., <A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 Synthesis of Two Business Level Strategic Typolo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989), 487~505쪽.

미칠 것이다.

가설 1-1. 기업 내부역량 중 생산역량은 원가우위전략과 정(+)³⁰⁾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2. 기업 내부역량 중 물류역량은 원가우위전략과 정(+)³⁰⁾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3. 기업 내부역량 중 재무역량은 원가우위전략과 정(+)³⁰⁾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4. 기업 내부역량 중 기술역량은 원가우위전략과 정(+)³⁰⁾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5. 기업 내부역량 중 마케팅역량은 원가우위전략과 정(+)³⁰⁾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2. 적합성과 성과

전략과 기업 내부역량의 적합관계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³⁰⁾ 즉, 역량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면서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경영성과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Grant(1991)는 기업의 경영자원이 기업의 핵심역량이 되어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며, 기업 전략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Prahalad와 Hamel(1990)은 경쟁자가 모방하기 힘든 경영자원과 역량을

30) Snow, C. C. & L. G. Hrebiniak, <Strategy, Distinctive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5(1980), 317~336쪽 ; Churchill, G. A. & J. P. Peter, <Research Design Effects on the Reliability of Rating Scale: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1:4(1984), 360~375쪽 ; Conant, J. S., M. P. Mokwa & P. R. Varadarajan, Strategic Types, <Distinctive Marketing Competenc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Multiple Measure-based Stud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1(1990), 365~383쪽 ; Woodside, A. G., D. P. Sullivan & R. J. Trappey, <Assessing Relationships among Strategic Types, Distinctive Marketing Competenc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5:2(1999). 135~146쪽.

보유할수록 기업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 및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타 기업과 비교하여 볼 때 기업의 성과에 높게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쟁우위의 원천인 여러 가지 역량 유형 중에서도 가치사슬에 근거한 역량들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³¹⁾ 특히 Porter(1980)는 한 조직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특별하게 잘 수행하는 기업의 내부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결국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내부역량이 직접적으로 전략 및 성과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내부역량과 경쟁전략의 유형 간의 적합성이 높을 경우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내부역량과 경쟁전략의 적합성은 집단 간에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에 차이가 나타낼 것이다.

IV. 실증연구

1. 표본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내부역량과 경쟁전략의 적합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경영성과의 영향요인으로 구분된 내부역량과 경쟁전략 그리고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중국투자 한국기업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4년 1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3개

31) Barney, J. B., <Looking inside for Competitive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9:4(1995), 49~61쪽 ; Porter, M. E.,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Free Press, New York., 1985)

월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설문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과 응답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 뒤 직접 설문문항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방문 및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이 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한국에 소재한 기업은 주로 직접 방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중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전화를 통하여 사전에 설문요청을 한 뒤,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을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은 총 300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7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이 연구 목적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기존의 정의된 개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조작적 정의는 <표 3>과 같다.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 연구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관련문헌
기술역량	신제품 개발이나 공정개선을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문제해결 능력	Barney(1991), Grant(1991) 추승엽·유정민· 임성준(2009)
생산역량	생산에 필요한 원료관리 및 시설관리, 외주관리와 생산설비 확보, 원가절감 능력	
물류역량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저렴한 공급가격 확보 능력	
마케팅역량	시장 및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능력	
재무역량	경영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금이나 원자재의 확보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능력	Porter(1980), Miller(1998) 추승엽·유정민· 임성준(2009)
원가우위전략	원가통제를 위한 표준원가의 산정, 가격인하전략, 광고비용의 최소화전략 등	
차별화전략	경쟁기업에 대한 우의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별화 전략을 선택 신제품개발, 신제품도입, 등을 경쟁 기업보다 얼마나 더 강조하는가의 정도	

적합도측정	기업 내부역량과 경쟁전략 간의 적합성 정도를 측정, 표본을 적합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적합성의 요약측정치를 활용	Drazin & Van de Ven(1985) 추승엽·유정민·임성준(2009)
경영상과	경영활동의 결과 매출성장, 수익률, 중국시장 적응 정도, 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의 상대적 경쟁우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	Govindarajan & Fisher(1990), 박성관(2009)

V.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우선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지위는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가 143명(53.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과·부장이 72명(26.7%), 임원 41명(15.2%)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과·부장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은 10년 이상이 151명(56.0%)로 과반수 이상이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근무지역은 중국 현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116명(43.0%)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154명(57.0%)보다 약간 적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이 204개(75.6%)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 47개(17.4%), 대기업 19개(7.0%)로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는 100명 이하가 132개(48.9%) 업체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300명 이상도 67개(24.8%)의 분포를 보였다.

해외법인 수는 1개인 경우가 170개(63.0%)업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국진출 시기는 2000년에서 2004년 사이가 110개(40.7%)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진출이 10년 이상의 기업은 203개(7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진출 동기는 시장확보를 위해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이 116개(43.0%)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원가절감 목적이 89개(33.0%) 업체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확보와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진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출형태는 단독투자를 통해 진출한 기업이 245개(9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진출기업이 향후 투자지속에 대한 의도는 현재의 투자를 유지하거나 확대를 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196개(72.6%)로 축소 또는 철수를 하겠다는 74개(35.7%)의 기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 및 기업의 특성

구분	변수	항목	빈도	%
조사대상자 특성	직위	사원대리	14	5.2
		과·부장	72	26.7
		임원	41	15.2
		대표	143	53.0
	경력	5년 이하	31	11.5
		5~10년	88	32.6
10~15년		57	21.1	
15~20년		44	16.3	
20년 이상		50	18.5	
근무지역	한국	154	57.0	
	중국	116	43.0	
조사기업 의 특성	기업규모	대기업	19	7.0
		중견기업	47	17.4
		중소기업	204	75.6
	종업원수	50명 이하	86	31.9
		50~100명	46	17.0
		100~150명	30	11.1
		150~200명	18	6.7
		200~300명	23	8.5
300명 이상		67	24.8	
해외법인 수	1개	170	63.0	
	2개	42	15.6	

		3개	17	6.3
		4개	14	5.2
		5개	26	9.6
		5개 이상	1	.4
중국진출 시기		2000년 이전	93	34.4
		2000~2004년	110	40.7
		2004년 이후	67	24.8
중국진출 동기		원자재 확보	7	2.6
		원가절감	89	33.0
		시장확보	116	43.0
		기술경쟁강화	8	3.0
		생산지역다변화	7	2.6
		동반진출	40	14.8
진출형태		기타	3	1.1
		단독투자	245	90.7
		합작투자	19	7.0
		인수합병	2	.7
후속투자 의향		기타	4	1.5
		투자확대	63	23.3
		현재유지	133	49.3
		축소고려	45	16.7
		철회이전	29	10.7

2.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의 유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성(validity)이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신뢰성(reliability)이란 어떠한 측정방법이나 측정도구가 시간이나 형식, 설문항목, 평가자, 평가대상 집단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측정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흐알파(Cronbach's α)값을 활용하였다.

내부역량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결과는 <표 5>와 같이 마케팅,

기술, 재무, 생산, 물류역량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출된 항목들의 요인적재값은 최소 0.628, 고유값은 최소 1.088, 누적 분산비율은 70.953%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역량에 관한 설문문항 ‘역량5’는 다른 요인으로 적재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신뢰성 분석 결과 신뢰성의 지표인 Chronbach's α 값은 최소 .757로 나타났다.

<표 5> 내부역량의 요인 및 신뢰성 분석

구 분	마케팅	기술	재무	생산	물류	
마케팅역량	역량14	<u>.770</u>	.108	.331	.100	.137
	역량13	<u>.741</u>	.275	.064	.127	.079
	역량12	<u>.726</u>	.181	.175	.146	.292
	역량15	<u>.672</u>	.135	.177	.185	.137
기술역량	역량3	.181	<u>.886</u>	.053	.159	.112
	역량2	.159	<u>.846</u>	.176	.168	.126
	역량1	.268	<u>.820</u>	.093	.086	.201
재무역량	역량16	.136	.061	<u>.854</u>	.024	.193
	역량17	.239	.079	<u>.806</u>	.169	.083
	역량18	.289	.218	<u>.711</u>	.232	.178
생산역량	역량7	.102	.177	.253	<u>.716</u>	.226
	역량6	.247	.158	.281	<u>.714</u>	.111
	역량4	.145	.078	-.136	<u>.713</u>	.051
	역량8	.063	.086	.226	<u>.628</u>	.377
물류역량	역량9	.185	.089	.175	.274	<u>.778</u>
	역량10	.135	.130	.279	.083	<u>.765</u>
	역량11	.232	.238	-.009	.207	<u>.747</u>
고유값	6.716	1.686	1.474	1.098	1.088	
설명분산	39.507	9.917	8.669	6.459	6.401	
누적분산	39.507	49.424	58.094	64.552	70.953	
Cronbach's α	.815	.890	.836	.757	.795	

경쟁전략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결과는 <표 6>과 같이 차별화 전략과 원가우위전략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출된 항목들의 요인적재값은 최소 0.635, 고유값은 최소 1.342, 누적분산

비율은 58.785%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성 분석결과 신뢰성의 지표인 Chronbach's α 값은 최소 .682로 나타났다.

<표 6> 경쟁전략의 요인 및 신뢰성 분석

구 분		차별화	원가우위
차별화전략	전략6	.778	-.167
	전략5	.739	.244
	전략4	.691	.356
	전략8	.661	.158
	전략7	.635	.424
원가우위전략	전략2	.120	.829
	전략3	.175	.810
	전략1	.127	.641
고유값		3.361	1.342
설명분산(%)		42.009	16.776
누적분산(%)		42.009	58.785
Cronbach's α		.781	.682

경영성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결과는 <표 7>과 같이 경영성과의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출된 항목들의 요인적재값은 최소 0.606, 고유값은 2.728, 누적분산비율은 54.566%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성 분석결과 신뢰성의 지표인 Chronbach's α 값은 .787로 나타났다.

<표 7> 경영성과의 타당도와 신뢰도

구분		경영성과
경영 성과	성과5	.828
	성과4	.818
	성과3	.724
	성과1	.695
	성과2	.606
고유값		2.728
분산비율(%)		54.566
Cronbach's α		.787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할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을 <표 8>에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원가우위전략은 기술역량($r=.188$), 생산역량($r=.260$), 물류역량($r=.213$), 마케팅역량($r=.288$), 재무역량($r=.177$)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성과($r=.084$)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또한 차별화전략은 원가우위전략은 기술역량($r=.506$), 생산역량($r=.328$), 물류역량($r=.352$), 마케팅역량($r=.465$), 재무역량($r=.26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8> 상관관계분석

구분	1)	2)	3)	4)	5)	6)	7)	8)
1)원가우위	1.000							
2)차별화	.423**	1.000						
3)기술역량	.188**	.506**	1.000					
4)생산역량	.260**	.328**	.398**	1.000				
5)물류역량	.213**	.352**	.418**	.527**	1.000			
6)마케팅	.228**	.465**	.493**	.459**	.489**	1.000		
7)재무역량	.177**	.261**	.338**	.429**	.442**	.522**	1.000	
8)성과	.084	.300**	.347**	.294**	.262**	.358**	.411**	1.000

* $p<0.05$, ** $p<0.01$

4. 가설1의 검증 결과

내부역량과 경영전략에 관한 [가설1]의 검증을 위해 내부역량이 경영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은, 독립변수를 내부역량의 기술역량, 생산역량, 물류역량, 마케팅역량, 재무역량으로 하고, 종속변수를 원가우위전략과 차별화전략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 <표 9>와 같이 원가우위전략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

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다(R²=.087, F=5.054, p<0.01). 내부역량이 원가우위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생산역량(β =.165, t=2.198, p<0.05)은 원가우위전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나머지 역량인 기술, 물류, 마케팅, 재무역량은 원가우위전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생산역량은 원가우위전략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1-1]은 지지되었으나, 물류역량은 원가우위전략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1-2]와 재무역량은 원가우위전략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1-3]은 기각되었다.

<표 9> 내부역량이 경쟁전략에 미치는 영향

구분	원가우위전략			차별화전략		
	β	표준화 β	t	β	표준화 β	t
(상수)	2.982		11.560	1.404		5.799
기술역량	.038	.049	.702	.286	.341	5.645**
생산역량	.165	.162	2.198*	.060	.054	.853
물류역량	.048	.053	.708	.072	.074	1.140
마케팅	.086	.093	1.196	.260	.260	3.867**
재무역량	.015	.019	.256	-.041	-.045	-.726
R ²	.087			.325		
F	5.054**			25.454**		

*p<0.05, **p<0.01

또한 <표 9>에서 차별화전략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분석되었다(R²=.325, F=25.454, p<0.01). 내부역량이 차별화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기술역량(β =.286, t=5.645, p<0.01)과 마케팅역량(β =.260, t=3.867, p<0.01)은 차별화전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나머지 역량인 생산, 물류, 재무역량은 차별화전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기술역량은 원가우위전략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1-4]와 마케팅역량은 원가우위전략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1-5]는 지지되었다.

5. 가설2 의 검증 결과

가설2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T분석을 실시하였다. T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270개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고성과 집단과 저성과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별 적합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내부역량과 경쟁전략의 적합성과 경영성과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70개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고성과 집단과 저성과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적합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두 집단 간 적합성 차이를 확인한 t-test 결과는 <표 10>과 같다.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결과, 고성과 집단이 151개의 한국기업, 저성과 집단이 119개의 한국기업으로 나타났다. 성과집단 유형별 적합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성과가 높은 중국진출 한국기업과 그렇지 않은 한국기업들 사이에 유의한 적합성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1.211$, $p<0.01$). 이와 같은 분석결과 내부역량과 경쟁전략의 적합성은 집단 간에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에 차이가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2]는 지지되었다.

<표 10> 성과에 따른 적합성 차이

적합성	집단유형별 성과 평균			t-값
	저성과	고성과	차이	
역량-전략적합성	-12.263	-8.754	-3.509	-3.038**

* $p<0.05$, ** $p<0.01$

VI. 결 론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내부역량과 경쟁 전략 간의 관계와 이들 요인 간 상호 적합성이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역량이 경쟁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검증결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내부역량 중 기술역량과 마케팅역량은 차별화전략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차별화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 강력한 마케팅 능력과 창조성(creative), 잘 디자인 된 제품, 품질에 대한 평판, 좋은 기업 이미지, 서비스 능력 등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Miller(1986)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기업 내부역량 중 생산역량은 원가우위 전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가우위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를 경쟁자보다 값싼 가격으로 생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전략은 보다 싼값에 생산하기 위해 효율적인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전략 유형을 가진 기업의 경우 생산관리 역량을 뛰어나게 개발시켜 이 과정에서의 원가절감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Miller(1986)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경쟁전략의 유형 별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중국진출 한국기업 내부역량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추구하는 경쟁전략과 내부역량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 높은 기술역량과 마케팅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원가우위 전략의 경우, 생산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과 경쟁전략의 적합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적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은 내부 역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략적 경영의 대전제는 기업이 경쟁사 대비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능력에 적합한 최적의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략적 상황이론과 자원준거관점에 근거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주로 이론적인 연구에 제한되어 있었던 기업의 내부역량과 경쟁전략과의 적합성이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합성의 개념정의와 측정방법에 관한 논의이다. 적합에 대한 개념화와 측정방법은 연구자들마다 상이하며,³²⁾ 아직까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적합의 개념화와 측정방법이 옳은 지는 명확하지 않다.³³⁾ 1980년 중반 구조적 상황이론과 관련하여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최근 전략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성과와 연계시킨 연구들 또한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32) Venkatraman, Nenkat, & Prescott, John E. <Environment-strategy coalignment: An empirical test of its performance implicat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1:1(1990), 1~23쪽 ; Chan, Y. E., & Huff, S. L., 《Investigating Information Systems Strategic Alignment》 (In ICIS, 1993), 345~363쪽 ; Lee, J. & D. Miller, <Strategy, Environment and Performance in Two Technological Contexts: Contingency Theory in Korea>, 《Organization Studies》, 17:5(1996), 729~750쪽.

33) 이석인, <중소기업의 환경과 전략의 적합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업경영학회》, 12:1(2005), 225~238쪽.

의 문헌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적합성 측정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면밀한 적합 모형의 개발 및 개선을 통해 더욱 정교한 적합성 측정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중국진출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지역적 측면에서도 연해 지역에 분포되어있어 표본이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표본의 편중은 기업 규모별, 업종별, 또는 지역별 역량과 전략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기업을 보다 다양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표본의 수가 270부였는데 통계 분석하는데 있어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어 무리는 없었으나 통계적 추정치에 대한 예측력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고안된 설문 문항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사전 인터뷰 및 사전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 대상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현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업선된 설문문항을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태구, 《국제경영》(박영사, 2007)
- 강태구·김태석, 〈한국제조기업의 대중국 투자지분에 따른 성과결정 요인의 실증분석〉, 《국제경영연구》, 16:1(2005), 83~106.
- 권구혁·신진교, 〈전략적 환경적응력과 조직 내부적 적합성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25:2(2003), 127~153.
- 김영배, 〈전략군 유형에 따른 환경, 조직구조 및 기술혁신 형태:통합적 상황모형〉,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논문, 1989)
- 김주일,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이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현, 〈기업 역량이 전략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문, 1998)
- 김형철, 〈벤처기업 내부역량과 경쟁전략 간의 적합성이 경영 성과에 미

-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대한경영학회지》, 24:2(2011), 769~787.
- 박성관, 〈조직문화 유사성과 조직갈등이 지각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박종복, 〈전략-환경 적합성이 기술중개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산업경제연구》, 24:1(2011), 275~302.
- 송재훈, 〈투자경정요인과 환경요인이 한국중소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4:2(2002), 211~235.
- 안종석, 〈우리나라 대중국 직접투자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 시장 및 소유권전략을 중심으로〉《국제경영연구》, 7:1(1996), 1~24.
- 여지나,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위상배, 〈여행업의 환경, 역량, 전략 및 그 적합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유정민, 〈경영환경, 경쟁전략 및 기업 내부역량의 적합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석규, 《신경영분석론》, (학문사, 1997)
- 이석인, 〈중소기업의 환경과 전략의 적합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한국기업경영학회》, 12:1(2005), 225~238.
- 이장우·대니·밀러·우성진·손종환, 〈전략-환경 적합과 기업성과: 신기술 및 전통적 기술 배경 아래에서의 상관관계〉, 《경영학연구》, 23:3(1993), 149~172.
- 이장우,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영전략》(법문사, 2001)
- 이장우, 〈환경변화, 전략유형 및 기업성과: 비교-정태적 분석〉《경영학연구》, 18:2(1989), 245~273.
- 이장우, 《경영전략론》, (법문사, 1999)
- 임민경·여지나,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유턴 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장세진, 《글로벌 경쟁시대의 경영전략》, (박영사, 2000)
- 장혜지·박기안·김찬경, 〈해외직접투자의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국제경영연구》, 16:3(2005), 27~64.
- 정수열·추승엽·서승범·임성준, 〈환경, 전략, 조직구조간의 적합성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전략경영연구》, 11:3(2008),

43~67.

- 지용희, 〈해외직접투자의 경쟁우위, 애로요인 및 성과에 관한 연구 : 중국 청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서강경영논총》, 5(1994), 357~371.
- 최이규·이수형, 〈기업의 전략군과 역량군 유형간 경영성과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마케팅논집》, 10(2001), 51~72.
- 추승엽·유정민·임성준, 〈경영환경, 경쟁전략 및 기업 내부역량 간의 적합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12:1(2009), 101~126.
- Amit, R. H. and P. J. H. Schoemaker, 〈Strategic Assets and Organization R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3(1993), 33~46.
- Andrews, K. R. (1971), 〈The Concept of Corporate Strategy〉, 《Homewood》, (Il: Irwin., 1971)
- Ansoff, H. I., 《Corporate Strategy: An Analytic Approach to Business Policy for Growth and Expansion》 (New York: Mcgraw-Hill, 1965)
- Barnard, C. I., 《The Function of The Executiv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8)
- Barney, J. B., 〈Firm Resource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1991), 99~120.
- Barney, J. B., 〈Looking inside for Competitive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9:4(1995), 49~61.
- Barney, J. B., 〈Strategic Factor Markets: Expectations, Luck, and Business Strategy〉, 《Management Science》, 32:10(1986), 1231~1241.
- Barney, J.,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1991), 99~120.
- Chaffe, E.E., 〈Three Models of Strateg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985), 89~98.
- Chan, Y. E., & Huff, S. L., 《Investigating Information Systems Strategic Alignment》 (In ICIS, 1993), 345~363.

- Chandler, G. N., & Hanks, S. H.,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1994), 331~349.
- Chandler, A., 《Strategy and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1962)
- Chandler, A. D.,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 Chrisman, J. J., A. Bauerschmidt, & C. W. Hofer,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An Extended Model>,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3:1(1998), 5~29.
- Churchill, G. A. & J. P. Peter, <Research Design Effects on the Reliability of Rating Scale: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1:4(1984), 360~375.
- Conant, J. S., M. P. Mokwa & P. R. Varadarajan, Strategic Types, <Distinctive Marketing Competenc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Multiple Measure-based Stud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1(1990), 365~383.
- Conner, K. R., <A Historical Comparison of Resource-based theory and Five School of Thought with Industrial Organization Economics: Do we have a new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Management》, 17:1(1991), 121~154.
- Cooper, A. C., & A. Bruno, <Success Among High Technology Firm>, 《Business Horizons》, 20(1997), 16~22.
- Covin, J. G., D. P. Slevin. & T. J. Covin, <Content and performance of growthseeking strategies: A comparison of small firms in high-and low-technology industr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6(1990), 391~412.
- Dierickx, I. & K. Cool, <Asset stock accumulation and sustainability of competitive advantage>, 《Management Science》, 35:12(1989), 504~511.
- Drazin, R. & A. H. Van de Ven, <Alternative Forms of Fit in

- Contingency Theor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0:40(1985), 514~539.
- Duchesneau, D. A., & Gartner, W. B., 〈A Profile of New Venture Success and Failure in an Emerging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5(1990), 297~312.
- Edelman, L. F., Brush, C. G., & Manolova, T., 〈Co-Alignment in the Resource-Performance Relationship: Strategy as Mediato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3(2005), 359~383.
- Ghemawat, P., 《Commitment: The Dynamic of Strategy》, (New York: The Free Press. 1991)
- Govindarajan, V. & J. Fisher, 〈Strategy, Control Systems, and Resource Sharing: Effect on Business-unit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2(1990), 259~285.
- Govindarajan, V. & A. K. Gupta, 〈Linking Control Systems to Business Uni-Strategy: Impact on Performance〉, 《Organizations and Society》, 10(1985), 51~66.
- Grant, R. M., 〈The Resource Based Theory of Competitive Advantage: Implications for Strateg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2(1991), 114~135.
- Hambrick, D. C., 〈Some Test of the Effectiveness and Functional Attributes of Miles and Snow's Strategic Typ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1983b), 5~26.
- Hambrick, D. C., 〈High Profit Strategies in Mature Capital Goods Industries: A Contingency Approa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1983a), 687~707.
- Hamel, G. & Prahalad, C. K.,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rporation〉 《Organization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11(1993), 359.
- Hill, C. W., & Jones, T. M., 〈Stakeholder-Agency Theory〉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9:2(1992), 131~154.
- Hitt, M. A. & Ireland, R. D., 〈Corporate Distinctive Competence and Performance: Effects of Perceived Environmental Uncertainty, Size and Technology〉 《Decision Science》,

15:3(1984), 324~326.

Hitt, M. A. & Ireland, R. D., <Relationships Among Corporate Level Distinctive Competence, Diversification Strategy, Corporate Structure and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3:4(1986), 401~416.

Hofer, C. & D. E. Schendel, 《Strategy Formulation: Analysis Concepts》, (West Publishing Co, St. Paul, MN., 1978)

Kim, Linsu. & Lim, Yooncheol, <Environment Generic Strategies and Performance in a Rapidly Developing Count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4(1988), 802~827.

Learned, E. P., Christensen, C. R., Andrews, K. R., & Guth, W. D., 《Business Policy: Text and Cases》, (Homewood, IL: RD Irwin., 1969)

Lee, J. & D. Miller, <Strategy, Environment and Performance in Two Technological Contexts: Contingency Theory in Korea>, 《Organization Studies》, 17:5(1996), 729~750.

Mahoney, J. T. & J. Pandian, <Resource-Base View within the Convergence of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3:5(1992), 363~380.

Mahoney, J. T., "The Management of Resources and the Resource of Management,"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3:2(1995), 91~111.

Meyer, A. D., <What is Strategy's Distinctive Competence?>, 《Journal of Management》, 17:4(1991), 821~833.

Miles, R. E. & C. C. Snow, 《Organizational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8)

Miller, D. & P. H. Friesen, <Strategy Making and Environment: The third link>,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1983), 221~235.

Miller, D., <Configuration of Strategy and Structure: Towards a Synthesi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7(1986), 233~249.

Miller, D., <External Fit Versus Internal Fit>, 《Organization Science》, 3:2(1992), 159~178.

Miller, D., 《A Theory of Shopping》,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 Miller, D., <The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Correlates of Business Strate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8:1(1987), 55~76.
- Miller, D., <Relating Porter's Business Strategies to Environment and Structure Analysis and Performance Implic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3:2(1988), 280~308.
- Nath, D. & D. Sudharshan, <Measuring Strategy Coherence through Patterns of Strategic Choic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1994), 43~62.
- Penrose, E. T.,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Oxford: Basil Blackwell., 1959)
- Porter, M. E., 《Competitive Strategy: Techniques for Analyzing Industries and Competitors》, (Free Press, New York., 1980)
- Porter, M. E.,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Free Press, New York., 1985)
- Prahalad, C. K. & G. Hamel,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1990), 79~91.
- Rumelt, R. P., <Strategy,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Division of Research>, 《Harvard Graduate School Business Administration》, Boston(1974).
- Sandberg, W. R., & Hofer, C. W.,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Some Guidelines for Succes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2:1(1987), 11~25.
- Schendel, D. E. & C. W. Hofer, 《Strategic Management: A New View of Business Policy and Planning》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9)
- Segev, E., <A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 Synthesis of Two Business Level Strategic Typolo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989), 487~505.
- Selznick, P., 《Leadership in Administration: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N. Y: Harper & Row., 1957)

- Sloan, A., 《My Year with General Motor,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63)
- Snow, C. C. & L. G. Hrebiniak, 〈Strategy, Distinctive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5(1980), 317~336.
- Stalk, G., P. Evans & L. Shulman, 〈Competing on Capabilities: The New Rules of Corporate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1992), 57~69.
- Teece, D. J., G. Pisano & A. Shuen, 〈Dynamic Capabilities and Strategic Management〉, Working Paper, 《Manage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 1992)
- Thompson, J. D. & A. J. Strickland, 《Strategic Management: Concept & Cases》, (7th, Irwin., 1993)
- Van de Ven, A. & R. Drazin, 〈The Concept of Fit in Contingency Theory〉,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7(1985), 333~365.
- Venkatraman, N. & J. C. Camillus, 〈Exploring the Concept of Fit in Strategic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3(1984), 513~525.
- Venkatraman, N., & Prescott, John E 〈Environment-strategy coalignment: An empirical test of its performance implicat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1:1(1990), 1~23.
- Wernerfelt, B., 〈A 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5(1984), 171~180.
- Wiklund, J., & Shepherd, 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Small Business Performance: A Configurational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1(2005), 71~91.
- Woodside, A. G., D. P. Sullivan & R. J. Trappey, 〈Assessing Relationships among Strategic Types, Distinctive Marketing Competenc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5:2(1999). 135~146.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l competence and the competitive strategy of Korean corporations in China. And it also tries to find out the effects of suitability of the factors on their business performances. For this purpose, it surveyed 270 Korean corporations in China,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effects of the internal competence on competitive strategy are investigated, it is proved that the technical competence and the marketing competence have a meaningful effect on differentiation strategy of Korean corporations in China. And the manufacturing competence has a meaningful effect on their cost leadership strategy. Secondly, in order to accomplish a high management performance, it is important for them to have suitable internal competence and management strategy. When they have high suitability, it has the biggest influence on their business performances.

This results show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for Korean corporations to establish a suitable competitive strategy for improving their performances, considering their internal competence.

Key Word : Korean corporations in China, Strategy, Competence.

투 고 일 : 2014.2.23

심 사 일 : 2014.3.3~3.31

게재확정일 : 2014.4.20

중국 홍콩 H주식의 기업가치평가모형의 검증

김상욱* · 김옥희**

<목 차>

I. 서 론	IV. 실증분석
II. 선행연구	V. 결 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 서 론

중국 개혁개방 35년, 그리고 2012년 11월 시진핑(习近平)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중국경제에 대한 세계의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자본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면서 경제관련 정책 및 기준을 채택함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국제기준을 도입하는 등 시장경제발전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주식시장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개방되어 왔으나 여전히 사회주의 제도라는 틀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보호제도¹⁾가 존재하고 있어 시장경제를 원리로 한 주식시장에 대한 연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중

* 제1저자: 배재대학교 중국학부 중국통상학 전공 부교수
(jinxiangyu@pcu.ac.kr)

** 교신저자: 배재대학교 중국학부 중국통상학 전공 조교수
(yujijin@pcu.ac.kr)

1) 2002년부터 시행된 QFII제도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A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허용되는 투자가는 외국 펀드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이고 자산규모와 투자한도 등 자격에 대한 제한 조치이다.

국의 주식시장은 다른 주식시장과 달리 크게 A주식, B주식, H주식시장이 있다. A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대부분 제조업이고 국유기업으로서 외국자본에 대한 유입을 막기 위하여 외국인들은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B주, H주식시장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거래를 할 수 있다. 둘째, 중국 주식시장에는 비유통주가 존재하여, 한 기업의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주식시장처럼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투자하는데 검증받은 객관적인 지표가 따로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인 변수들을 고려해 중국 내륙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연구에 앞서, 중국에서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더욱 개방된 중국 홍콩거래소의 H주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업가치평가모형을 적용을 해봤을 때 이러한 모형이 과연 중국 홍콩의 주식시장에도 설명력을 갖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기업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는 Williams(1938)의 배당할인모형(Discounted Dividend Mode)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Ohlson(1995)의 초과이익할인모형(Discounted Abnormal Earning, 이하 Ohlson모형이라고 함)²⁾과 Burgtähler & Dichev(1997)의 Option모형에 이르기까지 회계정보를 이용한 평가모형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고, 또 그 평가방법에 대한 찬반 등 연구들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³⁾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모형은 Ohlson모형과 Option모형이다.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Ohlson모형과 Option모형을 검증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는 정혜영(1995), 이미영·서병덕·홍정화(2002), 이종천·오용락(2004), 양병한(2009)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Ohlson모형과 Option모형이 중국의 상장기업의 가치평가모형으로서 적합한가를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기존의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연구는

2) DAE모형은 장부가치변수로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본을, 이익변수로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중 초과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형에 대입하여 기업가치를 추정하는 모형이다.

3) Lev, B. & P. Zarowin(1997)는 가치관련성에 있어서 회계정보가 상실되어 간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주로 소유구조(이은영, 2007; 유흔·강영삼·이근, 2007; 강영삼, 2009; 구기보, 2011; 이장희·Jin Lian Hua, 2011) 혹은 주식시장정보의 정보 효과성(우춘식·노성섭·조수려, 2010; Yoon, Seong-Min, Su, Q., Kang, Sang-Hoon, 2010), 회계정보의 상호연관성(진이훈·강호정, 2012)에 관한 연구에 그쳤다면 최근 들어 기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같이 기업의 회계정보를 이용한 연구들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 이미란(2005)은 Ohlson모형을 이용하여 중국 대륙의 상해증권거래소와 쑤저우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A주식과 B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연구한 결과, 기업의 장부가치와 당기 순이익은 모두 기업가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임학빈·왕안(2005)은 Ohlson모형을 이용하여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쑤저우증권거래소 A주식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정보와 주가의 가치관련성을 실증분석 하였다. 회계이익과 순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기간에 따른 회계정보의 총가치 관련성 변화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주식시장의 상장기업의 기업가치를 평가를 함에 있어서 Ohlson모형과 Option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욱 적합한가에 대한 검증은 향후 A주식에 상장한 기업을 포함한 기업가치평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고 또한 실제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Ohlson모형과 Option모형을 이용하여 중국 홍콩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H주식 기업에 대해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주식가치를 설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와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이용하여 변수들 사이의 설명력도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에서는 기존의 기업가치평가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실증연구를 검토하였다. III에서는 기업가치평가모형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사용할 Ohlson모형과 Option모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본 연구의 가설을 제시하고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다. IV에서는 실증분석 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한다. V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한다.

II. 선행연구

정혜영(1995)은 Edward & Bell(1961)과 Ohlson모형을 개선하여 기업가치를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치, 미래현금흐름, 미래성장률 및 기업 위험도 등의 함수로 정의하고, 기업가치 평가모형을 실증분석 결과, 주가/장부가치 비율의 결정요인으로써 미래경상이익의 흐름이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고, 주가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써 주당 주식가격의 결정요인분석에서는 주당 장부가치, 미래 5년간의 경상이익흐름, 미래 5년간의 주당 장부가치성장률 및 현재의 주가지수 수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결과, F통계량이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고, R2값 역시 0.4886으로써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한국증권시장의 회계수치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직접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기업가치결정 또는 신주 발행가격의 결정 등 기업의 가치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들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미영·서병덕·홍정화(2002)는 Feltham & Ohlson(1995)가 제시한 모형 중, 모형2 즉 기업가치는 장부가치와 미래의 모든 초과이익⁴⁾의 현재 가치의 합이라는 Ohlson모형에서 주당장부가치(BPS), 주당경상이익(EPS),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ROE의 증가추세(DROE),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증가율(PL), 시장모형에 의해 추정된 자기자본비용(MC)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회계연도 결산일 이후 주가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기업가치평가 모형으로서 적합함을 보여 주었다.

이종천·오용락(2004)은 Ohlson모형과 Option모형을 기업특성이 상이한 코스닥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가치평가에 적용한 결과, 일반기업의 경우 Ohlson모형과 Option모형 간 기업가치평가의 적합성에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벤처기업의 기업가치평가에 있어서는 초과이익모형보다 Option모형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특성이 다른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Ohlson모형 간 계수와 설

4) 여기서 초과이익은 기업의 자본비용 또는 정상이익보다 큰 부분을 의미한다.

명력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으로 Ohlson모형에 의한 기업가치 관련 연구에서는 기업특성의 통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업특성에 따라 적합한 기업가치평가모형이 상이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기업가치평가에서 기업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가치평가모형보다 실물옵션모형이 벤처기업의 가치평가에 적합하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고, 벤처기업의 가치평가에 Option모형은 선형이 아닌 비선형이라는 Burgstahler & Dichev(1997)의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양병환(2009)는 Ohlson모형과 Option모형으로 이용하여 한국의 거래소기업과 코스닥기업에서 재무정보를 추출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연구모형의 적합성 및 설명변수의 가치관련성을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Ohlson의 초과이익모형과 Option모형은 한국 거래소기업과 코스닥 기업일 경우, 상대적 적합성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Ohlson의 초과이익모형의 초과이익 대리변수로 주당초과이익과 주당 EVA(Economic Value Added)를 설명변수로 실증분석 한 결과, 거래소 기업은 주당초과이익과 주당EVA가 비슷한 수준의 가치관련성을 지니고 있었고, 코스닥기업은 주당EVA가 더 높은 가치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거래소기업은 사업이 안정적인 반면, 코스닥기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영업활동에 대한 초과이익 개념인 주당 EVA가 비영업활동까지 포함한 초과이익 개념인 주당초과이익보다 기업 가치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 가치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Option모형을 이용한 기업가치평가모형 설계시 한국거래소기업과 코스닥기업 모두에서 미래현금흐름 대응치로 EPS(Earning Per Share, 주당순이익), 주당영업이익, 주당경상이익을 사용한 결과 주당영업이익이 가치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란(2005)은 Ohlson모형을 이용하여 중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기업가치평가모형의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중국회계기준으로는 중국의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쑤저우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A주식과 B주식에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국제회계기

준으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B주식 지분만큼의 기업가치의 설명력은 중국회계기준으로 한 모형의 설명력이 조금 높게 나타났고, 기업가치를 설명함에 있어서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중국회계기준이 기업가치를 설명함에 있어서 더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고, 쉐먼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이 기업가치를 설명함에 있어서 더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그리고 기업의 장부가치와 당기 순이익은 기업가치를 설명함에 있어서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임학빈·왕안(2005)은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쉐먼증권거래소에서 A주식만 발행하는 기업은 중국회계기준(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A주식과 B주식을 같이 발행하는 기업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을 따른다는 재무제표상의 변수들의 관련성을 고려해, Ohlson모형을 이용하여 A주식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정보와 주가의 가치관련성을 실증 분석 하였다. 회계이익과 순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주당순이익은 유의수준 1%에서 음(-)의 회귀계수를 가지며, 순자산은 양(+)의 회귀계수를 가진다. 그리고 손실기업의 경우 회계이익의 가치관련성은 거의 없었으나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산업군의 순자산의 가치관련성 회귀계수는 회계이익의 회귀계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이미란(2005)과 임학빈·왕안(2005)의 연구에서는 Ohlson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Ohlson모형이 더욱 적합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Ohlson모형뿐만 아니라 Option모형도 설명력이 있다는 가정 하에 두 모형 중 어느 모형이 중국 홍콩 H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가치평가에 더욱 적합한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주당초과이익이 Ohlson모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기존의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제시되지만, 이미란(2005)과 임학빈·왕안(2005)의 연구에서는 주당초과이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를 분석에 추가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의 연구는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쉐먼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주식과 B주식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국 홍콩 H주식에 상장된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쉐먼증권거래소의 A주식과 B주식시장은 정책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홍콩 H주식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분석기간의 설정이다. 이미란(2005)은 2001-2003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고 본다. 그리고 임학빈·왕안(2005)은 1995-2004년까지 분석기간을 확장하고는 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중국 홍콩 H주식시장의 변화는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기간을 2011년까지 확장함으로써 더욱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

Ⅲ. 연구방법

1. 기업가치평가모형

Ohlson(1995)은 Penman(1991)의 연구결과에 이어, 주식의 내재가치는 순자산 장부가치와 미래기대이익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보고, 재무정보와 기업가치를 선형함수로 표시하고 있다. Ohlson(1995)은 미래초과이익이 현재초과이익과 시계열 선형관계를 갖는다는 LID(Linear Information Dynamics)가정을 도입하여 명백한 잉여관계(Clean Surplus Relation Assumption)⁵⁾를 전제로, 기업가치를 회계정보의 직접적인 함수로 표시한 초과이익할인모형(Discounted Abnormal Earning)⁶⁾을 제시하였다. 즉 기업의 미래기대이익은 현재의 초과이익과

5) 회계정보가 모든 손익을 포함한다는 가정으로 기업의 재무정책이 기업의 순실물가치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6) DAE모형은 장부가치변수로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본을, 이익변수로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중 초과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형에 대입하여 기업가

기타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서 기타 정보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모든 비회계정보로 제시되고 있다(Ohlson 1995). 이 모형은 회계정보와 가치관련성의 연결고리를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Ohlson의 이익을 이용한 주가평가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가정을 한다. 첫째, 미래기대배당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expected dividend)가 주가를 결정한다.

$$P_t = \sum_{\tau=0}^{\infty} R_F^{-\tau} E_t[d_{t+\tau}] \quad \text{식 (1)}$$

P_t = 시점 t 에서의 주가

$d_{t+\tau}$ = 시점 $t+\tau$ 에서 지급된 (순)배당

R_F = 무위험 이자율+1

$E_t[\cdot]$ = 시점 t 에서의 정보에 근거한 기댓값

둘째, 회계수치와 배당 사이에는 명백한 잉여관계(Clean Surplus Relation)가 성립한다.

$$BV_{t-1} = BV_t + d_t - x_t \quad \text{식 (2)}$$

$$\frac{\partial BV_t}{\partial d_t} = -1, \quad \frac{\partial x_t}{\partial d_t} = 0 \quad \text{식 (3)}$$

x_t = 기간($t-1, t$) 동안의 이익

BV_t = 시점 t 에서의 (순)장부가치

셋째, 초과이익은 기타정보와 미래초과이익 간의 시계열 형태를 가진다. 초과이익을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x_t^a = x_t - (R_F - 1)y_{t-1} \quad \text{식 (4)}$$

$(R_F - 1)y_{t-1}$ =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이익

즉, 기업의 가치를

$$P_t = y_t + \sum_{\tau=1}^{\infty} R_F^{-\tau} E_t[\tilde{x}_{t+\tau}^a] \quad \text{식 (5)}$$

로 표현할 수 있고, (식4)를 도입하면 모형 I 은 주가는 순장부가치와

치를 추정하는 모형이다.

당기의 수익성(x_t^a), 그리고 미래수익에 대한 기타정보(ε_t)에 의해 결정된다는 Ohlson모형이 성립한다.

$$[\text{모형 I}] P_t = \beta_0 + \beta_1 SAT_t + \beta_2 SEE_t + \varepsilon_t \quad \text{식 (6)}$$

P_t =t기의 주식가격

SAT_t =t기의 주당순자산가액

SEE_t =t기의 주당초과이익

기업가치평가모형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주가와 회계정보와의 가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이다. 손익계산서상 이익정보와 주가와 가치 관련성이 밝혀진 후(Ball & Brown, 1968), 대차대조표의 회계정보인 순자산가액이 주가와 가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이익모형과 동시에 순자산가액에 대한 연구도 빨리 진행되었다.⁷⁾

Burgstahler & Dichev(1997)은 Berger et al.(1996)의 포기옵션을 이용한 기업가치평가모형(Option모형)에서 기업은 이익이 낮을수록 현재의 수익모형을 포기하고 나온 수익모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포기옵션가치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액은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이익보다 기업 가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주식의 시장가치를 청산옵션가치⁸⁾와 계속가치⁹⁾의 합계로 보고 주식가치가 청산옵션가치와 불록한 증가함수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Option모형을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PV_t &= AOV_t + CFV_t \\ &= P_t(CFV_t, EOV_t, SD_t) + CFV_t \\ &= \sum_{\tau=1}^n \frac{E_t(CF_{t+\tau})}{(1+Y_c)^\tau} + \text{MAX} \left[\sum_{\tau=n+1}^{\infty} \frac{E_t(CF_{t+\tau})}{(1+Y_c)^\tau}, \sum_{\tau=n+1}^{\infty} \frac{E_t(ECF_{t+\tau})}{(1+Y_c)^\tau} \right] \end{aligned} \quad \text{식 (7)}$$

PV_t = 주식가치

7) Hayn(1995)는 대차대조표상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이익보다 순자산가액이 기업가치 관련성이 더 크다고 하였다.

8) 기업을 청산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전환가치를 말함.

9) 기업 청산 시 기존의 자원들이 현재 사업을 할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자본화한 가치를 말한다.

AOV_t = 포기옵션가치

CFV_t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EOV_t = 청산옵션가치

SD = CFV_t/EOV_t 의 표준편차

CF_t = 현금흐름

ECF_t = 청산시점에서의 현금흐름

Burgstahler & Dichev(1997)는 실물옵션의 한 형태인 Myers & Majd(1990)의 포기옵션(abandonment option)에 기초하여 선형옵션평가모형(option-style valuation model)의 실증모형을 제시하였다.

$$[\text{모형 II}] P_t = \beta_0 + \beta_1 SAT_t + \beta_2 EPS_t + \varepsilon_t \quad \text{식 (8)}$$

P_t =t기의 주식가격

SAT_t =t기의 포기옵션가치(주당순자산가액)

EPS_t =t기의 미래현금흐름(주당순이익)

모형 II에서 t기의 미래현금흐름인 주당순이익은 기존 수익모형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고, 주당순자산가액은 새로운 수익모형에서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인 포기옵션가치를 의미한다.

2. 변수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이종천·오용락(2004), 이미란(2005), 임학빈·왕안(2005), 양병환(2009)과 같이 주가(P)가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가정한다.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비유통주(非流通股)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점차적인 개방을 통해 비유통주의 일부분을 현재는 유통을 허가하고 있다. 비유통주의 유통은 매도 수량이 해당 기업의 주식총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12개월 동안 5%를 넘지 못하게 하고, 24개월 동안 10%를 넘지 못하게 한다. 이와 같이 일정한 유통이 허용되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매각제한유통주(限售股)라고 한다. 유통주, 비유통주 또는 매각제한유통주 등 모든 주식 발행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위원회,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설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Ohlson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미래초과이익이 설명변수로 채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당초과이익(SEE)을 미래초과이익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채택한다. 양병한(2009)은 한국의 분석에서 주당초과이익을 미래초과이익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주당초과이익을 당기순이익에서 현금배당과 자기자본비용액을 차감한 것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중국 홍콩 H주식시장의 상장기업 자료에서는 자기자본비용액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당기순이익에서 현금배당을 차감한 것을 주당초과이익으로 본다.

Option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이 설명변수로 채택되어야 한다. 투자의사결정 등에서 이용하는 미래현금흐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기업가치평가에 사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병한(2009)에서 사용한 발생주의에 근거한 회계정보를 미래현금흐름 대용치로 이용하였다. 주당순이익(EPS)을 미래현금흐름의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그리고 주당순이익 외에 주당영업이익(SOI), 주당경상이익(SORI), 영업현금흐름(CFO)을 또 다른 대리변수로 설정해 본다. Option모형에서 미래현금흐름의 대리변수로 사용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은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들의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을 사용하였고, 영업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사용하였다. 주요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 1>에서 정리하고 있다. 주가는 중국 홍콩거래소의 H주식에 상장된 표본기업들의 매일의 주가를 연평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설명변수들은 연평균발행주식수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표 1〉 변수 요약

주가(P_t)	표본구성년도 일별 연평균주가
주당순자산($SA T_t$)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연평균발행주식수
주당초과이익(SEE_t)	(당기순이익-현금배당)/연평균발행주식수
주당순이익(EPS_t)	(당기순이익-우선주배당금)/연평균발행주식수
주당영업이익(SOI_t)	영업이익(손실)/연평균발행주식수
주당경상이익($SORI_t$)	보통주 경상이익(손실)/연평균발행주식수
주당영업현금흐름(CFO_t)	영업현금흐름/연평균발행주식수

본 연구에서는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의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Ohlson모형과 Option모형이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적합한가를 검증한다. 이종천·오용락(2004)은 Ohlson모형과 Option모형을 한국 코스닥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가치 평가에 적용한 결과, 일반기업의 경우 Ohlson모형과 Option모형이 기업가치평가의 적합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병한(2009)은 한국 거래소기업 및 코스닥기업을 분석한 결과, Ohlson의 초과이익모형이 Option모형보다 좀 더 설명력이 있을 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 가치평가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하기 위한 가설은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가설 1] Ohlson모형과 Option모형은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의 가치평가모형으로 적합하다.

[가설 2]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의 가치평가모형에는 Ohlson모형이 Option모형 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

임학빈·왕안(2005)은 1995-2004년간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쉐먼증권거래소의 회계이익과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쉐먼증권거래소보다 회계이익/주가, 순자산/주가의 상

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의 가치 관련 변수의 유용성 검증을 하기 위한 가설은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가설 3]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의 경우 Ohlson모형과 Option 모형 모두에서 주당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이 더욱 높다.

[가설 4]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의 경우 Ohlson모형에서 미래 초과이익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주당초과이익이 적합하다.

양병한(2009)은 Ohlson모형을 이용한 한국 거래소기업 및 코스닥기업을 분석한 결과, 거래소기업에서 기대초과이익 대용치인 주당초과이익은 주당EVA보다 주가에 대한 설명력 및 유의도는 코스닥기업은 다소 높았고, Option모형을 이용해 미래현금흐름 대용치인 주당영업이익,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이 주가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거래소기업과 코스닥기업 모두 주당영업이익이 주가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따라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의 설명변수를 검증을 하기 위한 가설은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가설 5] 중국 홍콩 H주 기업의 경우 Option모형에서 미래현금흐름을 나타내는 대리변수 중 주당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이 가장 높다.

3. 분석대상과 자료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자본시장을 점차적으로 개방하였고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킴으로 하여 2001년에 WTO에 가입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주식시장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WTO가입 후 중국은 국제기준 회계제도를 대폭 도입하였다. 그리고 QFII(외국인기관적격투자자)제도와 같은 증권제도가 새로 실행되고 많은 국유기업들이 점차적으로 개인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중국의 주식시장은 다양한 형태로 발

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주식시장은 주로 A주식, B주식, C주식, H주식, Red chip, N주식, S주식, L주식 등 주식시장이 있다. A주식은 QFII 외 중국인만 거래할 수 있고 대부분이 국유기업이며 중국 위안화로 거래되고, B주식은 외국인투자자를 상대로 거래하고는 있지만 2001년 2월부터 중국 내국인 투자자에게도 개방되었다. B주식은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는 미국달러로, 췌전증권거래소에서는 홍콩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C주식은 중국 국영기구, 기업법인끼리 장외거래 되고 개인이 보유하지 못하는 주식이고, Red chip은 중국 홍콩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외화로 거래되며 첨단산업의 비중이 크다. N주식은 등록은 중국에서 하고 뉴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미국달러로 거래되는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형태주식이다. S주식은 등록은 중국에서 하고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외화로 거래되는 주식형태이고, L주식은 등록은 중국에서 하고 런던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외화로 거래되는 주식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중국 홍콩 H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왜냐 하면 A주와 B주는 비유통주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중국 홍콩증권거래소는 19세기 중엽부터 시작하여 발전해왔다. 1891년 홍콩경제협회를 성립함과 동시에 정식 증권거래소시장이 성립되었다. 그 뒤로 많은 역사적 변혁과 정책적 변화를 통해 지금의 홍콩거래소로 발전해 왔다. 그 중 2012년 말 현재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 즉 H주식 상장기업은 모두 174개이다. H주식 상장기업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999년 말을 기준으로 상장 기업 수는 41개 정도였지만 2012년에는 174개로 증가하여 전체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25%로 증대하였으며 시가 총액도 1999년 말의 0.885에서 2012년 말의 22.28%로 증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는 H주식 상장기업의 시가 총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더욱 높아져서

26.41%까지 상승하였다. 아래 <그림 1>은 Hang Seng Index와 Hang Seng H Stock Index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Hang Seng Index와 Hang Seng H Stock Index의 변화 추이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홍콩증권거래소의 H주식 상장기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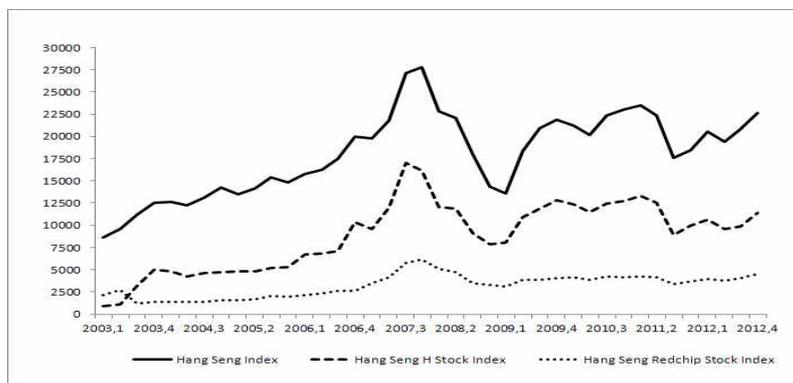
(단위: 개, 억 홍콩달러, %)

연도	전체 상장기업(A)		H주식 상장기업(B)	
	기업 수	시가 총액	기업 수	시가 총액
1999	708	47,347.64	41	418.89
2000	790	48,624.40	47	851.40
2005	1,135	81,799.37	111	12,804.95
2006	1,173	133,371.06	131	33,637.88
2007	1,241	206,975.44	139	50,568.20
2008	1,261	102,987.53	146	27,201.89
2009	1,319	178,743.08	152	46,864.19
2010	1,413	210,769.58	159	52,103.25
2011	1,496	175,372.56	165	40,966.60
2012	1,547	219,501.29	174	48,909.26

주: 매년 말 기준.

자료: 홍콩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hkex.com.hk>: 검색일 2013년 8월 15일)

<그림 1> Hang Seng Index와 Hang Seng H Stock Index의 추세



본 연구에서는 중국 홍콩 H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지금 중국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본 연구에 이용된 기업 수는 42개이다. 왜냐하면 기업가치평가모형을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 자료는 시계열적으로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H주식 상장기업 174개에서 42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들은 홍콩증권거래소 홈페이지와 리딩투자증권(2012)에서 발행한 『중국 상장기업 분석』, 대신증권(2007)에서 발행한 『2012 ‘가을호’ 홍콩 중국 상장기업 가이드』를 이용하고 분석기간은 2003-2011년으로 설정한다.

IV. 실증분석

1. 기초통계량

본 연구는 기업의 회계정보의 기업가치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표 3>는 실증분석에 이용된 기업의 주가와 설명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이다.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의 주가(P) 평균은 4.985이고, 최대값은 65.21이고 표준편차는 7.566이다. 주당순자산(SAT) 평균은 7.758, 최대값은 51.31이고 표준편차는 8.277이다. 주당초과이익(SEE) 평균은 0.444, 최대값은 7.49이고 표준편차는 1.249이다. 주당순이익(EPS) 평균은 0.775, 최대값은 8.92이고 표준편차는 1.599이다. 주당영업이익(SOI) 평균은 1.194, 최대값은 12.46이고 표준편차는 1.991이다. 주당경상이익(SORI) 평균은 0.840, 최대값은 9.09이고 표준편차는 1.595이다. 주당영업현금흐름(CFO) 평균은 1.469, 최대값은 15.10이고 표준편차는 2.273이다.

<표 3>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수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P	378	0.06	65.21	4.985	7.566
SAT	378	-8.07	51.31	7.758	8.277
SEE	378	-9.74	7.49	0.444	1.249
EPS	378	-9.74	8.92	0.775	1.599
SOI	378	-6.11	12.46	1.194	1.991
SORI	378	-8.25	9.09	0.840	1.595
CFO	378	-10.43	15.10	1.469	2.573

2.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패널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는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계정보의 기업가치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주가와 주당순자산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0.405, 주당초과이익과는 0.372, 주당영업이익과는 0.429, 주당경상이익과는 0.450, 주당순이익과는 0.428 주당영업현금흐름과는 0.324으로 주가와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가와 주당순자산, 주당영업이익,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과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P	SAT	SEE	SOI	SORI	EPS	CFO
P	1.000						
SAT	0.405	1.000					
SEE	0.372	0.651	1.000				
SOI	0.429	0.831	0.858	1.000			
SORI	0.450	0.794	0.929	0.962	1.000		
EPS	0.428	0.767	0.964	0.942	0.983	1.000	
CFO	0.324	0.637	0.455	0.646	0.597	0.565	1.000

3. 분석결과

본 연구는 자료의 이용가능 정도를 높이기 위해 패널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패널회귀분석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된다. 분석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Hausman검증을 한다. Hausman 검증 결과에 의하면 Chi2의 값이 유의수준 5%에서 H0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패널회귀분석 결과이다. 그리고 모든 변수들은 로그변환을 함으로써 변수의 단위가 동일하지 못한 문제점을 회피하였다.

<표 5> 패널회귀 분석 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SAT	0.929*** (14.021)	0.980*** (14.931)	1.008*** (15.067)	1.051*** (16.225)	0.909*** (12.324)
SEE	0.168*** (5.780)				
EPS		0.152*** (5.292)			
SOI			0.192*** (5.521)		
SORI				0.176*** (6.282)	
CFO					0.114*** (3.354)
F-통계량	76.066	73.904	79.912	83.660	63.464
Adj-R ²	0.913	0.906	0.915	0.917	0.896
관측 수	300	315	314	315	310

주: 상수는 생략, *** p<0.01, ** p<0.05, * p<0.10

<표 5>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모형 1은 Ohlson모형을 나타내고 모형 2는 Option모형을 나타낸다. 모형 1의 Ohlson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F통계량이 76.066으로 유의수준 1%에서 검증을 통과한다. 따라서 Ohlson모형은 중국의 홍콩H주에 상장된 기업의 가치평가모형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또한 모형 2의 Option모형도 F통계량이 73.904으로 유의수준 1%하에서 검증을 통과한다. 즉 Option모형도 중국의 홍콩H주에 상장된 기업의 가치평가모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Ohlson모형과 Option모형 모두 중국 홍콩H주 기업의 기업가치평가모형으로 적합하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미란(2005)과 임학빈·왕안(2005)도 Ohlson모형이 중국의 상장기업의 가치평가모형으로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Ohlson모형뿐만 아니라 Option모형도 홍콩H주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가치평가모형으로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Ohlson모형은 기업의 가치는 미래초과이익에 의해서 결정되고 Option모형은 미래현금흐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1을 채택하게 되면 미래초과이익과 미래현금흐름 모두 홍콩H주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가치평가변수로서 채택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두 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욱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가설 2를 검증해 본다. 모형 1의 Ohlson모형의 Adj R²는 0.913이고 모형 2의 Option모형의 Adj R²는 0.906이다. 따라서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의 가치평가모형으로서 상대적으로 Ohlson모형이 Option모형보다 더 적합하다는 가설 2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모형 1과 모형 2의 Adj R²값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Ohlson모형이 Option모형보다 더욱 적합하다고는 결론내리기 힘들다. 이는 양병한(2009)에서 한국의 거래소기업과 코스닥기업에 Ohlson모형과 Option모형을 적용시켜본 결과 상대적 적합성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검증결과와 비슷하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는 주당순자산(SAT)가 동일한 설명변수로 채택되어 있다. 이미란(2005)과 임학빈·왕안(2005)에서도 주당순자산은 중요한 설명변수로 설정되어 있다. 가설 3은 중국 홍콩H주 기업의 경우 Ohlson모형과 Option모형 모두에서 주당순자산(SAT)의 가치관련성이 다른 설명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높다는 것이다. 모형 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Ohlson모형에서 주당순자산(SAT)과 주당초과이익(SEE)의 회귀계수를 비교한 결과, 주당순자산의 회귀계수는 0.929이고 유의

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주당초과이익의 회귀계수는 0.168이고 역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동일한 방법으로 모형 2의 Option모형에서 주당순자산(SAT)과 미래현금흐름을 나타내는 대리변수 주당순이익(EPS)을 분석한 결과, 주당순자산의 회귀계수는 0.980이고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그리고 주당순이익의 회귀계수는 0.152이고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그리고 로그변환을 하였기 때문에 이 회귀계수는 탄력성의 의미를 가진다. 즉 Option모형에서 주당순자산이 1단위 변화하였을 때 주가는 0.980 변화하고, 주당순이익은 0.152 변화한다. 때문에 Ohlson모형과 Option모형 모두에서 주당순자산의 탄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설 3]은 채택되었다.

Ohlson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미래초과이익의 대리변수로 주당초과이익을 사용한 결과, 유의수준 1%하에서 t검증을 통과하고 회귀계수는 0.168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도 채택되었다. Option모형에서 미래현금흐름의 대리변수로 당기순이익, 주당영업이익(SOD), 주당경상이익(SORI), 주당영업현금흐름(CFO)을 사용한 결과, 주당영업이익의 회귀계수가 0.192로 가장 크게 나타나, 영업이익의 가치관련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Option모형에서 미래현금흐름을 나타내는 대리변수 중 주당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이 가장 높다는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이는 양병환(2009)에서 Option모형을 이용한 결과, 거래소기업과 코스닥기업에 모두에서 주당영업이익의 가치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중국 내륙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연구에 앞서 중국 홍콩거래소 H주식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평가모형을 검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가치평가모형에는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기업의 가치는 미래초과이익에 의해

서 결정된다는 Ohlson모형과 기업의 가치는 미래현금흐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Option모형에 의해서 설명되어진다. 문제는 이 두 모형이 과연 중국 홍콩거래소 H주식에 상장된 기업의 기업가치평가모형으로서 적합한가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Ohlson모형과 Option모형 모두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의 가치평가모형으로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hlson모형은 F통계량이 76.066으로 유의수준 1%에서 검증을 통과하고, Option모형은 F통계량이 73.904으로 유의수준 1%에서 검증을 통과하여 두 모형 모두 홍콩H주 기업의 가치평가모형으로 적합하다. 둘째,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의 가치평가모형으로 Ohlson모형의 Adj R2는 0.913이고 모형 2의 Option모형의 Adj R2는 0.906으로 나타나, Ohlson모형이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셋째, 중국 홍콩 H주식에 상장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Ohlson모형에서 주당순자산의 회귀계수는 0.929으로 나타났고, Option모형에서는 주당순자산의 회귀계수는 0.980으로 나타나 두 모형 모두에서 주당순자산이 다른 변수들보다 기업가치평가에 더욱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넷째, 중국 홍콩 H주식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Ohlson모형에서 미래초과이익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주당초과이익은 유의수준 1%하에서 t검증을 통과하였다. 다섯째, 중국 홍콩 H주식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Option모형에서 미래현금흐름을 나타내는 대리변수 중 주당순이익보다 주당영업이익의 회귀계수가 0.192로 가장 크게 나타나, 영업이익의 가치관련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이런 연구결과는 미래초과이익이나 미래현금흐름 모두 중국 홍콩 H주식 상장기업의 기업가치평가에 통계적 유의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느 정도의 무리가 있다. 첫째, 홍콩 H주식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서 지속적인 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중국 홍콩 H주식시장의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소유구조 등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분석하였다. 물론 이러한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본 연구는 중국 주식시장을 연구하는데 앞서 홍콩의 H주식시장을 대상으로 기업가치평가모형을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강영삼, <중국의 상장기업에서 소유구조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연구》 13:1(2009).
- 구기보, <중국 상장기업의 비유통주 개혁에 따른 주식시장의 반응>, 《현대중국연구》 13:1(2011).
- 대신증권, 《2012 ‘가을호’ 홍콩 중국 상장기업 가이드》 (2012).
- 리딩투자증권, 《중국 상장기업 분석》 (2007).
- 양병한, 《재정정보를 이용한 기업가치평가모형에 관한 실증연구》,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2009).
- 우춘식, 노성섭, 조수려, <중국의 증권시장에서 현금배당의 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과학논총》 13(2010).
- 유훈, 강영삼, 이근, <중국 기업집단의 시장가치와 특성에 대한 실증 분석>, 《국제지역연구》 11:3(2007).
- 이미란, 《중국B주식상장기업과 한국외국인지분소유주식 상장기업의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설명력에 대한 연구-Ohlson(1995) 모형을 이용하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이미영, 서병덕, 홍정화, <기업가치평가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17(2002).
- 이은영, <중국 법인주주와 상장기업가치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5:1(2007).
- 이장희, Jin Lian Hua, <중국 상장기업의 소유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비유통주 개혁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9(2011)

- 이종천, 오용락, 〈기업특성에 따른 기업가치평가모형의 적합성 차이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29:2(2004).
- 임학빈, 왕안, 〈중국 주식시장에서의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연구〉, 《회계논집》 6:1(2005).
- 정진향, 《기업가치평가모형을 이용한 코스닥기업의 가치평가》, 국민대학교박사학위논문(2006).
- 정혜영, 〈회계수치에 의한 가격결정모형〉, 《회계학연구》 20:1(1995).
- 진이훈, 강호정, 〈중국 상장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2012).
- Ball, R. & P. Brown, 〈An Empirical Evaluation of Accounting Income Number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6(2)(1968).
- Berger, P. G., E. Ofek, I. Swary, 〈Investor Valuation of the Abandonment Op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2(1996).
- Burgstahler, D. C. & I. D. Dichev, 〈Earning Adaptation, and Equity Value〉, 《The Accounting Review》 72:2(1997).
- Edwards, E. & P. Bell,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Business Incom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California(1961).
- Feltham, G. A. & J. A. Ohlson, 〈Valuation and Clean Surplus Accounting for Operating and Financial Activiti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1:2(1995).
- Hayn, C., 〈The Information Content of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0(1995).
- Lev, B. & P. Zarowin, 〈The Boundaries of Financial Reporting and How to Extend The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2(1997).

- Myers, S. C. & S, Majd, 〈Abandonment Value and Project Life〉, 《Advances in Futures and Options Research》 4(1990).
- Ohlson J. A., 〈Earnings, Book Values, and Dividends in Equity Valuatio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1:2(1995).
- Penman, S. H., 〈An Evaluation of Accounting Rate-of-return〉,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6:2(1991).
- Yoon, Seong-Min, Su, Q., Kang, Sang-Hoon,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among the Stock Market of China, Taiwan and Hongkong〉,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14:3(2010).
- www.hkex.com.hk: 홍콩증권거래소.

<Abstract>

Testing of the Firm Valuation Model on China
Hongkong H Stock

Kim, Sang-Wook · Jin, Yu-Ji

This paper tests the firm valuation model to Hongkong H stocks. The Ohlson model regards the firm value determined by the future excess profit, and the Option model regards determined by the future cash flow. This paper test which model is more appropriate to the firm valuation model, Ohlson model and Option model, to the Hongkong H stock. And we use 42 enterprise's data from 2003 to 2011, use the panel regression method. We test five hypothesis. First, the hypothesis 1 testing

result suggests that the Ohlson model and Option model have significance to the firm valuation model in Hongkong H stock. Second, the hypothesis 2 testing result suggests that the Ohlson model has more positive significance than the Option model to the Hongkong H stocks, but it is not absolute. Third, the hypothesis 3 testing result suggests that the per share net asset has more significance than another variables in Ohlson model and Option model, to the Hongkong H stock. Fourth, the hypothesis 4 testing result suggests that the per share excess profit of the proxy variable of the future excess profit has significance in Ohlson model. Fifth, the hypothesis 5 testing result suggests that the per share net profit of the proxy variable of the future cash flow has more significance than another proxy variables.

Key words : Firm Valuation Model, Ohlson Model, Option Model, China, Hongkong H Stock

투 고 일 : 2014.2.25

심 사 일 : 2014.3.3~3.31

게재확정일 : 2014.4.20

범엽(范曄)의 〈옥중에서 여러 조카들에게 보내는 편지(獄中與諸甥侄書)〉 역주**

이장휘*

〈목 차〉

1. 들어가며
2. 번역 및 역주
3. 나오며

1. 들어가며

범엽(范曄: 398~445)의 자는 울종(蔚宗)이고 남조 송(宋)나라의 사학가이며, 순양(順陽-오늘날의 하남성 석천(浙川)현 동쪽)사람으로 거기장군(車騎將軍) 범태(范泰)의 작은 아들이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면서 출산하는 바람에 그의 이마가 벽돌에 부딪쳐서 어릴 때의 이름을 전(塹)이라고 하였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여 경전과 역사서를 두

* 경성대학교 중국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사 (changhuiy@hanmail.net)

** 본 편은 《송서(宋書)》권69〈열전제29·범엽열전〉에 실린 문장을 저본으로 삼고, 《남사(南史)》권33〈열전제23·범엽열전〉에 실린 문장을 참조하여 번역하였다. 아울러 2차 자료는 《위진남북조문론전편》(목극평·곽단 編著, 上海:上海遠東出版社, 2012) 160~163쪽, 《위진남북조문론선》(郁沅·張明高 編選,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6) 255~259쪽, 《중화고문론석림》(魏晉南北朝卷)(李壯鷹 主編, 北京:北京大學出版社, 2011) 139-144쪽, 《후한서문학초담》(鍾書林 著,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고대문론명편선독》(韓湖初·陳良運 主編, 北京:中國書籍出版社, 2000) 142~146쪽, 《중국역대문론선 신편》(先秦至唐五代卷)(黃霖·蔣凡 主編, 上海:上海教育出版社, 1982) 147~148쪽 등을 두루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루 섭렵하였고, 문장을 잘 지었으며 예서(隸書)에 능하였고 음률(音律)에도 정통하였다. 동진(東晉) 안제(安帝) 융안(隆安) 2년에 출생한 그는 17살에 주자사가 주부(主簿)로 임용하고자 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후 유유(劉裕)의 아들 유의강(劉義康)의 관군참군(冠軍參軍)이 되었다. 송나라가 동진을 대신해서 들어선 이후, 범엽은 몇 차례 승진 끝에 상서부랑(尙書吏部郎)이 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자리를 옮겼으며 원가(元嘉) 9년(432년) 겨울에 팽성왕의 어머니 팽성태비가 세상을 떠나자, 의강의 신하들이 옛 동부(東府)에 운집하였다. 이때 마침 범엽의 동생 광연(廣淵)이 사도좌주(司徒祭酒)로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범엽은 사도좌서속 왕심(王深)과 광연의 처소에서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북쪽 창문을 열어 놓고 만가(輓歌)를 들으며 즐기고 있었다. 이것이 의강에게 발각되어 크게 노여워한 의강은 그를 선성태수(宣城太守)로 좌천시켰다. 범엽은 벼슬길이 순탄치 못하고 뜻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여러 사람들, 특히 《동관한기(東觀漢記)》와 여러 사람들의 《후한서(後漢書)》¹⁾를 정리하여 〈본기〉 10권과 〈열전〉 80권의 방대한 저서를 완성하고 일가지언을 이루었다. 선성에서 몇 년 지낸 후에 다시 승진하여 자리를 옮겨 좌위장군(左衛將軍)과 태자첨사(太子詹事)로서 금군(禁軍)을 관리하고 조정의 중요한 일에도 참여하였다. 원가 22년(445년)에 공희선(孔熙先) 등과 송나라 문제(文帝)를 시해하는 모의에 참여하여 팽성왕 유의강을 황제로 옹립하려다 발각되어 문제는 그를 모반죄로 사형에

1) 범엽이 《후한서》를 지으면서 참조한 여러 사람들의 《후한서》는 아래와 같다. 동한시기의 역사를 가장 먼저 서술한 것이 《동관한기(東觀漢記)》인데, 이것이 출현한 후 오래지 않아서 “동한의 첫 번째 양사(良史)”라고 일컬어지는 사승(謝承)의 《후한서》130권이 출현하였으며, 서진(西晉)초기에 설형(薛瑩)이 지은 《후한서》100권과 화교(華嶠)의 《후한서》97권·사마표(司馬彪)의 《속한서(續漢書)》83권이 계속해서 출현하였다. 동진시기에는 사침(謝沈)의 《후한서》122권과 원평(袁宏)의 《후한기(後漢紀)》30권·원산송(袁山松)의 《후한서》100권이 출현하였다. 송나라에서는 범엽의 《후한서》외에도 유의경(劉義慶)의 《후한서》58권이 등장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잡전(雜傳)이 출현하였고, 범엽이후에는 양나라 소자현(蕭子顯)의 《후한서》100권과 왕소(王韶)의 《후한림(後漢林)》200권이 출현하였다. 원래 범엽의 《후한서》는 90권이었는데, 오늘날 전하는 《후한서》120권은 양나라 유소(劉昭)가 사마표의 《속한서》에 실린 지(志)30권을 취하여 보충해 넣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쳐하였는데, 그의 나이 48세였다.

범엽의 신장(身長)은 칠척(七尺)이 안 되었지만, 체구가 통통하고 피부는 까무잡잡했으며, 열은 눈썹에 양쪽 살쩍은 드문드문하였다. 비파를 잘 탈 수 있었고, 새로운 곡도 잘 지을 수 있어 황제가 여러 번 그의 연주를 듣고 싶어서 완곡히 청하였으나, 범엽은 탈줄 모른 척한 채 끝내 연주하려고 하지 않았다. 한번은 황제가 연회에서 술을 기분 좋게 마셨을 때, 범엽에게 “내가 노래 한 곡을 부를 테니, 그대는 나를 위해 반주할 수 있겠는가?(我欲歌, 卿可彈?)”라고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뜻을 받들어 연주하였는데, 황제의 노래가 끝나자 범엽의 금(琴)소리도 바로 그쳤다고 한다.

《수서(隋書)》〈경적지(經籍志)〉에 의하면 범엽의 저술에는 《후한서》외에도 《문집(文集)》15권과 《록(錄)》1권·《화향방(和香方)》1권·《잡향고방(雜香膏方)》1권 등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다 망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구당지(舊唐志)》에 의하면 《백관계차(百官階次)》1권이 더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전되었고, 현존하는 작품은 다만 〈쌍학시서(雙鶴詩序)〉 1편이 《예문류취(藝文類聚)》권90에 보이고, 〈낙유응조시(樂游應詔詩)〉 1수가 《문선(文選)》권2에 보인다. 그의 생평에 관한 자료는 《송서(宋書)》권69·《남사(南史)》권33에 그의 열전이 전한다.

범엽이 살았던 위진남북조 시대는 진(秦)·한(漢)과 수(隋)·당(唐)의 두 통일기를 잇는 정치적 분열기이고, 문화적으로는 다양하면서도 통일된 특별한 성격의 시대이다. 송나라 문제는 불교를 숭상했으며 그의 신하들도 모두 불교를 숭배했다. 따라서 불교는 당시 크게 성행하여 황제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귀의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불경의 가르침이 충실해지고 그 해설이 심화되어서 하나의 학문분야를 이루기도 했다. 시대상황이 이러했지만, 범엽은 오히려 불교와 미신에 반대하였다. 범엽은 “항상 죽은 자의 영혼은 소멸된다고 하면서 《무귀론(無鬼論)》을 저술하고자 했다.(常謂死者神滅, 欲著《無鬼論》.)”²⁾고 한다. “또 사

2) 《송서》권69 〈열전제29·범엽전〉에 보인다.

람들에게 일러 ‘하상지(何尙之) 복야에게 천하에는 결코 부처와 귀신이
 란 없다. 만약 신령이 있다면 반드시 당신에게 보복할 것이다’는 말을
 했다.(又語人: ‘寄語何僕射, 天下決無佛鬼, 若有靈, 自當相報.’)고 한다.
 범엽은 결국, 공공연히 불문(佛門)의 자로(子路)인 하상지에게 도전했던
 셈이다. 이것은 당연히 문제와 그 주변의 불교신도인 신하들에게 용납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이 범엽이 피살된 중요 원인중의 하나일 것
 이다. 《후한서》에는 흔히 부서(符瑞)와 기운·운수·쌓인 덕업 등에 대
 해 긍정적으로 서술한 것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범엽의
 무신론사상이 철저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범엽의 사상 가운데
 무신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투쟁적인 정신을 표출하고 있는
 데, 그가 제시하고자 했던 《무귀론》은 저명한 범진(范縝)의 《신멸론
 (神滅論)》에 비해 50년이나 빠른 것이었다.

범엽이 《후한서》를 저술한 동기가운데,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김육불(金毓黻)이 지적한 네 가지 원인³⁾이 정확한 상황인식인 듯하다.
 첫째, 전통 유가 경학의 쇠락[經學衰微]⁴⁾과 임금에서 재상에 이르기까
 지 역사를 숭상하고 선호한 까닭[君相好尙]·학자들의 쇠퇴한 제도에 대
 한 보수[學者修墜]·제후국간의 끊임없는 다툼[諸國相競]이 궁극적으로
 사학(史學)이 흥성하게 된 주된 이유이다. 둘째, 개인적인 가업의 두터
 운 훈도(訓導)일 것이다. 범엽은 《후한서》 유생들의 전기(傳記)에서
 세 차례나 증조부 범왕(范滂)과 조부 범녕(范寧)·부친 범태(范泰)를 언급
 하였다. 이토록 범엽이 《후한서》를 창작한 목적은, 특히 〈일민(逸民)
 열전〉 같은 것은 유학이론의 가학전승(家學傳承)일 뿐만 아니라 사학창
 작상의 가학전승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물론 후한 당시의 풍조와 당

3) 김육불의 《중국사학사(中國史學史)》(北京: 商務印書館, 2003) 96쪽 재인
 용.

4) 위진남북조시대에는 유가사상과 경학이 전한과 후한시대처럼 그렇게 지배적
 인 위치를 점하진 못했으며, 이 시기에는 노장사상과 불교철학이 유가사상과
 매우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삼현(三玄) 즉, 《주역
 (周易)》과 《노자(老子)》·《장자(莊子)》가 전통적인 유가사상을 훨씬 능가
 하였고 지배사상의 반열에 올랐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이 경학에 쏟은 노력
 은 사학방면에서와 같은 왕성한 발전이 없었다.

시의 역사현상을 반영하고자 주의를 기울인 것 또한 사실이다. 예컨대, 환관(宦官)의 득세와 당고(黨錮)사건은 후한시대 최대의 사건이었던 만큼 여기에 연루된 인물도 극히 많았다. 범엽은 이에 <환자(宦者)열전> 과 <당고열전> 을 마련해서 해당 인물과 해당 사건을 기록하고자 했다. 또 <독행열전> 과 <일민열전> 을 만들어서 명절(名節)을 지키고 충의(忠義)를 숭상하며 특별히 절조가 있는 인물들을 기록함으로써 후한대의 풍기를 반영하기도 했다. 또 <유림전> 을 서술한 것 외에도, <문원전> 을 수록해서 당시 문인들을 기록에 남겼는데, 이것은 사서(史書)의 열전에서 경학과 문학이 구분되었다는 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 상술한 환자와 당고·독행·일민·문원·열녀 등의 여러 열전은 모두 이전의 사서에는 없었던 것들이지만, 후한의 역사에서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들인 만큼 범엽은 합당하게 이들에 대한 열전을 마련하였다. 그가 사물의 변천을 파악하여 새로운 열전을 열거함으로써 한 시대 특유의 역사현상을 반영코자 한 것은 기전체에 대한 일종의 발전이었다. 범엽의 이러한 정신은 이후 사가들에 의해 지속되었다. 셋째는 범엽 자신의 굴곡 많은 인생여정이 그에게 <후한서>를 집필토록 독려했다. 자신이 벼슬길에서 득의하지 못함으로 인해 저술하게 되어 그의 붓끝은 언제나 자신의 깨달음을 내포하고 있고, 세속에 대한 분함과 걱정으로 평정을 잃은 정서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한의 시대상황이 궁극적으로는 쇠락해가는 유학을 만회해보려는 범엽의 의지를 불러 일으켜서 결국 “한 시대의 득실⁵⁾을 바로 잡는다.(正一代得失)”는 것이었다. 즉, 범엽은 <옥중에서 여러 생질과 조카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서, <후한서>편찬의 동기가 결코 저술을 위한 저술에 있지 않고, “비록 문장에 사건을 기술한 것이 반드시 많을 필요는 없겠지만, 사람들에게 문장을 본 후에는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건을 기술한 것은 문장에서 의론을 발표하여 한 시대의 득실을 바로잡으려고

5) 구체적으로 “한 시대의 득실”을 바로잡는 것에는 황후의 권력욕과 외척의 전횡·환관(宦官)의 점진적인 득세로 인한 재앙·참위(讖緯)의 흥망득실·변경지역 강(羌)족과 흉(匈)족 토벌에 관한 득실 등이었다.

하였으나, 의도대로 다 처리하지는 못한 것 같다.(雖事不必多, 且使見文得盡. 又欲因事就卷內發論, 以正一代得失, 意復未果.)”고 하였다. 문장으로 역사문제와 역사인물을 평론하는 데에 주의를 상당히 기울였던 범엽은 분명한 자신의 관점을 표명하고 감정을 토로했으며, 비판과 깨우침을 동시에 행하였다.

본고는 《송서(宋書)》권69 〈열전제29 범엽전·옥중에서 여러 조카들에게 보내는 편지〉 부분을 번역하고 상세히 주석을 덧붙인 것이다. 〈옥중에서 여러 조카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범엽이 감옥에서 함께 죽임을 당한 생질인 사중(謝綜)의 동생 사약(謝約)과 사위(謝緯)⁶⁾ 등에게 보내는 한 통의 편지이자, 자신의 일생을 정리한 글이다. 첫머리에서 “내가 분별없이 큰 죄인 모반을 꾀하다 발각되어 망하게 되었는데, 어찌 다시 말할만한 것이 있겠는가?(吾狂畔覆滅, 豈復可言?)”라고 하였는데, 사실 “분별없이 큰 죄인 모반을 꾀한 것”은 그가 평소에 봉건예법을 무시한 반역정신과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진취적인 태도와 기상을 반영한 것이다. 범엽은 《후한서》를 통해 역사에 이름을 드리웠지만, 그의 중국문학비평사에 끼친 공헌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본문에서 문학의 특징과 궁상(宮商)같은 성률 및 문필(文筆)의 구분에 관한 논술은 비록 소략하고 언어로 표현한 것이 상세하지는 않지만, 문학개념이 선진양한에서 실용을 숭상하는 것으로부터 육조(六朝)의 “정감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므로 아름답다(緣情而綺靡)”는 관념으로 바뀌게 하는 선하를 열었기 때문에 중국문학비평사상 의심할 바 없이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다. 편지이므로 당당하고 차분하게 말하고 있어서 평이(平易)하고 친근하여 읽으면 뽀뽀하여 감동을 준다. 본문에서 범엽은 《후한서》는 “천하의 빼어난 작품(天下之奇作)”이므로 “아마도 한 글자도 헛되이 말하지는 않았을 것(殆無一字空設)”이기 때문에, “이에 스스로도 그것을

6) 사중(謝綜)의 동생 사약(謝約)과 사위(謝緯)는 광주(廣州)로 유배(流配)되었고, 범엽의 딸이 범애(范藹)의 아들 노련(魯連)은 오흥소공주(吳興昭公主)의 외손(外孫)이었으므로 생명을 보전해 줄 것을 청하여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가 세조(世祖)가 즉위한 후에 되돌아 올 수 있었다. 결국 어린 생질 몇 명과 손자만 겨우 생존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일컬어야 할지를 모르겠다.(乃自不知所以稱之)”고 하여 그 스스로 자부심이 대단하였음을 드러내었다. 범엽의 짧은 편지글을 통해 그의 문학이론에 관한 견해뿐만 아니라 위진 이래 발전되어온 논설문과 성률(聲律)이론을 연구할 때 증시할만한 사료(史料)적인 가치를 지닌 본문을 정리하는 것도 자못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2. 번역과 역주

[1]

吾狂矍覆滅⁷⁾, 豈復可言? 汝等⁸⁾皆當以罪人棄之⁹⁾. 然平生行己任懷¹⁰⁾, 猶應可尋. 至於能不¹¹⁾, 意中所解¹²⁾, 汝等或不悉知¹³⁾.

7) 광흔복멸(狂矍覆滅): “광”은 미친 듯이 또는 분별없이라는 의미이고, “흔”은 과실이나 죄과라는 뜻이다. 《좌전(左傳)》 〈장공(莊公)〉 14년에서 “사람들에게 죄과가 없으면, 요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人無矍焉, 妖不自作.)”라고 하였다. “광흔”은 분별없이 큰 죄인 모반을 꾀하다는 의미이다. “복멸”은 뒤집히어 멸망하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팽성왕(彭城王) 의강(義康)을 세우려는 모의에 참여하였다가 누설되어 죽임을 당한 것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분별없이 큰 죄인 모반을 꾀하다 뒤집히어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8) 여등(汝等): “등”은 복수접미사로 사용되어 “여등”은 너희들이라는 의미이다.

9) 이죄인기지(以罪人棄之): “죄인”은 범엽 자신을 가리키고, “기”는 내버리다 또는 싫어서 차버리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범엽 스스로 생질과 조카들에게 자신을 죄인으로 삼아 내버릴 것을 말한 것이다.

10) 행기임회(行己任懷): “행기”는 자신의 몸가짐이나 품행을 가리킨다.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에서 공자가 자산(子產)에 대해 “그는 군자의 도에 걸맞은 네 가지 행위를 갖고 있으니, 그 자신의 몸가짐에 대해서는 장엄하면서도 공경스럽고, 임금을 섬기는 데는 책임감이 강하면서도 진지하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은혜로웠으며, 백성들을 부리는 데는 도리에 맞게 하였다.(子謂子產有君子之道四焉: 其行己也恭, 其事上也敬, 其養民也惠, 其使民也義.)”고 하였다. “임회”는 직역하면 가슴으로 품은 것에 맡겨 또는 가슴에 의지해서 펼쳐내다는 의미에서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또 일부학자들은 포부나 회포·흥취나 취미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 구절은 범엽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몸가짐이나 가슴에 의지해 펼쳐내 온 것이라는 말이다.

11) 지어능불(至於能不): “불”은 “부(否)”자의 의미인 “불능(不能)”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구절은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성과와 득실을 가리킨다.

[1]

내 분별없이 모반(謀叛)을 꾀하다 발각되어 망하게 되었는데, 어찌 할 말이 더 있겠는가? 너희들은 모두 응당 죄인인 나를 내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평생에 추구해온 몸가짐이나 가슴에 의지해 펼쳐내 온 것은 여전히 응당 추구할만할 것이다. 그 가운데 성패나 득실, 마음으로 느끼고 감명(感銘)받으며 체득한 것들은 너희들이 혹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다.

[2]

吾少懶, 學問晚成, 人年三十許¹⁴, 政始有向耳¹⁵. 自爾以來¹⁶, 轉爲心化¹⁷, 雖老將至者¹⁸, 亦當未已也¹⁹. 往往有微解²⁰, 言乃不能自盡²¹. 爲

12) 의중소해(意中所解): 뜻이나 마음으로 이해한 것이란 의미이다. 즉, 마음으로 느끼고 감명(感銘)받으며 체득한 것이란 뜻이다.
 13) 여등혹불실지(汝等或不悉知): “혹”은 아마도 또는 혹시라는 의미이고, “실”은 모두 또는 다라는 뜻이다. 이 구절은 너희들은 아마도 다 알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14) 허(許): 개수(概數)의 의미로 ~쯤이나 ~정도라는 의미이다.
 15) 정시유향이(政始有向耳): “정”은 “정(正)”자의 의미로 마침이나 마침내라는 뜻이고, “향”자가 《태평어람(太平御覽)》권585과 《남사(南史)》권33〈열전제23·범엽열전〉에는 “상(尙)”자로 되어 있다. 의미적으로는 “향”자로 하면 지향하다는 것일테고, “상”자로 하면 숭상하다는 것이므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이 구절은 마침 비로소 지향하는 것이 있게 되었다 또는 숭상하는 것이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16) 자이이래(自爾以來): “이”자는 주로 2인칭대사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지시대사로 사용되어 앞의 서론쯤예를 가리킨다. 이 구절은 그때 이래로라는 말이다.
 17) 전위심화(轉爲心化): “심화”는 일심(一心)으로 학문에 매진하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일심으로 학문에 매진하는 것으로 바꾸어서라는 말이다.
 18) 수로장지자(雖老將至者): “수”자가 《송서》권69〈열전제29·범엽전〉에는 “추(推)”자로 되어 있지만, 청대 엄가균(嚴可均)의 《전송문(全宋文)》에 따라 “수”자로 수정해서 번역하였다. 직역하면 비록 늙음이 장차 이르러하다는 의미이다.
 19) 역당미이야(亦當未已也): 직역하면 또한 응당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자는 그만두다[止]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0) 미해(微解): 정미(精微)하고 깊은 이해나 견해가 있다는 말이다.
 21) 불능자진(不能自盡): “자진”은 직역하면 스스로의 깨달음을 다하다는 것이

性不尋注書²²), 心氣惡²³), 小苦思²⁴), 便憤悶²⁵). 口機又不調利²⁶), 以此無談功²⁷). 至於所通解處²⁸), 皆自得之於胸懷耳²⁹). 文章轉進³⁰), 但才少思難³¹), 所以每於操筆³²), 其所成篇, 殆無全稱者³³). 常耻作文士³⁴).

- 다. 이 구절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나 깨달음을 다할 수 없다는 말이다.
- 22) 위성불심주서(爲性不尋注書): “위”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심”은 찾다나 탐구하다는 의미이지만, 글귀를 파고 따지다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주”는 집중하다 또는 전념하다는 뜻인데, 이전 사람들의 주석, 예를 들면 유가의 오경(五經)에 대한 옛 주석들과 《노자(老子)》의 왕필(王弼) 주석·《장자(莊子)》의 곽상(郭象) 주석 등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심주서”는 이전 사람들의 주석 글귀를 집중해서 파고 따지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왜냐하면 본성이 이전 사람들의 주석 글귀를 집중해서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23) 심기오(心氣惡): “심기”가 이곳에서는 지력(智力)이나 심사(心思)를 가리키고, “오”는 좋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다는 말이다.
- 24) 소고사(小苦思):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다는 의미이다. 즉 조금 심사숙고하다는 말이다.
- 25) 편케민(便憤悶): “편”은 곧 또는 바로라는 의미이고, “케민”은 심란하고 번민(煩悶)스럽다는 뜻이다. 즉 곧장 머리가 어지럽고 멍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 26) 구기우부조리(口機又不調利): “구기”는 말재주를 가리키고, “조리”는 뜻이 명확하게 통하면서도 예리하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말재주 또한 명확하게 뜻이 통하면서도 예리하지 않다는 말이다.
- 27) 이차무담공(以此無談功): “이차”는 이것 즉 말재주 또한 명확하게 뜻이 통하면서도 예리하지 않기 때문예를 가리키고, “담공”은 말재주로 인한 공명(功名)이나 봉록(俸祿)같은 효과를 뜻한다. 이 구절은 이것 때문에 말재주로 인한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 28) 지어소통해처(至於所通解處): “통해처”는 책을 읽을 때 확실하게 이해한 곳이라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책을 읽을 때 확실하게 이해한 곳이 있게 되면이라는 말이다.
- 29) 개자득지어흥회이(皆自得之於胸懷耳): 모두 스스로 마음에서 그것을 터득할 따름이라는 말이다.
- 30) 문장전진(文章轉進): 문장을 짓는데 진보하는 것이 있다는 의미이다.
- 31) 재소사난(才少思難): 재주가 적고 글 짓는 사유가 둔하다는 말이다.
- 32) 소이매어조필(所以每於操筆): “조필”은 붓을 잡고 글을 짓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그러므로 붓을 잡고 글을 지을 때 마다라는 말이다.
- 33) 태무전칭자(殆無全稱者): “태”는 거의 또는 아마도라는 의미이고, “전칭”은 완전히 만족하다 또는 완전히 긍정하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거의 대부분 부족한 곳이 있다 또는 아마도 사람들에게 완전히 만족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 34) 상치작문사(常耻作文士): 늘 글 짓는 선비가 된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2]

내가 어렸을 때는 게을러서 학문도 늦게 이루게 되어 인생 나이 서른 쯤에 마침내 처음으로 지향하는 것이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일심으로 학문에 매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으므로 비록 늙음이 장차 이르러 해도 또한 응당 그만둘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흔히 정미하고 깊은 이해가 있게 되면 언어로써는 뜻을 다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본성이 이전 사람들의 주석 글귀를 집중해서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데다, 조금 심사숙고하면 곧장 머리가 어지럽고 멍하게 되기 때문이다. 말재주 또한 명확하게 뜻이 통하면서도 예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효과는 없었다. 책을 읽을 때 확실하게 이해한 곳이 있게 되면 모두 스스로 마음에서 그것을 터득할 따름이었다. 문장을 짓는데 진보하는 것이 있지만, 재주가 적고 글 짓는 사유(思惟)가 둔하여 붓을 잡고 글을 지을 때마다, 저 완성된 작품들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완전히 만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늘 글 짓는 선비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3]

文患其事盡於形³⁵⁾, 情急於藻³⁶⁾, 義牽其旨³⁷⁾, 韻移其意³⁸⁾. 雖時有能

다.

35) 문환기사진어형(文患其事盡於形): “문”은 문장을 지을 때를 가리키고, “환”은 염려스럽다 또는 걱정된다는 뜻이며, “사”는 글 짓는 일을 가리키고, “형”은 문장에서 사물을 펼쳐놓고 묘사한 것[事形]이므로 현대 문예이론에서 얘기하는 “형상(形象)”이라는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진어형”은 글을 지을 때는 사물을 펼쳐놓고 묘사한 것을 다한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문장을 지을 때 걱정되는 것은 (저 내용이 형식의 구속을 받아서) 사물을 펼쳐놓고 묘사한 것을 다한다는 말이다. 일부학자들은 “사진어형”의 의미가 글을 지을 때, 단지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면 내용적인 부분이 결핍되기 쉽다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36) 정급어조(情急於藻): “정”은 작가가 글 짓는 정감을 가리키고, “조”는 문장의 아름다운 수식을 의미한다. 이 구절은 글을 짓는 작가의 정감이 아름다운 수식보다 급하다는 말이다. (정감을 서술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데, 중점이 도리어) 사물을 펼쳐놓고 묘사한 것을 다하므로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뜻이다. 즉 정감의 표현에만 신경 쓰느라 문장의 아름다운 수식은 소홀하다는 말이다.

者, 大較多不免此累³⁹⁾. 政可類工巧圖績⁴⁰⁾, 竟無得也⁴¹⁾. 常謂情志所託⁴²⁾, 故當以意爲主⁴³⁾, 以文傳意⁴⁴⁾. 以意爲主, 則其旨必見⁴⁵⁾; 以文傳意,

-
- 37) 의견가지(義牽其旨): “의”는 말이나 글의 의미 또는 일의 의미인 전고(典故)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다. “지”는 작가가 나타내려는 주된 요지를 가리키는데, 오늘날의 용어로는 주제(主題)에 해당한다. 이 구절은 (작가가 전고를 남용하므로) 전고의 의미가 작가가 의도하고 나타내려는 주제를 이끌고 간다는 말이다. 즉, 전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작가가 원래 전달하려던 의미를 희생하는 것도 아깝지 않게 여긴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 38) 운이기의(韻移其意): 직역하면 운이 그 원래의 작가 의도를 바꾼다는 뜻이다. 즉, 운문을 지을 때 운이나 운율을 너무 고려하므로 인해 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방해가 되어 작가가 원래 의도했던 의미를 바꾸어버린다는 말이다.
- 39) 대교다불면차루(大較多不免此累): “대교”는 대부분 또는 대체로라는 의미이고, “차루”는 앞에서 염려했던 네 가지 폐단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대체로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 폐단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이다.
- 40) 정가류공교도궤(政可類工巧圖績): “정”은 “정(正)”의 의미인 바로 또는 마침이라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겨우나 단지[僅僅]라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 “유”는 유사하다 또는 비견(比肩)되다는 뜻이고, “공교”는 (기교나 기예가) 섬세하고 정교한 장인(匠人)을 가리키며, “도”는 동사로 사용되어 그리거나 문양을 만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궤”는 “회(繪)”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도궤”는 그림을 그려서 화려한 문양을 만들라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바로 (기교나 기예가) 섬세하고 정교한 장인이 화려한 문양을 그릴 것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 41) 경무득야(竟無得也): “경”은 결국이나 끝내라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섬세하고 정교한 장인이 화려한 문양을 그렸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 42) 상위정지소탁(常謂情志所託): “상”은 “상(嘗)”의 의미인 일찍이나 늘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정지”는 정감과 작가 내심의 주된 뜻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문장은 정감과 작가 내심의 뜻을 기탁한 것이라는 말이다.
- 43) 고당이의위주(故當以意爲主): “의”는 작가가 전달하거나 표현하려는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그러므로 응당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 44) 이문전의(以文傳意): “문”은 자가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문사를 가리킨다. 이 구절은 문장으로써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전달한다는 말이다. 작가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의 주된 자리가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문장의 주제는 두드러지게 되고, 문사가 가리키는 것이 있게 됨으로 공허한 부호로 흐르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 45) 기지필현(其旨必見): “현”은 “현(現)”과 같은 의미이다. 이 구절은 작가가

則其詞不流⁴⁶⁾. 然後抽其芬芳⁴⁷⁾, 振其金石耳⁴⁸⁾. 此中情性旨趣⁴⁹⁾, 千條百品⁵⁰⁾, 屈曲有成理⁵¹⁾. 自謂頗識其數⁵²⁾, 嘗爲人言, 多不能賞⁵³⁾, 意或異故也⁵⁴⁾.

[3]

문장을 지을 때 염려스러운 것은 (저 내용이 형식의 제약을 받아서) 사물을 펼쳐놓는 묘사만 다하고, 정감의 표현에만 신경 쓰느라 문장의 아름다운 수식은 소홀히 하며, (작가가 전고를 남용하므로) 전고의 의미가 작가가 의도하고 나타내려는 주제를 이끌어 가고, 운(韻)이 그 원래의 작가 의도를 바꾸는 것이다. 비록 글을 잘 짓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겠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 폐단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바로 (기교나 기예가) 섬세하고 정교한 장인이 화려한 문양을 그린 것에 비견될

전달하려는 주된 취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 46) 기사불류(其詞不流): “유”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신중하지 않다 또는 공허하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문장의 언어가 공허함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 47) 연후추기분방(然後抽其芬芳): “분방”은 향기로운 향기인데, 이곳에서는 완미한 사상이나 내용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그런 후에야 비로소 저 향기로운 향기를 뿜어내게 된다는 말이다.
- 48) 진기금석이(振其金石耳): “금석”은 쇠로 만든 종(鐘)이나 돌로 만든 경(磬) 같은 악기를 가리키는데, 저 악기들이 내는 소리가 맑고 아름다워서 후세에는 문사가 운율이 미묘(美妙)함을 비유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이 구절은 저 종이나 경쇠 같은 소리를 내게 된다는 말이다.
- 49) 차중정성지취(此中情性旨趣): “정성지취”는 글 중의 정감과 흥취를 가리킨다. 이 구절은 문장 가운데 표현된 정감이나 흥취를 말한다.
- 50) 천조백품(千條百品): 직역하면 천 가지와 백 품목이란 의미인데, 각가지 다양함을 가리킨다.
- 51) 굴곡유성리(屈曲有成理): “굴곡”은 가지런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완곡하게 변화하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완곡하게 변화하여 일정한 이치가 있게 된다는 말이다.
- 52) 자위과식기수(自謂頗識其數): “위”는 “위(爲)”자의 의미로 사용되어 ~라고 여기다는 뜻이다. “수”는 방법이나 규율을 가리키는데, “기수”는 글을 짓는 규율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스스로 자못 글 짓는 규율을 안다고 여기다는 말이다.
- 53) 상(賞): 알아주다 또는 감상하다는 의미이다.
- 54) 의혹이고야(意或異故也): 생각이나 견해가 혹 다르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수 있겠지만, 끝내 그것에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문장은 정감과 작가 내심의 뜻을 기탁한 것이므로 응당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주로 삼아야 하고, 문장으로는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주로 삼으면 작가가 전달하려는 주된 취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문장으로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전달하면 문장의 언어가 공허함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한 후에야 비로소 저 향기로운 향기를 뿜어내게 되고, 저 종이나 경쇠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나게 되는 것이다. 문장 가운데 표현된 정감이나 흥취는 천 가지와 백 품목으로 다양하겠지만, 완곡하게 변화하여 일정한 이치가 있게 된다. 스스로 자못 글 짓는 규율을 안다고 여겨 일찍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주지 못한 것은 각자의 견해가 혹 다르기 때문이었으리라.

[4]

性別宮商⁵⁵), 識清濁⁵⁶), 斯自然也. 觀古今文人, 多不全是此處⁵⁷); 縱有會此者⁵⁸), 不必從根本中來. 言之皆有實證⁵⁹), 非爲空談. 年少中謝莊最有

55) 성별궁상(性別宮商): “성”은 천성적으로나 본능적으로라는 의미이고, “식”은 변별하다 또는 식별하다는 뜻이며, “궁상”은 중국 음악의 5음계인 궁(宮)과 상(商)·각(角)·치(徵)·우(羽) 가운데 두 음계를 가리키는데, 이곳에서는 음악적인 것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천성적으로 궁과 상의 음조를 변별하다는 의미이다.

56) 식청탁(識淸濁): “청탁”은 중국어발전사에서 중고(中古)시기에 출현한 일종의 구별 특징인데, 발음할 때 성대와 발음체가 함께 진동하는 자음은 탁음이고, 반대로 성대와 발음체가 진동하지 않는 자음은 청음이다. 사실 이곳에서의 “청탁”은 음악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구절은 청음과 탁음을 식별한다는 의미이다.

57) 다부전료차치(多不全是此處): “요”는 이해하다 또는 알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대부분은 완전히 이것들을 이해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다.

58) 종유회차자(縱有會此者): “종”은 양보를 의미하는 설령 ~이더라도라는 뜻이고, “회”는 알다 또는 이해하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설령 이것들을 이해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라는 말이다.

59) 언지개유실증(言之皆有實證): “실증”은 사실에 근거하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범엽 자신이 그것 즉 궁상과 청탁을 말한 것은 모두 사실에 의거한 것이 있다는 말이다.

其分⁶⁰), 手筆差易⁶¹), 文不拘韻故也⁶²). 吾思乃無定方⁶³), 特能濟難適輕重⁶⁴), 所稟之分猶當未盡⁶⁵). 但多公家之言⁶⁶), 少於事外遠致⁶⁷), 以此爲

- 60) 연소중사장최유기분(年少中謝莊最有其分): “연소”는 나이가 어린사람을 가리키고, “사장(421~466)”은 남조 송나라의 시인이자 변문가(駢文家)로 자는 희일(希逸)인데 진군양하(陳郡陽夏) 오늘날의 하남성 태강(太康)현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일곱 살 때 이미 문장을 잘 지었다고 한다. 벼슬은 광록대부(光祿大夫)에 까지 올랐는데 36세에 죽었다. 시부를 잘 지었고, 지은 작품의 격조가 청아(清雅)하고 세속을 초월하였다. 《송서》권85와 《남사》권20에 그의 열전이 전한다. “최유기분”은 공상과 청탁을 식별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의미이다. 종영(鍾嶸)은 《시품서》에서 “제(齊)나라의 문인 왕용이란 사람이 일찍이 나에게 일러 ‘5음계는 천지와 함께 생겨났지만, 자고이래로 시인들은 그것의 운용을 알지 못하였다. 오로지 안연년만 이에 『율려음조』를 말하였지만, 그도 사실은 커다란 오류를 범하였다. 다만 범엽과 사장 두 사람만이 그 방면에 상당한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齊有王元長者, 常謂余云: 宮、商與二儀俱生, 自古詞人不知之, 惟顏憲子乃云: ‘律呂音調’, 而其實大謬. 唯見范曄、謝莊頗識之耳.)”고 하였다. 이 구절은 나이가 어린사람들 가운데는 사장이 저 공상과 청탁의 식별에 가장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말이다.
- 61) 수필차이(手筆差易): “수필”이 이곳에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응용문장으로 압운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남북조시기부터 처음으로 “문(文)”과 “필(筆)”의 구분이 있었는데, 문학범주안의 작품 가운데 운(韻)이 있는 작품을 “문”이라고 하고, 운이 없는 작품을 “필”이라고 했다. 이곳에서의 “수필”은 아마도 운이 없는 변산문(駢散文)이나 공문(公文) 같은 것이다. 이 부분이 《남사(南史)》권33 〈열전제23·범엽열전〉에는 “운을 사용하지 않은 공문을 짓는 것이 대략 운을 사용하는 문(文)보다 쉬운 것은 운율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手筆差易於文, 不拘韻故也.)”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연수(李延壽)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고쳐서 서술하였을 것이다. “차”는 비교적 또는 대략이라는 의미이고, “차이”는 비교적 쉽다 또는 융통성 있게 서술하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문장에 운을 사용하지 않은 작품이 다소 쉽다 또는 운을 사용하지 않은 문장을 융통성 있게 서술하였다는 말이다.
- 62) 문불구운고야(文不拘韻故也): 그의 문장은 공상이나 청탁 같은 성물에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 63) 오사내무정방(吾思乃無定方): 내가 글을 짓기 위해 구상할 때는 이에 이미 정해진 방향이나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 64) 특능제난적경중(特能濟難適輕重): “특”은 다만이나 단지라는 의미이고, “제난”은 어려운 것을 구제하다는 뜻이다. “적”은 적합하게 하다 또는 배합시키다는 것이고 “경중”은 가볍고 무거운 것을 가리키는데, 글자의 둔좌(頓挫)와 억양(抑揚), 고저의 변화 같은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마야도 남조의 제량기간에 활동했던 심약(沈約)이 《송서》〈사령운전론(謝靈運傳論)〉에서 말한 “평성과 측성이 서로 바뀌어 지고, 고저의 소리가 서로 조절되도록 하려면, 만약 앞의 한자가 평성이면 뒤의 한자는 반드시 측성이 되어야한다. 한 구절

恨⁶⁸), 亦由無意於文名故也⁶⁹).

[4]

공과 상 같은 음조를 변별하고 청음과 탁음을 식별하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이다. 그러나 고급의 문인들을 관찰해보면 대부분은 이것들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고, 설령 이것들을 좀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근원적으로 이해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그것에 대해 말한 것은 모두 사실에 의거한 것이지, 헛되이 한 말이 아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가운데는 사장(謝莊)이 저 공상과 청탁의 식별에 가장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데, 운을 사용하지 않은 공문(公文)을 짓는 것이 대체적으로 운을 사용하는 문(文)보다 쉬운 것은 운율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글 지을 때 사고(思考)에는 고정된 방향이나 방법이 없고, 다만 잘못 놓은 자구들을 고치고 성음(聲音)의 가볍고 무거운

안에서도 성운이 다르며, 두 구절가운데도 고저의 차이가 있다. 정교하게 이 이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그와 더불어 시문의 성률미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欲使宮羽相變, 低昂互節, 若前有浮聲, 則後須切響. 一簡之內, 音韻盡殊; 兩句之中, 輕重悉異. 妙達此旨, 始可言文.)”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이 구절은 다만 잘못 놓은 자구(字句)들을 고치고 성음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안배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 65) 소품지분유당미진(所稟之分猶當未盡): “품”은 받다 또는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범엽 자신에게 품부된 천부적인 재능은 응당 아직까지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 66) 단다공가지언(但多公家之言): “공가”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운에 얽매이지 않는 주소(奏疏)나 서표(書表)·책론(策論) 같은 변산문(駢散文)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범엽 자신이 평소에 짓는 대부분의 문장은 단지 공문 종류의 것이었다는 말이다.
- 67) 소어사외원치(少於事外遠致): 앞에서 언급한 “公家之言”이외의 순수문학작품을 가리키고, “치”는 정취(情趣)를 의미한다. 속세를 초탈한 고원한 정취의 순수문학작품은 적게 짓는다는 말이다.
- 68) 이차위한(以此爲恨): “한”은 유감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범엽 자신이 음악적인 방면에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감스러워 한다는 말이다.
- 69) 역유무의어문명고야(亦由無意於文名故也): “문명”은 글의 명성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또한 글의 명성을 널리 취하려는 의미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것을 안배시킬 수 있을 뿐, 아직까지 이 부분에 품부된 나의 천부적인 재능을 응당 다하지는 못했다. 내가 평소에 짓는 대부분의 문장은 단지 공문류의 것이었고, 속세를 초탈한 고원한 정취의 순수문학작품은 적게 지어서, 그것-즉, 음악적인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없었던 것-도 유감으로 여긴 것은 이것 또한 의도적으로 글의 명성을 널리 취하려는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5]

本末關史書⁷⁰), 政恒覺其不可解耳⁷¹). 既造《後漢》⁷²), 轉得統緒⁷³). 詳觀古今著述及評論, 殆少可意者⁷⁴). 班氏最有高名⁷⁵), 既任情無例⁷⁶), 不可甲乙辨⁷⁷). 後贊於理近無所得⁷⁸), 唯志可推耳⁷⁹). 博瞻不可及之⁸⁰), 整理未

70) 본미관사서(本末關史書): “관”은 관심을 갖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나는 본래 역사서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는 말이다.

71) 정항각기불가해이(政恒覺其不可解耳): “정”은 “정(正)”의 의미로 사용되어 바로라는 뜻이고, “항”은 늘이나 평소에라는 의미이며, “각”은 느끼다 또는 생각하다는 뜻이고, “해”는 이해하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바로 저 깊고 어려운 사서의 체계를 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72) 기초《후한》(既造《後漢》): “조”는 편찬하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이미 《후한서》를 편찬했다는 의미이다.

73) 전득통서(轉得統緒): “전”은 점차나 진일보하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통서”는 두서나 실마리를 틀어쥐다 또는 두서나 실마리를 파악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점차 실마리를 파악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74) 태소가의자(殆少可意者): “태”는 거의라는 의미이고, “가의”는 찬동하거나 합의(合意)·만족할만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 구절은 만족할만한 것은 거의 적었다는 말이다.

75) 반씨최유고명(班氏最有高名): “반씨”는 동한의 반고(班固)를 가리키고, “고명”은 높은 명성이나 성대한 명성을 뜻한다. 이 구절은 반고의 《한서》가 가장 성대한 명성을 누렸다는 말이다.

76) 기임정무례(既任情無例): “임정”은 자신의 재주나 성정에 따르는 것을 가리키고, “무례”는 조례(條例)나 체례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이미 반고는 《한서》를 저술할 때 자신의 재주나 성정에 따랐으므로 조례가 없다는 말이다.

77) 불가갑을변(不可甲乙辨): “갑을변”은 일일이 따지고 반박하다 또는 갑과 을로 분명하게 변별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즉 조리(條理)를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78) 후찬어리근무소득(後贊於理近無所得): “찬”은 《한서》열전 뒷부분의 찬어

必愧⁸¹). 吾雜傳論⁸², 皆有精意深旨⁸³; 既有裁味⁸⁴, 故約其詞句⁸⁵. 至於 <循吏> 以下及 <六夷> 諸序論⁸⁶, 筆勢放縱⁸⁷, 實天下之奇作⁸⁸. 其中合者⁸⁹, 往往不減 <過秦> 篇⁹⁰. 嘗共比方班氏所作, 非但不愧之而已. 欲遍

(贊語)를 가리키고 “근”은 거의라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열전 뒷부분의 찬어에서 사리를 분석하는 면은 거의 취할 만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79) 유지가추이(唯志可推耳): “지”는 《한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식화지(食貨志)>와 <지리지(地理志)>·<오행지(五行志)>·<천문지(天文志)> 등의 열 가지 지를 가리킨다. “추”는 칭찬하다 또는 미루어 받들만하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오로지 지(志)부분만 미루어 받들만하였다는 말이다.

80) 박섭불가급지(博瞻不可及之): “박섭”은 광범위하면서도 풍부한 것을 의미하고, “지”는 《한서》를 가리킨다. 이 구절은 범엽의 《후한서》가 광범위하면서도 풍부한 것은 《한서》에 미칠 수 없다는 말이다.

81) 정리미필괴(整理未必愧): “정리”는 《후한서》를 편찬할 때 사료(史料)에 대한 처리나 편찬방법 및 체제적인 부분에서의 독창성을 가리키는데, 간단하게 조직의 안배를 의미하기도 한다. “괴”는 부끄럽다 또는 손색(遜色)이 없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범엽의 《후한서》를 편찬할 때 사료에 대한 처리나 편찬방법 및 체제적인 부분에서의 독창성은 《한서》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다는 말이다.

82) 오잡전론(吾雜傳論): “전론”은 《후한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당고(黨錮)>와 <유림(儒林)> 전 등에 대한 평론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범엽이 《후한서》중의 “전론”에 대한 자평을 겸손히 일컬은 말이다. 즉 나의 잡다한 전론부분이라는 의미이다.

83) 개유정의심지(皆有精意深旨): 모두 정확하면서도 깊은 내용이 들어 있다는 말이다.

84) 기유재미(既有裁味): “재미”는 판단해서 마름질한 맛인데, 구체적으로는 범엽이 “전론”부분에서 평론한 일에는 각기 자신의 판단과 스스로 깨달은 것이 들어있다는 의미이다.

85) 고약기사구(故約其詞句): 그러므로 그 문사와 구절은 간략하다는 말이다.

86) 지어 <순리> 이하급 <육이> 체서론(至於 <循吏> 以下及 <六夷> 諸序論): 이 부분은 범엽이 《후한서》의 “서론(序論)”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인데, 《후한서》의 <순리열전>에서 <오환선비열전(烏桓鮮卑列傳)>까지는 열전마다 앞부분에는 모두 서론이 있음을 가리킨다. “<육이>”는 《후한서》에 실려 있는 <동이(東夷)열전>과 <남만서남이(南蠻西南夷)열전>·<서강(西羌)열전>·<서역(西域)열전>·<남흉노(南匈奴)열전>·<오환선비열전(烏桓鮮卑列傳)> 등 여섯 열전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범엽이 <순리> 이하의 편장과 <육이> 등의 여러 서론에서 당시 시사적인 잘못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의론한 것도 결코 결핍되지 않았고, 범엽 자신이 자부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근거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87) 필세방종(筆勢放縱): 필력이 종횡으로 내달리다는 의미이다.

88) 실천하지기작(實天下之奇作): 진실로 천하의 빼어난 작품이라는 의미이다.

作諸志⁹¹), 《前漢》所有者悉令備⁹²). 雖事不必多, 且使見文得盡⁹³). 又欲因事就卷內發論⁹⁴), 以正一代得失⁹⁵), 意復未果⁹⁶). 贊自是吾文之傑思⁹⁷), 殆無一字空設, 奇變不窮, 同合異體⁹⁸), 乃自不知所以稱之. 此書行⁹⁹), 故應有賞音者.¹⁰⁰ 紀、傳例爲舉其大略耳¹⁰¹), 諸細意甚多¹⁰²). 自古體大而思精¹⁰³), 未有此也¹⁰⁴). 恐世人不能盡之¹⁰⁵), 多貴古賤今¹⁰⁶), 所以稱情狂

-
- 89) 기중합자(其中合者): “중합”은 시대적 병폐를 정확히 지적한 부분 또는 만족하다는 의미이다.
- 90) 왕왕불멸 〈과진〉 편(往往不滅 〈過秦〉 篇): “불멸”은 손색이 없다는 의미이고, “〈과진〉”은 서한의 걸출한 정론(政論)가이자 사부(辭賦)가인 가의(賈誼)의 대표작인 〈과진론〉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흔히 가의의 〈과진론〉 같은 문장에도 손색이 없다는 말이다.
- 91) 욕편작제지(欲遍作諸志): 범엽의 원래 의도는 두루 여러 지를 짓고자 했다는 말이다.
- 92) 《전한》소유자실령비(《前漢》所有者悉令備): “《전한》”은 반고의 《한서》를 가리킨다. 이 구절은 《한서》에 있는 지(志)들이 모두 갖추어졌다는 말이다.
- 93) 차사견문득진(且使見文得盡): 또 사람들에게 문장을 본 후에는 전반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였다는 말이다.
- 94) 우욕인사취권내발론(又欲因事就卷內發論): 또 일을 평론할 때는 문장안에서 의론을 발표하려고 하였다는 말이다.
- 95) 이정일대득실(以正一代得失): 한 시대의 득실을 바로잡으려고 하였다는 말이다.
- 96) 의부미과(意復未果): 앞의 바람과 의도대로 다 실현하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 97) 찬자시오문지결사(贊自是吾文之傑思): 범엽 스스로 《후한서》의 찬에 대한 자평과 자부심을 드러낸 말이다. “결사”는 걸출한 사상과 견해라는 의미이다. 즉 찬의 글은 걸출한 구상을 통해 나온 결과라는 말이다. 이 구절은 《후한서》의 찬은 본래 나의 문장 가운데 가장 걸출한 사상이 깃들어있다는 말이다.
- 98) 동합이체(同合異體): “체”는 표현 형식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각종 체례의 작법을 종합했다는 말이다.
- 99) 행(行): 세상에 널리 전해지다는 의미이다.
- 100) 상음자(賞音者): 직역하면 소리를 감상하는 사람 또는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지음(知音)”을 가리킨다.
- 101) 기, 전례위거기대략이(紀、傳例爲舉其大略耳): 기와 전의 사례들은 그 대략만을 언급하였다는 말이다.
- 102) 제세의심다(諸細意甚多): 문장 가운데 여러 세미(細微)한 뜻들은 매우 많다는 말이다.
- 103) 체대이사정(體大而思精): 규모가 방대하면서도 작가의 사고는 정심(精深)

言耳¹⁰⁷⁾.

[5]

내가 본래 역사서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던 것은 바로 저 깊고 어려운 사서의 체례를 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한서》를 편찬 한 후에야 비로소 점차 저 실마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고금의 저술들과 평론한 것을 상세히 관찰해보니 만족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반고의 《한서》가 가장 성대한 명성을 누리지만, 자신의 재주나 성정에 따랐으므로 조례가 없어서 갑과 을로 분명하게 변별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열전 뒷부분의 찬어(贊語)에서 사리를 분석한 것은 거의 취할 만한 것이 없고, 오로지 지(志)부분만 미루어 받들만하였다. 나의 《후한서》가 광범위하면서도 풍부한 것은 《한서》에 미칠 수 없지만, 사료(史料)에 대한 처리나 편찬방법 및 체례적인 부분에서의 독창성만은 《한서》에 비교해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잡다한 전론(傳論)부분은 모두 정확하면서도 깊은 내용이 들어 있다. 전론부분에서 평론한 일에는 각기 자신의 판단과 스스로 깨달은 것이 들어있으므로 그 문사와 구절은 간략하다. <순리열전> 이하의 편장과 <육이열전> 등의 여러 서론은 필력이 종횡으로 내달려서 진실로 천하의 빼어난 작품들이다. 그 가운데 가장 만족스런 부분은 흔히 가의

하다는 말이다.

104) 미유차야(未有此也): “차”는 범엽 자신의 저작인 《후한서》를 가리킨다. 이 구절은 아직까지 자신의 저작인 《후한서》와 같은 것은 없다는 말이다.

105) 공세인불능진지(恐世人不能盡之): “공”은 두렵다 또는 걱정스럽다는 의미이고, “진지”는 자신의 저작인 《후한서》 전체를 이해하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인 《후한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할까 두렵다는 말이다.

106) 다귀고천금(多貴古賤今): 범엽 당시의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풍조가 대부분 옛것을 귀히 여기고 그 당시 것은 천히 여겼다는 말이다.

107) 소이칭정광언이(所以稱情狂言耳): “칭”은 칭찬하다는 의미이고, “정”은 “임정(任情)”의 뜻으로 자신의 성정에 맡겨서라는 것이며, “광언”은 분별없는 말로 또는 용기를 내어 거리낌 없는 말로라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범엽 자신은 (자신의 저작인 《후한서》에 대해) 자신의 성정에 맡겨 분별없는 말로 칭찬하였다는 말이다.

의 〈과진론〉 같은 문장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후한서》와 반고의 《한서》를 비교해 보았는데, 결코 그것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원래는 두루 여러 지(志)들을 지으려고 했으나, 《한서》에 있는 지(志)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비록 문장에 사건을 기술한 것이 반드시 많을 필요는 없겠지만, 사람들에게 문장을 본 후에는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건을 기술한 것은 문장에서 의론을 발표하여 한 시대의 득실을 바로잡으려고 하였으나, 의도대로 다 처리하지는 못한 것 같다. 《후한서》의 찬(贊)은 본래 나의 문장 가운데 가장 걸출한 사상이 깃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단 한글자라도 헛되이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글을 지을 때의 변화는 무궁한데, 각종 체례와 작법을 종합하였으므로 이에 스스로도 그것을 응당 어떻게 일컬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책이 널리 세상에 전해진 후에는 장차 응당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기와 전의 사례들은 그 대략만을 언급하였으므로 문장 가운데 여러 세미(細微)한 뜻들은 매우 많을 것이다. 이 책은 규모가 방대하면서도 사고는 정심(精深)하여 자고 이래의 역사서적들 가운데 아직까지 《후한서》와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저 《후한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할까 두렵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옛것을 귀히 여기고 그 당시 것은 천히 여기므로 나의 성정에 맡겨 분별없는 말로 칭찬하였다.

[6]

吾於音樂，聽功不及自揮¹⁰⁸，但所精非雅聲¹⁰⁹，爲可恨。然至於一絕處¹¹⁰，亦復何異邪¹¹¹? 其中體趣¹¹²，言之不盡，弦外之意，虛響之音¹¹³，

108) 청공불급자휘(聽功不及自揮): “청공”은 다른 사람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는 능력을 가리키고, “자휘”는 본인이 직접 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절은 다른 사람들이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이 자신이 직접 연주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109) 단소정비아성(但所精非雅聲): “정”은 정통하다는 의미이고, “아성”은 조정에서 사용하는 전아(典雅)한 곡조를 가리킨다. 이 구절은 다만 정통한 것은 전아한 곡조가 아니라는 말이다.

110) 연지어일절처(然至於一絕處): “절처”는 절묘(絶妙)한 곳 또는 (아성(雅聲))

不知所從而來. 雖少許處, 旨態無極¹¹⁴). 亦嘗以授人¹¹⁵), 士庶者中未有一豪似者¹¹⁶). 此永不傳矣!

[6]

나는 음악에 대해 듣는 능력이 직접 연주하는 것만 못하는데, 정통한 것도 아악이 아니어서 유감스럽다. 그러나 하나의 절묘한 곳에 이르면 또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가 금(琴)을 탈 때 그 중의 의미심장한 풍격이나 정취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현 바깥의 뜻과 울림 바깥의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겠다. 비록 단지 몇 글자에 불과하지만, 주

이 아닌) 음악의 최고 경계라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그러나 하나의 절묘한 곳에 이르면이라는 뜻이다.

111) 역부하이야(亦復何異邪): 또다시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의미이다. 즉, 아성과 범엽 자신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112) 기중체취(其中體趣): “체취”는 음악 중의 풍격과 정취 또는 주지(主旨)를 가리킨다. 즉, 범엽이 금(琴)을 탈 때, 그 중의 의미가 심장(深長)한 풍격과 정취를 가리킨다.

113) 언지부진, 현외지의, 허향지음(言之不盡, 弦外之意, 虛響之音): “언지부진”은 그것을 말해도 다하지 못하다는 의미이고, “현외지의”는 현 밖의 의미를 가리키며, “허향지음”은 “향외지음(響外之音)”과 같은 뜻이다. 이 세 가지는 상황과 경우가 다를 뿐 나타내는 의미는 동일한 것이다. 즉 말속에 품고 있는 깊은 뜻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한다. 그러므로 시가나 문학 작품에서 응당 강구해야 하는 것이 “언외지의(言外之意)”이고, 음악에서는 “현외지(弦外之旨)”를 강구하며, 회화(繪畫)에서는 “필외지취(筆外之趣)”를 추구해야 격조와 품위 및 수준이 높은 것이 된다. 이러한 미학관념은 같은 의미로 통용하면서 즉, “텅 빈 것에서 짝 찬 것을 볼 것(虛中見實)”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는 신기(神氣)나 풍골(風骨), 풍력(風力)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구절은 그것을 말해도 다하지 못한 듯 여운이 남고, 현 밖의 의미가 있으며, 울림 밖의 소리가 있다는 말이다.

114) 수소허처, 지태무극(雖少許處, 旨態無極): 앞 구절의 “언지부진, 현외지의, 허향지음”은 비록 단지 몇 글자에 불과하지만, 주된 취지를 다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또는 주된 취지는 다함이 없다는 말이다.

115) 역상이수인(亦嘗以授人): 나 또한 일찍이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말이다.

116) 사서자중미유일호사자(士庶者中未有一豪似者): “사서”는 지식인 선비와 일반 평민을 가리키고, “호(豪)”는 “호(毫)”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호사”는 조금이라도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지식인과 일반 평민들 가운데 나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다.

된 취지는 다함이 없다. 나 또한 일찍이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었는데, 지식인과 일반 평민들 가운데 나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 방면도 영원히 전할 수 없는 것이다.

[7]

吾書雖小小有意¹¹⁷), 筆勢不快¹¹⁸). 餘竟不成就¹¹⁹), 每愧此名.

[7]

나의 서예는 비록 작디작은 의미가 있지만, 필세가 시원시원하지 못하다. 나머지 방면은 결국 무슨 성취도 없어서 늘 나의 명성에 부끄러울 따름이다.

3. 나오면서

감옥에서 범엽은 〈옥중에서 여러 조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자신이 문학과 사학·음악·서예에 대해 연구하며 깨달은 것을 총 정리하였다. 머지않아 세상과 이별을 고하려는 시점에 그는 장래의 언젠가 자신을 알바보고 인정해줄 지음(知音)이 있어 《후한서》의 가치를 이해해주기를 바랐다. 범엽은 일생의 심혈을 기울여 편찬한 사학저서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정확하면서도 깊은 내용이 들어있고(精意深旨)”, 자고이래로 “규모가 방대하면서도 작가의 사고는 정밀하고 깊은(體大而思精)” 작품은 존재해본 적이 없었으며, 여러 서와 논찬부분은 더욱이 “천하의 빼어난 작품(天下之奇作)”이기 때문에, 반고의 《한서》와 비교해보더라도 조금도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범엽은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옛것을 귀히 여기고 오늘날의 것은

117) 오서수소소유의(吾書雖小小有意): “서”는 서예(書藝)를 가리킨다. 이 구절은 나의 서예도 비록 작디작지만 의미가 있다는 의미이다.

118) 필세불쾌(筆勢不快): 필세가 시원시원하지 않다는 말이다.

119) 여경불성취(餘竟不成就): 나머지 방면은 결국 성취도 없다는 의미이다.

천시하기(貴古賤今)하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저작인 《후한서》에 대해) 자신의 성정에 맡겨 분별없는 말로 칭찬하였다(稱情狂言)”고 하여 사람들이 《후한서》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하였다. 범엽의 자부심과 자량이 비록 좀 지나친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의 저작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을 뛰어넘은 부분이 있다. 양(梁)나라 유소(劉昭)는 《후한서주보지서(後漢書注補志序)》에서 “범엽의 《후한서》는 진실로 못 사람들을 뛰어넘었다.(范曄後漢, 誠跨衆氏)”고 하였다. 당(唐)나라 유지기(劉知幾)는 《사통(史通)》 〈보주(補注)〉 편에서 “물래 범엽이 삭제하고 엮은 《후한서》를 보니, 간결하면서도 주도면밀하고 소략하면서도 빠뜨리지 않은 특징을 대체로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竊惟范曄之刪《後漢》也, 簡而且周, 疏而不漏, 蓋云備矣.)”고 하였고, 〈서사(書事)〉 편에서도 “범엽은 널리 못 서적들을 채록하고 소재를 취사선택하여 《후한서》를 완성했는데, 자못 신기하고 정세(精細)한 곳이 있다.(范曄博采衆書, 裁成漢典, 觀其所取, 頗有奇工)”고 하였다.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 에 의하면 범엽이 《후한서》를 짓기 이전에 동한의 역사를 기술한 저작은 10부에 800여권이 있었다. 그러나 범엽의 《후한서》가 출현하자 여러 사람들의 《후한서》는 날로 소실되고 점차 산실(散失)되었다. 후에 진(晉)나라 사람 원굉(袁宏)의 《후한기(後漢紀)》가 보존되어 전해오는 것 외에 나머지 못 서적들은 모두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범엽의 《후한서》가 비록 늦게 출현하기는 했지만, 후대에 와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후한서》의 기(紀)와 전(傳)부분은 당나라 고종(高宗)의 태자 이현(李賢)이 주석을 달기도 했다. 사마표(司馬彪)의 지(志)에 주석을 단 사람은 남조 양나라 유소(劉昭)인데, 유소의 주석은 원래 범엽의 전체 책과 사마표의 지를 다 포함한 것이다. 이현의 주석은 앞선 여러 학자들의 주석을 기초로 삼고, 기타 여러 서적을 참조해서 엮은 것이다.

범엽은 저명한 사학가로서 사마천과 반고의 작품 및 자신의 《후한서》에 대해 자못 식견(識見)있는 평론을 하였다. 그는 또 음악과 서예에 정통한 문학가이기 때문에 《송서(宋書)》 권69 〈열전제29·범엽열전〉 에

서는 “비파를 잘 탈 수 있었고, 새로운 곡도 잘 지었다.(善彈琵琶, 能爲新聲)”고 하였다. 그는 스스로 “나는 음악에 대해 듣는 능력이 직접 연주하는 것만 못한데, 정통한 것도 아악이 아니다.(吾於音樂, 聽功不及自揮. 但所精非雅聲)”고 하였다. 그는 스스로 음악연주의 실천과 경험을 통해 “그 중의 의미 심장(深長)한 풍격과 정취를(其中體趣)” 깊이 터득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도 다하지 못한 듯 여운이 남고, 현 밖의 의미가 있으며, 울림 밖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言之不盡, 絃外之意, 虛響之音)”고 하여 음악창작과 연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그의 문학 주장에도 일관되어, 문학창작은 “응당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주로 삼아야 하고, 문장으로는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當以意爲主, 以文傳意)”고 여겼고, 표현은 응당 함축적이어야 하므로 여운은 남겨야겠지만, “사물을 펼쳐놓고 묘사한 것만 다하고, 정감의 표현에만 신경 써느라 문장의 아름다운 수식은 소홀히 해서(事盡於形, 情急於藻)” 안된다고 하였다. 그는 아울러 문학창작에서 범하기 쉬운 폐단 가운데 “전고의 의미가 작가가 의도하고 나타내려는 주제를 이끌어가고, 운(韻)이 그 원래의 작가 의도를 바꾸는 것(義牽其旨, 韻移其意)”에 대해서는 꾸짖었다. 즉, 운율을 추구하고 전고를 운용하기 위해 내용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응당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주로 삼는다.(以意爲主)”는 원칙아래 문장의 외형적인 수식과 운율미를 강구해야 “문장으로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전달하면 문장의 언어가 공허함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렇게 한 후에야 비로소 저 향기로운 향기를 뿜어내게 되고, 저 종이나 경쇠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나게 되는 것(以文傳意, 則其詞不流. 然後抽其芬芳, 振其金石耳)”이라고 여겼다.

시의 음절과 운율미는 시의 형식미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의 고대시인들과 사상가들은 시의 음악성과 운율미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는 중에 자각하게 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범엽이 바로 이 두 단계의 교차점에 처한 인물이다. 사실 일부 학자들이 아직도 인정하지 않기는 하지만, 시의 언어는 음절과 운율미를 따른다는 각도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은 한대 부(賦)작가 사마상여

(司馬相如)이다. 그는 친구인 성람(盛孳)에게 부를 짓는 것에 대해 답변하면서 “잡다한 색깔의 비단 띠를 합쳐서 무늬를 만들고, 비단에 놓은 수를 배열해서 마름질하여 내용을 만든다. 세로로 짜고 가로로 짜고, 밝은 소리를 내고 탁한 소리를 낸다. 이것이 부의 자취이다.(合綦組以成文, 列錦綉而爲質, 一經一緯, 一宮一商, 此賦之迹也)¹²⁰⁾”고 하였다. 사마상여는 부의 언어는 다른 성조를 교차시켜서 지어야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미가 있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후에 서진(西晉)의 육기(陸機)도 <문부(文賦)>에서 “문장의 수식은 아름답고 성대하여 다 볼 수 없고, 소리와 운치는 맑고 깨끗하여 귀에 한없이 가득 찬다.(文徽徽以溢目, 音泠泠而盈耳)”고 하여, 시부(詩賦)의 작품은 “문사를 기탁한 것이나 문사를 운용하는 것이 나약하고 힘이 결핍되어서는(寄辭於瘠音)” 안 되고, 응당 음절은 우렁차고 성조가 다른 것을 서로 교차시켜 변화무쌍하도록 하며, 오색(五色)을 잘 배합시켜 운용하여 색채가 더욱 선명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시문(詩文)에 사용하는 글자의 성음(聲音)이 서로 번갈아가며 교차되는 것이 다양하고 변화가 풍부하여, 마치 다섯 가지 색깔이 서로 밝히 드러낸 것과 같다.(暨音聲之疊代, 若五色之相宣)”고 하였다. 사마상어나 육기는 자음(字音)의 성조에 구별이 있다는 것은 느껴서, 그것이 그러한 것은 알았지만 그러한 까닭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음악의 “궁상”같은 개념으로 두리朦朧하게 비교만 할 수 밖에 없었다. 범엽은 저들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궁상”과 “금석(金石)”의 음악개념을 차용하였고, 문자의 성조방면에서는 “청”과 “탁”의 성률개념을 제기하였다. “궁과 상 같은 음조를 변별하고 청음과 탁음을 식별하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이다.(性別宮商, 識清濁, 斯自然也.)”고 하였는데, 이곳에서 말하는 “청탁”은 이미 조비(曹丕)가 <전론(典論)> <논문(論文)>에서 “재기(氣)의 청탁(淸濁)은 타고남이 있다.(氣之淸濁有體)”고 한 의미가 아니고, 음악에서 “궁상”을 구별하는 음조와 비슷한 문자적인 성조의 구별이다. 범엽은 “나이가 어린사람들 가운데는 사장

120) 이 문장은 갈홍(葛洪)이 지은 <서경잡기(西京雜記)>권2 <백일성부(百日成賦)> 조목(條目)에 보인다.

(謝莊)이 저 궁상과 청탁의 식별에 가장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年少中謝莊最有其分)”고 칭찬하였는데, 이것은 곧 시의 성운과 운율미의 오묘함을 이해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편조금강(遍照金剛)의 《문경비부론(文鏡秘府論)》〈서권(西卷)·문이십팔종병(文二十八種病)〉을 보면 “왕현모가 사장에게 ‘무엇을 쌍성이라고 하는가?’ ‘무엇을 첩운이라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사장이 대답하여 ‘현호’를 쌍성이라 하고, ‘확오’를 첩운이라 한다고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재주와 사고가 민첩하고 말을 잘한다고 일컬었다.(王玄謨問謝莊‘何者爲雙聲?’ ‘何者爲疊韻?’ 答云: ‘懸瓠’爲雙聲, ‘碯礫’爲疊韻. 時人稱其辨捷)”고 했다. 이것을 통해 사장은 이미 스스로 시구절의 “성(聲)”과 “운(韻)”의 구분에 대해 변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범엽은 그 스스로 시가의 성율미에 도달하는 근원적인 것을 알고 있다고 공언하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 말한 것은 모두 사실에 의거한 것이지, 헛되이 한 말이 아니다.(言之皆有實證, 非爲空談)”고 하였다. 종영(鍾嶸)은 《시품서》에서 제(齊)나라 왕융(王融)의 말을 인용하면서 범엽과 사장을 칭찬하였고, “그(즉, 범엽)는 늘 〈지음론〉을 지어서 진상(進上)하고 싶어 했지만,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常欲進《知音論》, 未就而卒)”고 했다. 안타깝게도 범엽은 저 〈지음론〉을 다 쓰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했다. 남조 제량(齊梁)기간의 심약(沈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율(聲律)이론의 진정한 자각단계에 진입하였다. 즉, 심약 등이 영명체(永明體)의 시와 성율론(聲律論)을 제기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범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범엽이 이 편지에서 주장하는 문학이론의 관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주로 삼는다.(以意爲主)”는 것인데, 이 주장은 당시 형식주의로 흘러가던 문단의 “문사의 외형적인 아름다운 것을 위주로 삼는다.(以辭爲主)”는 좋지 않았던 경향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제기했던 것이다. “(저 내용이 형식의 제약을 받아서) 사물을 펼쳐놓는 묘사만 다하고, 정감의 표현에만 신경 쓰느라 문장의 아름다운 수식은 소홀히 하며, (작가가 전고를 남용하므로) 전고의 의미가 작가가 의도하고 나타내려는 주제를 이끌어가고, 운(韻)이 그 원래의 작가 의도를

바꾸는 것이다.(事盡於形, 情急於藻, 義牽其旨, 韻移其意)”고 하였다. 즉, 형식주의자들은 문장을 구상할 때 오로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위주로 하였고, 전달하려는 정서와 주지(主旨)로 하여금 외형적인 수식과 성운에 이끌려가도록 하는 것이었으므로 흔히 문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표현하려는 내용을 조금의 애석함도 없이 바꾸었다. 범엽은 이러한 당시 경향에 대해 글을 지을 때는 “응당 문장은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주로 삼아야 하고, 문장으로는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주로 삼으면 작가가 전달하려는 주된 취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문장으로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전달하면 문장의 언어가 공허함에 이르지 않는다.(當以意爲主, 以文傳意. 以意爲主, 則其旨必見; 以文傳意, 則其詞不流)”고 하였다. 이곳에서 말하는 “의(意)”는 작가가 글을 짓기 전에 갖고 있었던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인데, 응당 작가가 표현하려던 객관사물과 주관적인 정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작품의 본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수식이나 성운(聲韻)같은 것은 표현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작가가 구상할 때는 이 “의”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해서 때로는 “의”를 위해 문사와 운율을 선택하고 안배하여 형식적인 부분은 결국 “의”를 위해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육기가 <문부>에서 “문장의 화려한 수식은 각기 그 재주를 드러내 보이고 그 기교를 나타내며, 의미는 핵심을 잘 파악하였으므로 마치 빼어난 장인과 같다.(辭程才以效伎, 意司契而爲匠)”고 한 것이다. 범엽의 이 주장은 문학의 구상(構想)적인 측면에서 문학의 작품과 내용의 관계를 생동적이면서 정곡을 찔러 설명한 것이다. 후에 유협(劉勰)이 《문심조룡(文心雕龍)》 <정채(情采)> 편에서 “사상과 정감을 위해 문장을 짓는다.(爲情造文)”는 것은 제창했으면서도 “문장을 위해 사상이나 정감을 날조해낸다.(爲文造情)”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바로 범엽의 이러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이처럼 범엽의 “문장은 내심의 생각이나 정감을 주로 삼아야 한다.(當文以意爲主)”는 관점은 후세에 끼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둘째, 문장의 성운(聲韻)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편지에서 범엽은 자신

의 음악재능과 악곡에 대한 정심(精深)한 감상능력을 언급하면서 “궁과 상 같은 음조를 변별하고 청음과 탁음을 식별하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이다.(性別宮商, 識清濁, 斯自然也.)”라고 하였다. 《송서》권69 〈열전 제29·범엽열전〉에서도 “비파를 잘 탈 수 있었고, 새로운 곡도 잘 지었다.(善彈琵琶, 能爲新聲)”고 하였다. 이렇게 음악에 정통했었기 때문에 그에게 시문의 음절과 성조미(聲調美)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는 내용을 표현할 때 성조와 운율의 중요한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자신의 작문이 성공을 거둔 까닭도 음운을 잘 안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겼다. 후에 서진의 육기도 〈문부〉에서 “문장의 수식은 아름답고 성대하여 다 볼 수 없고, 소리와 운치는 맑고 깨끗하여 귀에 한없이 가득 찬다.(文徽以溢目, 音泠泠而盈耳)”고 하여, 시부(詩賦)의 작품은 “문사를 기탁한 것이나 문사를 운용하는 것이 나약하고 힘이 결핍되어서는(寄辭於瘁音)” 안 되고, 응당 음절은 우렁차고 성조가 다른 것을 서로 교차시켜 변화무쌍하도록 하며, 오색(五色)을 잘 배합시켜 운용하여 색채가 더욱 선명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시문(詩文)에 사용하는 글자의 성음(聲音)이 서로 변갈아가며 교차되는 것이 다양하고 변화가 풍부하여, 마치 다섯 가지 색깔이 서로 밝히 드러낸 것과 같다.(暨音聲之疊代, 若五色之相宣)”고 하였다.

셋째, 갈홍(葛洪)¹²¹⁾보다 더 명확하게 “문필(文筆)”을 구분하였고, 무운(無韻)과 유운(有韻)으로 판별의 기준으로 삼았다. “운을 사용하지 않은 공문(公文)을 짓는 것이 대체적으로 운을 사용하는 문(文)보다 쉬운 것은 운율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手筆差易, 文不拘韻故也)”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수필(手筆)”은 공문(公文)류의 문장인 장(章)과 주(奏)·서(書)·표(表)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응용문장과 공문서는 성운에 구애를 받지 않는데, 범엽 자신도 이런 종류의 문장을 더 많이 지었다고 했다.

121) 갈홍은 《포박자의편(抱朴子外篇)》 〈자서(自敍)〉에서 “무릇 내편 20권과 외편 50권, 비(碑)와 송(頌)·시(詩)·부(賦) 100권, 군서(軍書)와 격이(檄移)·장표(章表)·전기(箋記) 30권(凡著內篇二十卷, 外篇五十卷, 碑、頌、詩、賦百卷, 軍書、檄移、章表、箋記三十卷)”으로 구분하여 이미 명확하게 “문필”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운이 있는 것과 운이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이것과 상반되는 “문”은 운의 구속을 받고 또 “속세를 초탈한 고원한 정취의 순수문학작품(事外遠致)”인 시부(詩賦)류의 작품이므로 사가(史家)의 문장과는 구별된다. 범엽은 스스로 사학자의 재주는 있지만, 문학가의 재주는 없으므로 “늘 글 짓는 선비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였다.(常耻作文士)”고 하였고, 또 “의도적으로 글의 명성을 널리 취하려는 이유가 없었다.(無意於文名)”고 하였다. 이것은 물론 범엽 스스로 겸손하게 한 말이지만, 그는 “문”과 “필”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드러내었고, 비록 “문”과 “필”의 구분이 결코 성율론(聲律論)의 건립을 위한 전제는 아닐지라도 “문필”설의 흥기는 확실히 성율의 중시와는 관련이 있는 것이다. 난이(難易)의 각도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그 스스로 “문(文)”을 중시하고 “필(筆)”을 경시하는 듯한 관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참고문헌]

- 司馬遷 著, 《史記》(北京: 中華書局, 1982)
班 固 著, 《漢書》(北京: 中華書局, 1982)
許嘉璐 主編, 《史記》, 《漢書》(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袁英光 主編, 《南朝五史辭典》(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5)
沈 約 著, 《宋書》(北京: 中華書局, 1982)
李延壽 著, 《南史》(北京: 中華書局, 1982)
魏 徵 著, 《隋書》(北京: 中華書局, 1982)
金毓黻 著, 《中國史學史》(北京: 商務印書館, 2003)
楊伯峻 著,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990년)
李 昉 著, 《太平御覽》(北京: 中華書局, 1993)
嚴可均 著,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北京: 中華書局, 1984)
劉 昭 著, 《後漢書注補志》(北京: 中華書局, 1984)
劉知幾 著, 《史通》(北京: 中華書局, 1984)
葛 洪 著, 《西京雜記》(貴陽: 貴州人民出版社, 2008)
葛 洪 著, 《抱朴子外篇》(貴陽: 貴州人民出版社, 2008)
遍照金剛 著, 《文鏡秘府論》(北京: 中華書局, 2011)

- 陳良運 主編,《中國歷代詩學論著選》(南昌:百花洲文藝出版社,1995)
- 霍松林 主編,《中國詩論史》上(合肥:黃山書社,2007)
- 陳伯海 外1人 主編,《中國詩學史》(廈門:鷺江出版社,2002)
- 蔡鍾翔 外2人 共著,《中國文學理論史》第1卷,(北京:北京出版社,1991)
- 陸 機 著,張少康 集釋,《文賦集釋》(北京:人民文學出版社,2007)
- 穆克宏 郭 丹 編著,《魏晉南北朝文論全編》(上海:上海遠東出版社,2012)
- 郁 沅 張明高 編選,《魏晉南北朝文論選》(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6)
- 李壯鷹 主編,《中華古文論釋林》(魏晉南北朝卷)(北京:北京大學出版社,2011)
- 鍾書林 著,《後漢書文學初探》(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10)
- 王達津 陳 洪 選注,《中國古典文論選》(沈陽:遼寧教育出版社,1989)
- 陳 洪 盧盛江 著,《中國古代文學理論讀本》(天津:南開大學出版社,2004)
- 陳 洪 外2人 共著,《中國古代文學理論讀本》(天津:南開大學出版社,2009)
- 黃 霖 蔣 凡 主編,《中國歷代文論選新編》(先秦至唐五代卷)(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7)
- 韓湖初 陳良運 主編,《古代文論名篇選讀》(北京:中國書籍出版社,2000)
- 劉 勰 著,范文瀾,《文心雕龍註》(北京:中華書局,1993)
- 鍾 嶸 著,徐 達 譯注,《詩品全譯》(修訂版)(貴陽:貴州人民出版社,2008)
- 陳良運 主編,《中國歷代詩學論著選》(南昌:百花洲文藝出版社,1995)
- 霍松林 主編,《中國詩論史》上(合肥:黃山書社,2007)
- 王金凌 著,《中國文學理論史》(臺北:華正書局,1987)
- 王運熙 楊 明 著,《魏晉南北朝文學批評史》(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0)

〈中文提要〉

范曄曾博采眾長,將當時的幾家後漢史書改寫為一家之作,完成《後漢書》的紀、傳共八十卷。他原有文集十卷,已散佚,現存文章有《獄中與諸甥侄書》。范曄謀反下獄,作書與甥侄輩,竟大談文章,亦可見著述一事在其心目中的位置。本稿就是對范曄《後漢書》《獄中與諸甥侄書》的文章加以注釋的。范曄在《獄中與諸甥侄書》中發表他對文學的見解。他重視音韻在詩歌中的運用,他說:“性別宮商,識清濁,斯自然也。”他認為通曉音韻

是自己掌握的一件秘宝, 他说: “观古今文人, 多不全了此处; 纵有会此者, 不必从根本中来。” 他是在陆机之后的又一位强调诗歌声韵的文论家, 他的意见促进人们对于文学声韵和诗歌韵律的探讨, 对于后来永明体诗和永明声律理论的产生, 起了推动作用。范曄论文章, 应注重思想内容, 不应过分注重藻饰, 他认为文章“当以意为主, 以文传意。以意为主, 则其旨必见; 以文传意, 则其词不流。” 范曄对晋宋文学中徒事藻绘的倾向不满, 批判追逐形似、以文害意的风气, 他指出: “文患其事尽於形, 情急於藻, 义牵其旨, 韵移其意。” 范曄以史家自命, 对文学有所轻视, 自称“无意于文名”, “耻作文士”。

关键词 : 范曄, 《後汉书》, 〈狱中与诸甥侄书〉, 文学见解, 重视音韵, 注重思想内容, 徒事藻绘不满, 译注

투 고 일 : 2014.2.20

심 사 일 : 2014.3.3~3.31

게재확정일 : 2014.4.20

《中國學》 발행 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지의 영문 명칭은 “Chinese Studies”, 한글 명칭은 “중국학”, 한자 명칭은 “中國學”으로 한다.

제2조 (발행처)

학술지의 발행처는 대한중국학회이며, 출판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제3조 (발행회수)

본 학회지의 발행회수는 년 3회로 한다.

제4조 (발행일정)

본 학회지의 발행은 년 3회 발행하되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한다.

1) 학술지 발행 시기: 학술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과 12월 31일, 3회 발간한다.

2) 원고 마감 시기: 4월 30일 발행분은 2월 28일, 8월 31일 발행분은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0월 30일을 원고 마감일로 한다. 단 우송된 원고는 우송일자 소인을 기준으로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 심사 절차 및 일정표

발행월	4월	8월	12월
원고마감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0일
편집위원회 개최 심사위원 선정 논문 및 심사표 발송 평가 의뢰	3월 10일	7월 10일	11월 10일

논문심사	3월 20일	7월 20일	11월 20일
논문심사 결과 취합 및 게재 여부 결정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결과 통보(게재여부 및 수정지시 통보)	4월 10일	8월 10일	12월 10일
원고 수정 및 반송	4월 17일	8월 17일	12월 17일
수정 원고 재심사	4월 20일	8월 20일	12월 20일
《중국학》 편집 및 인쇄	4월 27일	8월 27일	12월 27일
《중국학》 발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제5조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의 표기)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표기한다.

제6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심사, 게재 여부는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3. 인쇄 전 기타 제반업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시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논문의 게재 확정시 저자는 게재료 10만원(연구비 수혜논문은 2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학회는 출판 후 논문 1권과 별쇄본 20부를 저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단, 별쇄본의 추가인쇄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3.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서 논의하고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大韓中國學會 會則

第1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大韓中國學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第2條

本會의 本部는 會長所屬校內에 둔다.

第3條

本會는 中國學 관련 분야를 研究함으로써 韓國의 學術문화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活動을 한다.

- 1) 國內·國際學術會議 및 學術講演會 開催
- 2) 會誌 및 其他 出版物 發刊
- 3) 國內外 學術團體와의 學術 및 文化交流
- 4) 其他 必要한 事業

第2章 會 員

第5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으로 한다.

第6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資格을 가지고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자로서 正會員 2명 以上の 推薦으로 任員會의 承認을 얻어 定한다.

- 1) 正會員 : 大學 및 이와 同等한 教育機關에서 中國學 관련 講議를 맡고 있는 講師 以上の 사람,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갖춘 사람.
- 2) 準會員 : 大學院에서 中國學 관련 분야를 專攻하는 사람.
- 3) 名譽會員 :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사람.

4) 團體會員：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단체.

第7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1) 正會員은 總會에서의 議決權과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지며 本會의 活動을 위한 會費納付 및 會則을 遵守할 義務를 가진다.

2) 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은 本會가 主催하는 各種 行事に 參與할 수 있으며 準會員은 總會의 議決에 따른 所定の 會費納付 義務를 가진다.

第8條

本會에 加入한 會員은 本人의 事情에 따라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第3章 任 員

第9條

本會는 會長·副會長·運營委員·理事·監事 등의 任員을 두고, 顧問·名譽會長을 둘 수 있다.

第10條

任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단, 顧問과 名譽會長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第11條

會長 1명·副會長 약간 명·運營委員 약간 명·監事 2인은 總會에서 選出하며 理事 약간 명은 任員會의 認准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顧問·名譽會長의 경우는 會長이 추천하고 總會에서 추대한다.

第12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의 諸般業務를 統轄하고 總會 및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第13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 首席 副會長이 이를 代理한다.

第14條

運營委員은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이나 其他 重要な 會務를 協議하고 處理한다.

第15條

理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總務·學術·編輯·出版·研究·涉外·企劃 등 本會의 會務를 分擔하여 擔當한다.

第16條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監査한다.

第4章 會議

第17條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臨時總會·任員會·編輯委員會·研究倫理委員會로 하고 構成會員 1/3 以上の 出席으로 成立된다.

第18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은 경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 1) 定期總會: 每年 8월중
- 2) 臨時總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正會員 3분의 1 이상이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3) 任員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 任員會 任員은 會長·副會長·理事에 한하며 顧問·名譽會長 및 監事는 除外된다.

第19條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20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會長·副會長·運營委員·監事の 選出 및 顧問·名譽會長 추대
- 2) 豫算 및 決算
- 3) 會則改正
- 4) 事業計劃의 議決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1條

任員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總會에서 委任받은 本會의 運營 및 事業의 執行에 관한 事項
- 2) 會則改正案
- 3) 事業計劃案과 豫算決算案
- 4) 新入會員 審査 및 理事의 認准
-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2條

編輯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編輯을 주관하고 論文審査委員會를 委囑한다.

- 1) 編輯委員會는 會長이 任命한 中國學 關聯分野의 專門家 10명 전후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2)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會에서 선임하되, 編輯理事를 겸하며, 委員會의 當務를 主宰한다.
- 3) 編輯委員會에서 委囑하는 論文審査委員의 構成과 論文審査에 관한 細則은 別途로 定한다.

第23條

研究倫理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주관하고 필요시 調査委員會를 구성한다.

- 1) 研究倫理委員會는 研究理事, 編輯委員長, 學術理事를 포함한 5인 이상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2) 委員長은 會長이 임명하며, 研究理事를 겸한다.
- 3) 委員은 會長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기타 자세한 事項은 별도로 定된 研究倫理 규정에 따른다.

第5章 財 政

第24條

本會의 經費는 入會金·會費·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단, 入會金과 會費는 定期總會에서 決定한다.

第2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9월 1일부터 翌年 8월말일까지로 한다.

第6章 附 則

第26條

本會則의 改正은 總會에서 正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27條

本會則의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總會와 任員會에서 別途로 정한다.

第28條

本會는 本會則 第4條의 事業을 위하여 必要에 따라서 약간의 分科를 둘 수 있다.

第29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第30條

本會則은 通過日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제정 1984년 10월 23일

개정 2000년 2월 26일

개정 2001년 8월 20일

개정 2007년 11월 24일

개정 2009년 10월 31일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의 구성

회칙 제4장 제22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中國學》의 편집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위원의 선정 기준

가. 전국 각 대학 전임강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나. 연구 활동이 왕성하고 학문적 성취가 탁월한 자

4) 위원의 선정 절차

가. 편집위원은 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선정한다.
나. 전공,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의 인원을 추천받아 최종 10명 전후의 인원을 선정 위촉한다.
다. 최종 선정 위촉된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을 이사로 선임한다.

5) 위원의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개최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주재한다. 단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학술이사와 협조하여 당무를 주재한다.
나. 매호의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는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에,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에 개최한다.
다. 이후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행 준비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횟수로 소집 개최한다.

논문심사 규정

1) 심사의 취지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내외의 중국학 학술발전을 촉진한다.

2) 심사 시기

매년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편집회의를 거쳐 심사를 의뢰하여 3월 31일 심사를 마감하고,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 심사를 의뢰하여 7월 31일 심사 마감,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 심사를 의뢰하여 11월 30일에 심사를 마감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

- 가. 전국 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 나. 투고된 원고와 같은 분야에 관한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자가 있는 자

4)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 가. 선정 시기: 심사위원은 매호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에서 위 3)의 '심사위원 자격'에 의거 선정한다.
- 나. 심사위원의 수: 투고된 논문의 1편 당 심사위원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심사위원의 위촉: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지체없이 일정한 양식의 심사의뢰서와 심사서 양식 및 해당 논문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5)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편집위원장은 심사논문 발송 전 당해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각 항목, 예컨대 필자 성명, 소속,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줄고’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제거하여 필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6) 심사의 항목 및 배점

가. 심사항목은 ‘체제의 적합성’, ‘논리전개의 명확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 ‘학문적 기여도’의 5항목으로 한다.

나. 항목 당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다.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심사항목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라. 심사항목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7) 심사결과의 처리

가.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가 평균 80점 이상을 득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문서를 통해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라.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의견제시와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바. 투고자가 수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할 수 있다.

8)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가. 심사과정, 혹은 게재 이후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혐의가 있는 논문은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통보된 논문의 혐의점을 심사하여야 한다.
- 다.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확인되면 학회에서는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게재불가 혹은 게재취소의 판정을 내린 뒤 최소 3년 이상 논문발표 및 게재를 금지한다.
- 라.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9) 심사의 면제

학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저명 학자의 원고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외국인 초청학자의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0) 심사일정 명시

게재가 확정된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기재한다.

11)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논문심사세칙>에 따른다.

논문심사 세칙

대한중국학회 학술지 《中國學》의 논문심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중국학 전반과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2)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체재의 적합성(20%)
 - (2) 논리 전개의 명확성(20%)
 - (3) 내용의 독창성(20%)
 - (4)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20%)
 - (5)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20%)
- 3) 심사 결과는 (1) 게재 적합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부적합 등으로 나눈다.
- 4) 상기 3)항의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3)에 해당되는 논문은 차기 논문집의 심사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 5)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분야별·전공별로 학술 업적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6)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7)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 8)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두되, 3인 이상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한다.
- 9)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는 반드시 피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10)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
- 1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1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1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4) 편집위원회 혹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5) 본 학회에서 개최한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공개토론을 거친 완성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6) 원고 작성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필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 17) 원고 작성 요령은 별도의 투고규정을 참조한다.
- 18)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19) 이상의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논문투고 규정

1) 원고의 내용

중국학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과 번역, 서평 및 학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연구 자료를 게재한다. 이 중 논문은 학술적 가치를 갖는 내용과 학술논문의 체계를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하고, 번역은 중국학에 대한 고전적 저술 중 학술적 역주를 갖춘 글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사용언어

우리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타의 외국어로 된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3) 인용문

원전을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어의 인용문은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문에도 주석을 가한다.

4) 분량

논문은 당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편집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조판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5) 게재료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는 해당 학회지 약간 부와 추인본 약간 부를 증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사이버 논문 공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는 학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 혹은 관련 사이버 공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초록

논문은 중국어 또는 영어 초록(반쪽 분량)과 주제어(5개~10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심사절차 및 일정

- 가. 원고마감: 4월 30일 발행분은 2월 28일, 8월 31일 발행분은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0월 30일로 한다.
- 나. 심사의뢰: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 이전에 완료한다.
- 다. 심사기간: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2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2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20일 이전에 완료한다.
- 라. 게재결정: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31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31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30일로 한다.
- 마. 결과통보(수정지시):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1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10일로 한다.
- 바. 수정원고마감: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7일, 8월 30일 발행분은 8월 17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17일로 한다.
- 사. 게재최종결정: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20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2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20일로 한다.
- 아. 편집인쇄: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27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27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27일 이전에 완료한다.
- 자. 발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3회 발간한다.

9) 기타

저자명과 논문 제목은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원고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원고작성 요령

학회지의 원활한 편집과 출판을 위해서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꼭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글 워드는 한글 프로그램(2005 이상 권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중문 워드나 낮은 버전의 한글을 사용한 파일은 편집자 임의로 코드를 변환합니다. 이에 따르는 출력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 중문으로 작성한 원고의 경우 번체자 또는 간체자 출력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에는 일률적으로 간체자 출력을 합니다.
3. 논문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여백(F7)

위쪽 60		머리말 10	
왼쪽 50			오른쪽 50
제본 0			
아래쪽 60		꼬리말 0	

스타일(F6)

		본문	인용문	각주
문단 Alt+T	왼쪽여백	0	0	0
	오른쪽여백	0	2	0
	들여쓰기	10pt(韓) 20pt(中)	27pt	18pt
	줄간격	150	140	120
글자 Alt+L	대표한자	바탕 SimSun	바탕 SimSun	바탕 SimSun
	장평	95	95	95
	자간	-1	-1	-1
	글자크기	10	9	9

4. 전체제목, 장 제목, 절 제목, 이름 및 참고문헌 등 3번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의 양식은 편집부에서 일괄 조정합니다.
5. 논문 제출 시 논문의 영문제목과 본인의 영문이름,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한글에서 지원하지 않는 벽자나 기호, 사진 등은 본인이 직접 스캔하여 파일 안에 첨부하여 주시고 출력본 1부에 해당 부분을 붉은색 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7. 각주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행본의 배열순서: 저자 및 역자명, 《서명》(출판지, 출판사, 출판연월), 인용 쪽수. 예) 胡雲翼 저,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5쪽.
 - ② 논문의 배열순서: 논자명, <논문명>, 《논문집명》 권수: 호수(출판연월), 인용쪽수. (예)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23:4(2001.7), 44쪽.
8. 참고문헌의 처리는 각주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쪽수는 표기하지 않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행본: 胡雲翼 저,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 ② 논문: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23:4(2001.7)
9. 초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한글원고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중국어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10. 논문 제출자는 논문 제출과 동시에 심사료 3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조판비 15만원, 그 외에는 7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11. 논문 등재자가 받을 수 있는 별쇄본은 10부이며, 추가로 필요시 별도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2. 서명은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6, 3417), 논제, 작품명 및 편명은<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4, 3415), 중간점은·(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04)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위원회▷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09. 01

대한중국학회의 회원은 일체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다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표절의 금지)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나 의견을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 결과나 의견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부호나 인용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연속된 20음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 표현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제2조 (자기 복제의 금지)

1. 자기 복제라 함은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했던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축약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자기 복제로 규정한다.
4. 연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자는 주석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5.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자신의 단행본

에 수록할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연구 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6. 연구자가 국문으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7.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프로시딩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연구 자료의 변형, 조작 등 금지)

1.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하거나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연구 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 연구자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수행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기여의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열하되 가운데 점(·)으로 각 연구자를 구별한다.

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원회)

연구윤리 위원회는 본 대한중국학회의 학회지 《中國學》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편집이사, 학술이사를 포함,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 하되 전체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보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착수한다.

②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 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20% 이상을 본 학회 외부의 인원으로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

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시 기피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의결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3회

이상의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위원회는 대상 논문의 학술지 수록·출판을 막론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7.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14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5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

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 조사위원, 혹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중 혹은 조사 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연구윤리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年三刊 中國學 第47輯

2014년 4월 25일 인쇄
2014년 4월 30일 발행

編輯人：大韓中國學會
會 長：河 永 三
發行處：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 631-701)
慶星大學校 中國大學 內
TEL：051-663-4266
FAX：051-663-4265
E-mail：ysha@ks.ac.kr
印刷處：中文出版社 053-424-9977

ISSN 1229-9618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4>